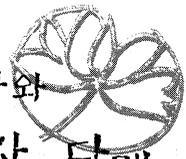


茶聖

초의선사와

대둔사의 다매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대둔사

|동양문화산책 17|

茶聖 초의선사와 대둔사의 다매

지은이 임혜봉

펴낸이 오정혜

펴낸곳 예문서원

편집 명지연, 조영미

인쇄 및 제작 상지사

초판 1쇄 2001년 11월 28일

주 소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 2동 764-1 송현빌딩 302호

출판등록 1993. 1. 7. 제5-343호

전화번호 925-5914 · 929-2284 / 팩시밀리 929-2285

Home page <http://www.yemoon.com>

E-mail [yemoonsw@unitel.co.kr](mailto:yemoonsw@unitel.co.kr)

ISBN 89-7646-144-4 03150

©Yim Hye Bong 2001 Printed in Seoul, Kore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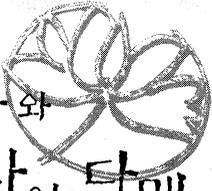
YEMOONSEWON 764-1 Yongdu 2-Dong, Dongdaemun-Gu Seoul KOREA 130-824

Tel) 02-925-5914, 02-929-2284 Fax) 02-929-2285

값 7,000원



茶聖 초의선사와  
대둔사의 다매



임혜봉 지음

李哲教 先生
2005.11.2
寄贈

예문서원

이 땅의 뜻 있는 이들은 민족 정신을 고양시키고 한국인다운 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차 문화를 부흥시키는 것이 그 첩경이라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여러 다인들의 노력과 성의로 1979년 1월 지금의 (사)한국차인연합회의 전신인 한국차인회가 결성되었고, 이어 1980년 봄에는 그 상징적인 작업의 일환으로 대둔사가 있는 두륜산頭輪山 중턱에 일지암이 복원되었다.

일찍이 차 연구가들이 지적하였듯이 조선 후기의 차 문화는 해남 대둔사(대홍사)를 중심으로 융성하였는데 그 중심에는 초의 선사가 있었다. 한국 차에 관심이 있는 이라면 익히 알고 있듯이, 초의 선사는 한국의 다경茶經이라 할 수 있는 『동다송東茶頌』을 저술하고 『다신전茶神傳』을 초록하였으며, 다산 정약용·추사 김정희와 같은 당대의 뛰어난 선비들과 교류하면서 차 만들기와 마시기 그리고 차 보급 등에 남다른 업적을 쌓은 인물이다.

이에 우리는 조선 후기 한국 차의 중흥조中興祖로서 초의 선사를 존승하는 것이다. 초의 선사의 생애와 사상, 시詩·서書·화畵·차茶에 관한 연구와 조명은 다각도로 이루어졌으며 그간 많은 자료집과 연구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또한 1997년 5월에는 문화체육부에서 주관하는 '이 달의 문화 인물'로 선정되어 우리나라의 '차茶 문화'를 중흥시킨 인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초의 선사에 관한 특별 강연과 연구 발표도 줄을 잇게 되었다.



한편 대둔사와 일지암이 소재한 해남에서는 선사의 기일忌日(음력 8월 2일)에 그 지역의 다인들이 모여 선사를 기리는 추모헌다례를 지냈는데 1992년부터는 ‘초의문화제’로 격상하여 해마다 선사를 기리고 있다.

또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점차 차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차를 마시는 인구와 다회茶會도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런 시류 속에서 초의 선사의 이름을 붙인 재단법인과 출판사, 심지어는 포교당까지 출현하였다. 아울러 해남 대둔사의 일지암은 한국차의 메카로 부상하였다.

다인들과 문화계의 초의 선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 및 다각적인 조명은, 선사가 차에 기울인 애정과 『동다송』으로 대표되는, 선사의 업적에 필적할 만한 일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응당 그러한 일과 연계되어 차의 연원과 그 흐름에 대한 연구도 변행되어야 마땅할 터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초의 선사에 관한 자료집과 연구물은 중첩되어 가히 붓물이 터진 듯한 사태를 이루면서도 상대적으로 대둔사의 음다풍飲茶楓과 그 역사적 관련 사항을 고찰하는 일에는 소홀하였다. 아니 소홀한 정도가 아니라 관심조차도 없는 상황이었다. 기껏해야 아암兒庵·다산茶山·추사秋史·범해梵海 등을 단편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따라서 초의 선사의 윗대와 후계자에 대한 연구가 단절되어 선사의 차에 관한 탁월한 업적조차 마치 평지 돌출과 같은 느낌을 주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현재 우리 나라 차 문화계의 현실임을 알게 된 필자는 초의 선사가 평지에서 불쑥 돌출하듯 차 문화를 융성시킨 것은 결코 아닐 것이라는 생각에서 우리 나라 고승들의 문집을 차근차근 열람하였는데, 대둔사의 음다풍이 서산 대사 이래 대둔사의 많은 고승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그들의 다시茶詩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사실 한 사찰의 다맥을 계통적으로 밝혀 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실제 '다맥'이란 어휘로 사찰의 차 문화를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일일 수 있다. 불교를 관통하는 선종禪宗의 법맥法脈과 교종敎宗의 강맥講脈을 체계적으로 밝혀내는 일 또한 몹시 어려운 일인데 대둔사의 다맥을 계통화하여 기록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기도 하려니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필자는 대둔사의 다맥을 확인하고자 금년(2001년) 1월 17일 범어사 산내 암자인 미륵암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백운白雲 스님은 '초의의순草衣意恂—여암선기怨庵善機—쌍수일한雙修—관—응송영희應松暎熙'로 차의 맥이 이어져 왔다고 말하면서 이 계보를 손수 써 주기까지 하였다. 필자는 백운 스님이 써 준 다맥을 그대로 필자의 논문 「대둔사의 다맥」(『茶文化研究誌』 제10호, 2001. 2)에 게재하였고, 승단 일각에서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본문에서 자세히 논할 것인데, 요약해 말하자면 응송 스님의 법계法系는 정연하게 이어지지 않았다는 게 중론으로 실제로 사후법계死後法系 또는 위패상좌 형식의 무리한 법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백운 스님이 써 준 것과 같은 법맥이나 다맥이 정녕 존재했는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초의 선사에서 응송으로 이어지는 법맥을 포함하여 이 책에서 말하는 다맥茶脈이란, 사자상승師資相承하는 법맥이나 선맥을 일컫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단지 대둔사의 음다풍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는 의미에서 다맥茶脈이란 용어를 쓴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필자가 「대둔사의 다매」이란 제목의 논문을 쓴 것은 한국의 차에 대한 일본인들의 망발妄發이 그 한 이유가 되었다. 다른 연구자들이 이미 지적하였듯이 일본인들은 조선 시대 이래로 한국의 다도는 단절되었다고 말해왔다. 제6대 조선 총독을 역임한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는 모로오카 다모쓰(諸岡存)와 이에이리 가즈오(家入一雄)가 공저한 『조선의 차茶와 선禪』(도쿄: 茶道社, 1940)이라는 책의 머리말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예로부터 조선인은 차를 즐겼다. 차 마시는 습관이 단절된 것은 조선 시대부터이다.

또한 상공대신 출신의 후지와라 긴지로(藤原銀次郎)는 같은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날, 홍아興亞라는 큰 사업으로 보더라도 차라는 음료는 매우 중요하다. 중국, 만주, 몽고 주민의 대부분은 하루라도 차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국민이다. 그럼에도 조선에 자못 좋은 종류의 자생차가 있다는 사실을 등한히 했었다.

후지와라는 조선에 좋은 자생차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국익 차원에서 외국에 수출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언급한 것이지 조선 고유의 차와 전통적인 다례茶禮를 존중하여 말한 것은 아니다.

한국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 비교적 이해가 깊었던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도 『조선도자호서朝鮮陶磁號序』에서 “조선에는 일본과 같이 도자기를 애완하는 풍습은 없다. 수집가도 없고 또 다례와 같은 것도 없다”고 하였다.

이들 세 사람보다 더 심한 말을 한 사람이 아사미 린타로(淺見倫太郎)이다. 그는 『조선고서해제朝鮮古書解題』에서 “조선에는 차가 없다”고 까지 말한 바 있다.

필자는 일본인들의 한국 차에 관한 이러한 인식과 시각을 수긍할 수 없

었다.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이 땅의 음다풍은 고려에 못지 않았다. 그러다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은 임진왜란과 그 38년 뒤에 일어난 병자호란으로 나라가 초토화된 데 그 이유가 있다. 한마디로 조선의 음다풍을 약화시킨 원흉은 일본과 청나라였다.

그럼에도 조선의 차는 선비의 사찰의 스님들을 중심으로 면면히 이어져 왔다. 필자는 조선의 차가 단절되지 않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선결 작업의 하나로 대둔사 고승들이 남긴 다시茶詩를 중심으로 음다풍이 계승되어 왔음을 논증한 것이다.

광복이 된 지 반세기가 지났건만 일본인들의 망언은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다. 이로써 보건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조선 차를 어떠한 시각에서 논하였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 대한 한국인들의 역사 인식과 감정은 선린우호 따위의 외교적인 언사言辭에 의해 덮여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필자는 비록 치의縑衣를 걸친 자이지만 친일親日과 반일反日을 넘어서 극일克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필자가 한국 불교 근현대사를 공부할 때에도 친일과 항일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물을 내었고, 그러한 필자의 전력이 연장되어 이 책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한국 다도학계의 선학先學 김명배金明培 씨는 왜색 다도와 교조주의적인 사이비 다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 그의 견해에 필자는 전폭적으로 동의한다. 필자는 앞으로 왜색 다도를 몰아내고 일본인들의 한국 차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교정하여 한국 다도학의 발전과 심화를 위해 나름대로 정성을 기울여 볼 생각이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많은 시간과 열성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차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논문 「대둔사의 다맥」을 『다문화연구지』 제10권에 수록하여 이 책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한국다문화연구소에 사의를 표한다. 또한 필

자의 제의를 기꺼이 수용하여 이 책 『茶聖 초의 선사와 대둔사의 다매』을 만들어 주신 예문서원의 오정혜 사장님과 기획위원 홍원식 님, 그리고 편집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대둔사의 다매」을 쓰는 동안 여러 모로 배려해 준 제주도 약천사의 성공性空 주지 스님과 다솜산방 및 다연茶緣의 차벗들, 그리고 설봉산의 지족행 보살과 주위의 여러 지기知己들께 진실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다.

불기 2545년(2001) 11월 17일

설봉산 지족암에서 우곡愚谷 혜봉慧峰 씀

# 茶聖 초의선사와 대둔사의 다매



시작하는 말 · 4

## 1장 대둔사와 차

1. 대둔사의 다매 · 14
2. 대둔사의 다승 · 18
  1. 개관 · 18
  2. 우리나라 차의 증홍조 초의 선사 · 20

## 2장 대둔사 다승들의 생애와 다시

1. 청허휴정 · 26
2. 월저도안 · 37
3. 설암추봉 · 39
4. 환성지안 · 47
5. 상월새봉 · 49
6. 함월해원 · 51
7. 연담유일 · 55
8. 아암혜장 · 61
9. 초의의순 · 73
10. 철선해죽 · 128
11. 범해각안 · 132
12. 보제심여 · 147
13. 금명보정 · 150

### 3장 광복 후 대둔사의 다맥

1. 일제 강점기의 대둔사 · 162
2. 초의 선사의 차 정신 계승과 일지암 복원 · 169
  1. 일지암 복원 · 170
  2. 한국차인회 출범과 복원 공사의 진전 · 176
  3. 복원 이후 일지암의 주지 스님 · 181
3. 응송 박영희 스님의 생애와 다맥 · 184
4. 초의문화제 · 196

### 4장 대둔사의 고승과 가람 기행

1. 다맥의 터전 · 208
  1. 대둔사 · 208
  2. 표충사 · 216
  3. 대광명전 · 217
  4. 부도와 비 · 219
2. 대둔사의 고승들 · 220
  1. 13대종사 · 220
  2. 13대강사 · 225
3. 유물과 지정 문화재 · 231
  1. 표충사의 유물 · 231
  2. 지정 문화재 현황 · 233
4. 결어 · 234

### 四、和氏璧的真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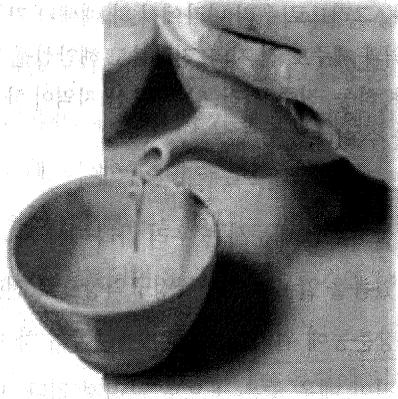
和氏璧的真相，在历史上一直是一个谜。有人认为是玉，有人认为是石，有人认为是玻璃。直到今天，人们才逐渐揭开了它的真相。原来，和氏璧并不是什么稀世珍宝，而是一块普通的玉石。它的价值之所以如此之高，完全是因为它的发现和流传的经过。这块玉石的发现者是一个叫卞和的人，他因为这块玉石而被楚王砍去了双脚。这个故事在历史上广为流传，成为了一个著名的典故。直到今天，人们仍然对这块玉石的真相感到好奇。

### 五、和氏璧的真相

和氏璧的真相，在历史上一直是一个谜。有人认为是玉，有人认为是石，有人认为是玻璃。直到今天，人们才逐渐揭开了它的真相。原来，和氏璧并不是什么稀世珍宝，而是一块普通的玉石。它的价值之所以如此之高，完全是因为它的发现和流传的经过。这块玉石的发现者是一个叫卞和的人，他因为这块玉石而被楚王砍去了双脚。这个故事在历史上广为流传，成为了一个著名的典故。直到今天，人们仍然对这块玉石的真相感到好奇。

1장

대둔사와 차



## 1. 대둔사의 다맥

차나무가 자라는 북방 한계는 북위 42도 소련의 그루지야(Gruziya)에서 북위 29도 남아프리카까지이다.<sup>1)</sup> 그러나 우리 나라는 대륙성 기후로 인해 겨울에 혹한이 심하고 일교차 또한 커서 자연적인 상태에서 차나무가 자랄 수 있는 북방 한계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은 북위 33~35도 정도이다.<sup>2)</sup>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차나무 재배는 35도 35분 선 이남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면 알 수 있다.

현재 야생하거나 재배되고 있는 차밭의 위치를 보면 서해안의 변산반도, 김제 금산사金山寺, 옹포면 옹포리 봉화산 임해사 터가 최고 상한선이고 내륙으로는 정읍 내장사內藏寺, 구례 화엄사華嚴寺, 함양이 상한선이며 동해안으로는 울산시 다운동茶雲洞 다전茶田 마을이 최고 한계선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차 재배가 가능한 지역은 전라남도 전 지역과 제주도 전 지역, 전라북도 해안선을 낀 일부 지역과 경상남도 함양, 하동, 진주, 사천, 양산, 울산 지역이 차 재배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sup>3)</sup>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둔사는 우리나라에서 차나무 재배가 가능한 범위 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정구역상으로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장춘동에 위치한 대둔사는 한국의 차 야생지 가운데 기후와 토양 조건이 매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대둔사가 있는 해남 땅은, 서기 1530년에 증보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조선

1) 鄭英善, 『한국茶文化』(너럭바위, 1998), 38쪽.

2) 같은 책, 41쪽.

3) 석용운, 『韓國茶藝』(도서출판 초의, 1998), 29쪽.



▲ 차나무와 차열매

중기의 학자 어숙권魚叔權(1506~1544)이 쓴 『고사촬요攷事撮要』에 차 산지로 명기되어 있다. 또한 『여지도서輿地圖書』(1770년 출간)와 『고사신서攷事新書』(1771년 출간)에도 분명하게 해남 땅이 차 산지로 기록되어 있다. 차 산지로서의 해남 땅의 이러한 상황은 근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 석용운釋龍雲 스님이 쓴 『한국다예韓國茶藝』에는 차나무가 분포된 지역의 수를 나타낸 표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해남군에는 17개소에 차나무가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 이 책에는 차나무가 분포되어 있는 곳의 면면, 리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sup>4)</sup> 물론 여기에 대둔사와 일지암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다.

대둔사의 차가 지리지地理誌가 아닌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청허휴정淸虛休靜(1520~1604) 스님이 쓴 『청허당집淸虛堂集』<sup>5)</sup>이다. 여기서 잠깐 청허 스님과 대둔사의 깊은 숙연宿緣을 살펴보도록 하

4) 석용운, 같은 책, 35쪽 및 38~39쪽.

5) 『한국불교전서』 제7책(동국대학교 출판부, 1986).



▲ 두륜산 대둔사 일주문. 현판에는 아직도 일제 강점기 때의 절 이름 그대로 대흥사라 써어 있다.

졌다. 1605년 1월, 청허 스님은 묘향산 원적암에서 입적을 앞두고 제자 사명유정泗溟惟政과 뇌묵처영雷默處英 스님에게 자신의 의발衣鉢을 대둔사가 소재한 두륜산頭輪山에 둘 것을 유언하였다. 필자는 청허 스님이 대둔사에 주석住錫한 시기를 알고자 스님의 문집과 여러 문헌을 열람했으나 명확한 주석 시기는 밝혀 낼 수 없었다. 청허 스님이 입적한 후 1788년(정조 12)에 대둔사의 계홍戒洪과 천묵天默 스님이 글을 올려 임금에게 탄원하였다. 청허 스님의 유품이 보관되어 있는 대둔사에 스님의 충의忠義를 기릴 수 있는 사당을 세워 달라는 요지였다. 이에 임금은 '표충表忠'이라는 편액을 하사하는 한편 사당을 건립하여 청허 스님과 더불어 사명과 뇌묵 스님을 좌우에 배향配享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이듬해(1789년) 4월 위령제慰靈祭를

봉행했으며 조정에서는 예조정랑禮曹正郎 정기환鄭基煥을 보내 제향祭享에 참석토록 하였다. 한편 홍문관 수찬修撰 송익효宋翼孝가 지은 제문祭文에는 “머물던 옛 절(故境) 웅대한 사당祠堂 지어”라는 구절이 있다.<sup>6)</sup> 여기서 말하는 ‘고경故境’이란 청허 스님이 머물렀던 대둔사를 이른다. 이로 미루어 보아 청허 스님이 대둔사에 주석한 일은 사실로 입증되었지만 스님이 머문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청허 스님의 유언대로 스님의 금란가사錦爛袈裟와 발우鉢盂는 대둔사에 봉안되었다. 그리고 대둔사의 표충사에는 청허 스님의 금란가사를 비롯하여 옥발玉鉢 3개와 수저·신발·염주, 그리고 청허 스님에게 내린 왕(선조, 정조)의 교지教旨 2매와 스님의 친필 「사가록정선四家錄精選」 등이 보관, 전시되었다. 그런데 성보박물관이 지어짐에 따라 이 유물들은 그 박물관으로 옮겨져 보관되고 있다.

한편 청허 스님은 다시茶詩 9편과 차를 언급한 서신 1편을 남겼다. 청허 스님이 차를 마시고 음다풍飲茶風을 익힌 것은 스님이 지리산의 여러 사찰과 대둔사에 머물렀을 때로 추측된다. 청허 스님이 대둔사에 주석할 당시 해남 두류산에서 ‘차茶’가 재배되고 있었으므로 대둔사에서는 차를 만들어 마시는 음다풍이 일상적으로 행해졌을 것이다. 이는 청허 스님 이래 대둔사에 주석한 고승과 석덕碩德들이 남긴 다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어쨌든 대둔사에 머물게 된 것을 계기로 청허 스님은 차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대둔사의 다풍茶風을 다시로 남겼다.

이제 다시를 남긴 고승들의 생애와 차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6) 梵海覺岸 撰, 金侖世 譯, 『淸虛尊者』, 『東師列傳』(광제원, 1991), 141~142쪽.

## 2. 대둔사의 다승

### 1. 개관

청허휴정 스님의 의발이 전해지면서 대둔사는 명실공히 선禪과 교敎의 대도량이 되었다. 특히 청허 스님의 제자들 중에서 대둔사의 13대종사大宗師와 13대강사大講師가 배출된 것은 한국 불교사에 있어서도 뜻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청허 스님이 다시茶詩를 남긴 이래 대둔사의 13대종사 가운데 7명이, 13대강사 가운데 2명이 다시를 남겼다. 즉, 13대종사 가운데 3대 월저도안月渚道安(1638~1715) 대종사가 1편, 5대 설암추봉雪巖秋鵬(1651~1706) 대종사가 10편, 6대 환성지안喚惺志安(1664~1729) 대종사와 9대 상월새봉霜月璽筭(1687~1767) 대종사가 각각 1편, 11대 함월해원涵月海源(1691~1770) 대종사가 4편, 12대 연담유일蓮潭有一(1720~1799) 대종사가 5편을 남겼으며, 13대 초의의순艸衣意恂(1786~1866) 대종사가 25편 29수 외에 『동다송東茶頌』과 『다신전茶神傳』 그리고 차와 관련된 산문 2편을 남겼다. 또한 13대강사 가운데에는 12대 아암혜장兒庵惠藏(1772~1811) 대강사가 5편 8수, 13대 범해각안梵海覺岸(1820~1896) 대강사가 29편의 다시 외에 차와 관련된 산문 1편을 남겼다.

대둔사의 13대종사나 13대강사는 아니지만 다시를 남긴 대둔사의 스님이 있는데, 초의 선사보다 5세 아래인 철선혜즙鐵船惠楫(1791~1858) 스님이 3편, 대둔사에서 출가하여 초의 선사에게 보살계菩薩戒를 받은 보제심여菩濟心如(1828~1875) 스님이 2편, 한말에서 일제강점기에 걸쳐 송광사와 대둔사에서 활동한 금명보정錦溟寶鼎(1861~1930) 스님이 60여 편<sup>7)</sup>을 남겼다.



▲ 성보박물관에 소장된 대둔사 역대 고승들의 진영

이들 스님 외에 일제 강점기에 대둔사(대홍사)에서 출가하여 오랫동안 주지를 역임하며 차 보급에 앞장선 응송應松 박영희朴映熙(1892~1990) 스님이 차에 관한 저술<sup>7)</sup>을 펴내기도 하였다. 아울러 다시나 차에 관한 저술은 없지만 초의 선사의 법과 다맥茶脈을 이은 이로 서암선기恕庵善機(1812~1876) 스님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허유許維(1809~1892, 호는 小痴)가 쓴 『몽연록夢緣錄』의 기록과 현재(2001년 3월) 범어사 미륵암에 주석하고 있는 청량백운淸涼白雲(1934~) 스님의 증언을 들 수 있다.

7) 금명 스님의 시집 『茶松詩稿』(『한국불교전서』 제12책, 동국대학교 출판부, 1996), 574~676쪽에는 茶詩 60여 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어떤 이는 98편 즉 약 100편의 茶詩가 있다고 하는 바, 이는 추후 더욱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한다.

8) 박영희, 『東茶正統考』(호영출판사, 1985).



▲ 초의 선사 동상

## 2. 우리나라 차의 증흥조 초의 선사

초의 선사는 조선 후기 최고의 다인茶人으로서 우리나라 차의 증흥조重興祖라 불리는 인물이다. 이처럼 초의 선사가 우리나라의 차를 융성, 발전시킨 증흥조로 불리는 이유에 대해 필자는 다음 세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초의 선사는 올바른 제다법製茶法과 깍다법喫茶法을 손수 익혀 미련하고 우둔한 속수俗手들에 의해 허물어진 우리나라 다풍茶風을 정립하였다. 초의 선사는 『동다송』에서 올바른 제다법과 깍다법을 서술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응송 박영희 스님이 자신의 저서

『동다정통고東茶正統考』에서 언급한 바 있다. 참고로 말하면, 응송 스님은 일제 시대에 대둔사에서 출가하여 1937년부터 1954년의 정화 운동 때까지 대둔사의 주지를 역임하면서 일제하의 대둔사 음다풍을 유지하고 확산시킨 인물이다.

남쪽 고사찰古寺刹에서는 차나무가 없는 곳이 없다. 그러나 차나무가 산재해 있는 각 사찰에서는 깍다법과 제다법이 약간 전수되어 있었으나 대부분 일종의 다갱茶羹으로 탕음湯飲하였다.”

응송 스님의 이 말은 스님이 주석하던 대둔사의 음다풍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초의 선사 이전 또는 초의 선사 당시의 지리산 칠불선원 납자(선승)들의 차 마시는 방법을 언급한 것으로서, 바로 초의 선사의 『동다송』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기도 하다.

차를 나물국처럼 끓여 탕음湯飲한 당시의 어리석은 음다풍을 거론한 『동다송』의 내용을 직접 살펴보자. 이 책에서 초의 선사는 ‘차의 아홉 가지 어려움과 네 가지 향기’를 열거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리산 화개동에는 차나무가 40, 50리에 걸쳐 널리 자라고 있는데, 우리 나라 차밭 중에서 이보다 큰 것은 없다. 계곡에는 옥부대가 있고 누대 아래로는 칠불선원이 있다. 좌선하는 사람들은 항상 느지막이 오래된 찻잎을 따서 햇빛에 말린 후 땀나물을 지퍼 술에 넣어 끓이는데, 마치 나물국을 끓이는 것과 같아서 빛깔도 짙고 탁한 붉은 빛을 띠며 맛도 몹시 쓰고 떼떵름하다. 이는 바로 “천하의 좋은 차가 속된 습씨로 못쓰게 되는 것이 많다”고 하는 바이다.<sup>9)</sup>

9) 박영희, 같은 책, 18쪽.

10) 草衣意恂, 정영선 편역, 『동다송』(『한국의 다서』 4, 너럭바위, 1999), 63쪽.

이에 관해서는 한영정호漢永鼎鎬(1870~1948) 스님도 「옥보대玉寶臺 아래 다풍茶風이 크게 무너지다」라는 제목의 다른茶論에서 역시 『동다송』을 인용하여 차잎을 나물국 끓이듯 하는 행태에 대해 개탄하였다. 한영 스님은 다음과 말하였다.

지리산은 차의 산지인데 오직 화개동만 산의 서남쪽으로 수백의 땅에 차가 나지 않는 곳이 없다. 약양면岳陽面 화개면花開面 와룡면臥龍面 등이 비록 거친 농촌이지만 차를 끓여 아침저녁으로 식사 후에 늘 마시지 않는 집이 없다. 이곳 사람들은 차를 탕약湯藥으로 알고 겨울에 감기가 걸렸을 때 땀을 내는 약으로 사용한다. 다풍茶風이 크게 무너진 것이다. 어찌 다법茶法을 논하리오.<sup>11)</sup>

한영 스님은 지리산 서남쪽 화개동 사람들이 차 본래의 색·향·맛을 음미할 줄 모르고 기껏해야 감기약 정도로 여기고 탕약으로 복용하는 것을 보고 다풍이 무너졌다고 한 것이다.

초의 선사를 한국차의 증흥조라 일컫는 것은 이렇게 무너진 다풍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앞장섰으며, 또한 그러한 활동을 평생 동안 실천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둘째, 초의 선사는 직접 차나무를 돌보고 기르며 차를 법제法製하여 다도를 생활 속에 구현함으로써 대둔사의 음다풍을 유지하고 확산·계승시켰다. 이는 초의 선사와 동시대인으로 5세 아래인 철선 스님이 3편의 다시를, 초의 선사에게 비구계와 보살계를 받은 범해 스님이 29편의 다시와 「다약설」이라는 차에 관한 산문을, 그리고 철선 스님의 법을 잇고 초의 선사에게 보살계를 받은 보제 스님이 2편

11) 石顛映湖, 『石顛文鈔』(法寶院, 1962), 25쪽.

의 다시를 남겼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초의 선사를 제외한 철선, 범해, 보제 스님은 대둔사에서 출가했는데, 이들 스님은 수계受戒와 범백상 초의 선사와 직·간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 즉 스님들은 모두 초의 선사의 제다법과 각다법을 충실히 따르는 한편 다시를 써서 다맥을 이은 사실을 문헌상에 남김으로써 초의 선사가 대둔사의 음다풍을 진작·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임을 실질적으로 입증하였다.

셋째, 초의 선사는 중국의 육우陸羽가 쓴 『다경茶經』과 장원張源이 쓴 『다록茶錄』을 원본으로 한 『만보전서萬寶全書』와 전의리全義李가 저술한 『동다기東茶記』 등을 참고하여 차를 연구, 보급하면서 『동다송』, 『다신전』 등을 집필했을 뿐 아니라 수 편의 다시를 썼는데 당시 사대부들과의 교류를 통해 이를 세간에 유포시킴으로써 이 땅에 다풍茶風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어떤 사람이 어느 한 분야에 대한 조예가 깊다 하더라도 그것을 글로 남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뛰어난 면을 계승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초의 선사는 차와 선禪 그리고 그림 등의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으며 시문을 짓는 능력도 탁월하여 후인들이 그의 업적을 연구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였다.

이제, 청허 스님 이후 금명 스님에 이르기까지 고승 13명의 시문 집과 저술을 중심으로 그들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차와 관련된 다연茶緣 및 그들의 다시를 소개하겠다.



## 2장

# 대둔사 다승들의 생애와 다시



## 1. 청허휴정

대둔사의 차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제일 먼저 거론해야 할 인물이 청허휴정淸虛休靜(1520~1604) 스님이다. 청허 스님으로 인해 대둔사가 중흥되어 이후 대둔사는 선교의 대도량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청허 스님은 9편의 다시를 남겼는데, 대둔사의 다맥을 제일 먼저 다 시로 읊은 다연을 갖고 있다. 범해 스님이 쓴 『동사열전東師列傳』의 「청허존자淸虛尊者」 편을 통해 청허 스님의 생애를 살펴보도록 하자.

청허 스님의 자字는 현응玄應, 속성은 완산完山 최崔씨이며 부친의 이름은 세창世昌이다. 모친은 한남漢南 김金씨이다. 청허 스님의 부친은 30세 때 천거로 기자묘箕子廟의 조그만 관작(參奉)에 임명되었으며, 고을 관리(鄕官)로 일한 13년 동안 지역 주민들로부터 ‘덕로德老’라는 별호로 불리었다고 한다.

청허 스님의 모친은 50세에 가까운 나이에 길몽을 꾸고 1520년 3월 기골이 흰칠한 사내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가 곧 청허 스님이다. 노부부는 크게 기뻐하며 “늙은 조개에서 진주가 나오니 하늘의 뜻이로다”라고 하였다. 아이가 3세 되던 해의 4월 초파일에 부친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한 노인이 찾아와 “아기 스님(小沙門)을 뵈러 왔습니다”라고 하였다. 아이를 본 노인은 고대 인도어와 같은 주문을 외우며 “이 아기의 이름을 운학雲鶴이라 하고 소중히 기르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부친은 아이의 아명을 운학이라 하였다. 운학은 자라면서 모래로 탑을 쌓고 절을 짓는 놀이를 즐겨 하였다.

운학의 나이 9세 때 모친이 세상을 떠났고, 다음해에는 부친마저 세상을 떠났다. 당시 안주목사安州牧使로 와 있던 이사증李思曾이

운학의 소문을 듣고 그를 불러 재주를 시험하였다. 이시증이 운韻을 대자 운학이 즉석에서 “향기 어린 높은 누각에 해가 비긴다”(香凝高閣日初斜)고 응대하였다. 운학의 비상한 재주에 감복한 이시증은 운학을 양아들로 삼아 서울로 데려가 성균관에 입학시켰다. 이에 운학은 성균관에서 3년간 글과 무예를 익혔다. 이후 과거를 보았으나 낙방한 운학은 친구들과 함께 호남 지방으로 내려가 지리산 화엄동華嚴洞, 칠불암七佛庵 등을 둘러보며 암자에 머물렀다. 그러다 운학은 작은 암자에서 승인崇仁 노숙을 만나 불교 경전을 공부하게 되었고, 승인 노숙이 소개해 준 부용영관芙蓉靈觀 대사의 설법을 듣고 마침내 그의 제자가 되었다.

불문에 귀의하게 된 청허 스님은 불교 내전을 익히고 선 수행에 몰두하였다. 운수행각 중에 남원의 별마을(星村)을 지나게 된 청허 스님은 한낮의 닭 우는 소리에 자신의 진면목을 깨닫고 연거푸 두 수의 오도송을 읊었다고 한다. 그후 청허 스님은 오대산과 금강산 등지를 유력遊歷하였다. 청허 스님은 나이 30세(1550)에 승과僧科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고 대선大禪을 거쳐 선교양종판사禪敎兩宗判事 자리에까지 올랐다. 청허 스님은 6, 7년간 판사직을 역임한 후 37세 때 사직하고, 금강산·태백산·묘향산 등지를 행각했는데 후학을 만나게 되면 친절히 가르침을 베풀었다고 한다.

1589년(선조 22) 정여립鄭汝立의 역모에 가담한 요승 무업無業의 무고로 청허 스님은 관가에 잡혀갔으나 무혐의로 풀려났고, 선조는 청허 스님에게 손수 그린 묵죽墨竹 한 폭을 하사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는 청허 스님에게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청허 스님은 각 사찰에 격문을 돌려 제자들에게 쫓기할 것을

전하였다. 이에 청허 스님의 제자 사명泗溟과 처영處英이 각기 금강산과 지리산에서 일어나 의승군義僧軍을 이끌고 구국항쟁에 나섰다. 청허 스님도 직접 문도 1500여 명 등 모두 5000명의 승군을 이끌고 평양 탈환 전투에 참가하여 큰공을 세웠다. 마침내 선조는 청허 스님에게 팔도선교도총섭八道禪敎都摠攝이란 최고의 승직을 내렸다. 그러나 이미 70세의 고령이었던 청허 스님은 그 직책을 제자 사명에게 물려주고 묘향산으로 돌아가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였다. 그러자 선조는 묘향산으로 돌아가는 청허 스님에게 국일도대선사선교도총섭부종수교보제등계존자國一都大禪師禪敎都摠攝扶宗樹敎普濟登階尊者라는 최고의 존칭과 함께 정2품의 당상관 직위를 하사하여 스님의 공을 치하하였다. 묘향산으로 돌아온 청허 스님은 유유자적한 본래의 한도인閑道人이 되었다. 1604년(선조 37) 1월 23일, 청허 스님은 원적암圓寂庵에서 마지막 설법을 하고 자신의 영정影幀에 임중계를 썼다.

80년 전에는 저것이 나이더니,

八十年前渠是我,

80년 뒤에는 내가 저것이구나.

八十年後我是渠.

청허 스님은 사명과 처영에게 보내는 글을 남긴 후 가부좌한 채 입적하니 세수世壽 85세, 법랍 67년이였다. 청허 스님의 저술로는 「선가귀감禪家龜鑑」, 「선교석禪敎釋」, 「선교결禪敎訣」, 그리고 승려들의 의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산단의문諸山壇儀文』 등이 있다. 또한 시문을 모아 놓은 『청허당집淸虛堂集』을 남겼는데, 여기에 9편의 다시가 수록되어 있다.



### 천옥선자 天玉禪子

낮이면 한 잔의 차요  
밤들면 한바탕의 잠일세.  
청산과 백운<sup>1)</sup>이  
함께 무생無生을 이야기하네.

晝來一椀茶 夜來一場睡  
靑山與白雲 共說無生事

- 1) 청산靑山과 백운白雲: '청산'은 그 절에 상주하는 스님 즉 주인을 말하며, '백운'은 객승 또는 손님을 지칭한다.

[해설] 청허 스님이 차를 마시고 음다풍을 익힌 것은 대둔사와 지리산의 여러 사찰(내은적암·황령암·능인암·칠불암)에 머물던 30, 40대 때인 것으로 추정된다. 청허 스님의 다시 중 가장 널리 아낌을 받는 작품이 바로 위의 시이다.

## 도운선자 道雲禪子

납자<sup>ㄴ</sup>가 한평생 하는 일이란  
차를 달여 조주趙州에게 올리는 것.  
마음은 재가 되고 머리 이미 희었나니  
어찌 다시 남주南州를 생각하리오.

衲子一生業 烹茶獻趙州  
心灰髮已雪 安得念南州

1) 납자衲子: 납의衲衣를 입은 사람이란 뜻으로 '스님' 을 일컫는 말이다.

[해설] 칭허 스님에게 있어 '차' 는, 선禪으로 통하는 다선일미茶禪一味의 일생을 살아야 하는 선승의 본분사本分事였다. 이 시의 결구結句에 나오는 '남주南州' 는 불교 우주관에서 말하는 염부제閻浮提를 뜻한다. 수미산須彌山の 남쪽에 있다고 하여 '남주' 라고 칭하는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부처님이 탄생한 곳을 가리키고 또한 윤회하는 인간 세상을 뜻하기도 한다. 위의 시에서는 선 수행을 잘해 다시는 윤회하는 육도六道의 하나인 인간계에 태어나지 말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우연히 읊다 (偶吟)

송탑松榻에 비 듣는 소리나고  
옆 사람은 지는 매화를 아쉬워하네.  
한바탕의 봄꿈이 끝나니  
시자<sup>ㄴ</sup>가 차를 달여 오누나.

松榻鳴山雨 傍人詠落梅  
一場春夢罷 侍者點茶來

1) 시자侍者: 큰스님을 곁에서 모시며 잔심부름을 하는 어린 사미승 또는 젊은 스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해설] 산사山寺에 봄비가 내린다. 산에 내리는 봄비는 송풍松風이 되어 산골짜기를 울리고 어떤 이는 지는 매화를 아쉬워한다. 비 내리는 봄날, 청허스님이 한바탕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 시자侍者가 차를 달여 내왔다.

### 윤방백의 시운을 따라 짓다 (次尹方伯韻)

상국相國<sup>1)</sup>이 지은 시 한번 읊으니  
비린鄙吝<sup>2)</sup>한 마음 얼음 녹듯 하여라.  
하물며 고아한 기품 마주하여  
소나무 아래 바위에 앉아 차를 달임에라.

一吟相國詩 鄙吝如水釋  
何況對高標 煮茶松下石

- 1) 상국相國: 조선 시대에 영의정·우의정·좌의정을 아울러 이르던 말이다.
- 2) 비린鄙吝: 마음이 고상하지 못함.

[해설] 이 시제에 나오는 윤방백尹方伯은 윤尹씨 성을 가진 관찰사觀察使를 가리키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는 알 수 없다. 임진왜란 당시 청허스님은 승군총대장이었으므로 스님과 만났던 조정의 관리로 추측될 뿐이다. 관찰사는 문관 중2품 벼슬의 각 도의 지방장관이었으며, 오늘날의 도지사에 해당한다. 시의 내용으로 볼 때 청허스님은 당시의 재상과 관찰사 등 고위 관료들과 소나무 아래에서 차를 마시며 시를 읊었던 모양이다.

## 산중사 山中辭

산인山人이 남으로 가니 백운산과 두류산이요

산인이 북으로 가니 묘향산과 풍악산이네.

한 사미는 차를 달여 오고

한 사미는 누더기를 빨아 주네.

山人之南兮白雲頭流 山人之北兮妙香楓嶽

一沙彌進茶

一沙彌洗衲

[해설] 제목에 나오는 '사辭'란 한문체의 하나로 소騷나 부賦와 비슷하며 흔히 운어韻語를 쓴다. 여기서 말하는 '산중사山中辭'란 '산중의 노래'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위의 시는 산천을 떠돌며 수행하는 스님들의 만행萬行을 노래한 것이다. 청허 스님과 같은 당대의 최고 고승이 산사에 들리면 사미승이 차를 달여 주고 빨래를 해주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런 승가僧家의 법도이다.

## 두류산의 내은적암 (頭流山內隱寂庵)

스님 대여섯 명이

내 암자 앞에 집을 지었네.

새벽 종 치면 함께 일어나고

저녁 북 울리면 같이 자네.

시냇물 속의 달을 함께 길어

차 달여 그 푸른 연기 나누네.

날마다 무슨 일 의논하는가 했더니

염불과 참선일세.

有僧五六輩 築室吾庵前  
晨鍾卽同起 暮鼓卽同眠

共汲一澗月 煮茶分青烟  
日日論何事 念佛及參禪

[해설] 두류산頭流山은 지리산의 다른 이름이다. 청허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지리산 은적암 앞에 스님들 대여섯 명이 모여 집을 지었다. 스님들은 함께 일어나고 함께 차를 달여 마시며 날마다 염불과 참선으로 하루를 보낸다. 스케 치북에 소요하듯 묘사된 스님들의 단순 소박한 생활과 수행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 향봉에 놀다 (遊香峰)

걷고 걷고 또 걸어  
층층層層한 벼랑 몇 겹이던고,  
동학洞壑에 흰 구름 일어나니  
문득 향로봉을 잃었네.

시냇물 길고 가을 잎 태워  
차 달여 한번 마시고,  
밤이 되어 바위 밑에 자니  
혼쾌은 비룡을 땀네.  
내일 아침 천하를 굽어보면  
모든 나라가 벌처럼 줄지어 있으리.

步步又步步 層崖幾重重  
白雲生洞壑 忽失香爐峰

汲澗燃秋葉 烹茶一納胸  
 夜來曇下睡 魂也御飛龍  
 明朝俯天下 萬國列如蜂

[해설] 향로봉香爐峰은 평안남도 영원군寧遠郡과 함경남도 정평군定平郡 사이에 있는 향로봉香爐峰(1600m)의 준말이다. 청허 스님은 묘향산에 오래 주석했던 만큼 묘향산에서 향로봉까지 걸어서 갔을 것이다. 스님은 낙엽을 태워 향로봉의 시냇물에서 길어 온 물을 끓여 차를 마셨다. 가을 산사의 정취가 오롯이 드러나 있는 다시이다.

### 백운자에게 - 떠나면서 찾아온 그에게 감사하며

(謝白雲子來訪戲別)

푸른 솔방울과 흰 돌로

눈썹이 긴 늙은이가 차를 달이네.

스님이 하룻밤 자고 이별을 고하니

맨 다리가 얼음 같구나.

넓은 하늘 끝이 없는데 구름은 유유하고

먼 산은 끝이 없어 층층이 푸르네.

靑松子白石 煮茶兮厯眉  
 僧一宿兮告別 赤脚兮如水  
 長天寥廓兮雲悠悠 遠山無限兮碧層層

[해설] 청송자靑松子란 솔방울을 가리키는데, 푸른 ‘靑靑’ 자를 쓴 것은 찾아온 나그네 스님을 가리키는 백운자白雲子와 대조되게 표현한 것이다. 솔방울로 차를 달였다는 구절로 보아 그 솔방울은 채 마르지 않은 과란 생솔방울이 아니라 바짝 마른 생솔방울임을 알 수 있다. 이 시에서 ‘눈썹이 긴 늙은이’란 떠나는 스님에게 차를 달여 주는 작시자作詩者, 즉 청허 스님 자신일 것이다. 끝없는 산, 유유한 구름 사이로 만행하며 떠나는 스님에게 차를 달여 주는 청허 스님의 은근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 행주선자에게 보이다 (示行珠禪子)

흰 구름은 옛 벗

밝은 달은 나의 삶.

칩칩 산중에서

사람을 만나면 차를 드리지.

白雲爲故舊 明月是生涯

萬壑千峰裏 逢人卽勸茶

[해설] 전체 3수 중 셋째 수이다. 위의 시의 “흰구름은 옛 벗, 밝은 달은 나의 삶”이라는 시구는 『동다송東茶頌』에서 초의 선사가 “오직 흰구름과 밝은 달만을 손님으로 맞이하니 도인의 찾자리 이것이 승勝의 경지라네”(惟許白雲明月爲二客, 道人座上此爲勝)라고 읊은 구절을 생각나게 한다.

(산문)

### 박좌상朴左相 순淳에게 드림

— 한 봉의 차와 쌍죽지雙竹枝를 주심에 감사하며

귀한 글월을 겸하여 운유雲腴와 옥지玉枝<sup>2)</sup>를 잘 받아 보았습니다. 이 두 물건은 각각 갈증을 그치게 하고 병든 몸을 의지하게 하는 것 인지라 감사한 마음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슬鶴膝과 용각龍角<sup>3)</sup>은 청려靑藜와 적등赤藤<sup>4)</sup>의 類가 아닙니다. 그 서리 같은 지조는 늠름하여 영상승相의 기풍을 생각나게 하고, 그 무쇠와 같은 절개는 갱갱鏗鏗하여 영상의 풍채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하 생략)

- 1) 운유雲腴와 옥지玉枝: ‘운유’는 차茶의 다른 이름이고, ‘옥지’는 귀중한 지팡이를 말한다.
- 2) 학슬鶴膝과 용각龍角: ‘학슬’은 학의 다리 모양으로 미끈한 대나무 지팡이, ‘용각’은 대나무의 뿌리가 위로 향한 대나무 지팡이를 뜻한다.
- 3) 청려靑藜와 적등赤藤: ‘청려’는 청려나무 지팡이, ‘적등’은 등나무에 기름을 먹여 빨갱게 된 지팡이를 뜻한다.
- 4) 갱갱鏗鏗: 금속처럼 굳고 굳다는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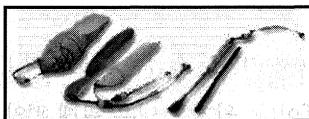
[해설] 이 서신은 청허 스님이 좌의정 박순林淳으로부터 한 봉지의 차와 지팡이(雙竹枝)를 받고 그 감사함을 표시한 것이다. 편지를 통해 청허 스님은 보내준 대나무 지팡이가 청려나무 지팡이나 등나무 지팡이보다 훨씬 좋으며, 차는 갈증을 그치게 한다면서 박순의 세심한 배려에 고마움을 나타내었다.

출전: 『淸虛集補遺』(『한국불교전서』 제7책,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6)  
『淸虛堂集』(『불교총서』 6, 동국역경원, 1993)

## 2. 월저도안

월저도안月渚道安(1638~1715) 스님은 대둔사의 13대종사 중 처음으로 다시를 남긴 인물이다. 월저 스님은 원래 평양 사람으로, 속성은 유瀏씨이며 9세에 출가해 천신天信 스님에게 구족계를 받았다. 이후 월저 스님은 대둔사의 제1대 대종사인 풍담의심楓潭義謙(1592~1667) 스님에게 20여 년을 수학하고 심법을 얻었다. 월저 스님은 1664년 묘향산에서 처음 교화教化했고, 편양鞭羊과 풍담 스님이 미처 이루지 못한 『화엄경』의 한글 풀이를 완성했으며, 『화엄경』·『법화경』 등 대승경전을 간행하고 유포하였다. 월저 스님이 강론할 때면 항상 청중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근세에 보기 드문 대법회를 이루곤 하였다. 이러한 명성을 시기한 자들에 의해 월저 스님은 한때 옥에 갇히기도 했으나 곧 석방되었다. 이후 임금이 월저 스님을 팔도선교도총섭으로 삼으려 했으나 스님은 사양하였다. 월저 스님은 1715년(숙종 41) 묘향산 진불암에서 입적하니, 세수 78세이며 법랍 68년이었다. 문도들은 다비하여 얻은 사리 3과를 묘향산 보현사 서록에 부도를 세워 봉안하였고, 청허 스님의 유포에 따라 대둔사에도 사리를 분장分藏하여 비碑와 부도를 세웠다. 월저 스님의 문도는 수백 명에 달했는데 특히 범명法明과 추봉秋鵬이 뛰어났다. 월저 스님의 저술로는 『월저당대사집月渚堂大師集』이 있는데, 여기에 다시茶詩 1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외에 「불조종파도佛祖宗派圖」 1첩이 전한다.<sup>1)</sup>

1) 李政, 『한국불교인명사전』(불교시대사, 1993).



## 또 8운을 따다 (又次八韻)

또한 보지 못했는가,  
 동해의 봉래산(금강산) 일만 이천 봉을.  
 흰 달이 시내에 비치고  
 솔바람이 옥거문고 소리를 내네.  
 배고프면 채식도 달게 삼키고  
 갈증나면 산차山茶를 마시네.

又不見 東海蓬萊山一萬二千峯  
 雪月瀉玉溪 風松奏瑤琴  
 草食飢來餐 山茶渴即斟

[해설] 원문에는 위의 시 바로 앞에 「동파뇌주東坡雷州의 8운을 따서 유거幽居하는 감회를 읊다(幽居雜詠次東坡雷州八韻)」란 제목의 시가 있다. 위의 시는 그 앞의 시에 이어 또다시 '동파뇌주'의 운을 따서 지은 8수 중 세번째 시에 해당한다. 그 내용은 금강산의 절경을 읊은 것인데, 금강산의 풍광風光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시인, 묵객, 시승詩僧들이 읊은 것이 많으므로 이에 필자가 덧붙일 것은 없다. 다만 그 기승한 경색景色 속에서 '배고프면 나물도 맛나게 먹고, 갈증나면 산차山茶를 마신' 월저 스님의 수행자다운 면모가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출전: 『月渚堂大師集』(『한국불교전서』 제9책,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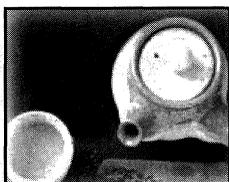
### 3. 설암추봉

설암추봉雪巖秋鵬(1651~1706) 스님은 조선 중기 대둔사의 유명한 13대종사 중 다섯 번째로 손꼽히는 고승이다. 설암 스님의 속성은 김금씨이며 평남 강동江東 출신이다. 설암 스님은 10세 때에 원주 범홍사 종안宗眼에게 출가하여 벽계구이碧溪九二 스님에게 경론을 배웠다. 또한 묘향산 보현사 월저도안月漣道安 스님에게 10여 년 간 수학하고 그 법을 이었다. 설암 스님은 선과 교에 통달했고 특히 시문을 잘했다. 한때는 총림에서 종사로 추앙받기도 하였다. 설암 스님이 남방의 여러 사찰을 순방巡訪할 때는 학인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대둔사에 전해오는 사중寺中 기록에 의하면 설암 스님이 화엄학을 강의하던 곳이 바로 대둔사 백설당白雪堂이었다고 한다. 설암 스님은 1707년(숙종 33) 57세의 나이로 입적하였다.<sup>2)</sup> 문도들은 다비하여 얻은 사리 5과를 낙안樂安(지금의 昇州)의 징광사澄光寺와 해남 대둔사에 탑을 세우고 나누어 봉안하였다. 설암 스님의 저술로는 『설암잡저雪巖雜著』 3권, 『설암선사난고雪巖禪師亂藁』 2권, 『선원제전집도서과평禪源諸詮集都序科評』, 『법집별행록절요사기』, 『묘향산지』 등이 있다.<sup>3)</sup> 이 중 『설암잡저』와 『설암선사난고』<sup>4)</sup>에 다시茶詩가 10편이 수록되어 있다.

2) 설암 스님의 입적 연대에 대해 『大屯寺誌』에 실려 있는 '碑銘'에는 숙종 33년(1707)으로 되어 있으며, 범해 스님이 편찬한 『東師列傳』에는 숙종 32년(1706)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의 '비명'의 기록을 따랐다.

3) 梵海覺岸, 『東師列傳』(광제원, 1991), 195~197쪽; 李德壽 撰, 『雪巖大宗師碑銘』, 『大屯寺誌』.

4) 『雪巖雜著』와 『雪巖禪師亂藁』는 『한국불교전서』 제9책(동국대학교 출판부, 1988), 236~342쪽에 수록되어 있다.



### 세상을 떠나 살다 (幽居)

세상을 떠나 사니 일이 없어 사람을 만나는 일도 드무네.

일어나 앉으면 오로지 성령을 기르는 데만 힘쓰네.

이슬 내린 가을날 숲을 헤쳐 과일을 따고

계수나무로 차 달이는데 저녁 연기 피어오르네.

幽居無事少逢迎 起坐偏宜養性靈

摘果穿林秋露滴 煉茶然桂暮烟生

[해설] 스님들이 사는 사찰과 암자는 대개 산 속에 있어 그 정취가 그윽하다. 요즘에는 대도시 한복판에도 절이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승유억불정책으로 대부분의 절이 산중에 위치하였다. 설암 스님은 교화와 선禪에 통달했는데, 이는 좌선하며 깨달음을 추구한 결과였다. 바로 그러한 스님의 일상 모습을 위의 시에서는 '일어나 앉으면 오로지 성령을 기르는 데만 힘쓰네' 라고 표현하고 있다. 아울러 스님의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차를 마시는 일이 었다.

## 안법사가 방문한 것을 감사드리며 (謝眼法師見訪)

꽃 피는 3월, 버들가지에도 봄이 오고  
새들이 맑은 소리로 미친 듯 울어대니 흥이 새롭다.  
멀리 떨어져 있는 손님이 와 현답<sup>1)</sup> 아래로 달려가니  
젊은 시절에 차 마시며 이야기하던 것을 회상하며 그리워하네.

烟花三月柳條春 鳥語清狂興更新  
遠別客來懸榻下 少時茶罷戀懷陳

1) 현답懸榻: 매달아 놓은 걸상. 손님을 후히 대접함을 이룸.

[해설] 설암 스님은 옛날 도반道伴이었던 안법사眼法師가 방문한 것을 고마워하며 젊은 시절에 차 마시며 이야기하던 것을 회상하며 그 시절을 그리워하였다. 꽃피고 새우는 3월의 봄날, 친한 옛 벗이 찾아온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 혜량에게 주다 (贈惠亮)

금승<sup>1)</sup> 한 길로 다닌 지 벌써 몇 년이며  
현기玄機를 헤아리는가, 후도생後道生아.  
산 밖에선 인간 세상의 변화를 알지 못하고  
배갯머리 가에서 시냇물 소리를 듣네.  
꽃 밟고 돌아오는 길, 봄 구름이 습하고  
계수나무로 차 달이는데 저녁 노을이 맑다.  
숲의 학과 야생 고라니가 서로 믿으니 이미 후덕한데  
붉은 문에 하필 수놓은 옷이 빛나겠는가?

金繩一路幾年行 點石玄機後道生  
 山外不知人世變 枕邊閑聽石泉鳴  
 踏花歸徑春雲濕 然桂烹茶暮靄清  
 林鶴野麋盟既厚 朱門何必繡衣榮

1) 금승金繩: 금빛 줄을 말하는데, 부처의 길이란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해설] 이 시의 첫째 행은 깨달음을 위한 수행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이는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바이기도 하다. 설암 스님은 깨달음을 위해 노력하고 때로는 차를 마시고 때로는 저녁 노을을 감상하는 승가僧家의 소박한 삶이 비단옷을 걸친 세상의 부귀공명보다 더 의미가 있다고 읊고 있다.

### 취율사의 시운을 따라 짓다 (次翠律師韻)

이번 생애에 지은 것은 하나의 적요寂寥한 세계이니  
 꽃마을 술집 가에서 찬 꿈을 꾸고  
 한가로이 계수나무 앞을 태워 끓이는 화로를 잡고  
 경외소驚雷笑를 달여 마시니 부디 만년을 보호하소서.

生涯入作一寥天 夢冷花村酒肆邊  
 閒把丹爐燒桂葉 煮驚雷笑護殘年

[해설] 이 시는 설암 스님이 취율사翠律師에게 준 11수의 시 중 그 9번째 시이다. 원문의 '화촌花村'이란 기생 또는 여자들이 있는 동네를 뜻하며, '주사酒肆'란 술집을 가리킨다. 여자와 술이 있는 곳에서 '찬 꿈'을 꾸는다고 한 것은 율사가 계율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신분이기 때문이다. 이 시를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한 바는 지금까지 잘 지켜온 계율을 계속 고수하여 술 대신 경외소 같은 좋은 우전차雨前茶나 마시며 남은 생애를 보호하라는 것이다.

## 산방에서 우연히 읊다 (山房偶吟)

달이 개니 텅 빈 방이 더욱 밝고<sup>1)</sup>  
뜰에는 한가로이 꽃이 지네.  
노승은 차 꿈(茶夢)에 잠기고  
바람이 예주경藥珠經<sup>2)</sup>을 말아 버리네.

霽日明虛室 閑花落半庭  
老僧茶夢捲 風卷藥珠經

1) 텅 빈 방이 더욱 밝고: 방이 비면 밝은 것(虛室生白)처럼 사람의 마음도 망상이 들어가지 않으면 도를 깨달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2) 예주경藥珠經: 도교 道敎의 경전을 말한다.

[해설] 청명하게 맑은 날, 뜰에는 꽃이 저서 가득 떨어져 있는데, 낮잠을 자는 스님은 차를 마시는 꿈을 꾸고 있다. 그렇게 한가한 날, 문득 불어온 바람이 방안에 펼쳐진 도교 경전의 책장을 덮어 버렸다.

## 운을 따서 대방사미에게 주다 (次贈大方沙彌)

금도襟度の 기대되는 인품은 가을 물 같고 그 자질은 난蘭과 같은데  
웃으며 인간 세상을 벗어났더니 세속의 일이 끌어당기네.  
마음을 가라앉히고 벽을 바라보면 마땅히 얻는 바는 있겠지만  
꽃을 들고 대나무를 부셔 버리면 가히 싸울 수 있는 단서가 되리라.  
창 앞의 흰 꼬끼리가 광기狂機를 식히니  
소매 속 푸른 뱀의 담기가 차다.  
진중珍重하게 위임하노니 향악사香岳寺를 찾아가라.  
함께 차술을 갖고 용단龍丹에 점 찍으리라.

襟期秋水質如蘭 笑脫人寰世網揮  
 觀壁住心應有得 拈花擊竹可爭端  
 窓前白象狂機息 袖裏青蛇膽氣寒  
 珍重委尋香岳寺 共携茶鼎點龍丹

[해설] 이 시는 설암 스님이 사미승 대방大方에게 준 것이다. 그런데 대방의 인품과 자질이 뛰어났던 모양이다. 대방에 대해 그 기상은 가을 물(秋水) 같고 그 자질은 난초와 같다고 하였다. 대방이 선 수행에 용맹정진하면 훗날 대성 하리라는 것이 위 시의 내용이다. 대방 사미는 훗날 어떤 스님이 되었을까? 그에 관한 후문이 없고 또 승려들은 범명이 바뀌는 예가 많아 대방 사미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기에 '함께 차술을 갖고 용단龍丹에 점 찍을 수 있는' 자질이 있었던 그가 누구였는지 더욱 궁금하다.

### 백련암에서 청안상인에게 드리다 (白蓮庵贈淸眼上人)

약이 전해지니 단단 화덕에 차 연기 흩어지고  
 꿈에서 깨어나니 요대에서 쏟아지는 물소리 시끄럽네.  
 봄날 매화당에서 놀라 일어나 눈 비비니  
 일체의 진취眞趣를 논할 만하구나.

藥傳丹竈茶烟散 夢破瑤臺瀑水喧  
 春日梅堂驚拭眼 一般眞趣正堪論

[해설] 시체에 나오는 '상인上人'은 훌륭한 스님을 가리키는 호칭이다. 옛 날에는 숯불에 약이나 차를 달였다. 올곧은 수행자의 태도를 잘 보여 주고 있다.

### 오계찬의 운을 따라 (次吳季纘)

작은 암자는 그윽하고 고요한데 층층의 봉우리가 옹호하고  
일없는 한도인閑道人 녹색 나무 그늘에서 가부좌하고 있네.  
잔 속의 자줏빛 차가 술을 대신하여 향기롭고  
문 앞의 푸른 물이 거문고 소리를 내네.

小庵幽靜擁層峯 無事跏趺綠樹陰  
盃裏紫茶香代酒 門前綠水響傳琴

[해설] 그윽하고 고요한 암자의 나무 그늘 아래에서 스님이 좌선坐禪을 한다. 참선하는 스님들은 곧잘 차를 마셨는데 이는 차의 카페인 성분으로 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문 앞에 흐르는 물은 새 소리, 바람 소리와 같이 스님에게 자연의 음악을 선사하고 있다. 즉 물이 거문고 소리를 실어 오는 것이 아니라 물소리 자체가 자연의 음악인 것이다.

### 낭혜상인에게 드리다 (贈朗惠上人)

자지차紫芝茶를 마시는데 흰 구름 속에서 종소리 들려오고  
깊고 큰 서쪽에서 온 꼬끼리가 근본을 가르치나니,  
절의 바다와 강산에 들어와 땅에 앉았는데  
의로운 하늘의 성상星象<sup>1)</sup>이 하계에 내려와 봉우리를 쳐다보고 있네.

紫芝茶吸白雲鍾 深宏西來象教宗  
刹海江山輪座地 義天星象落簷峰

1) 성상星象: 별을 통틀어 이르거나 별자리의 모양을 이르는 말이다.

[해설] 이 시는 설암 스님이 낭혜朗惠 스님에게 준 두 수의 칠언율사에서 두 번째 시 가운데 앞의 4구만을 소개한 것이다. 이 시의 첫 구에 나오는 자지차紫芝茶는 현재 우리 나라에서 출간된 차에 관한 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차이다. 자춧 차싹을 뜻하는 '자순차紫筍茶'의 일종이기는 하나 '지초 지芴'자가 들어간 것으로 보아 자순차와는 또 다른 차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발음 때문에 민망하기도 한데 어쨌든 위의 시에는 '자지차'를 마시면서 낭혜 스님을 한껏 추켜세우는 어휘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전생은 좋으나 지금은 하계에 떨어져 봉우리만 쳐다보고 앉아 있다는 마지막 구절은 칭찬으로만 들리지 않는다.

### 가을 흥취 (秋興)

얹고 난 후라 가을 꽃이 더 향기롭고  
 한낮의 그윽한 곳, 흐드러진 흥이 더 하네.  
 산과일은 소식의 떡으로 족하고  
 들샘(野泉)은 마음으로 조주차趙州茶를 허락하네.

病餘秋事正芳華 白日幽居漫興加  
 山果足當韶石餅 野泉心許趙州茶

[해설] 설암 스님이 병으로 얹고 일어나 향기로운 꽃을 만지고 산과일을 따며 들에 있는 샘에서 돌병을 가득 채우며 흡족해하는 광경이 손에 잡힐 듯 묘사되어 있는 작품이다. 그러한 흥취 끝에 당시의 '가을 흥취(秋興)'를 '조주차'로 마무리한 것은 역시 선승다운 면모를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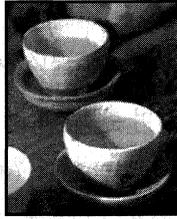
출전: 『雪巖雜著』·『雪巖禪師亂藁』(『한국불교전서』 제9책,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8).

#### 4. 환성지안

대둔사의 13대종사 중 제6대 대종사인 환성지안喚惺志安<sup>5)</sup>(1664~1729) 스님의 속성은 정鄭씨이며 춘주春州(지금의 춘천) 출신이다. 환성 스님은 15세 때 출가하여 미지산彌智山(지금의 양평 용문산) 용문사龍門寺에서 상봉정원霜峰淨源 스님에게 구족계具足戒를 받았다. 출가 후 환성 스님은 침식을 잇을 정도로 경전 연구에 힘썼다고 하는데, 1690년(숙종 16) 직지사直指寺에서 화엄법회를 열고 있는 모운진인慕雲震言 스님을 찾아갔을 때 모운 스님은 환성 스님의 식견에 탄복하며 수백 명에 이르는 학인들을 환성 스님에게 맡겼다고 한다. 당시 모운 스님은 벽암각성巖覺性 스님의 문하로서 화엄학의 제일인자라는 칭송을 받던 인물이다. 1725년(영조 1)에 환성 스님이 김제 금산사에서 화엄법회를 열자 1400명이 운집했다. 이에 조정에서는 긴장했으며 환성 스님은 무고로 옥에 갇혔다가 곧 풀려났다. 그러나 다시 제주도로 귀양 가서 7일 만에 입적하니 세수 66세, 법랍 51년이 었다. 환성 스님의 저술로는 『선문5종강요』, 『환성시집喚惺詩集』이 있는데<sup>6)</sup> 『환성시집』에 수록된 144편의 시 가운데에 1편의 다시가 있다.

5) 환성 스님의 법호인 '환성'에 대해 『동사열전』에서는 '喚醒'으로 기록하고 있고, 『한국불교인명사전』에서는 '喚惺'으로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후자를 따왔다.

6) 李政, 『한국불교인명사전』(불교시대사, 1993).



### 그윽한 곳에 살면서 (幽居)

어찌하여 무심히 누워 있는데 물은 서쪽으로 흐르는가?  
다만 세상 인연을 잊고 그윽한 곳에 사는 것을 사랑할 뿐이네.  
손님 위해 차 화로를 부뚜막에서 꺼내 놓았으나  
약초밭이 사람을 꺼려 작은 시내 건너에 있네.

底事無心臥水西 只緣忘世愛幽樓  
茶爐爲客開深竈 藥圃諱人隔小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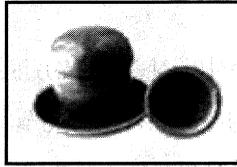
[해설] 이 시를 보면 환성 스님은 손님이 오면 자주 차를 달여 대접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손님이 온 어느 날 차가 떨어졌다. 차나무가 있는 약초밭에서 찻잎을 따 차를 법제法製해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시로 보건대 스님은 참선하는 여가에 차를 즐겨 마셨음이 분명하다. 강원도 출신의 스님이 차를 즐겼다면 차 마시기를 배운 곳은 대둔사였을 것이다. 대둔사를 제외하고는 대둔사 제6대 대종사인 환성 스님이 차를 가까이 접할 수 있었던 곳을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출전: 『喚惺詩集』(『한국불교전서』 제9책,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8)

## 5. 상월새봉

대둔사의 제9대 대종사인 상월새봉霜月塵錡(1687~1767) 스님의 자는 혼원混元이며 속성은 손孫씨이다. 상월 스님은 순천 사람으로 11세에 선암사로 출가하여 앞에서 소개한 대둔사 제5대 대종사인 설암 스님에게 수학하였으며 그 법을 이었다. 1713년 상월 스님이 조계산에서 강석을 열자 사방에서 학인이 몰려와 성황을 이루었으며, 무용수연無用秀演 스님은 상월 스님을 '지안志安 이후 제일인자'라고 평했다. 1754년 3월의 화엄강회에는 무려 1287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기록이 『해주록海珠錄』에 실려 있다. 1748년(영조 24)에 상월 스님은 선교양종도총섭국일도대선사에 임명되었다. 1767년 10월 입적하니 세수 81세, 법랍 70년이였다. 다비 후 나온 사리 3과를 하나는 오도산悟道山에, 나머지 둘은 선암사와 대둔사에 각각 나누어 봉안하였다. 저술로는 『상월대사시집霜月大師詩集』이 있으며, 다시 1편이 전한다.<sup>7)</sup>

7) 李政, 『한국불교인명사전』(불교시대사, 1993).



청암혜연 대사께 드리다 (贈靑巖慧衍大師)

갑술년(1754) 봄 온갖 꽃을 감상하는데  
 청암 스님은 회를 돕느라 사무가 번다하네.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어 걱정스럽더니  
 다행히 직접 만나니 즐거움이 끝이 없네.  
 쌍계의 물 가득하니 선차仙茶로 족하고  
 칠불의 바람 불어와 손님의 흥을 더하네.  
 멀리 낙동강을 향해 돌아가야 하나니  
 헤어짐에 이르러 뜻이 어떠한가 묻지 마라.

甲戌年春賞雜華 靑巖助會事居多  
 未答情書愁不盡 幸逢眞面喜無涯  
 雙溪水滿仙茶足 七佛風來客興加  
 遙向洛東江上去 臨分休問意如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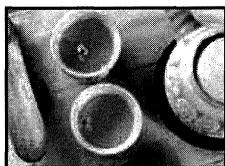
[해설] 상월과 청암 두 스님이 만나 선차仙茶를 마시며 회포를 풀고 있다. 이 시에서 말하는 칠불七佛은 과거 칠불 혹은 칠불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시의 내용으로 보아 그들이 만났던 장소는 하동 쌍계사였음이 분명하다. 쌍계사는 대둔사와 더불어 차의 산지로 이름 난 곳이니 그곳의 음다풍은 상월 스님이 주석하던 조선 중기에도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출전: 『霜月大師詩集』(『한국불교전서』 제9책,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8)

## 6. 함월해원

대둔사 제11대 대종사로서 모두 4편의 다시를 남긴 함월해원(涵月海源)(1691~1770) 스님의 자는 천경(天鏡)이며 속성은 완산(完山) 이씨 씨이다. 함월 스님은 함경남도 함흥 출신으로 14세(1704)에 문주(文州) (文川) 도창사(道昌寺)에서 출가하였다. 함월 스님은 여러 선지식(善知識)을 두루 역방하면서 법을 구하던 중 6년간 환성 스님을 사사하며 삼장(三藏)을 독파하였다. 함월 스님은 특히 화엄(華嚴)과 염송(拈頌)에 통달하여 대둔사의 제6대 대종사인 환성 스님의 법을 이었다. 함월 스님은 40여 년 간 강사로서 전국에 이름을 떨쳤는데 스님의 행적은 주로 남방에 큰 영향을 미쳤다. 1770년(영조 46) 함월 스님이 입적하니 세수 80세, 법랍 66년이였다. 다비를 하자 사리가 나왔으므로 안변 석왕사와 해남 대둔사에 답과 비를 세웠다. 저술로는 『천경집(天鏡集)』<sup>8)</sup>과 『법집(別行錄私記證正)』이 전하는데, 『천경집』에 4편의 다시가 전한다.

8) 『天鏡集』은 김달진이 번역한 한글대장경 제82권(동국역경원, 1994)과 『한국불교전서』 제9책(동국대학교 출판부, 1988), 601~632쪽에 수록되어 있다.



### 해인 스님에게 부치다 (寄海印師)

마루에 가득한 높은 손님들 각처에서 왔네.  
천리의 험한 길 걸어 모두 여기 모였다네.  
우리 모두 나그네라 위로할 것 없나니  
다만 찻잔 들고 그대에게 석 잔을 권하네.

滿堂高友盡東南 千里間關此處參  
俱是客中無所慰 只將茶碗勸君三

[해설] 이 시는 여러 곳에서 모여든 손님들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광경을 스케치하듯 묘사하였다.

### 또 정인 대사에게 (次贈貞仁大師)

외짝 손으로 기우는 부처의 해를 잘 떠받드니  
어두운 거리와 큰 들판이 갑자기 다시 밝아졌네.  
얼굴을 뵈옵고 조각 마음의 깨끗함을 이미 보았는데

도를 이야기하다 다시 두 눈의 푸름이 열렸네.  
 미우眉宇<sup>1)</sup>에 봄바람 불어 꽃이 스스로 피는가.  
 천정의 화한 기운에 날이 처음으로 갠다.  
 한 잔의 차 맛에 잡된 생각을 잊었나니  
 삼매의 바른 인이 아마 가볍지 않으리라.

隻手能擎佛日傾 昏衢大野忽重明  
 承顏已吐片心白 論道還開雙眼青  
 眉宇春風花自發 天庭和氣日初晴  
 一瓢茶味超塵慮 三昧正因想不輕

1) 미우眉宇: 이마의 눈썹 언저리를 가리킨다.

[해설] 이 시에서 “한 잔의 차 맛으로 세상 티끌 생각을 뛰어넘었다”고 한 것은 선 수행을 하면서 차를 통해 ‘다선일여茶禪一如’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나타낸 것이다.

### 풍악을 만함 (挽楓嶽)

세상 사람들 말하기를 남북에 오직 풍악이라 했는데  
 어찌 알았으리, 오늘 아침에 부음을 들을 줄을.  
 70 평생 항상 강론에 힘쓰더니  
 삼천 세계 밖으로 홀연 구름 타고 갔네.  
 앞사람의 도경道鏡을 좇아 선禪의 세계를 밝혔고  
 뒷사람의 현기玄機를 지도하여 敎의 문을 열었다.  
 고요하고 쓸쓸한 재단에 아무 종적 없으니  
 맑은 차 한 잔을 누구와 더불어 나눌꼬!

世言南北惟楓嶽 豈意今朝訃告聞  
七十人間常勉講 三千界外忽乘雲  
從前道鏡明禪窟 道後玄機關教門  
寂寞齋壇無形跡 清茶一碗與誰分

[해설] 시제의 ‘만挽’은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글임을 나타낸다. 입적한 풍악 스님은 70년의 생애 동안 주로 후학을 위한 강론에 힘썼다. 풍악 스님은 선禪에 밝았으며 후학에게는 교학敎學을 가르쳤다. 함월 스님은 풍악 스님이 입적함으로써 함께 차를 나눌 도반이 없음을 쓸쓸해하고 있다.

출전: 『天鏡集』(『한구불교전서』 제9책,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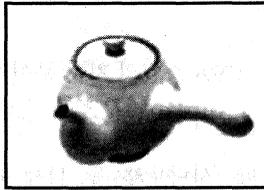
『天鏡集』(『한글대장경』 제82권, 동국역경원, 1994)

## 7. 연담유일

연담유일蓮潭有一(1720~1799) 스님의 자는 무이無二이며, 속성은 천주씨이다. 전남 화순읍 건천리 출신인 연담 스님은 5세 때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해 7세 때 『사략史略』을, 11세 때 『통감通鑑』을, 12세 때 『맹자』를 익혔으며 15세 때는 『중용』과 『대학』을 익혔다. 18세 때 승달산 법천사法泉寺 성철性哲 스님의 권유로 출가하였다. 출가 후 연담 스님은 3년간 해인사의 호암虎岩 스님에게서 배웠으며, 또한 설과雪坡·풍암楓岩·용담龍潭·영해影海·영허靈虛·상월霜月·벽하碧霞·용암龍岩·영곡靈谷 스님 등 당대의 10대 법사에 게 차례로 가르침을 받아 敎와 선禪에 두루 통달하게 되었다. 연담 스님은 31세 때 보림사寶林寺에서 개강한 이래 30년간 강의했는데, 이 기간 중 『화엄경』 강의만도 15회나 했으며 늘 따르는 제자가 1백 명 가량 되었다고 한다. 범해 스님이 편찬한 『동사열전』에 따르면 연담 스님은 ‘사람됨이 질박, 정직하고 탁 트인 데다 소탈하며 존경과 추앙을 받으면서도 조금도 교만하거나 과시하는 법이 없다’ 고 한다.

연담 스님은 다산 정약용이 유배되기 2년 전 입적했는데, 생전의 연담 스님은 정약용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으며 이 만남을 계기로 정약용은 연담 스님에게 주는 글을 세 편 남겼다.<sup>9)</sup> 1799년(정조 23) 2월 3일 연담 스님은 장흥 보림사 삼성암三聖庵에서 입적하니 세수 80세, 법랍 62년이였다. 스님의 부도는 대둔사, 미황사美黃寺, 법천사法泉寺에 각각 세워졌다. 연담 스님은 『임하록林下錄』을 비롯하여 『화엄유망기華嚴遺忘記』 등 모두 14부 24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9) 정영선, 「한국다문화의 중흥조론」, 『茶文化研究誌』 제7권(1998), 19쪽.



또 팔은 배율을 지음 (又八韻排律)

절 이름 어찌하여 심원이라 지었던가 (호은)  
깊은 계곡 칩덩굴 서려 해와 달빛을 가리네. (유일)  
두어 점 뜯구름 돌길에 이르고 (유일)  
한 점 풍경 소리 들리니 절 집이 가까워라. (호은)  
가마 메는 스님은 위태한 누각도 겁내지 않고 (호은)  
지팡이로 행보를 도와 마루에 오르네. (유일)  
깨와 함께 밥이 나오니 주발을 씻었고 (유일)  
채소와 대순 반찬에 술잔을 기울였네. (호은)  
차 끓이는 화로에 연기 그치니 흥이 나고 (호은)  
연화 자리에 향기 스러지는데 법언法言을 설하네. (유일)  
백발 노인은 부처 앞에 무릎을 꿇고 (유일)  
단장한 기생은 휘장 안에서 일어서네. (호은)  
푸른 병풍 친 겹 동안 달이 떠 지나고 (호은)  
불서(黃卷)가 놓인 나무 책상 원숭이가 받쳤네.<sup>1)</sup>(유일)

거친 말로 초미貂尾<sup>2)</sup>를 잇는 일 사양하지 않으리 (유일)

밤새도록 사랑하는 정 때문일세. (호은)

招提句事號深源(隱) 洞籙藤盤日月昏(一)  
數占雲浮當石逕(一) 一聲磬至近沙門(隱)  
肩輿信釋凌危閣(隱) 手錫扶行陟晚軒(一)  
飯進胡麻紛洗椀(一) 蔬兼石筍細傾樽(隱)  
茶爐烟歇饒高興(隱) 蓮榻香銷說法言(一)  
白髮翁能趨跪佛(一) 紅粧妓亦起張幃(隱)  
翠屏千劫經蘿月(隱) 黃卷一床護木猿(一)  
燕語不辭貂尾續(一) 通霄只爲春情存(隱)

1) 나무 책상 원승이가 받쳤네: 나무 책상의 다리 모양이 원승이와 비슷함을 나타낸 것이다. 2) 초미貂尾: 돈피의 꼬리로 고관의 관冠을 짜는 재료, 즉 고귀한 물건을 말한다. 이는 고귀한 사람의 문장에 이어 연구聯句를 짓는다는 뜻이다.

[해설] 이 시는 연담유일 스님과 호은유기好隱有幾(1707~1785) 스님이 두 구씩 번갈아 지은 작품으로 산사의 '고즈넉한 정취가 잘 담겨 있는 작품이다. 호은 스님은 1707년(숙종 33) 청주 주안촌周岸村에서 태어났다. 1722년(경종 2) 16세의 나이로 출가하여 학문을 닦았고, 1737년(영조 13)부터 강석을 열어 후학을 지도했다. 표충사 수호총섭을 지냈고 해인사 사적비를 지었다. 1785년(정조 9) 입적하니 세수 79세, 법랍 63년이다. 저술로는 『호은집』 4권이 있다.

### 중봉의 낙은사에 화답함 (和中峯樂隱詞)

[6]

행실도 닦고 공력 또한 쌓으니

점점 도道の 짝이 트네.

날마다 하는 일은 나물 심고 꽃에 물대는 것이라.

밝은 달로 벗을 삼고  
 흰 구름으로 집을 삼으니  
 한 벌의 해진 승복, 한 발우의 밥과 한 잔의 차로 족하다네.

行增加 漸抽道芽 日用事種菜灌花  
 明月爲友 白雲爲家 足一衲衣一鉢飯一碗茶

[10]

깊은 암자 짧은 대나무 발<sup>1)</sup>  
 희귀한 풀과 꽃  
 대밭 속의 길은 굽고 경사졌네.<sup>2)</sup>  
 발 밖에 구름 생기고  
 시내에는 달빛 비추니  
 소반에 나물 있고 솔 안에는 먹을 것 있고 방에는 차가 있어 즐겁네.

幽庵短筍 瑤草琪花 一叢竹三曲四斜  
 簾生雲氣 溪印月華 喜盤有蔬鼎有餽瓶有茶

1) 짧은 대나무 발(短筍): 가늘게 쪼갠 대오리나 갈대 같은 것으로 엮어 무엇을 가리는 데 쓰는 물건. 2) 길은 굽고 경사졌네(三曲四斜): 『경덕전등록』의 기록을 인용한 것이다. 『경덕전등록』에 의하면 자복사資福寺에 대나무가 있었는데 세 번 굽고 네 번 경사졌다고 한다.

[해설] 이 시는 해진 옷 한 벌과 한 발우의 밥과 한 잔의 차로 자족하는 선 수행자의 무소유한 삶을 극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원래 이 시는 전체 16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여섯번째와 열번째 시가 다시이다. 시제에서 언급된 '중봉中峯'은 중국 남송말南宋末 원초元初의 스님 중봉명본中峯明本(1263~1323)을 가리킨다. 임제종 양기파楊岐派의 승려였던 중봉 스님은 천목산天目山 사자암獅子巖의 고봉원묘高峰原妙 스님에게 출가하여 그 법을 이어받았다. 승속이 모두 중봉 스님을 존경했으며 강남의 고불古佛이라 불렀다. 중봉

스님의 저술로는 『중봉화상광록中峯和尚廣錄』이 남아 있다. 또한 ‘낙은사樂隱詞’는 『중봉화상광록』에 나오는 글이다. 연담 스님은 중봉 스님이 쓴 「낙은사」의 운에 따라 16수의 시를 쓰면서 중봉 스님의 청빈한 생활을 깊이 존송하는 마음을 드러내었다. ‘날마다 나물 심고 꽃에 물을 주며 흰 구름으로 집을 삼는다’는 시구가 연담 스님의 그러한 심정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한편 연담 스님이 극찬한 「낙은사」의 저자 중봉 스님에 대해 연담 스님의 제자 아암혜장兒庵惠藏도 스승과 똑같이 「중봉의 낙은사에 화답함」이란 제목의 시를 남긴 것으로 볼 때 사제가 다함께 중봉 스님을 매우 존경했음을 알 수 있다.

### 석옥 화상의 산중의 네 가지 위의라는 시에 화답함

(和石屋和尚山中四威儀)

산중에서 걷고 있으니 짚신은 영악한 범과 같네.  
 바위의 꽃은 겁劫 밖에 피었고 냇가의 새는 무생을 말하네.  
 산중에 머무니 원숭이, 새들과 벗을 하네.  
 물을 길러 아침밥을 지으니 인간 세상은 해가 높이 뜬 한낮이네.  
 산중에 앉으니 일곱 개의 포단蒲團은 누더기가 되었네.  
 선정에서 나와 발을 걷고 보니 속세 일은 허공에 가루처럼 부서지네.  
 산중에 누워 세상도 잊고 나도 잊네.  
 손님이 오면 새로운 차를 끓이려 이웃 암자에 가서 불을 빌려 오네.

山中行 芒鞋似虎樗 岩花開劫外 溪鳥舌無生  
 山中住 猿鳥以爲友 運水方朝炊 人間日卓午  
 山中坐 七箇蒲團破 出定捲簾看 虛空成粉碎  
 山中臥 忘世又忘我 客到煮新茶 隣庵去討火

[해설] ‘짚신은 영악한 범과 같네’란 구절은 현서賢棲의 시에서 “짚신은 영악한 범과 같고 지팡이는 살아 있는 용과 같다”(草鞋樗似虎, 拄杖活如龍)고 한 것과 연관지을 수 있다.

## 처마 아래 매화를 읊음 (咏檐梅)

금년 2월은 매우 추워

처마 밖 매화의 차가움을 금할 수 없네.

바람결에 그윽한 향기 책상을 스쳐 붙어오고

달은 성긴 그림자를 옮겨 찻잔에 잠기네.

매화를 꺾어 봄빛을 상하게 하지 말라.

보고 있노라면 나그네 마음 위로되네.

파교瀟橋의 신선 지금은 없는데

눈 속에 누가 다시 나귀 타고 찾겠나?

今年二月凍全深 檐外梅花冷不禁  
風送暗香經案入 月移疎影茗杯侵  
莫教折去傷春色 且可看來慰客心  
瀟上仙翁今不在 雪中誰復策驢尋

[해설] '파교瀟橋의 신선'이란 당나라의 정계鄭繫를 말하는데, 그는 시 짓는 것을 매우 좋아하였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상국相國께서는 근래 새로운 시를 지으셨습니까?"라고 묻자, 정계는 "시의 생각은 파교의 풍설風雪 속에 나귀 등 위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위의 시에서는 이 고사를 인용하여 눈 속에 매화가 피었는데도 시인이 찾아오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다.

출전: 『蓮潭大師林下錄』(『한국불교전서』 제10책,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9)

『蓮潭大師林下錄』外(『한글대장경』 제224권, 동국역경원, 1997)

## 8. 아암예장

대둔사의 13대강사 중 12번째 대강사인 아암혜장兒庵惠藏(1772~1811)의 속성은 김金씨이고 자는 무진無盡이다. 아암 스님은 새금현塞琴縣 화산방華山坊 출신으로, 화산방은 지금의 해남군 화산면이다. 아암 스님은 어려서 출가했으며 대둔사에서 월송재관月松再觀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받았고 춘계천묵春溪天默 스님으로부터 학문을 익혔다.<sup>10)</sup> 출가 전에 이미 외전外典을 통달했던 아암 스님은 방대한 불교 서적을 두루 공부했는데, 당대의 대강백 연담유일蓮潭有一과 운담정일雲潭鼎驕 스님께 가르침을 받았다. 아암 스님은 27세 때 정암즉원晶岩卽圓 스님을 뵈고 법을 구하여 법통을 이었다. 정암 스님은 소요태능逍遙太能 스님의 종풍을 계승한 화악문신華岳文信 스님의 법통을 전해 받은 직계 제자(嫡傳)이다. 아암 스님은 여러 강백으로부터 경전을 배웠는데 비록 머리를 숙이고 묵묵히 강설을 들곤 했으나 문밖을 나설 때면 자신도 모르게 “틀렸어”라는 부정의 말과 비웃음을 내뿜었다고 한다. 그러나 오직 연담 스님의 글이나 가르침에 대해서만은 틀렸다고 부정하지 않았다.

아암 스님은 30세 때 이미 박학과 달변으로 명성을 떨쳐 대둔사 청풍당淸風堂에서 『화엄경』 대법회를 주관했는데 참석한 학인이 1백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 아암 스님은 외전 중에서 특히 『주역』과 『논어』를 좋아했으며 그것을 터득한 수준은 웬만한 선비가 따를 수 없을 정도였다. 불경 중에서는 『수능엄경』과 『기신론』을 가장 좋아하여 자주 그 내용을 언급했으나 ‘조경竈經’과 ‘촉주廁呪’는 일체

10) 梵海覺岸, 『東師列傳』, 26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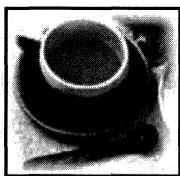
입에 올리지 않아 다른 스님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조경'은 『조왕경』을 지칭하는 것으로 부엌을 맡은 신神인 조왕신의 공덕을 말한 경전이며, '촉주'는 입촉오주入廁五呪로서 해우소(화장실) 출입시에 외우는 진언眞言이다.

아암 스님이 정약용을 처음 만난 것은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된 지 5년째 되는 1805년(순조 5) 가을이었다.<sup>11)</sup> 이때 정약용의 나이 44세, 아암 스님의 나이 34세였다. 이 해 봄에 아암 스님은 대둔사에서 강진 백련寺白蓮寺로 옮겨갔다. 당시 아암 스님은 『주역』을 공부한 지 20년이 되었으므로 역학易學에 뛰어났고 정약용 또한 역리易理에 밝은 대학자였으므로 두 사람의 대화는 역리에 관한 문답으로 시작되었다. 아암 스님은 정약용으로부터 역학의 심오한 경지를 배울 수 있었고 정약용은 아암 스님으로부터 차를 증정받아 마시며 사원 다도茶道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두 사람의 교류는 아암 스님이 40세로 요절할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정약용은 아암 스님을 위해 13수나 되는 시를 지을 정도로 두 사람은 두터운 정의情誼를 나누었다.

1811년 40세의 나이로 아암 스님은 입적하였다. 대둔사에 비석이 세워졌고 정약용이 매우 애통해 하며 명문銘文을 지었다. 아암 스님의 저술로는 『아암유집兒庵遺集』이 남아 있으며, 여기에 다시가 전하고 있다.

---

11) 같은 책, 266쪽.



장춘동잡시 長春洞雜詩

[3]

불탑과 비를 몇 바퀴 도노라니  
한 송이에 꽃잎 다섯이 모두 향기롭네.  
향대엔 언제나 전단梅檀 향기 피어나고  
법당엔 사리 광채 자주 비치네.  
물길 산길 멀어도 혼령은 오가나  
긴긴 세월 지나도 꿈은 덧없기만 하네.  
고승은 이런 날 도리어 쓸쓸하기만 하니  
이 좋은 계절에 누가 찻잔을 올릴까.

寶塔豐碑匠數行 一花五葉攄芬芳  
香臺每湧梅檀氣 紺殿頻浮舍利光  
水遠山長魂往復 天荒地老夢飛揚  
高僧此日還蕭索 佳節誰能薦茗觴

[6]

꽃과 나무야 본래 예사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  
 셋길에 무성한 잡초라 하여도 어찌 벨 수 있으리.  
 목마른 시슴은 장군수將軍水<sup>1)</sup>로 나란히 달려가고  
 새끼 꿩은 학사암學士巖에서 소리내어 우네.  
 차밭에서 한가로이 대지팡이 꺾고  
 소나무 사이에서 흰 적삼을 터네.  
 나의 일생 여기에서 마칠 생각이니  
 계함季咸<sup>2)</sup>에게 앞일 묻지 않으리.

花木天生擲不凡 蒙茸滿徑邪須芟  
 渴齷齊赴將軍水 乳雉交鳴學士巖  
 藥塢閒攜烏竹杖 松壇徐拂白麻衫  
 吾行遂決終焉計 未必前程問季咸

[10]

아름다운 연못과 작은 시내는 저절로 휘감고  
 방초와 수양버들 가득한 무릉도원 열려 있네.  
 봄은 구름 낀 산에 찾아들어 오래도록 나가지 않고  
 물은 인간 세상으로 흘러가 정녕 돌아오지 않네.  
 버릇집을 가지고 다니다 수시로 붓을 적서 보고  
 차 화로 안고 앉아 손가락으로 재에다 그려도 보네.  
 아득히 금호琴湖와 더불어 물가에 노닐 때를 회상해 보니  
 어느 해에나 현도관玄都觀<sup>3)</sup>의 복숭아를 감상하게 되려나.

金塘小澗自潏回 芳草垂楊一澗開  
 春入雲山長不出 水流人世定無回  
 行持研匣時濡筆 坐擁茶爐試畫灰  
 憶與琴湖游岸上 幾年玄觀賞桃來

1) 장군수將軍水: 대둔사에 있는 샘으로 물이 좋아 약과 차를 끓이는 데 사용한다. 이 이름은 고산孤山 윤선도가 대둔사에서 훌륭한 스님이 많이 배출되었음을 염두에 두고 지은 것이다. 2) 계함季咸: 정鄭나라 때 무인巫人. 길흉과 화복을 귀신같이 알아냈다고 한다. 『열자列子』에는 “어떤 신무神巫가 제齊나라에서 정鄭나라에 와서 살았는데 이름이 계함이었다. 그는 사람의 사생존망死生存亡과 화복요수禍福夭壽를 잘 알아냈다”라고 써어 있다. 3) 현도관玄都觀: 장안長安에 있는 도교의 사원을 말하는데, 이곳에는 복숭아나무가 많다고 한다.

[해설] 전체 12수 중 세번째, 여섯번째, 열번째 시이다. 시제에는 원래 ‘해남 두륜산 골짜기마다 유다油茶가 가득하므로 장춘동이라 한다’(海南之頭輪山滿谷皆油茶 號曰長春洞)는 아암 스님의 설명이 첨부되어 있는데, 여기서 ‘유다’란 차의 일종으로 한 해에 세 번 꽃이 피고 두 번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 ‘장춘동’은 대둔사가 위치한 지명을 뜻하는데, 대둔사는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장춘동에 속한다.

[3] 어려서 출가하여 오랫동안 대둔사에 주석한 아암 스님의 한유閑裕한 정취가 잘 드러나 있다. 꽃피는 봄날, 아암 스님은 불탑과 비磴 사이를 소요하면서 꽃향기를 맡으며 무료함을 달래고 있다. 그런데 고고孤高한 고승의 혼령이 홀연히 나타나고, 아암 스님은 쓸쓸히 불탑과 비를 돌고 있다. 아울러 좋은 계절임에도 차를 함께 나눌 사람이 없음을 아쉬워하는 스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

[6] ‘나의 일생 여기에서 마칠 생각이다’라는 시구로 볼 때 아암 스님은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감하면서 위의 시 12수를 읊은 것으로 생각된다. 범해 스님이 쓴 『동사열전』의 ‘연파蓮坡 강사’ 조에 보면, 아암 스님은 제자에게 의발衣鉢을 물려준 35세에 이르러 갑자기 노쇠하여 이후 4~5년간 시를 읊고 술을 마시며 인근 명승지를 소요하면서 자유로운 삶을 누렸으며, 1811년(순조 11) 가을에 대둔사 산내 암자인 북암北庵에서 입적했다. 입적 당시의 나이가 40세였으니, 아암 스님은 대둔사의 13대종사와 13대강사 중 가장 일찍 요절한 셈이다. 아암 스님은 이 시를 쓸 무렵 ‘차밭에서 한가로이 대지팡이를 쥌는’ 등 유유자적하게, 얼마 되지 않은 자신의 마지막 삶을 향유하였다.

[10] 무릉도원에 가고 싶은 아암 스님의 꿈이 나타나 있다. 하지만 스님이 원하는 동양의 유토피아인 무릉도원이 쉽게 찾아질 리 없다. 그러니 차 화로를 안고 재에다 무릉도원의 모습을 그려보기도 하고, 평 대신 닭이라는 속언俗言이 있듯이 장안의 도교 사원인 현도관의 복숭아라도 감상하길 원하고 있는 것이다.

산에 살며 느끼는 여러 가지 흥미 (山居雜興)

둘러쳐진 산 빛은 조용한 가운데 더욱 새롭고  
푸른 나무에 붉은 노을 눈에 부시네.  
사미승에게 차 달이라 일렀으니  
배곷머리엔 원래 약수(地漿泉)가 있다네.

一簾山色靜中鮮 碧樹丹霞滿目妍  
叮囑沙彌須煮茗 枕頭原有地漿泉

[해설] 전체 20 수 가운데 두번째 시이다. 산 빛은 새로운데 푸른 나무에 지는 붉은 노을이 눈부시다는 구절에서 아암 스님이 얼마나 서경(西景)에 능한지를 알 수 있다. 좋은 시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연 경관을 묘사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아암 스님은 이 작품에서 자연의 경치를 글로 나타내는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황정 이태승에게 편지로 보냄 (奉簡黃庭李公台升)

병이 나았을 땐 꽃은 이미 다 졌으니  
좋은 시절 지난 것이 슬프구나.  
나부끼는 썩은 헤아려 보기 어렵고  
시든 찾았은 입맛 당기지 않네.  
다만 막걸리 생각이 나지만  
돈 없어 입술도 적시지 못하네.  
홀연히 그대의 행차 소문을 듣고  
놀라 술과 대나무 우거진 숲을 나가 보네.  
마침 그대가 봄나들이 하고자

대나무 가마 타고 산비탈을 올라왔네.  
 처음 마주하는 자리에서 흥금을 털고  
 나를 도인처럼 대접하였네.  
 술 단지 비우기를 두세 번이나 하였으니  
 어찌 한 순배만 취했으리.  
 호탕하게 고금의 일을 논하니  
 촛불이 새벽까지 켜져 있네.  
 슬프다. 밥이나 축내는 중이  
 외로이 청해(靑海(완도))에 와 있네.  
 어찌다 보잘것없는 몸이  
 선비 사이에 헛된 이름만 떨쳤는고?  
 다행한 것은 군자를 벗하여  
 반가움에 눈물 흘리며 서로 사귀일세.  
 이별한 지 열흘이 지나지 않았는데  
 헤어진 지 삼 년이나 지난 듯하네.  
 고개 돌려 일성산(日星山)을 바라보니  
 회포가 겹겹이네.

病後花已謝	惆悵誤良辰
飄蕭計難畫	委荼氣不仁
只有念醇醴	囊空未濡脣
忽聞伊軋聲	驚瞿出松筠
使君欲春遊	竹輿上嶙峋
初筵便傾倒	禮我如道人
挈壺至兩三	豈惟醉一巡
浩蕩論今古	華燭繼明晨
嗟哉粥飯僧	寥落靑海濱
胡爲無所用	虛名動搢紳
幸茲遇君子	爛漫卽相親
分別未十日	倏忽如三春
回首日星山	意緒重纒纒

[해설] 아암 스님은 앓고 난 후 입맛을 잃어버려 차조차 입에 당기지 않았다. 비록 병약했던 스님이지만 평소에는 술도 마시고 구경도 다니며 유유자적한 생활을 즐겼다. 그렇지만 스님은 막걸리 생각이 나도 술을 살 돈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였다. 이렇듯 궁핍한 스님에게 황정黃庭 이태승李台升이 처음 마주하는 자리에서 흥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며 스님을 도인처럼 환대하였다. 당시 스님은 완도에 있었던 모양인데 선비들 사이에서 명성이 자자했던 듯하다. 이는 '어찌다 보잘것없는 몸이 선비 사이에 헛된 이름만 떨쳤는고'라는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다. 이태승에 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아 완도의 부유한 선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 동천의 곤괘 육효 시의 운을 따서 화답함

(奉和東泉坤卦六爻韻)

힘난한 인간 세상

발길마다 서리처럼 차갑네.

집에 머물며 삼정三逕을 닦아 놓고

몸을 추스려 외진 곳에 머무네.

벽사 창으로 옛 유적 바라보고

외진 길가에서 새 시를 읊조려 보네.

불서佛書는 상자에 가득 채웠고

찾았은 주머니에 담아 두었네.

안개와 노을은 지팡이와 신을 따르고

바람과 달빛은 옷에 가득하네.

이것이 몸을 보존하는 계책이니

어찌 기리계綺里季와 하황공夏黃公이 부러우리.

嶮巖人世上 步步凜如霜  
置屋成三逕 安身著一方  
碧窓看古蹟 幽巷詠新章

貝葉曾盈篋 茶芽更貯囊  
煙霞隨杖履 風月滿衣裳  
卽此爲身計 何須羨綺黃

[해설] '삼경三逕'은 장후蔣詡가 자신의 집 대밭에 소나무, 대나무, 국화가 심어진 오솔길을 세 갈래로 닦아 놓고 오직 구중求仲과 양중羊仲만 오게 하여 함께 놀았다는 고사에서 유래한다. 또한 이 시에서 나오는 기리계綺里季와 하황공夏黃公은 상산사호商山四皓에 속하는 인물들로서 진秦나라의 학정虐政을 피해 상산商山에 은거하여 살았다.

### 중봉의 낙은사에 화답함 (和中峰樂隱詞)

[3]

산에 올라 차를 따고  
물을 끌어와 꽃밭에 물을 대다가  
홀연히 고개 돌려보니 산 위의 해 이미 기울었네.  
깊은 산 속 암자에는 경쇠 소리 울려 퍼지고  
고목에는 갈가마귀 모이니  
이렇듯 기쁘고 이렇듯 한가하며 이렇듯 즐겁구나.

登巖採茶 引水灌花 忽回首山日已斜  
幽菴出磬 古樹有鴉 喜如此閒如此樂如此嘉

[13]

두툰산에서 한가로이 휘파람 불며  
호기롭게 세상을 내려다보니  
세 봉우리 우뚝하고 아홉 계곡 굽이쳐 도네.

유다油茶와 자죽慈竹<sup>1)</sup>에

따뜻한 봄 찾아오니

녹문산鹿門山<sup>2)</sup>과 구지혈仇池穴<sup>3)</sup>과 무릉武陵의 나루인 듯하네.

間囑頭輪 傲視紅塵 三峰秀九曲粼粼

油茶慈竹 四序長春 似鹿門山仇池穴武陵津

- 1) 자죽慈竹: 대나무의 일종으로 자모子母가 서로 의지하여 산다고 한다. 2) 녹문산鹿門山: 호북성湖北省 양양현襄陽縣 동남쪽에 있는 산이다. 방덕龐德이 이곳에 약초를 캐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며, 당唐의 맹호연孟浩然이 또한 이곳에서 은거했다고 한다. 3) 구지혈仇池穴: 감숙성甘肅省 성현成縣 서쪽에 있는 지명이다.

[해설] 전체 16수 중 세번째와 열세번째 시이다. 위의 시제와 똑같은 시가 아암 스님의 스승인 연담 스님의 작품에도 있다. 찾았을 따고 꽃밭에 물을 주며 한가하게 사는 수행자의 삶을 즐기는 아암 스님의 안빈낙도하는 일상 생활이 한 폭의 동양화처럼 그려진 작품이다.

(산문)

대둔사비각다례축문 大菴寺碑閣茶禮祝文

앞드려 생각건대 끝없는 자비심으로 천추千秋까지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 원력이 크고 깊어 여러 사찰에 부도를 만들었다. 멀리 조사의 가르침을 받들었으니 남종선南宗禪을 크게 떨쳤다.

우리 서산西山 노사께서는 1만 무리 오랑캐를 공중을 메우는 모기때 잡듯이 하였고 1천 호걸들을 동이에 가득한 날파리로 보았다. 사명泗溟 선사 같은 분은 머리만 깎고 수염은 남겨 두어 장부丈夫의 표상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험한 지역을 누비면서 보살의 기풍을 전

해 주었다. 소요逍遙 스님 뒤로 열반하신 스승들 진흙소를 빗대어 깊은 도리 살피서 옥玉 불자拂子<sup>1)</sup>로 진심眞心을 깨우쳤다. 신령스런 법의 인연 만나니 눈물 쏟으며 법문을 듣는다. 법열에 젖어 절구공이로 계단 모퉁이 울리네華巖 스님에 대해 지은 것임. 사자좌를 만들어서 금산사金山寺에 대중을 모으고 자라 등을 배 삼아 타고 바다에서 중생을 제도하네喚愜 스님에 대해 지은 것임. 문장은 세상을 울리고 풍도風度는 사람을 놀라게 하네漣漣 스님에 대해 지은 것임. 달빛이 붉은 언덕을 비출 때 도량(杏臺)을 거닐다 범을 꾸짖었네晶巖 스님에 대해 지은 것임. 운무雲霧가 푸른 못을 뒤덮을 때 대숲에 노닐며 고기를 기르네松坡(雪峰巖浮의 제자) 스님에 대해 지은 것임. 고성孤星<sup>2)</sup>에 감응받아 잉태되고 쌍옥雙玉을 삼키는 태몽을 꾸었네應星 스님에 대해 지은 것임. 대중에게 철추 들어 보이면서 격외格外的 높은 도리 설파했네萬化 스님에 대해 지은 것임. 법고法鼓를 두드려 하늘까지 들리게 하시어 참으로 인간세의 위대한 업적을 드날리셨네春溪 스님에 대해 지은 것임.

다만 여기서 장춘동은 정녕 여러 세대를 거친 도량이어서 층층의 보배로운 탑들이 한 곳의 언덕에 몰려 있고, 수많은 공덕비는 아홉 계곡에 웅기종기 모여 있으며, 푸른 찻잔은 오히려 새로우나 밝은 구슬은 여전하다. 옛 사당 우뚝하니 넉넉히 공경심을 일으킬 만하며, 남아 있는 그 영정이 깨끗하고 맑으니 정성을 표하는 예를 올릴 만하였다. 이에 꽃과 과일을 진설陳設하고 또 떡과 차를 올리니 흠향하소서.

1) 불자拂子: 파리나 모기 따위를 쫓는 생활 용구였으나 불가에서는 상징적인 수행 용구로 사용됨. 번뇌를 털어 낸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법구法具. 2) 고성孤星: 여명 때 보이는 작은 별.

[해설] 아암 스님의 이 축문은 대둔사에 비석이 세워져 있는 고승들(서산·사명·소요·화악·환성·연담·정암 등)을 추모한 다례茶禮 때 고승들의 업적과 행화行化를 현창하기 위해 씌어진 글이다. 불교에서는 의식儀式 때 술을 쓰지 않고 차茶를 올린다. 정약용은 이 글에 대해 “이 글은 관각館閣(弘文館과 藝文館)의 대문장大文章이 지은 것 같아 이윤보李潤甫와 임이호林彝好의 빼어난 문장을 이을 만하다. 내가 항상 산사에서 약간 취하기만 하면 무릎을 치면서 높게 읊조릴 적엔 글자마다 치달리고 구절마다 용솟음치는 듯함을 느끼니, 나물만 먹어 초채한 승려들의 어투가 아니다”라고 했다.

출전: 『蓮潭大師林下錄』(『한국불교전서』 제10책,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9)

『蓮潭大師林下錄』外·『兒庵遺集』(『한글대장경』 제224권, 동국역경원, 1997).

## 9. 초의의순

대둔사의 13대종사 중 마지막 열세 번째 대종사인 초의의순草衣意恂(1786~1866) 스님은 조선 후기 한국 전통차를 융성시킨 중흥조重興祖이자 다성茶聖으로까지 추앙받고 있는 유명한 인물이다.

초의 선사의 자字는 중부中孚이며 속성은 무안務安 장張씨이다.<sup>12)</sup> 초의 선사가 사용한 호는 초의草衣(혹은 艸衣로 표기함)와 일지암一枝庵 외에도 해사海師·해노사海老師·초사草師·병석瓶錫·선송禪誦·병발瓶鉢·선황禪況·해옹海翁·해양후학海陽後學·우사芋社·자우紫芋 등이다.<sup>13)</sup>

초의 선사의 출생과 생애에 관해서는 신헌申櫪이 편찬한 『사호보 제존자초의대종사의순탑비명賜號普濟尊者艸衣大宗師意恂塔碑銘』, 이희풍李喜豊이 찬술한 『초의대사탑명艸衣大師塔銘』, 범해각안梵海覺岸이 저술한 『동사열전東師列傳』의 『초의선백전艸衣禪伯傳』, 유경도인留耕道人이 저술한 『초의대선사운艸衣大禪師韻』 등에 언급되어 있으며, 이 밖에 진도珍島 사람 우당愚堂이 쓴 『대둔사초암서大菴寺草庵序』, 허유의 『몽연록夢緣錄』, 이능화李能和의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教通史』 하권에 기록되어 있다.<sup>14)</sup>

이상의 전적들에 의하면 초의 선사는 1786년(정조 10) 4월 5일에 전남 무안군務安郡 삼향면三鄉面에서 태어났다. 초의 선사의 가계

12) 梵海覺岸, 『東師列傳』, 310쪽.

13) 초의 선사의 이러한 別號는 『院堂先生全集』 권5에 김정희가 초의 선사에게 준 「興艸衣」라는 서신에 나타나 있고, 그 외에도 허유의 「夢緣錄」(『艸衣集』上·下)에 기록되어 있다. 채정복, 「艸衣禪師의 茶禪修行論」(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2), 3쪽에서 재인용.

14) 전용운, 「해제」, 『초의집』(『한글대장경』 제225권, 동국역경원, 1997), 31쪽.

[해설] 아암 스님의 이 축문은 대둔사에 비석이 세워져 있는 고승들(서산·사명·소요·화악·환성·연담·정암 등)을 추모한 다례茶禮 때 고승들의 업적과 행화行化를 현창하기 위해 씌어진 글이다. 불교에서는 의식儀式 때 술을 쓰지 않고 차를 올린다. 정약용은 이 글에 대해 “이 글은 관각館閣(弘文館과 藝文館)의 대문장大文章이 지은 것 같아 이윤보李潤甫와 임이호林彝好的 빼어난 문장을 이을 만하다. 내가 항상 산사에서 약간 취하기만 하면 무릎을 치면서 높게 읊조릴 적엔 글자마다 치달리고 구절마다 용솟음치는 듯함을 느끼니, 나물만 먹어 초췌한 승려들의 어투가 아니다”라고 했다.

출전: 『蓮潭大師林下錄』(『한국불교전서』 제10책,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9)

『蓮潭大師林下錄』外·『兒庵遺集』(『한글대장경』 제224권, 동국역경원, 1997).

## 9. 초의의순

대둔사의 13대종사 중 마지막 열세 번째 대종사인 초의의순草衣意恂(1786~1866) 스님은 조선 후기 한국 전통차를 융성시킨 중흥조重興祖이자 다성茶聖으로까지 추앙받고 있는 유명한 인물이다.

초의 선사의 자字는 중부中孚이며 속성은 무안務安 장張씨이다.<sup>12)</sup> 초의 선사가 사용한 호는 초의草衣(혹은 艸衣로 표기함)와 일지암一枝庵 외에도 해사海師·해노사海老師·초사草師·병석瓶錫·선송禪誦·병발瓶鉢·선황禪況·해옹海翁·해양후학海陽後學·우사芋社·자우紫芋 등이다.<sup>13)</sup>

초의 선사의 출생과 생애에 관해서는 신헌申憲이 편찬한 「사호보 제존자초의대종사의순탑비명賜號普濟尊者艸衣大宗師意恂塔碑銘」, 이희풍李喜豐이 찬술한 「초의대사탑명艸衣大師塔銘」, 범해각안梵海覺岸이 저술한 『동사열전東師列傳』의 「초의선백전艸衣禪伯傳」, 유경도인留耕道人이 저술한 「초의대선사운艸衣大禪師韻」 등에 언급되어 있으며, 이 밖에 진도珍島 사람 우당愚堂이 쓴 「대둔사초암서大菴寺草庵序」, 허유의 「몽연록夢緣錄」, 이능화李能和의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教通史』 하권에 기록되어 있다.<sup>14)</sup>

이상의 전적들에 의하면 초의 선사는 1786년(정조 10) 4월 5일에 전남 무안군務安郡 삼향면三鄉面에서 태어났다. 초의 선사의 가계

12) 梵海覺岸, 『東師列傳』, 310쪽.

13) 초의 선사의 이러한 別號는 『院堂先生全集』 권5에 김정희가 초의 선사에게 준 「興艸衣」라는 서신에 나타나 있고, 그 외에도 허유의 「夢緣錄」(『艸衣集』 上·下)에 기록되어 있다. 채정복, 「艸衣禪師의 茶禪修行論」(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2), 3쪽에서 재인용.

14) 전용운, 「해제」, 『초의집』(『한글대장경』 제225권, 동국역경원, 1997), 31쪽.

家系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모친이 꿈에 큰 별이 품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스님을 잉태했다고 한다. 초의 선사가 5세 때에 강변에서 놀다가 급류에 휘말린 적이 있는데 마침 인근 사찰의 스님에 의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 스님이 출가할 것을 권해 초의 선사는 15세가 되던 해에 나주군 다도면茶道面 덕흥산德興山 운흥사雲興寺의 벽봉민성碧峰敏性 스님을 의지하여 출가하였다.<sup>15)</sup> 출가 후 초의 선사는 운흥사에서 부모님을 뵈러 고향에 가는 길에 월출산月出山에 올라 해가 지면서 보름달이 바다 위로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일순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가 바로 초의 선사의 닫혔던 마음의 눈이 열리는 개안開眼의 순간이었다.<sup>16)</sup>

1804년 초의 선사는, 완호윤우玩虎倫佑 스님이 연담蓮潭 스님의 적사嫡嗣로서 높은 수행을 했고 강설講說을 잘 한다는 말을 듣고 나아가 가르침을 청했다. 손으로 교시하고 말로 전하는 것이 뚜렷이 맞아떨어져 깊은 뜻을 모두 전해 받아 끝내 입실入室을 허락받았는데, 이때 초의艸衣라는 호를 얻었다고 한다. 초의라는 호를 얻게 된 내력에 대해서는 다음 세 가지 설이 있다. 첫째는 고려말 야운野雲 선사가 지은 『자경문自警文』 가운데 “풀뿌리와 나무열매로 주린 창자를 달래고, 송라松蘿와 풀옷으로 몸뚱이를 가린다”(草根木果慰飢腸 松蘿草衣遮色身)는 구절에서 유래했다는 최범술의 설<sup>17)</sup>이며, 둘째는 『중국사략中國史略』 가운데 “굴을 파서 즐겨 살며 나무를 엮어매어 집

15) 법해 스님의 『동사열전』과 이희풍의 「초의대사담명」에는 초의 선사가 출가한 나이가 16세로 기록되어 있으며, 전용운의 「해제」(『초의집』)와 채정복의 「초의 선사의 茶禪修行論」에는 15세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는 후자를 따랐다.

16) 梵海覺岸, 『東師列傳』, 310쪽.

17) 최범술, 『韓國의 茶道』(보려각, 1973), 116~117쪽.



▲ 초의 선사

을 삼고 나무 열매 먹고 풀옷을 입는다”(穴居陶居構木爲巢，食木實衣草衣)에서 따왔다는 한기두의 설<sup>18)</sup>이며, 마지막으로 신현申櫛의 「보제존자초의대종사의순탐비명」에 기록된 대로 “초의는 그 염화拈花의 이름이다”(艸衣其拈花之號也)라는 설이다.<sup>19)</sup> 사찰에서 구족계具足戒를 받을 때 얻게 되는 법호法號는 이후의 수도·정진에의 격려 내지 경책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므로 초의라는 법호는 염화지호拈花之號이면서 동시에 위의 첫 번째 설과 두번째 설의 뜻이 함께 담긴 것<sup>20)</sup>이라 할 수 있다.

18) 한기두, 「艸衣의 四辨漫語」(원광대학 논문집, 1970), 5쪽.

19) 채정복, 「초의 선사의 茶禪修行論」(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2), 3쪽.

20) 채정복, 같은 논문, 4쪽.

초의 선사의 범맥은 태고보우太古普愚—환암혼수幻庵混修—구곡각운龜谷覺雲—벽계정심碧溪淨心—벽송지엄碧松智嚴—부용영관芙蓉靈觀—청허휴정淸虛休靜—편양언기鞭羊彥機—풍담의심楓潭義謙—월담설제月潭雪霽—환성지안喚惺志安—호암체정虎岩體淨—연담유일蓮潭有一—백련도연白蓮禱演—완호윤우玩虎倫佑—초의의순草衣意恂으로 이어진 것이었다.<sup>21)</sup>

초의 선사는 완호 스님으로부터 범호를 받은 때인 19세부터 대둔사를 떠나지 않고 경전을 배우면서 틈틈이 범자梵字를 익혀 범어의 뜻을 익혔으며, 또한 탕화幙畫를 잘 그려 당나라 오도자吳道子の 경지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초의 선사가 남긴 그림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현재 대둔사에 보관되어 있는 영정신상影幀神像은 거의 대부분 스님이 손수 금어金魚가 되어 그렸거나 증사證師가 되었던 작품이다. 초의 선사는 유독 관세음보살상과 준제보살상準提菩薩像을 좋아하여 이를 자주 그렸다. 현재 대둔사 유물관에는 초의 선사가 그린 사십이수십일면관세음보살상四十二手十一面觀世音菩薩像 두 점이 보관되어 있다. 또한 초의 선사는 단청丹青도 잘했는데 조사祖師들을 모신 대광명전大光明殿과 보련각寶蓮閣을 지은 후 손수 단청을 했으며 이 건물들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선여禪餘에 익힌 글씨는 일가를 이룰 정도로 뛰어났으며 특히 예서隸書를 잘 썼다고 한다. 훗날 초의 선사는 김정희金正喜와 일생의 지음知音이 되었으나 추사체에 영향을 받지 않고<sup>22)</sup> 스님만의 독창적인 필법을 이루어냈다.

21) 『禪學辭典』(佛地社, 1995), 884~904쪽.

22) 전용운, 「해제」, 『초의집』(『한글대장경』 제225권), 32쪽.

1807년 4월 3일, 초의 선사의 법조사法祖師 백련도연白蓮禪演 노사老師가 대둔사 청운당靑雲堂에서 입적하였다.

1811년 2월에는 대둔사 천불전에 불이 나서 전각 9동이 하룻밤 사이에 다 타버렸다. 이 해에 초의 선사는 스승 완호 스님을 따라 불사에 진력하였다. 그런데 9월 중순 14세 연상의 범형 아암혜장兒庵惠藏이 북암에서 입적했고, 이를 슬퍼하던 초의 선사는 아암 스님을 아끼던 정약용과 가깝게 지냈다.

1812년 가을, 초의 선사는 정약용과 그의 제자 윤동尹同과 함께 월출산 백운동白雲洞에 가서 월출산 외경外境을 그렸다. 이 때, 초의 선사는 「백운도白雲圖」를 그렸고, 정약용은 「청산도靑山圖」를 그리고 그 말미에 시詩를 지어 붙였으며, 윤동은 발문을 지어 한쪽의 시축도詩軸圖를 만들었다. 이 유품은 최근까지 강진 사람이 소장하고 있다가 서울 인사동의 통문관通文館 주인 이겸노李謙魯에게로 넘어갔다.<sup>23)</sup>

1813년, 28세의 초의 선사는 대둔사에서 「비에 갇혀 다산초당에 가지 못하고(阻雨未往茶山草堂)」, 「연못 속 어린 고기를 노래함(賦得池中魚苗)」이란 시를 지었다. 같은 해 5월, 「천불전상량문」을 지었다. 역시 그 해 8월 4일, 정약용은 다산초당에서 초의 선사를 위해 글을 지어 증정하였다.<sup>24)</sup> 이듬해인 1814년에도 초의 선사는 대둔사에 주석하였다.

초의 선사는 30세(1815)에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갔는데, 가는 도중 전주에 들러 명필 이삼만李三晩 등과 사귀었고 한벽당寒碧堂에

23) 전용운, 같은 책, 33쪽.

24) 임종욱 역주, 「초의선사연보」, 『초의선집』(동문선, 1993), 376쪽.

서 시회詩會를 열고 즐겼다. 서울에 올라와서는 두릉杜陵에 사는 정약용의 두 아들 정학연丁學延(호는 酉山), 정학유丁學遊(호는 耘逋)와 신위申緯(호는 紫霞), 홍현주洪顯周(호는 海居) 등과 만나 시를 읊으며 교류하였다. 이때 지은 시가 「만향각에서 유산과 함께 읊음(蔓香閣與酉山共賦)」이란 칠언율시 4수이다. 또한 평생의 지기인 김정희와 그의 동생 김명희金命喜(호는 山泉), 김상희金相喜(호는 琴眉)와도 처음으로 대면하고 사귀게 되었다. 초의 선사의 시 「서성에서 눈 오는 밤에 산천거사 김명희와 두목의 운에 맞춰(西城雪夜與山泉居士金命喜拈杜牧次韻)」란 작품은 바로 이 무렵에 씌어진 칠언율시이다.

1816년, 초의 선사는 서울 인근 수락산水落山에서 「함벽정에서 자면서 학고도인에게 삼가 드림(宿涵碧亭奉贈鶴臯道人)」이란 제목의 5언 28구에 이르는 긴 시를 썼다. 시제에 나오는 학고도인은 윤정현尹定鉉(1783~1874)으로 자는 정수鼎叟, 호는 침계嵒溪, 시호는 효문孝文이다. 윤정현은 이조판서 윤행임尹行恁의 아들로 경사經史와 비지碑誌에 조예가 깊었고 근신하고 청렴해 세상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다.<sup>25)</sup> 다시 대문사로 돌아온 초의 선사는 「철경대사가 지지옹에게 준 시에 차운함(次擘鯨大師止止翁韻)」이란 제목의 칠언율시 2수를 지었다.

1817년 6월, 32세의 초의 선사는 경주에서 「불국사회고佛國寺懷古」란 제목의 칠언절구 9수를 읊었다. 같은 해 8월에는 「동쪽 별장에서 동로 김재원, 담재 김경연, 황산 김유근 세 승지와 추사 김정희와 이별하면서(東莊奉別東老金承旨 在元潭齊金承旨 敬淵黃山金承旨 道根秋史金待教正喜)」란 시를 지었다. 초의 선사가 경주를 찾았을 때 마침 김정희를 비롯한 많은 벗들이 다 모이게 되었다. 초의 선사의 기쁨이

25) 임종욱 역주, 같은 책, 57쪽.

얼마나 컸는가는 그가 무려 칠언절구 21수나 되는 작품으로 만남과 헤어짐을 노래한 사실로 알 수 있다. 이들의 교유는 승속의 구분이나 지위의 고하를 떠난 참된 사귀이었기에 주고받는 이야기에 거리낌이 없었고 다양한 소재의 대화가 술잔과 찻잔 사이를 오고갔다. 9월 14일에는 정약용이 오랜 유배에서 풀려 고향으로 돌아갔다. 초의 선사가 유학과 시학의 스승 정약용의 해배解配를 기뻐한 것은 물론이었지만 정약용이 고향으로 감으로써 다시 헤어지게 됨을 아쉬워하였다. 10월에는 경주 기림사祇林寺에서 천불을 조성함에 점안하고 「중조천불기重造千佛記」를 지었다.

1819년, 34세의 초의 선사는 대둔사에 있으면서 천불전에 신중탱(神衆幀)을 조성할 때 증사證師가 되었다. 1823년(38세)에는 『대둔사지大菴寺誌』 편찬에 참여하여 수룡袖龍 스님과 함께 편집을 담당했는데, 호의縞衣와 기어驕魚 스님이 교정을 보았고 완호玩虎와 아암兒庵 스님이 감정鑑定을 했으며, 정약용이 필사했다.<sup>26)</sup>

범해梵海 스님이 쓴 『동사열전』의 「초의선백草衣禪伯」에 의하면 초의 선사는 차츰 자신의 명성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자 은거의 뜻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대목은 다음과 같다.

세상을 피하여 숨어살 곳을 마련하니 곧 일지암一枝庵이다. 초의 스님은 일지암에서 두문불출한 채 40여 년 간 지관止觀에 전력하였다. 그 뒤 수행 정진을 위한 또 하나의 토굴을 지으니 용마암龍馬庵이며 다시 중신토록 주석할 막사를 지으니 바로 쾌년각快年閣이다.<sup>27)</sup>

26) 전용운, 「해제」, 『초의집』, 34쪽.

27) 梵海覺岸, 『東師列傳』, 31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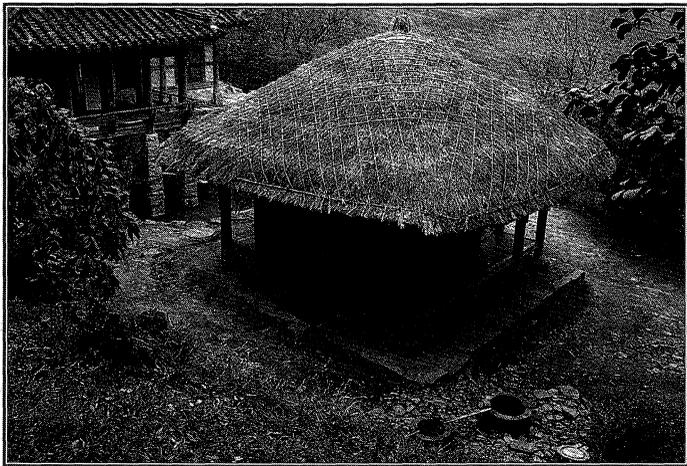
위의 글을 통해 초의 선사가 일지암을 지은 것은 은거·정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일지암에서 두문불출했다는 것은 다소 과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초의 선사는 일지암을 지은 뒤인 1828년(43세)에 지리산 칠불암에 가서 「다신전茶神傳」을 초록했고, 1830년(45세)에는 한양에 올라가 수종사水鍾寺에서 겨울을 보냈으며, 1831년에는 해거도인海居道人 홍현주洪顯周를 만나 선사先師(玩虎 스님)의 비명을 부탁한 것을 소재로 서울 청량산방에서 시를 지으며 봄을 즐기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초의 선사의 행적으로 볼 때 ‘일지암에서 40여 년 간 두문불출했다’는 『동사열전』의 서술은 다소 과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초의 선사가 일지암, 용마암, 쾌년각 등 세 곳을 지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일지암을 세운 시기에 대해서는 초의 선사의 나이 39세였다는 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40세 때였다는 기록<sup>28)</sup>도 남아 있다. 초의 선사가 39, 40세 때에 일지암을 지어 지관검수止觀兼修에 몰두했다는 근거로 삼는 것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는 신현申櫛이 찬讚한 「초의대종사탑비명」에서 “스님께서서는 이내 자취를 거두고 빛을 숨겨 두륜산頭輪山으로 들어가 등나무 넝쿨 속에 작은 암자를 짓고, 일지암이라 이름하였다. 홀로 지관止觀을 수행하여 40여 년이 되었다”<sup>29)</sup>고 한 표현이다. 둘째는 1833년에 지은 「대를 심고」라는 시제와 그 부연 설명 및 “10년을 버르면서 돌아가고자 했지만 대나무와도 영영 이별해야 하나”<sup>30)</sup>라는 시구를 검토해 보면 초의 선사가 48세일 때로

28) 임종욱 역주, 「초의선사연보」, 『초의선집』, 377쪽에 “1825년(순조 25년), 이 해에 초의가 일지암을 지었다고 한다”고 써여 있다.

29) 申櫛撰「艸衣大宗師塔碑銘」, 『艸衣集』 下, “師乃斂跡崙光就頭於山頂, 藤蘿陰中結一小庵 編曰一枝 獨處止觀四十年餘.”

30) 임종욱 역주, 「種竹」, 『초의선집』, 216쪽, “十年歸不得, 恨別此君永.”



▲ 일지암

일지암에 있는 지 10년이 되므로 역산하면 39세 무렵이 된다는 것이다. 셋째는 초의 선사가 1843년에 지은 시 중에 “이로부터 온갖 일들 모두 그만 두어라, 한가로이 20년을 머무를 수 있겠네”<sup>31)</sup>라는 구절이 있는데, 당시 초의 선사가 58세 때이므로 역산하면 39세 무렵이 된다. 따라서 초의 선사가 일지암을 지은 것은 스님의 나이 39세 무렵이 된다는 것이다. 이 무렵 초의 선사는 김정희, 신위와 시를 주고받았다.

초의 선사가 41세인 1826년 8월 23일에 법사法師 완호노사玩虎老師가 세수 69세, 법랍 53세로 대둔사 한산전寒山殿에서 입적하였다.<sup>32)</sup>

31) 임종욱 역주, 『雲翁月槎用前韻寄次韻却寄』, 같은 책, 278쪽, “從今萬事都休了, 猶得閒居二十年.”

32) 임종욱 역주, 『초의선사연보』, 같은 책, 379쪽.

1828년(43세), 초의 선사는 지리산 칠불아원七佛亞院(지금의 칠불사)에서 『만보전서萬寶全書』를 바탕으로 「다신전茶神傳」을 초록해 돌아왔다. 이 해에 초의 선사는 스승 완호 스님의 부도탑을 세웠다. 역시 같은 해 10월에는 출가 사찰인 나주 운흥사雲興寺에 가서 남암南庵에서 설법하고 「수보살계첩규受菩薩戒牒規」를 주었다.<sup>33)</sup>

1830년(45세), 초의 선사는 일지암에 머물면서 「다신전」을 정서해서 펴냈으며, 겨울에는 한양에 올라가 수종사水鍾寺에 머물었다. 수종사는 지금의 행정구역상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송촌리 운길산雲吉山 등덕에 있는 사찰이다. 수종사 인근 마현 마을에서 나고 죽은 정약용과 그의 아들 정학연은 이 절의 샘물로 차를 즐겼는데, 수종사에 머물게 된 초의 선사는 이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그리고 한양으로 올라가기 전 초의 선사는 일지암을 다시 지었는데, 이 해에 쓴 「다시 일지암을 지으며(重成一枝庵)」라는 시를 보면 일지암을 지을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초의 선사가 일지암을 처음 지은 후 6년의 세월이 지났으므로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고 헛 곳을 고치는 등 새 단장을 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우물도 파고 샘물은 대통으로 끌어와 운치와 편의를 도모했음을 알 수 있다. 한양에 올라간 그 해 겨울, 초의 선사는 홍현주를 방문하여 선사先師(玩虎스님)의 비명을 써 줄 것을 부탁하였다.

1831년 정월 중순, 초의 선사는 홍현주 외 여러 선비들과 함께 청량산방에서 봄밤을 즐겁게 보냈다.<sup>34)</sup> 이 해에 초의 선사는 한양의 청량사에 머물면서 정약용의 두 아들 학연, 학유와 함께 홍석주, 신위

33) 전용운, 『초의집』(『한글대장경』 제225권), 246~247쪽.

34) 임종욱 역주, 『초의선사연보』, 『초의선집』, 380쪽.

등의 선비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시를 주고받거나 뱃놀이를 즐겼다. 홍석주와 신위는 초의 선사의 시집에 서문을 써 주기도 하였다. 초의 선사가 그 동안 지은 시들을 모아 묶은 책이 바로 『초의시고艸衣詩藁』이다. 이 시집에 서문을 쓴 연천거사淵泉居士 홍석주洪奭周는 홍현주의 형으로 유가儒家의 대표적인 선비이며 대제학을 거쳐 영증추부사를 지냈다. 신위는 조선조 시詩의 명인名人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초의 선사는 이듬해(1832년)에도 한양에서 머물다가 가을이 되어 서야 일지암으로 돌아왔다. 1830년 가을, 두 번째로 한양에 올라간 후 2년 동안 그곳에서 머물다가 돌아온 것이다.

한양에 다녀온 이듬해(1883년)에 초의 선사는 일지암에서 지내며 뜰에 대나무를 심는 등 한가한 생활을 보냈다. 그 무렵 김정희의 부친 김노경金魯敬(호는 酉堂)이 초의 선사를 만나기 위해 일지암에 들렀다. 일지암에서 가까운 완도 고금도古今島로 유배를 와 4년간 영어園의 생활을 하고 해배되어 돌아가는 도중 아들과 친숙한 초의 선사의 인물됨을 보고 싶어 암자에 들른 것이다. 김노경은 일지암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초의 선사의 인격에 반했고 그 덕행의 뛰어남을 알게 되었다. 한편 김노경은 일지암 초당 뒤에 있는 유천乳泉의 물을 마시고 그 물맛이 수락酥酪보다 더 좋다고 극구 예찬하기도 하였다.<sup>35)</sup>

이런 인연 때문이었는지 김노경이 다녀간 다음 해(1835년)에 초의 선사는 김정희의 편지를 받았다. 그리고 이 해 봄, 진도 사람 허유許維가 일지암으로 초의 선사를 찾아와 제자가 되어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 허유(일명 許蓮)는 초의 선사에게서 서예와 그림, 시문을 습

35) 전용운, 「해제」, 『초의집』, 35쪽.

작하였다. 이때부터 3년 동안 허유는 초의 선사로부터 꾸준히 화법과 시학詩學, 그리고 불경과 차차를 배웠다.

1837년(52세) 봄, 초의 선사는 홍현주의 부탁으로 일지암에서 한국의 다경茶經이라 할 수 있는 『동다송東茶頌』을 저술하였다. 『동다송』은 모두 7언 68행으로 되어 있는데 차의 기원과 효능, 제다법, 우리나라 차의 우월성 등을 읊은 것이다. 초의 선사는 각 구구마다 주註를 달고 자세한 설명을 첨가해 알아보기 쉽도록 해놓았다. 이 『동다송』은 우리나라 차의 성전으로 높이 추앙받고 있으며 조선시대 전기간을 통해 보더라도 차의 전문서로서 가장 충실한 책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해에 초의 선사는 『문자반야집文字般若集』을 저술하였다.

1838년(53세) 봄, 초의 선사는 일지암을 출발하여 한양을 거쳐 금강산 구경을 갔다. 해동의 절경 금강산을 두루 둘러본 뒤 영동嶺東과 영서嶺西를 구경하였으며, 돌아올 때에는 다시 한양에 들러 홍현주의 시집詩集에 발문을 썼다. 홍현주는 순조의 부마로 시에 능하고 학문이 깊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는데, 초의 선사가 사문沙門의 몸으로 홍현주의 시집에 발문을 쓰게 된 것은 송유역불로 일관한 조선시대에서는 참으로 드문 일이었다.<sup>36)</sup> 더욱이 『동다송』 역시 홍현주의 부탁으로 지었다는 점에서 초의 선사와 홍현주의 친분이 남달랐음을 알 수 있다.

1839년(54세), 초의 선사는 다시 한양에 올라가 두릉에 있는 정약용의 집을 방문하고 청량사에 머물었다. 이때 초의 선사는 허유의 그림을 가지고 가서 김정희에게 보이고는 그의 장래성에 대해 물었다. 김정희의 긍정적인 회신을 받은 초의 선사는 이를 진도에 있는 허유

36) 전용운, 같은 책, 36쪽.

의 집에 보내 허유에게 상경할 것을 권하였다. 그 해 8월에 상경한 허유는 김정희의 제자가 되었다.<sup>37)</sup> 같은 해에 진도 사람 우당愚堂이 일지암을 방문하여 「대둔사초암서大菴寺草庵序」를 써서 초의 선사에게 증정하였다.<sup>38)</sup>

1840년(55세), 초의 선사는 헌종憲宗으로부터 대각등계보제존자 초의대선사大覺登階普濟尊者 艸衣大禪師라는 사호賜號를 받았다. 왕사 제도가 사라진 조선 중기 이후에 임금으로부터 사호를 받는다는 것은 승려로서 매우 드문 일이었다. 한편 초의 선사의 평생지기인 김정희는 같은 해 봄에 형조참판刑曹參判이 되었고 6월에는 동지부사冬至副使가 되었으나, 그 해 8월 20일 고향 예산에서 관원들에게 붙잡혀 9월에는 제주도 대정大靜에 유배·안치되었다. 허유는 스승 김정희를 따라 예산으로 내려갔다가 김정희가 제주도로 유배되자 강경포江景浦에서 배를 타고 진도로 귀향하였다.

김정희가 귀양 간 다음 해(1841) 2월, 허유는 일지암을 방문하여 초의 선사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말하였다. 이에 초의 선사가 서신을 써 주었고 허유는 서신과 함께 차茶를 가지고 제주도로 김정희를 찾아갔다. 제주도에서 초의 선사의 서신과 차를 받아 본 김정희는 감회에 젖으면서 ‘일로향실—爐香室’이란 글을 써 허유 편에 초의 선사에게 보냈다. 김정희가 초의 선사에게 써 준 다실 현판은 지금도 대둔사 동국선원에 걸려 있다.<sup>39)</sup> 이후 김정희는 ‘무량수각無量壽閣’이란 현판과 ‘반야심경般若心經’이란 경문도 써 보내 주었다.

37) 임종욱 역주, 「초의선사연보」, 『초의선집』, 383쪽.

38) 임종욱 역주, 같은 책, 384쪽.

39) 전용운, 「해제」, 『초의집』, 36쪽.

1842년 겨울, 초의 선사는 전주 봉서사鳳樓寺에 가서 김기종金箕鍾(호는 隱臯)을 만나 진묵조사震默祖師에 대한 실기實記를 들었다.

1843년(58세) 봄, 초의 선사는 유배중인 김정희를 위로하기 위해 바다 건너 제주도로 그를 찾아갔다. 제주도에서 초의 선사는 두 편의 시를 지었다. 당시 제주목사인 이원조李源祚(1792~1871)가 시 한 편을 써 줄 것을 부탁하자 초의 선사는 「제주목사 이원조가 시를 부탁하기에 망경루의 운에 맞춰 짓다(濟牧李公源祚索詩遂次望京樓韻)」라는 제목의 칠언율시를 지었다. 한편 초의 선사는 제주도의 선비 이연죽李然竹과 시를 주고받으며 교류했는데, 이연죽이 시를 보내오자 오언율시 1수와 칠언절구 6수 등 모두 7수의 화답시를 써 주었다. 마침내 초의 선사는 김정희를 만나 그 동안 쌓인 감회를 주고받는 한편 승마를 즐겼다. 그러나 말을 타다가 낙마落馬하는 바람에 절골折骨하였다. 이는 훗날(1845년) 정학연이 지은 다음 시구로 알 수 있다. “지둔마支遁馬를 거듭 타는 것도 무방하나 북쪽 서울 사람들에게겐 팔부러진 선사禪師가 꼴 좋은 구경거리가 될 것이다.”<sup>40)</sup>

초의 선사가 제주도를 다녀간 다음 해(1844년)에 김정희는 그 유명한 「세한도歲寒圖」를 그려 한양의 이상적李尙迪에게 보냈다. 그 해 10월, 동지사은 이정응李廷應을 수행하여 북경으로 가는 길에 「세한도」를 가지고 갔다. 이듬해(1845년) 정월, 북경의 명사 오위경吳偉卿이 베푸는 연회에 참석한 이상적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한도」를 펼쳐 보였다. 그러자 북경의 내노라 하는 중국 명시들이 찬탄하며 「세한도」에 발문을 썼는데 발제자는 16명이고 발문의 길이는 무려

40) 김두만 역, 「衲衣大禪師一代記」, 『東茶頌·茶禪傳』(『다예총서』 제1권, 1983, 태평양박물관), 127쪽, “不妨再騎支遁馬, 北人爭看折肱禪.”

22척尺에 이르렀다. 이로써 김정희의 「세한도」는 세계적인 명품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상적인 「세한도」와 발문을 두루마리로 합장 合裝하고 장목張穆으로 하여금 제자題字(題簽)를 쓰게 하여 귀국한 후 이를 제주의 김정희에게 보냈다. 이를 받아 본 김정희는 얼마나 기뻐던지 눈물을 철철 흘렸다고 한다. 이후 김정희의 「세한도」는 기구한 이력을 거쳐 1934년 12월 31일자로 국보 제180호로 지정되었고, 지금은 손재형이 소장하고 있다.

초의 선사의 절친한 지기知己인 김정희의 「세한도」가 제주도, 한양, 북경을 오가는 동안 초의 선사는 곳곳이 일지암에만 주석하고 있었다. 1844년 신관호申觀浩가 우수사右水使가 되어 해남 우수영右水營의 제승당制勝堂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때 허유는 초의 선사와 김정희의 배려로 신관호와 첫 대면을 하게 되었고, 이후 허유는 신관호의 후원을 받으며 그림 공부를 계속하였다. 신관호와 교분이 두터웠던 초의 선사는 신관호와 교류하며 시를 주고받았다. 무관이었지만 명필이었던 신관호는 초의 선사의 청을 받고서 대둔사에 많은 금석문을 남겼다. 이런 겹친 인연으로 허유는 신관호가 어영대장으로 승진하여 한양에 갈 때 함께 따라가서는 당시 영의정이었던 권돈인의 주선으로 헌종 임금을 배알하고 어전에서 옥판선지玉板宣紙에 그림을 그리는 영광을 누렸다. 허유의 이러한 눈부신 영달은 초의 선사와의 인연, 김정희·신관호·권돈인의 배려, 그리고 그의 뛰어난 자질과 끊임없는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였다. 훗날 허유가 남화南畵의 종주宗主가 되어 수많은 화가를 길러낸 것도 초의 선사를 비롯한 김정희 등의 알뜰한 배려와 인연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초의 선사가 우리나라 화단에 끼친 공적은

적지 않다. 흔히 초의 선사를 시詩·서書·화畵·차茶의 4절四絶이라 하거니와 대둔사의 단청과 탕화, 「관음도」 등에 그 족적이 남아 있지만, 스님의 그림을 참으로 빛낸 사람은 제자 허유라 할 수 있다.

일지암에서 환갑을 지낸 초의 선사는 제주도에 있는 김정희와 편지를 주고받거나 정학연, 정학유가 보내온 시에 화답하면서 한유하게 지냈다. 1848년 12월 6일, 63세를 맞은 김정희는 마침내 오랜 동안의 제주도 유배에서 풀려났다. 이듬해에 김정희와 동행하여 한양에 와 있던 허유가 신관호와 함께 대궐에 입시해 헌종을 배알하고 어전에서 매화 그림을 그려 바쳤다. 이때 헌종이 허유에게 초의 선사의 인품에 대해 물었다.<sup>41)</sup> 이에 허유는 “세인이 모두 고승이라 하옵는데 그 분은 내외전內外典에 달통했으며 승속 간에 많은 인사와 교유하고 있습니다”라 하였고, 그 말을 들은 헌종은 초의 선사를 한번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sup>42)</sup> 임금과 허유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줄은 짐작조차 못한 채 초의 선사는 일지암에서 유유자적하게 지내고 있었다.

1851년(66세), 초의 선사는 윤치영尹致英(호는 石梧)을 방문하여 『초의시고艸衣詩藁』의 발문拔文을 받았다. 발문에 의하면 정문의 아전이 초의 선사가 대문 앞에 와 있다고 알려주자 윤치영이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이했다고 한다. 또한 평주平州 신관호申觀浩도 『초의시고』의 발문을 써 주었다. 그리고 초의 선사가 입적한 지 9년 뒤인 1875년 10월에는 백파거사白坡居士 신헌구申獻求(호는 靈川)가 초의 선사의 고제高弟 월여月如 스님의 청으로 『초의시고』에 발문

41) 임종욱 역주, 『초의선사연보』, 『초의선집』, 387쪽.

42) 김봉호, 『초의 선사와 완당 김정희』(우리출판사, 1990), 218쪽.

을 썼다.<sup>43)</sup>

한편 초의 선사는 김정희의 『영해타운瀛海朶雲』을 책으로 펴냈다. 『영해타운』은 1840년 2월 10일 교신交信부터 1848년 제주 유배에서 풀려날 때까지의 8년간을 전후하여 김정희가 초의 선사에게 보낸 서간문書簡文을 모은 것이다. 초의 선사는 김정희가 보낸 서신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고이 모아 두었다가 김정희가 유배에서 풀려나자 책자로 재필再筆 편서編書한 것이다.<sup>44)</sup> 이 해(1851년)에 김정희는 묘遷遷의 사건에 연루되어 북청北靑으로, 그리고 권돈인은 순흥으로 각각 유배되었다.<sup>45)</sup> 다행히 김정희는 다음 해(1852년) 8월 유배에서 풀려나 과천에 있는 김경로의 묘지에서 5년간 머물렀다.

1856년 10월 10일 김정희는 과천의 위토位土에 있는 여막廬幕과 같은 토담집에서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초의 선사는 그 해 선달에 김정희의 죽음을 들었다. 죽기 전까지 종종 서신을 주고받으며 서로 위안을 삼았는데 평생의 지기인 김정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초의 선사는 무척 슬퍼하였다. 초의 선사가 김정희의 영위에 문상한 것은 3년 후인 1858년 2월이었다.<sup>46)</sup> 초의 선사가 쓴 「완당김공 제문院堂金公祭文」을 읽어보면 두 사람의 우정이 얼마나 돈독했으며 초의 선사가 김정희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했는가를 느낄 수 있다.

……슬프다, 마니摩尼가 불을 토하매 많은 보배가 저절로 쌓이고 전단檣檀을 옮겨 심으니 모든 것이 함께 향기롭더이다. 뛰어난 현인들이 감탄하여 우러렀고 모든 선비들이 공손하게 그 향기에 취하였으니

43) 「초의시고」 4, 『초의집』(『한글대장경』 제225권), 203~205쪽.

44) 金斗萬, 「艸衣大禪師一代記」, 『東茶頌·茶禪傳』, 129쪽.

45) 임종욱 역주, 「초의선사연보」, 『초의선집』, 387쪽.

46) 임종욱 역주, 같은 책, 388쪽.

그건 구름 같은 비단에 원앙을 수놓은 것과 같았습니다.……오호라, 그대와 나의 42년 동안의 이름답던 우정이여, 그 우정일랑 다음에 저 세상에서도 오래오래 이어 나가십시다. 생각건대 그대와 나는, 이승에서도 자주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대의 글을 받을 때 마다 마치 그대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고 그대와 만났을 때는 진정 허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제주도에서는 반년을 함께 지냈고 용호蓉湖에서는 두 해를 함께 살았었구려. 우리는 얘기를 많이 했었지요. 때로 도道에 대하여 담론을 펼 지경이면 그대는 마치 폭우를 뿌리는 듯 우레를 쏘는 듯 당당하였고, 때로 정담을 나눌 때면 그대의 말씨는 봄바람이 부는 듯 사근사근하였습니다. 그대와 나는 손수 뇌협(雷莢茶)과 설유(雪乳茶)를 달여 마시곤 하였는데 그러다가 어쩌다 슬픈 소문이 귀에 닿으면 적삼 옷이 함께 젖기도 했습니다.……슬프다. 그대를 먼저 떠나보내는 나의 애끓는 심사여, 황국黃菊이 다 시들고 흰 눈이 내리는데 어쩌하여 내가 이토록 늦게 그대의 영전에 당도했을까. 원망 일세 원망이로세. 그대가 나 먼저 이승을 떠나다니 그게 될 말인가 지난날을 생각지 말자. 가깝게 와 보니 도리어 멀기만 하구나.……하오나, 한번 더 생각건대, 내가 그대 곁에 왔어도 서로 만나지 못하여 오고 가는 것이 없으니 이 어인 일인가.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알지는 못해도 오직 그대는 나의 심사를 알 것입니다. 흠향하소서.<sup>47)</sup>

초의 선사는 김정희의 영전에 문상하고 곧 대둔사의 일지암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해(1858년) 여름, 초의 선사와 호의鎬衣 스님은 법사 완호노사玩虎老師의 비를 세웠다.

1860년 75세의 초의 선사는 쾌년각快年閣에 머물면서 「해인사 대웅전 및 대장각 중수 권선문(海印寺大雄殿及大藏閣重修勸善文)」과 「적련암개금모연소赤蓮庵改金募緣疏」를 지었다. 이 해에 권돈인이 죽

47) 김봉호, 『초의 선사와 원당 김정희』, 275~278쪽.

었고, 다음 해(1861년)부터 초의 선사가 다시 일지암에 주석하였다.<sup>48)</sup> 39세(혹은 40세) 때 일지암을 지은 이래 잠시 다른 곳에 다녀오거나 잠깐 동안 쾌년각에 머물긴 했지만 초의 선사는 생애의 대부분을 일지암에서 주석하였다.

1866년(고종 3) 8월 2일, 초의 선사는 몸져누워 있다가 시자侍者를 불러 부축을 받고 일어나 서쪽을 향해 가부좌跏趺坐를 하고 앉아 홀연히 입적하였다. 세수 81세, 법랍 65년이였다.<sup>49)</sup>

다비를 마친 뒤 제자 선기善機와 범인梵寅 스님 등이 영골靈骨(舍利)을 수습하여 대둔사 비전에 부도를 세우고 봉안하였다. 이희풍이 「초의대사탑명」을 찬술하고 부도비를 세운 것은 초의 선사가 입적한 지 5년째 되는 1871년 봄의 일이었다. 그후 병조판서를 지낸 의금부사義禁府事 신헌申櫛에게 비명碑銘을 얻어 부도 옆에 비를 세웠다. 이 비문은 신헌이 강위姜璋(호는 秋琴)에게 부탁해서 대신 지은 것인데, 글씨는 신헌의 아들 신정희申正熙가 썼다.<sup>50)</sup> 그런데 이 신정희의 글씨를 초의 선사의 후예 가운데 한 사람이 김정희의 글씨로 여기고 그만 팔아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대둔사 주지를 역임한 응송 스님이 이를 다시 사들였다. 초의 선사가 입적한 지 75년 만인 1941년 4월, 응송 스님은 한영정호漢永鼎鏞 스님의 도움을 받아 초의 선사를 기리는 비를 세웠다. 한영 스님이 직접 서울에 가서 비석으로 쓸 오석烏石을 구해와 앞면에는 다시 찾은 신헌의 비명

48) 임종욱 역주, 「초의선사연보」, 『초의선집』, 388~389쪽.

49) 전용운, 「해제」, 『초의집』, 38쪽. 초의 선사의 입적 연대는 문헌에 따라 약간 다르기도 한데 범해 스님은 「동사열전」 ‘초의선백’ 조에서 “同治 4년(1865) 을축년 7월 2일 쾌년각에서 입적, 세수 80세”라 하였고, 이희풍은 「초의대사탑명」에서 “세수 80세 8월 2일 입적”이라고 기록하였다.

50) 전용운, 같은 책, 38쪽.

을 쓰고, 뒷면에는 한영 스님이 직접 음기陰記를 해 대둔사 입구 부도전에 세웠다.<sup>51)</sup>

초의 선사가 남긴 저술로는 『일지암시고一枝庵詩藁』, 『일지암문집』, 『초의집』, 『선문사변만어禪門四辨漫語』, 『초의선과艸衣禪課』, 『동다송』, 『다신전』, 『진묵조사유적고震默祖師遺蹟攷』, 『문자반야집文字般若集』 등이 있다.<sup>52)</sup> 이 중 『초의시집』에는 25편 29수에 이르는 다시가 있으며, 이 외에 차와 관련된 산문 2편이 있다.

초의 선사는 어느 한 가지에도 능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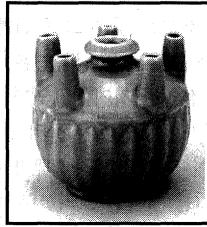
『동다송』을 저술해 우리나라 차 생활의 진수를 전했고 범패(불교 고유의 음악)·원예·서예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이 외에 장 담는 법·화초花草 기르는 법·단방약單方藥 등에도 능했다고 한다. 초의 선사에게 사미계를 받은 사람은 40여 명이며, 보살계를 받은 스님은 70여 명, 선교禪敎 및 잡공雜工을 배운 사람은 수백 명에 달했다고 한다.<sup>53)</sup> 초의 선사의 상족上足인 서암선기愍庵善機 스님이 의말을 이어받았다.<sup>54)</sup>

51) 金大成, 『차문화유적답사기』 중(불교영상회보사, 1994), 217~219쪽.

52) 전용운, 「해제」, 『초의집』, 38쪽.

53) 梵海覺岸, 『東師列傳』, 311쪽.

54) 허유, 『몽연록』; 임종욱 역주, 『초의선사연보』, 『초의선집』, 390쪽.



만향각에서 유산과 함께 읊음 (蔓香閣與西山共賦)

일생의 참선 수행 금년에야 마쳤으니  
 북창에 편히 누워 낮잠 자도 무방하리.  
 백병산 산봉우리 홀로 물에 비치고  
 황효강 빛 고요히 하늘에 닿았네.  
 책상과 차 부엌은 봄바람 속이요  
 약 찌꺼기의 열은 향내에 가벼이 취했네.  
 지공誌公이 실상을 풀이한 것을 이미 믿는다면  
 시끄러운 곳이나 고요한 곳이나 모두 선禪임을 아는 것이지.

一生參學了今年 未妨北窓淸晝眠  
 白屏山尖孤照水 黃曉江色澹連天  
 筆牀茶竈春風裏 藥末香塵小醉邊  
 已信誌公譯實相 要知喧靜兩皆禪

[해설] 이 시는 초의 선사가 정약용의 맏아들 정학연의 집에서 머물면서 쓴 작품으로 모두 4수인데, 여기에 소개한 것은 그 두번째 시이다. 시체에 나오는 만향각蔓香閣은 정학연의 당호堂號이다. 정학연은 초의 선사가 스승처럼 대하는 정약용의 맏아들로 아주 절친한 지기知己였다. 정학연은 시문과 서예에 능했고 농학과 의학에도 조예가 깊었다. 이 시의 말미에 나오는 '지공誌公'은 중국의 고승을 가리킨다. 이 시에는 선리禪理가 무르익은 초의 선사의 도심道心이 잘 드러나 있다. 선리를 체득한 초의 선사에게 있어 책을 가까이 하거나 차를 마시는 것도 일상적인 선禪의 실천이었다. 즉 오도悟道한 그에게 있어서는 시끄러운 저잣거리나 대문사의 고요한 선방이 모두 선禪 그 자체라는 끝 구절을 보건대 초의 선사는 장소 따위에 구애받는 딱 막힌 선승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 탁옹 선생에게 드림 (奉呈籜翁先生)

부지는 재물로 사람을 떠나보내고  
 어진 이는 말로써 떠나보내네.  
 지금 선생께 하직하러 하지만  
 저는 마땅히 드릴 게 없습니다.  
 먼저 공경하게 누추한 마음 펼쳐  
 은자의 책상 앞에서 말씀드리리라.  
 참다운 풍교風教 멀리 가 버리면  
 큰 거짓이 이내 일어날 것이네.  
 마을마다 선비는 가득하지만  
 천 리에 현인賢人은 한 사람도 없네.  
 이미 마을마다 욕심이 차 있으니  
 문명이 부족한 나라에 당연한 이치라네.  
 나는 이런 시대에 태어나

자질 또한 이러하니 감당 못하네.  
그래서 나의 도리를 행하려 해도  
누구에게 물어 볼 인연이 없네.  
현인과 군자의 방 찾아다녀 보아도  
모두 비린내 나는 생선 가게였네.  
남쪽에 있는 온갖 성을 다 돌아다니느라고  
청산의 봄을 아홉 번이나 헛되이 보냈네.  
어찌 바닷가라 하겠는가?  
하늘이 맹자 어머니 같은 이웃을 내려 주셨네.  
덕성과 학업이 나라의 으뜸이요  
문장과 자질이 함께 빛나시네.  
편안히 머물 때도 항시 의로움을 생각하고  
실천에 나서면 어짊을 보였네.  
이미 넉넉하면서도 모자란 듯하였고  
항시 비우고 남을 포용하였네.  
군지는 때를 만남을 귀히 여기지만  
때를 만나지 못해도 원망하지 않네.  
그릇이 크면 원래 용납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해서도 오히려 온화하고 평안하네.  
내 이런 도를 구하기 위해  
멀리 와서 이 정성을 드립니다.  
이제 또 헤어지는 자리에  
종아리를 걷고 가르침을 청합니다.  
혹 수레가 떠날 때 주신 말씀은  
가슴에 깊이 새기고 또 띠에다 써두렵니다.

富送人以財	仁送人以言
今將辭夫子	可無修贈施
先敬舒陋腹	請陳隱几前
眞風遠告逝	大僞斯興焉
閭巷滿章甫	千里無一賢
州里旣愁愁	蠻貊理固然
我生當此時	質亦非堪研
所以行己道	將向問無緣
歷訪芝蘭室	竟是鮑魚廬
南遊窮百城	九遠青山春
豈謂窮海曲	天降孟母鄰
德業冠邦國	文質兩彬彬
燕居恒抱義	經行必載仁
旣滿如不盈	常以虛受人
君子貴遇時	不遇亦不嘔
道大本不容	流落且閭閻
我爲求此道	遠來致恂恂
且將違座側	握衣請諄諄
儻贈謝車言	鏤肝復書紳

[해설] 1809년(24세), 초의 선사는 강진에 있는 다산초당茶山草堂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정약용을 만나 깊이 사귀면서 그에게 유서儒書와 시학詩學을 배워 유학과 시문에 정통했고, 선경禪境에 들어 운유雲游의 멋도 누렸다. 초의 선사는 당대의 대학자인 정약용을 만난 것을 기뻐하며 정약용에게 주는 위의 시를 썼다. 꽤 긴 시이지만 정약용에 대한 초의 선사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시의 초반부에는 초의 선사가 살던 시대의 척박함이 드러나 있다. 초의 선사는 '마을마다 욕심이 차 있으니 문명이 부족한 나라에 당연한 이치라네'라며 당대의 어지러운 세태를 비판하면서, '마을마다 선비는 가득하지만 천리에 현인賢人은 한 명도 없어', '그래서 나의 도리를 행하고자 해도 누구에게 물어볼 인연도 없다'고 한탄하고 있다. 그렇다고 초의 선사가 스승을 찾지 않거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초의 선사는 '현인과 군자의 집을 찾아 다녀 보았지만 모두 비리내 나는 생선 가게였다'고 슬회하고, 현인을 찾아 9년간이나 돌아다녔으나 헛걸음만 했음을 '청산의 봄을 아홉 번이나 헛되이 보냈다'고 표현하였다. 여기서 9년이란 초의 선사가 출가하여 24세에 정약용을 만나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즉 초의 선사는 출가 이래 줄곧 훌륭한 스승을 만나기를 간구했던 것이다. 그러던 중에 정약용을 만나게 되자 초의 선

사는 '하늘이 맹자 어머니 같은 이웃을 내려 주셨다' 면서 기뻐하였다. 그리고 고는 정약용의 학덕과 인품을 존중하면서 다산의 가르침을 '가슴에 깊이 새겨 띠에다 써두고자 했다.' 시제에 나오는 '탁옹'은 정약용의 별호이다. 위의 시로 보아 초의 선사가 정약용을 얼마나 존경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동쪽 별장에서 동로 김재원, 담재 김경연, 황산 김유근 세  
승지와 추사 김정희와 이별하면서

(東莊奉別東老金承旨 在元單齋金承旨敬淵黃山金承旨道根秋史  
金待教正喜)

[1]

여관에서 이별한 좋은 친구들  
종일토록 슬프게 근심했네.  
홀로 가련하구나, 비 개인 뒤의 봉우리.  
곰디 고운 숲은 밖으로 드러났네.

旅館違良知 竟日愁悄悄  
獨憐霽後峯 妍妍露林表

[10]

흠어지는 먹물은 맑디맑고  
엷히는 차 연기는 푸르네.  
바라보니 시선 절로 온화해  
부처님 얼굴이 깨끗한 벽에 둘러 있네.

俺冉墨暉清 繞線茶烟碧  
瞻眺自靄然 鉛華籠淨壁

[해설] 이 시는 원래 전체 21수이며, 그 중 첫 번째와 열번째 시를 소개하였다. 시의 배경은 경주이다. 초의 선사가 경주에 갔을 때 그곳에는 김정회를 비롯해 김재원金在元(호는 東老), 김경연金敬淵(호는 覃齋), 김유근金道根(호는 黃山) 등의 벗들이 모여 있었다. 한양에서 사귀었던 이들을 경주에서 재회한 초의 선사는 무척 기뻐다. 무려 21수나 되는 작품으로 이 만남을 노래한 사실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초의 선사와 그 친구들이 서로 주고받은 술잔과 찻잔 사이로 진솔한 대화와 우정이 오갔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초의 선사의 능동적이고 융화스러운 성품과 진실된 사귀이 잘 표현된 작품이다.

### 여덟 폭 산수도에 제함 (題山水圖八帖)

큰 책상은 책상보를 깔아 정갈하고  
 물병은 화룻가에 향기롭게 놓여 있네.  
 묵은 바위 이끼 머금어 윤이 나고  
 새싹은 노랗게 눈을 틔우네.  
 하늘하늘 차 연기 푸르고  
 드리운 구름 기운도 서늘하다.  
 그윽한 사람의 뜻을 상상하니  
 얼음과 서리처럼 맑고 깨끗하리라.

甌榻承案淨 膽瓶傍爐香  
 古石含蒼潤 新苗舒嫩黃  
 裊裊茶烟碧 冉冉雲氣涼  
 側想幽人意 皎皎潔冰霜

[해설] 초의 선사는 산수화 여덟 폭에 각각 1수씩 제화시題畫時를 썼다. 이 시는 그 중 네번째 시로 책상과 화로, 다기茶器가 놓여 있는 방안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푸른 차 향기가 피어오르는 광경을 보면서 초의 선사는 신선의 뜻을

가늠해 보고 있다. 차와 다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초의 선사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김도촌이 올시 한 수를 보내 왔기에 그에 차운하여

(金道邨寄一律次韻却寄)

도촌이 편안하게 수양하는 곳은  
마음이 원대하니 시간도 더디가네.  
길은 그윽한 난초 뜰에 붙어 있고  
문은 구비진 연못 계단에 맞닿아 있네.  
약을 달여 병을 치료하고  
차를 가꾸어 졸음을 줄이네.  
옛날 산수에 의지해 살자던 약속을  
해맑은 가을에 실현함이 마땅하리.

道邨恬養處 心遠日遲遲  
徑逼幽蘭砌 門臨曲沼碕  
鍊藥消閒疾 品茶減睡癡  
宿昔烟霞約 清秋始赴宜

[해설] 이 시는 김인항金仁恒(호는 道邨)의 평정심平靜心を 노래한 작품이다. 초의 선사가 이 무렵에 쓴 시에는 김인항이 평생 도락으로 즐겼던 다도茶道와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씩 소개되었다. 『초의시고艸衣詩藁』 1권에는 이 시 아래에 김인항이 초의 선사에게 보낸 시가 첨부되어 있다. 그 시의 내용은 사대부로서 명망을 지닌 김인항이 초의 선사의 인품과 자질, 선심禪心 등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김인항의 시에는 단순한 칭송의 말을 넘어서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난 존경과 흠모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금강석에서 언 선자와 왕 우승의 종남별업의 시에 화답함  
 (金剛石上與彦禪子和王右丞終南別業之作)

새소리 들으려 저녁 예불도 쉬고  
 가벼이 노니는 옛 시내 언덕.  
 흥을 일으키는 데는 시구가 좋고  
 경치를 완상하는 데는 좋은 친구가 있어야 한다네.  
 바위 널린 곳에서는 여울물 흐르고  
 바람 불자 소나무 잎새 소리.  
 차 마시고 고요한 물가에 와  
 그윽한 심사 돌아갈 기약도 잊었네.

聽鳥休晚參 薄遊古澗陁  
 追興賴佳句 賞心會良知  
 泉鳴石亂處 松響風來時  
 茶罷臨流靜 悠然忘還期

[해설] 시제에서의 왕 우승은 상서우승尙書右丞을 지낸 당나라의 시인 왕유王維(701~761)를 말한다. 이 시를 통해 초의 선사가 '시불詩佛'이라 불리던 왕유의 시를 좋아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왕유의 시 세계가 초의 선사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시는 초의 선사의 교유詩交遊詩의 일면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친구와 시 그리고 차에 빠져 저녁 예불을 쉬었다는 그의 솔직한 고백이 매우 인간적으로 느껴진다.

도촌 김인향이 지나는 길에 초암을 찾았기에  
 (道邨見過草菴)

성인 가신 지 3천 년  
 도는 사라져 세상은 혼돈스럽네.

홀로 한가로운 세월을 보내고자  
 문 닫고 시서詩書에 충실하네.  
 마음은 오래 전부터 천진하고  
 덕스런 공업, 충과 효도 드높였지.  
 아름다운 소문 한 시대를 흔드니  
 높은 분의 발걸음 누추한 집 문에 멈추네.  
 굳게 사양하고 스스로 자취를 감추어  
 세상 사람의 눈평 받기를 피했네.  
 끝내 인간사를 던져 버리고  
 구름 걸친 숲 속으로 시끄러움을 피해 왔네.  
 내가 은둔해 산다는 말을 듣고  
 구름 헤치고 송헌松軒에 이르렀네.  
 샘물 길어 뇌소<sup>2</sup>를 끓이고  
 향을 사르고 청담을 나누었다네.  
 영특한 자태 학인 양 고고하고  
 맑은 담론은 이슬이 서린 듯하네.  
 저녁 별도 장차 저물려 하니  
 세월이 빨리 달아남을 한탄하네.  
 마치 숲 속의 난초가  
 장차 그 풍성함을 하직할 듯하네.  
 장부가 만약 도가 있음을 알았다면  
 마땅이 '조문도'<sup>3</sup>란 말을 되새겨야 하리.  
 이미 깊고 알음을 알 수 있다면  
 모름지기 참과 거짓을 구별해야 하리.  
 사라지고 자라는 이치<sup>3</sup>를 자세히 탐구하여  
 죽음과 삶의 뿌리를 뚜렷이 밝혀야지.

미세하고 오밀함을 자세히 연구하면  
 곧 양생의 이치를 깨닫게 되겠지.  
 청정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면  
 남의 도움을 무엇하리 바라겠나.  
 부귀는 하늘이 준 복이 아니고  
 꾸밈도 본래의 향기는 아니라네.  
 영대靈臺가 원래 튼튼한 터전이니  
 슬기로운 몸은 원래 청정한 근원일세.  
 마음은 백옥경<sup>9</sup>에 노닐고  
 이름은 자미원紫薇垣에 빛났네.  
 이로움을 찾던 데서 고개 돌려 보면  
 하늘과 땅이 곧 하나의 울타리인 것을.

去聖三千載	道喪世方渾
獨將閒日月	閉門詩書敦
心事天真古	德業忠孝尊
令聞掀一時	軒蓋駐蓬門
牢讓自潛跡	厭被時人論
竟棄人間事	雲林來避喧
聞我巖居靜	披雲到松軒
掬泉烹雷笑	焚香演道言
英姿鶴毛古	清淡玉露繁
雅晤時將晚	頻嗟歲疾奔
有如林中蘭	將謝藹葢藍
丈夫知有道	唯當奮朝聞
既能知深淺	也須辨僞真
精究消長理	明核死生根
細研窮微密	便悟可長存
苟能清自守	何足希人援
富貴非天爵	修飾非素薰
靈臺元固基	智水本澄源

心遊白玉京 名耀紫微垣

回看營營者 天地即一樊

1) 뇌소雷笑: 차의 한 종류. 2) 조문도朝問道: 『논어』 「이인리仁」편 8장에 나오는 말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세상을 떠나도 좋다”는 구절에 나온다. 3) 사라지고 자라는 이치(消長理): 만물이 성장했다가 소멸하는 이치. 4) 슬기로운 몸(智水): ‘영대靈臺’에 대응하는 말로 ‘지혜로운 물’을 마시는 것은 신체이므로 ‘지수智水’를 ‘슬기로운 몸’으로 표현한 것이다. 5) 백옥경白玉京: 신선이 사는 고장, 특히 옥황상제가 있는 곳을 말한다

[해설] 김인항은 대둔사와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선비로서 평소 초의 선사와 친분이 두터웠다. 시의 초반부는 김인항의 인품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김인항은 시서詩書에 충실하고 충성과 효성이 드높았으며, 인간사人間事를 던져 버리고 은인자중하였다. 그러한 김인항이 일지암에 주석하고 있는 초의 선사를 찾아왔다. 초의 선사는 샘물을 길어 차를 끓이고 향을 사르며 김인항과 청담을 나누었다. 두 사람은 격조 높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삶과 죽음의 뿌리에 대해 논하기도 하였다. 찾자리의 청아한 기쁨이 느껴지는 시이다.

### 수종사에서 석옥화상의 시의 운을 따서

(水鍾寺次石屋和尚韻)

꿈에 누가 양산차<sup>1)</sup>를 바치니

게으르게 남은 경전 잡고 있다 눈꽃을 씻어 내리네.<sup>2)</sup>

다행히 산 아래 지음이 있어

인연을 따라와 백운가<sup>3)</sup>에 머무네.

夢回誰進仰山茶 懶把殘經洗眼花

賴有知音山下在 隨緣來住白雲家

1) 양산차(仰山茶): 중국의 스님 혜적(慧寂)(840~916)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혜적 스님은 강서성 원주부에 있는 양산에서 산신의 지시를 받고 개산(開山)해서 선종의 한 파를 형성했는데, 그에게 부처의 참뜻에 대해 물으면 항상 차를 한 잔 권했다고 한다. 2) 게으르게 남은 경전 잡고 있다 눈뿔을 씻어 내리네: 선 수행 중 헛것이나 환상을 보는 경우, 경전이나 선어록을 통해 이를 극복한다는 뜻이다. 선가(禪家)에서는 환상을 '눈뿔'으로 표현하곤 한다. 3) 백운가(白雲家): 흰 구름으로 둘러쳐진 집으로, 곧 사찰을 뜻한다.

[해설] 전체 12수 중 첫 번째 시이다. 시제에 나온 석옥화상(石屋和尚)은 중국 임제종(臨濟宗)의 18세 법손(法孫)이다. 당시 고려의 승려인 태고보우(太古普愚)가 석옥 화상을 방문했을 때 석옥 화상이 그를 중기(重器)라 여기고 가사를 전하므로 임제종의 법통이 우리 나라로 전해지게 되었다고 한다.

### 유산에게 삼가 화답함 (奉和酉山)

[3]

우거진 난초 해초 세간에선 구분 못해  
 전단향<sup>1)</sup> 옮겨 심으면 온갖 물질도 향내 난다네.  
 봉황의 채색 난새의 문양은 속인의 눈을 놀라게 하고  
 쇠북소리 옥의 울림은 범상한 사람의 귀를 씻는다.  
 차 연기는 밤에 삼청(三清)의 이슬에 젖고  
 창 밖의 아침해는 오색구름을 머금었네.  
 인간 세상의 세 가지 즐거움<sup>2)</sup>을 다 누렸으니  
 어찌 다시 명리를 좇아가겠는가.

燕燕蘭蕙世難分 移植梅檀物也薰  
 鳳彩鸞章驚俗見 金聲玉振洗凡聞  
 茶烟夜澗三清露 窓日朝含五色雲  
 三樂人間兼享了 何曾更使利名奔

[8]

산 햇살 지려 하자 서늘한 안개 밝고  
 어두운 빛 그대로 얼어붙어 꿈쩍도 못하네.  
 봉우리마다 눈 덮여 티끌 한 점 없고  
 바람은 온 골에 울려 저녁 추위 심하구나.  
 차 끓여 시 좋아하는 나그네에게 대접하고  
 약 지어 서로 처방전을 확인하는 스님을 위로하네.  
 병석에서 일어나 옛날 놀던 자취 찾아  
 시제 남겨 화답을 재촉하니 더욱 다정하구나.

山暉欲沒冷烟澄 暝色因依凍不騰  
 雪壓千峯塵耗絕 風鳴萬竅暮寒增  
 瀹茗且禮耽詩客 劑藥相憐問字僧  
 病起還尋舊遊跡 留題催和更多情

[12]

병풍을 그리는 데 남을 모방하기를 원치 않아  
 일천 겹의 생생한 조화도造化圖를 그렸네.  
 줄지은 산악 채색 붓에서 뿜혔나 의심되고  
 두 줄기 강물을 움켜다가 주방에 물을 댄다.  
 구름이 바다처럼 펼치니 조수 밀려오고  
 얇게 깔린 안개 길 윤기가 아직 마르지 않았구나.  
 사시四時로 펴놓은 채 걷는 날 없으니  
 맑은 봄날 차 달이는 화로와 같구나.

畫屏不願借人模 千疊生陳造化圖  
 列岳疑推生彩筆 雙江可挹濯香廚  
 雲鋪似海潮方進 烟澹如塗潤未枯  
 張放四時無捲日 春晴偏近煮茶爐

1) 전단향(栴檀香): 향나무의 이름으로 단향목(檀香木)을 말한다. 2) 세 가지 즐거움(三樂): 『맹자』에 나오는 말이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부모님이 살아 계시고 형제들이 모두 별 탈 없이 지내는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며, 우러러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아래로 굽어보아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며, 천하의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해설] 유산(酉山)은 정약용의 아들인 정학연(丁學淵)의 호이다. 정학연은 아버지의 학문을 이어받아 박학다식하고 실학 이론을 세운 인물이다. 정학연의 시를 차운한 초의 선사의 시는 12수인데 그 중 세번째, 여덟번째, 열두번째 시에 차 이야기가 나온다. 초의 선사는 한양에서 정학연을 만나 교류하였는데 이 시에는 두 사람이 삼경까지 차를 마시며 다정하게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 석천에서 차를 달이며 (石泉煎茶)

하늘빛은 물 같고 물빛은 아지랑이 같아

이 땅에 노닐 지도 이미 반년일세.

좋은 밤에는 거의 밝은 달과 함께 놀고

맑은 강에서 지금은 갈매기와 즐고 있네.

시기 질투를 원래 마음속에 담지 않았으니

혈뜯고 칭찬함이 어찌 꺾가에 이르리.

소매에 아직 경뢰소(驚雷笑)가 남아 있으니

어찌 다시 두릉의 샘물을 시험하리오.

天光如水水如烟 此地來遊已半年

良夜幾同明月臥 清江今對白鷗眠

嫌猜元不留心內 毀譽何曾到耳邊

袖裏尙餘驚雷笑 何雲更試杜陵泉

1) 경뢰소驚雷笑: 차의 이름

[해설] 이 시는 초의 선사가 한양에 온 지 반년이 되어 쓴 작품이다. 그 즈음에야 여유를 갖게 된 초의 선사는 오랜만에 다기에 차를 끓였다. 한강을 마주한 두루에서 맑은 샘물을 길고 그 물을 끓여 차를 마시면서 수행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짐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열수에 배를 띄우고 (冽水泛舟)

저무는 해 서쪽으로 달리고 비는 동쪽으로 뿌리는데  
시 주머니<sup>1)</sup>와 다기를 작은 배에 실었네.

구름 걷히자 하늘에 달빛만 가득하고

밤 고요하니 서늘한 바람만 수면 위를 스치네.

천리 먼 곳에서 고향 생각한들 어찌 갈 수 있으리.

한 몸에 남은 업힘 끝내 비우기 어렵구나.

누가 알겠는가, 겹겹 청산 속의 나그네가

황금 물결 만 이랑 속에 자고 있음을.

斜日西馳雨散東 詩囊茶椀小舟同

雲開正滿天心月 夜靜微涼水面風

千里思歸何所有 一身餘累竟難空

誰知重疊青山客 來宿金波萬頃中

1) 시 주머니: 시를 써서 넣는 주머니.

[해설] 시제에 나오는 열수冽水는 한강漢江의 옛 이름이다. 해지는 황혼 무렵 쪽배에 올라 시를 읊고 차를 마시는 초의 선사의 정취가 그윽하다. 그러나 고향으로 향한 초의 선사의 심사는 어딘지 쓸쓸해 보인다.

여름날 서쪽 정원에서 여러 선비들과의 청아한 모임

(夏日西園與諸公雅集)

아른아른 골 구름 서늘함 토하고  
 좋은 곳 찾아가 경계 점점 깊어지네.  
 고운 소리 시냇물은 들 틈에 부서지며 서늘하고  
 차 달이는 연기 하늘하늘 숲을 뚫고 오른다.  
 정신이 맑으니 솔바람 가운데서도 깨닫고  
 마음이 머니 세속의 운치가 도무지 침범하지 못하네.  
 누가 알랴, 천리 밖의 이 모임에  
 거친 소리로 고상한 읊음에 화답함이 부끄럽구나.

谷雲冉冉吐涼陰 選勝移來境轉深  
 澗水琮琤寒射石 茶煙繚繞細穿林  
 神清臆覺松風在 心遠都無俗韻侵  
 千里誰知參雅會 野聲終愧和高吟

[해설] 늦여름에 선비들과 어울려 시회를 하는 장면이다. 절경 속에서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차를 달여 마시니 세속의 운치를 벗어난 듯하다. 초의 선사의 시심詩心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대산 오창렬이 고희에서 유당을 뵈고 석옥의 한겨운으로 시를  
 지어 보냈기에 차운해서 바치다

(吳大山昌烈謁酉堂於古湖和石屋閑居韻見寄次韻奉呈)

[12]

누가 나와 함께 홍모弘模<sup>1)</sup>를 펴서

영구靈丘<sup>2)</sup>에서 노닐며 상도<sup>3)</sup>上圖를 얻을까.

법연法演<sup>4)</sup>은 세 단계로 풀어야 보탑에 이르고<sup>5)</sup>

샘물이 팔덕八德<sup>6)</sup>을 품으면 향주香廚<sup>7)</sup>에 가깝나니

숲에 이슬이 내리자 꽃들 다시 윤기 나고

뜨락엔 그늘이 짙어 이끼는 쉽게 이울지 않네.

선정에 깊이 들어 죽로竹爐<sup>8)</sup>가 식었으므로

남은 불씨를 당겨서 동화로(銅爐)<sup>9)</sup>에 지핀다네.

有誰同此展弘模 遊戲靈丘得上圖  
法演三周來寶塔 泉含八德近香廚  
林藏宿霧花仍濕 庭泊濃陰蘇不枯  
禪誦讒過竹爐冷 更添殘火換銅爐

- 1) 홍모弘模: 큰 피나 원대한 계획. 2) 영구靈丘: 산서성山西省에 속한 고을 이름. 대동현大東縣 동남쪽 당하唐河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3) 상도<sup>3)</sup>上圖: 상계上界. 4) 법연法演: 「법화경」을 설법하는 것. 5) 보탑에 이르고(來寶塔): 진리를 깨닫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6) 팔덕八德: 8종의 공덕. 위에서는 팔덕을 갖춘 물(八功德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경전에 따라 다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고요하고 깨끗하고 차고 맑고 달고 부드럽고 윤택하고 편안하며 화평하고 기갈의 근심을 없애주고 여러 근根을 발양發揚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달고 차고 부드럽고 가볍고 깨끗하고 냄새가 없고 마실 때 목이 상하는 일이 없고 마신 뒤 배탈이 나지 않는 것이다. 7) 향주香廚: 향을 넣어 두는 바리때. 8) 죽로竹爐: 질그릇 화로에 대(竹)를 입힌 차 끓이는 화로. 9) 동화로(銅爐): 구리로 만든 차 끓이는 화로

[해설] 전체 12수 가운데 열두번째 시이다. 시제의 유당西堂은 김정희의 부친 김노경金魯敬을 가리킨다. 그리고 운韻을 차운한 석옥石屋은 고려말 태고보우太古普愚 국사가 깨달음을 인가받은 중국의 고승이다. 그러한 석옥의 시에서 차운했으니 법화경을 설법하는 법연法演이란 어휘가 나오고, 선정에 도움을 주고자 죽로와 동화로에 불을 지펴 팔덕을 가진 샘물로 차를 달여 마신다고 읊은 것이다. 다선일미茶禪一味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북산목관의 시운을 따서 (次北山牧官韻)

못 관리들 자잘한 일로 분주한데  
 한 고을만 홀로 조용하구나.  
 교룡<sup>1)</sup>이 춤추는 바다를 굽어보며  
 거문고 거두고 학과 어울려 잠잔다.  
 붉은 색 번득임은 지는 꽃비이고  
 피어오르는 푸르름은 차 달이는 연기로세.  
 스스로 빚은 현인주賢人酒를  
 조금씩 마시니 돈이 들지 않는다네.

衆官縈細務 一府獨籛然  
 俯海看蛟舞 捨琴伴鶴眠  
 紅飄落花雨 青颺煮茶烟  
 自釀賢人酒 淺斟不用錢

1) 교룡蛟龍: 용의 일종으로 상상의 동물이다. 바다나 큰 강에 살면서 파도를 일으킨다고 한다.

[해설] 북산의 목관은 변지화下持和를 가리킨다. 초의 선사가 변지화의 시에 화답한 이 시는 원래 3수인데 여기서는 그 첫 번째 시만 소개하였다. 초의 선사는 변지화의 교아하고 청신한 마음을 차 향기와 더불어 지켜 나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

청량사에서 모였을 때 내가 지은 시에 정양이 화운해서 보냈기에 다시 화답하다

(晶陽和余清涼寺雅集韻見寄得和答之)

청렴한 관리, 간략한 정치는 한낮처럼 맑고 길어

아름다운 생각 종일토록 시경詩境에 머문다.

글 지어 멀리 수운향水雲鄉<sup>1)</sup>에 보내니

영웅호걸의 기상 넘치고 시어詩語는 맑고 간략하다.

술 한 잔에 봄의 한가함을 사려했더니

봄빛은 이미 손가락 통길 사이에 쇠해 버렸네.

이미 환백歡伯(술)과 감후甘侯(차)가 격문을 가져올 수 없으니

어찌 근심 쫓고 즐거움 맞이하여 웅건하고 용맹하라.

뛰어난 흥취에 절로 겨워 상쾌하고 맑으니

모름지기 좋은 일이라면 서신으로 청할 필요없다네.

초공은 숲에서 빛은 술을 일러 '환백' 이라 하여 근심을 없애고 즐거움을  
물고 온다고 했고, 차를 일러 '만감후' 라고 했다. 왕발王勃은 산에서도  
닐다가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했는데, 가히 전할 만한 일이라고 여기서도  
정해 버렸다.

官清政簡晴晝永	綺思終日在詩境
篇終遠寄水雲鄉	氣多雄豪語清省
一醉本期買春閑	春光已老彈指頃
既不將歡伯甘侯傳檄來	又焉得驅憂來樂健且猛
逸興自乘方快暢	不須好事折簡請

焦公 易林酒爲歡伯 除憂來樂 茶號晚甘侯 王子安遊山中 序烟霞 可傳而定

- 1) 수운향水雲鄉: 물과 구름으로 둘러싸인 곳. 신선이 사는 곳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초의가 시는 해남 지방을 뜻한다.
- 2) 왕발王勃(650~676): 당대의 문학가. 산서성 용문龍門 사람으로 6세 때 글을 지었고 20세가 되기도 전에 진사가 되었다. 자안子安은 그의 자字이다.

[해설] 전체 9수 중 그 세번째 시이다. 초의 선사는 한양에 가면 삼각산 청량사에서 기거했는데, 그곳에서 친구들과 시를 지어 주고받았다. 위의 시는 신태회가 차운해서 시를 보내자 초의 선사가 다시 화답한 작품이다. 신태회와의 돈독한 우정이 잘 형상화되어 있다.

금호에서 산천도인과 헤어지면서 (琴湖留別山泉道人)

(죄의 사함을 받아 서울에 있을 때 금호에 머물렀다.)

가을날의 고아한 만남은 기쁨을 다했고

(갑오년 가을 금석령에서 다시 만났다)

봉단<sup>1)</sup>을 갈고 계설<sup>2)</sup>을 살랐다.

인생사 만남과 이별의 괴로움 견디기 어렵나니

바람부는 날 쓸쓸하게 헤어져 멀리 떨어져 있구나.

(다시 헤어져 남쪽으로 내려왔다.)

덕에 취하고 의리에 배불릴 날 언제던가

이 몸은 벌써 목마르고 허기지네.

(蒙宥上洛時居琴湖) 三秋高會窮憐歡 (甲午秋重會琴石亭)

閑碾鳳團燒鷄舌 人生聚散苦難常 淒勵風前復遠別

(又留別南歸) 醉德飽義更何時 此身還復如飢餐

1) 봉단鳳團: 차의 이름. 2) 계설鷄舌: 향의 이름. 정향丁香 나무의 꽃 봉우리를 말린 것으로, 약재로도 쓰여 차통이나 체한 데 효과가 있다.

[해설] 시제의 산천도인山泉道人是 추사 김정희의 동생 김명희의 호이다. 위의 시는 초의 선사와 산천도인 김명희와의 사귀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만남과 헤어짐에 얽힌 두 사람의 정감이 곡진하게 표현되어 있다.

기산이 차를 보내 준 일에 감사하면서 장구를 지어 보냈기에  
삼가 차운하고 아울러 쌍수도인에게도 시를 지어 보내다

(起山以謝茶長句見贈次韻奉和兼呈雙修道人)

지금까지 모든 일들 봄눈 녹듯 스러졌지만

그 중 조금도 마멸되지 않는 것 있음을 뉘 알리오.  
 가을 하늘 맑은 달빛을 담뱃 담아 깨끗하고  
 맑고 온화하여 교결함을 비교하기 어렵네.  
 남다른 모양과 열등한 형체를 누가 따지는가  
 진실한 이름이나 거짓된 호칭이나 모두 원래 없었던 것이지.  
 처음부터 가정(假定)<sup>1)</sup>에서 서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누가 향불을 옛 인연들이 모인 것이라 말하는가.  
 서로 풀고 서로 거두니 찾을 곳은 사라지고  
 함께 살고 함께 죽으니 서로 도울 필요도 없네.  
 한번 얼굴 돌아보고 한번 기뻐하노니  
 깊고 깊은 정회는 정말 간절하구나.  
 서른 번 치는 막대기<sup>2)</sup> 두려워하지 않았고  
 한가롭게 구름을 따르니 험한 산도 밭 아래라.  
 문득 유마힐<sup>3)</sup>이 거쳐하는 방장을 보니  
 백옥계 안에서도 황금으로 담을 둘렀구나.  
 옥녀가 때때로 하늘 꽃을 흩뿌리는데  
 만수화<sup>4)</sup>와 분타화<sup>5)</sup> 꽃마디를 뽑아 던지네.  
 바닥 없는 바리때에다 중향반<sup>6)</sup>을 가득 담고  
 들리지 않는 귀로 소리 없는 말을 듣는다네.<sup>7)</sup>  
 번뇌와 세상 티끌들은 불을 곳이 없는데  
 누가 있어 물가에서 깨끗이 씻길 원하리오.  
 불이문不二門<sup>8)</sup>안 30여 명의 사람들에게는  
 부처님의 장광설<sup>9)</sup>도 일체 필요없도다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말후구末後句로 모두 이자유伊字喻<sup>10)</sup>를 사용하리니  
 중횡으로 병립하고도 또한 떨어져 있으니

내 그대에게 일전어-轉語<sup>11)</sup> 한 마디를 부탁하노라.

법회공과 선열식<sup>12)</sup>으로

담욕스런 인간<sup>13)</sup>들을 모두 용납해 주게.

萬事從來春消雪 誰知個中自有一段難磨滅

秋空淨涵明月光 清和難將比較潔

殊相劣形誰擬議 眞名假號總元絕

始未相動那伽定 誰道香火舊緣結

雙放雙收沒處尋 同生同死休提掣

一廻見面一廻歡 有甚情懷可更切

三十柱杖曾不畏 等閑隨雲下巖嶽

却看維摩方丈居 白玉界中黃金埽

玉女時將天花散 曼殊分陀蒂相擲

無底鉢擎衆香飯 沒根耳聽無言說

熱惱塵垢無着處 有誰更願濯清洌

不二門中三十人 都無所用廣長舌

君不見 末後都將伊字喻

縱橫竝分也離別 我從長者請下一轉語

法喜供禪悅食 還將容饗餐

- 1) 가정(伽定: '가伽'는 '일체법일합불가득一切法一合不可得'의 뜻으로, '최조밀무명암명催稠密無明闇冥'의 소리라 한다. '정定'은 마음을 한 곳에 머물게 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서른 번 치는 막대기(三十柱杖): 선종의 종장宗匠이 선을 배우는 사람들을 깨우치는 방편으로, 포괄하고 폄貶하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선림유집방할禪林類集棒喝」에 “道하라 道하라 得道하여도 삼십방, 道不得하여도 삼십방하리라”는 구절이 있다. 3) 유마힐維摩詰: 부처님의 속인제자俗人弟子. 인도 비야리국의 장자로서 속세에 있으면서 보살행업을 닦았다. 그 수행한 경지가 깊어 불제자도 함부로 미칠 수 없었다고 한다. 4) 만수화曼殊花: 묘妙의 뜻을 지닌, 문수보살이 왼손에 들고 있는 꽃. 5) 분타화分陀花: 백련화白蓮華. 6) 중향반衆香飯: 갖가지 향료를 넣어 만든 음식. 7) 들리지 않는 귀로 소리 없는 말을 듣는다네(沒根耳聽無言說): '물근이沒根耳'는 귀뿌리가 없는 귀로서 있어도 들을 수 없는 귀를 말하고, '무언설無言說'은 소리가 없는 이야기를 말한다. 참다운 대화는 물리적 수단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소리(心音)를 들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뜻이다. 8) 불이문不二門: 불이법문不二法門. 상대 차별을 없애고 절대 차별도 없는 이치를 나타내는 법문. 제법불이諸法不二的 이치는 불도의 표준이 되므로 법이라 하고, 모든 성인이 이 법에 의해서 진리에 들어갔으므로 문이라 한다. 9) 장광설(廣長舌): 부처님이 하신 모든 말씀. 10) 이자유伊字喻: 산스크리트 문자 이(·:) 자의 모양이 세 점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한다. 그 배열하는 위치는 가로로 서지도 세로로 서지도 않고 삼각 관계를 이루었으므로 삼즉일三即一· 일즉삼一即三· 불일불이不一不二· 비전비후非前非後를 비유할 때 쓰인다. 11) 일전어一轉語: 전轉은 전신轉身· 발진撥轉· 전기轉機 등의 속자熟字. 학인學人の 심기를 일전하는 말. 12) 법희공과 선열식(法喜供禪悅): 법희선열法喜禪悅은 법희식法喜食과 선열식을 합칭한 말이다. '법희식'은 불법에 의하여 심신을 돕는 것으로, 법을 듣고 환희한 마음으로 수행하여 선근禪根을 주장하는 것이 마치 세간의 음식물이 몸을 기르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선열식'은 이식二食의 하나로, 선정으로서 심신을 도우며 선정의 낙을 얻어 몸을 길러 혜명慧命을 자익資益하는 것이 마치 사람이 음식을 먹어 신체의 모든 기관을 길러 목숨을 보존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13) 탐욕스런 인간들(饕餮): 재물과 음식을 탐내는 인간들을 뜻하는데 '도찬饕餮'이란 악수惡獸의 이름으로 탐욕이 많고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한다. 즉 탐욕이 많은 흉악한 사람을 말한다.

[해설] 시제의 쌍수도인雙修道人은 김정희의 별호이다. 사람에게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은 대개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위의 시에서는 탐욕을 극복하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열거하고 있다. 초의 선사는 탐욕에 물든 속계의 불쌍한 인간들을 구제하기 위해 넉넉한 마음으로 그 가여운 자들을 포용하여 용납하자고 말하고 있다. 아마도 김정희도 초의 선사의 이러한 뜻에 기꺼이 찬성했을 것이다.

차나무 한 그루를 얻고 (借分一株又疊)

날씨 추우니 단풍잎 어지러이 떨어지고

옷깃에 어린 싸늘한 서리 원망하지 않네.

안개 뚫고 떠오른 달 수면에 비치고

바람에 나는 외로운 학 뜰 안에서 춤춘다.  
 다정히 너와 함께 술잔 앞에 두고 이야기하려고  
 약속을 남겨 놓고 다시 꿈속에서 찾았네.  
 흰 구름, 맑은 이슬비 나누어 가져  
 뿌리와 함께 초당 깊이 옮겨 심으리라.

天寒紅葉亂辭林 不怨煩霜冷看襟  
 月上落霞停水面 風翻孤鶴舞庭心  
 多情欲與樽前語 留約還將夢裏尋  
 分得白雲清雨露 和根移取艸堂深

[해설] 차나무를 사람에게 비유하여 쓴 시이다. 차나무는 날씨가 추워져 서리가 내려도 이를 원망하지 않는다. 이 시에서 초의 선사는 안개 속의 달과 학을 벗 삼아 차를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꿈속에서도 이를 소망했다고 읊고 있다. 또한 '차나무를 일지암 초당에 옮겨 심고 흰구름과 맑은 이슬비를 나누어 갖겠다' 며 한 그루의 차나무를 얻은 기쁨을 노래하였다.

운엄도인<sup>1)</sup>의 시운을 따서 (次雲嚴道人韻)

[5]

맑게 노닐음이 지난 겨울보다 나오니  
 높은 분과 함께 조용히 만났기 때문이네.  
 등불 아래 글을 보며 좋은 글귀 자랑인데  
 추운 밤 구름 너머로 성긴 종소리 들려온다.  
 인간 세상 요란하여 바람에 나무 흔들리나  
 천상 세계 맑고 편하니 달빛이 봉우리에 가득하다.  
 신령한 샘물이 우유보다 나은 것을 알려면  
 용정차龍井茶<sup>2)</sup> 차 한 봉지 달여 마셔 보소.

清遊曠覺勝前冬 坐與高人靜裏逢  
 舊作燈前誇好句 寒更雲外報疎鍾  
 下方撩亂風搖樹 上界清寧月滿峯  
 要試靈泉勝牛乳 一包龍井解斜封

[7]

겨울에 완주完州 성에서 상심하며 이별했는데  
 누가 알았으랴, 이 생애 다시 만날 줄을.  
 맑은 이슬로 갈 수 있는 먹도 없고  
 차는 있지만 흰 구름 잔에는 따를 수 없네.  
 그대는 옥산에 높이 누운 나그네인데  
 멀리 천주봉<sup>3)</sup>을 찾은 내가 부끄럽구나.  
 이곳에 은둔했다니 다시 뒷날의 기억 남기며  
 소나무 문을 덩굴로 에워싸게 하게나.

傷心遠別完城冬 誰料此生得再逢  
 無墨可研清月露 有茶難酌白雲鍾  
 如君高臥玉山客 愧我遠尋天柱峯  
 嘉遯更茲留後約 松門一任薜蘿封

- 1) 운엄도인雲嚴道人: 『초의시집』(『한국불교전서』 제10책,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9년, 10~858쪽)에는 ‘운엄도인’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임종욱林鍾旭이 역주한 『초의선집』(동문선, 1993, 296쪽)에는 ‘운려雲廬’로 표기되어 있다. 『초의집』(『한글대장경』 제225권, 동국역경원, 1997, 183쪽)에는 ‘운엄雲嚴’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용정차龍井茶: 중국 차 이름. 3) 천주봉天柱峰: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

[해설] 초의 선사가 운엄도인을 생각하며 쓴 이 시는 전체 8수로, 여기서는 차 이야기가 나오는 다섯번째와 일곱번째 시만 소개하였다. 초의 선사에게 있어 운엄도인은 뜻 맞는 도반道伴으로 각별한 우정을 나눈 사이였다. 사사로운 욕심이 없고 마음밭을 가꾸는 도반과의 만남에 대해 초의 선사는 자못 깊은 심회를 느끼고 있는 듯하다. 더구나 시가 있고 차 향기가 그윽한 두 사람의 만

남에서는 선취禪趣가 느껴진다. 은거의 뜻을 품고 찾아온 친구를 맞으며 지적에 두고 그와 만날 수 있게 된 기쁨을 나타낸 시이다.

### 현재에서 운을 골라 함께 읊다 (縣齋拈韻同賦)

일이 없어 일찍이 시내를 건너지 않다가  
오늘 밤 자리를 옮겨 흰 구름 베고 잠든다.  
맑고 고운 경치라도 석 달을 넘기 어렵지만  
검소한 술자리는 이천<sup>1)</sup>에 속한다네.  
젓가락으로 가늘고 미끈한 국수를 먹고  
화유<sup>2)</sup>花乳를 끓여 마시니 연기가 등글게 떠오른다.  
그대에겐 자연과 노닐 만한 풍류 있으니  
이로부터 두고두고 함께 노닐겠노라.

無事不曾度澗煙 今宵移宿白雲邊  
清研景物無三月 澹素杯盤屬二天  
麵洗玉筋纒細滑 茗煎花乳浮輕圓  
使君勝有烟霞趣 從此相遊可判年

1) 이천<sup>1)</sup>二天: 남의 특별한 은혜를 하늘에 비유하여 이른 말이다. 『후한서後漢書』 「소장전蘇章傳」에 “순제 때 유문이 기주자사가 되었는데, 그때 마침 그의 친구는 청하태수로 있었다. 장자가 부안을 행하려 하자 장자의 수하에서 아침하던 사람이 태수를 초청해 술상을 차려 놓았는데 평상시 그가 즐기던 음식이 차려 있는 것을 보고 몹시 기뻐했다. 태수는 기뻐하며,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하나 있지만 나만 홀로 두 하늘을 가지고 있다’ 고 하였다”는 글이 있다. 2) 화유<sup>2)</sup>花乳: 차의 다른 이름.

[해설] 초의 선사는 오랜만에 산사를 내려와 벗들과 어울렸다. 이들은 음식을 먹고 차를 끓여 마시며 풍류를 즐겼다. 돈독한 인정이 오가는 만남을 읊은 시이다.

유산의 다시에 삼가 화답함 (奉答西山茶詩)

[1]

남북으로 오고가니 둘 다 인연 없어  
잉어나 기러기"가 모두 인편을 못 따르네.  
맑은 강 비단 같고 산은 그림 같아  
지난날 놀이가 마음속에 선명하게 박혔구나.  
꽃 따던 작은 정자에서 밤비 소리 듣고  
운길상방에서 좋은 샘물 맛보았네.  
술술 불어오는 술바람에 반쯤 취해 눕고  
꿈결에 깨어 보니 강가 달만 등글다.  
대처럼 마른 병든 이내 몸이 가련하고  
그대의 시상詩想 냇물 같음이 부럽구나.  
휘갈기는 글씨는 주옥처럼 화선지 위에 흩어지고  
창 틈을 뚫은 눈꽃 비단자리에 떨어진다.  
이 날 시의 부엌에서 문자를 마시니  
듣는 사람들마다 입에서 군침을 흘렸다네.  
때때로 나의 게으름 채찍질하니  
잘못된 시구라도 정신 가다듬어 힘쓰네.  
흰머리 되어 지금은 서로 갈리었지만  
서로 아김은 오히려 그때와 같소.  
올해는 편지를 청해의 학<sup>2)</sup>에게 전했다더니  
가을 바람에 기러기보다 먼저 왔소.  
애뜻하고 우아한 글 뜻이 깊어  
한 마디 한 글자가 만금의 값<sup>3)</sup>이로세.  
사랑스러이 어루만지며 백 번을 거듭 읽나니

회포와 마음씀이 오래도록 남아 있소.

그대에게 권하노니 지금부터 오래 잊고 지내게나.

잊어야 비로소 번뇌의 애태움도 사라지지.

번뇌 일지 않으면 도가 저절로 이루어지고

생각함과 서로 잊는 것, 어느 것이 현명한가.

도를 이뤄 구름 타고 제향帝鄉에 이르면

황금 대궐에 모시고 서있는 모습이 곱겠지.

그대여, 그대여, 내 말 기억하시게.

잊지 않으면서 서로 잊자는 말<sup>1)</sup> 마음에 새기게나.

南來北去兩無緣 鱗鴻不肯隨人便  
澄江如練山如畫 舊遊心眼印芳鮮  
菜花小亭聽夜雨 雲吉上房試名泉  
半醉時臥松風細 殘夢初回江月圓  
憐我病骨瘦如竹 羨公詩思至如川  
揮毫珠玉散華箋 透窓雪花墮紋筵  
此日詩廚文字飲 人間聞者口流次  
又能時時策我懶 惡詩類句勉精研  
白首如今分涯角 相愛猶復如當年  
今年寄書青海鶴 又是秋風雁來先  
悽惋古雅詞義深 一言一字直萬錢  
愛玩摩挲百回轉 懷緒自解久縈纏  
勸公從此永相忘 相忘始無煩惱煎  
煩惱不生道自成 思與相忘知誰賢  
道成乘雲至帝鄉 金闕侍立玉貌妍  
公乎公乎記我言 毋忘相忘心頭鐫

1) 잉어나 기러기(鱗鴻): 인소鱗素와 안백雁帛의 이야기에 나온 말, 잉어의 배와 기러기의 발목에 편지를 넣어 보냈다는 뜻. 2) 청해의 학(青海鶴): 편지를 전해 준 허유를 말한다. 소치는 전남 진도에서 태어났는데 초의 선사의 추천으로 김정희의 문하에서 시·서·화·書を 배워 삼절이라 불렸다. 3) 만금의 값이로세(直萬錢): 두보杜甫의 시 「춘망春望」에 '봉화독에 오른 햇불은

석 달이나 잇닿고, 집안에서 부친 편지는 만금이거나 나간다' (烽火連三月, 家書抵萬金)는 구절에서 유래하였다. 4) 잊지 않으면서 서로 잊자는 말(毋忘相忘): 서로 잊지 않으면서도 잊으며 지낼 수 있다는 마음의 자재로움을 뜻하는 말로, 진정한 그리움은 잊음에서 온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해설] 전체 2수 중 첫 번째 시이다. 초의 선사와 김정희의 돈독한 우의는 매우 유명하다. 1848년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에서 풀려나 한양으로 돌아왔을 때 지인知인들이 모두 모여 축하 모임을 가졌다. 이때 초의 선사는 참석하지 못했는데 정학연이 그 아쉬움을 시로 적어 초의 선사에게 보내자 초의 선사가 정학연의 시에 화답하여 보낸 것이 위의 작품이다. '잊지 않으면서 서로 잊자는' 시의 마지막 구절은 불가佛家の 선승다운 빼어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진정한 정(그것이 우정이든 애정이든)이란 평소 잊고 지내는 듯하면서도 잊지 못하는 것이다. 선禪 수행자와 당대의 대학자인 김정희나 정학연 같은 인물들이 어찌 만나지 못한다고 하여 속인들처럼 애달아하며 안절부절하겠는가. 속 깊은 인간의 심정은 잊은 듯 무심하면서 잊지 않고 정이 남달라도 수선은 떨지 않는 법이다.

### 운포의 다시에 삼가 화답하다 (奉答耘連茶詩)

갓가지 기이한 꽃과 온갖 풀들이  
 아침엔 곱다가 저녁에 시드니 아름다움도 잠깐일세.  
 대나무의 정결한 덕을 다투어 닳으려 하는데  
 봄은 늦고 서리 일찍 내려도 원망치 않는구나.  
 옮겨 올 때 험한 재를 넘는 것도 마다 하지 않았고  
 곡진하게 주인을 위해 그윽한 즐거움을 주네.  
 성긴 그림자는 홀로 호수가 달을 벗삼고  
 연약한 가지는 오히려 봉황이 와 쉬기를 기다리네.  
 저녁놀이 붉게 물든 누대가 시원한 것은  
 더위가 지나갈 문을 모두 막은 탓이지.

바람 없어도 이파리 흔들려 옥 가는 소리 들리니

그제야 난새가 덧잎 헤치고 오는 것 알았구나.

百樣奇花千般艸 朝艷暮萎不長好  
爭似此君抱貞德 不怨春晚清霜早  
移來不辭逾嶺難 曲爲主人愜幽看  
疎影孤伴池心月 弱條猶蘄鳳來歇  
夕陽漏紅滿涼臺 炎瘴欲透無門開  
無風搖綠玉磨響 始覺乘鸞披拂來

산천도인이 차를 받고 사례하며 지은 시에 삼가 화답하다

(奉和山泉道人謝茶之作)

예로부터 어진 성인들은 모두 차를 즐겼나니

차는 군자와 같아 성품에 샅됨이 없네.

사람이 차를 처음 마시게 된 것은

멀리 설령<sup>1)</sup>에서 차잎<sup>2)</sup>을 따면서라네.

그때부터 법식에 맞춰 품질을 나누었고

옥병에 가득 채워 비단으로 묶었다네.

물은 황하 발원지의 것이 가장 좋으니

여덟 가지 덕과 미를 모두 갖추고 있지.

(『서역기』에 이르기를, 황하의 근원은 아육달지<sup>3)</sup>에서 시작하는데 물은 여덟 가지 덕을 갖고 있으니, 가볍고 맑고 차고 부드러우며 맛이 좋고 냄새가 없으며 마실 때는 비위에 맞고 마신 뒤에는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깊이 길어서 가볍고 연한 맛을 한번 보면

참되고 정결하여 몸과 마음이 짝 퍼진다네.

(『다서천품』에서 말하기를, 차는 물의 정신이고 물은 차의 본체이다. 참된 물이 아니면 그 정신은 드러나지 못할 것이고 정결한 차가 아니라면 그 본체를 엿볼 수 없을 것이다.)

거칠고 더러운 찌끼를 깨끗이 걸러야 정기가 스미나니

큰 도를 얻어 이루는데 어찌 멀다 하겠는가.

영산으로 지니고 가서 여러 부처님께 올리는데

끓일 때는 세심하게 범률<sup>4)</sup>을 살폈다네.

차의 참된 본체는 오묘한 근원을 통하였고

(범어로 '알가화'란 차를 말한다.)

묘한 근원에 집착하지 않으면 바라밀<sup>5)</sup>이 되리라.

(『대반야경』에서 말하기를, 일체의 범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바라밀이라 한다고 하였다.)

아까워라 내 삶이 삼천 년을 기다렸는데

조음<sup>6)</sup>은 아득해지고 선천<sup>7)</sup>은 끊겼구나.

묘한 근원 묻고자 해도 대답을 들을 곳이 없으니

열반에 앞서서 불생不生<sup>8)</sup>을 길이 한탄하노라.

(니항은 열반과 같은 뜻이다.)

차에 대한 애착을 끝내 버리지 못하고

이 땅에 가지고 들어와 웃음거리가 되었네.

비단으로 묶인 옥병 마개를 잘 끌러

먼저 친구님네들에게 선사하노라.

(원운을 덧붙임)

늙은이 평소에는 차를 즐겨 앗다가

하늘이 노여워했다 몹쓸 병에 걸렸네.

열병 아니라 소갈증에 죽나 근심하다가

급히 풍로를 지퍼 찾아낼 달였노라.  
 연경에서 가져온 차는 가짜가 많으니  
 향나무로 꺾을 하고 비단으로 묶었네.  
 들으니 좋은 차는 예쁜 사람과 같다니  
 우리 여중은 추하기가 한량없구나.  
 초의 선사 홀연히 비 오기 전에 보내 주니  
 죽순껍질에 담긴 차를 손수 꺼내 보았네.  
 막힘을 없애고 번뇌 씻어 주니 비할 바 없고  
 우레인 듯 쪼개는 듯 어찌 그리 웅장한가.  
 노스님 차 고르길 부처님 고르듯하여  
 일창일기<sup>9</sup>가 엄숙히 계율을 지켰도다.  
 초배<sup>10</sup>에 더욱 정성들여 원용을 얻었으니  
 향내음을 좇아서 바라밀이 되었구나.  
 이 비방은 오백 년 전부터 시작되었으니  
 옛사람 슬기로운 복을 지니지 않았다 하리오.  
 그 맛이 맑은 우유보다 심원함이 더 하니  
 불멸佛滅에 앞서 불생不生한 것을 한탄하지 않으리라.  
 차가 이처럼 좋은데 어찌 사랑하지 않겠는가.  
 옥천의 칠완<sup>11</sup>도 오히려 적다 하겠네.  
 범속한 인간에게는 경솔히 말하지 말라.  
 산중의 영험한 차가 새어 나갈까 걱정된다네.

古來賢聖俱愛茶 茶如君子性無邪 人間艸茶差嘗盡 遠入雪嶺採露芽  
 法製從他受題品 玉壘盛裏十樣錦 水尋黃河最上源 具含八德美更甚  
 (西域記云 黃河之源 始發於阿耨達池 水含八德 輕清冷軟美不臭 飲時調適 飲後無患)  
 深汲輕軟一試來 眞精適和體神開  
 (茶書泉品云 茶者水之神 水者茶之體 非眞水 莫顯其神 非精茶 莫窺其體)

麤穢除盡精氣入 大道得成何遠哉 持歸靈山獻諸佛 煎點更細考梵律  
闍伽真體窮妙源

(梵語闍伽華言茶)

妙源無着波蘿蜜

(大般若經云 於一切法無所執着 故名波蘿蜜)

嗟我生浚三千年 潮音渺渺隔先天 妙源欲問無所得 長恨不生泥洹前  
(泥洹義同)

從來未能洗茶愛 持歸東土笑自隘 錦纏玉壘解斜封 先向知己植檀稅

#### 附原韻

老夫平日不愛茶 天憎其頑中瘡邪 不憂熱殺憂渴殺 急向風爐瀹茶芽  
自燕來者多贖品 香片珠蘭匣以錦 會聞佳茗似佳人 此婢才耳醜更甚  
草衣忽寄雨前來 籜包鷹爪手自開 消壅滌煩功莫商 如露如割何雄哉  
老僧選茶如選佛 一槍一旗嚴持律 尤工炒焙得圓通 從香味入波蘿蜜  
此秘始挾五百年 無乃福過古人天 明知味勝純乳遠 不恨不生佛滅前  
茶如此好寧不愛 玉川七椀猶嫌隘 且莫輕向外人道 復恐山中茶出稅

- 1) 설령雪嶺: 중국 사천성과 서장西藏 경계에 있는 산맥. 2) 찻잎(露芽): 차의 다른 이름. 원운에 있는 '웅조鷹爪'도 역시 차의 이칭이다. 3) 아욕달지阿彌達池: 서장(티베트)에 있는 호수 이름으로 물이 맑고 깨끗해 섬부주瞻部州에 공급한다고 한다. 4) 범률梵律: 불교에서 쓰는 음악. 5) 바라밀波羅蜜: 바라밀다波羅蜜 다라고도 쓰며 도피안到彼岸이라 번역한다. 피안, 곧 이상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보살들의 수행을 총칭하는 말이다. 보통 6중·10중으로 나눠 육바라밀·십바라밀이라 하며 또는 육도六度·십도十度라고도 한다. 6) 조음潮音: 많은 승려들이 독경하는 소리. 7) 선천先天: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갖추어진 성품. 8) 불생不生(斷): ① 삼중단三種斷의 하나. 어떤 법이 다시 나지 못하도록 그 법이 생기는 연緣을 끊어버리는 것. ② 사단四斷의 하나. 번뇌를 모두 끊을 때 이것에 의지해서 발생하던 업생과 과아가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을 불생단이라 하고, 불생은 곧 단멸斷滅이란 뜻이다. 9) 일창일기一槍一旗: 차나무에 잎이 자랄 때 맨 처음 뜯는 짝으로 차의 최상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곡우 전후에 딱 찻잎이 여기에 속한다. 10) 초배炒焙: 찻잎을 철판 위에서 불로 말리는 작업으로 차를 만드는 작업 중 첫 작업이다. 11) 옥천의 칠완(玉川七椀): 옥천은 당나라의 시인 노동虛同(775~835)의 호. '옥천의 칠완'이란 노동이 쓴 「칠완다가七椀茶歌」를 가리킨다. 여기서 7잔의 차도 적다는 의미이다.

[해설] 김정희의 동생 김명희金命喜가 먼저 초의 선사의 차를 받고 감사하는 뜻으로 시를 보낸 것에 대해 초의 선사가 그에 화답한 시가 바로 위의 작품이다. 괄호 안의 것은 초의 선사가 시구에 덧붙인 원주原註이다. 위의 시에서 초의 선사는 차의 시원始原을 이야기하고 중국 황하강 유역의 차에 관해 논하였다. 또한 『다서천품茶書泉品』을 인용하고 불교에서는 차를 ‘알가화闍伽華’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동다송』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산문)

### 완당 김정희공 제문 (阮堂金公正喜祭文)

함풍咸豐<sup>1)</sup> 8년 무오戊午(丁巳年의 잘못임) 2월 청명일清明日에 방외方外<sup>2)</sup>의 친구 의순意恂이 한 잔의 술을 올리고, 김공 완당 선생의 영전에 고하나이다.……그대는 실로 봄바람이나 따스한 햇볕 같았지요. 뿐만 아니라 손수 달인 뇌협雷峽과 설유雪乳<sup>3)</sup>를 함께 나누며, 슬픈 소식을 들으면 그대는 눈물을 뿌려 옷깃을 적시곤 했지요. 생전에 말하던 그대 모습 지금도 거울처럼 또렷하여, 그대 잃은 나의 슬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나이다. 슬프다.

(하략)

1) 함풍咸豐 8년: 1857년(丁巳年), 원문의 무오戊午는 잘못임. 2) 방외方外: 국외자. 3) 뇌협雷峽과 설유雪乳: 차 이름.

[해설] 위의 제문은 김정희가 죽은 지 3년이 지난 후에 씌어진 것이다. 초의 선사는 김정희와 나누어 마신 뇌협차와 설유차를 거론하면서 생전에 나누어 마신 우의를 기록하였다. 두 사람의 깊은 인간적 교류를 엿볼 수 있는 글이다.

## 해거도인에게 보낸 편지 (上海居道人書)

(상략)

근자에 북산도인北山道人이 와서, 당신께 다도茶道를 묻고자 한다 하기에, 옛 사람들이 전해오는 바에 의해서 『동다송東茶頌』 한 편을 저술하여 보내는데, 내 나름대로 규명하지 못한 대목은 본문을 그대로 옮겨서 묻는 말씀에 가름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산만하여, 읽으시느라 피로움이 많을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글 속에 한 구절이라도 소용에 닿는 것이 있다면, 금총지로金總之勞”를 아깝게 여기지 마소서.

1) 금총지로金總之勞: 안막眼膜을 긁어내는 듯한 눈의 피로를 뜻한다. 여기서는 문장을 정정訂正하는 일을 말한다.

[해설] 초의 선사가 해거도인 홍현주에게 『동다송』을 저술한 과정을 밝힌 것이 위의 편지의 주된 내용이다. 이 편지에서 초의 선사는 옛사람들이 전한 것을 바탕으로 『동다송』을 저술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 글은 홍현주가 북산도인 변지화를 시켜 다도茶道에 대해 물었으므로 『동다송』이 저술되었음을 밝혀 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출전: 『艸衣詩集』(『한국불교전서』 제10책,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9)

『艸衣集』(『한글대장경』 제225권, 동국역경원, 1997)

曉東院 茶禪會 編譯, 『茶香禪味』(保林社, 1989)

## 10. 철선혜즘

조선 후기, 초의 선사와 동시대의 인물로 초의 선사보다 5세 연하인 철선혜즘鐵船惠楫(1791~1858) 스님의 속성은 김금씨이고 본관은 영암이다. 철선 스님은 어려서 대둔사에서 성일性一 스님께 출가하였고, 1809년(순조 9) 완호윤우玩虎倫佑 스님에게 수학하였다. 그 뒤 연암蓮庵 스님에게 사집四集을, 철경응언掣鯨應彦 스님에게 대교大敎를 배웠으며, 아암 스님의 사법 제자인 수룡색성袖籠蹟性 스님의 법을 이었다. 철선 스님은 敎와 선禪에 밝고, 문장과 글씨에 뛰어났다. 1858년(철종 9) 1월 25일 철선 스님은 상원암에서 세수 68세, 법랍 54년으로 입적했다. 저술로는 『철선소초鐵船小艸』 1권이 있으며<sup>55)</sup> 여기에 다시 3편이 수록되어 있다.

55) 李政, 『한국불교인명사전』(불교시대사, 1993년), 350쪽.



### 또 초의화상에게 드리다 (又贈艸衣和尚)

한쪽 어깨에 괴색 가사를 걸치고 향기로운 숲에 앉아  
 때때로 꽃을 보며 바깥 새에도 관심을 주네.  
 따뜻하게 차 달여 손님에게 공양하고  
 연못을 파고 달 비추게 하여 선심禪心을 밝히네.

一肩壞色坐芳林 時見張華註外禽  
 溫銚焦茶供客飲 鑿池貯月印禪心

[해설] 어려서 대둔사에서 출가한 철선 스님은 5세 연상인 초의 선사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두 스님이 대둔사에서 함께 승려 생활을 하면서 격의 없는 우의를 나누었음을 위의 시에서 읽을 수 있다. 대둔사에서 생활한 철선 스님은 일찍부터 음다풍을 익혔을 것이며 초의 선사와도 자주 차를 마셨을 것이다. 철선 스님은 초의 선사의 행적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초의 선사가 유생이나 일반인과 교류하는 것을 '바깥 새에 관심을 갖네' 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초의 선사가 평소 따뜻하게 차를 달여 손님들에게 마시게 했다

는 사실도 이 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초의 선사만큼 유명하지 않은 철선 스님이지만 스님 역시 대둔사가 조선 후기의 차를 융성시키는 데 적지 않게 기여했음에 틀림이 없다.

### 정축년 초겨울 우연히 백련사에 갔다가 절경 화상과 함께 3일간 유숙하다

(丁丑初冬偶入白蓮社與掣鯨和尚三日留宿)

대지팡이 끌고 차꽃을 밟으며 노니니  
이 연암蓮庵이 고요하여 떠들썩하지 않음을 사랑하네.  
맑은 샘을 움키지 마라, 곧 탁해지니.  
모름지기 쓴 꼭지가 단 참외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네.  
바람은 헤어진 옷자락에 스며들고 겨울 나무를 스쳐 지나가고.  
비는 처마에 떨어지고 가는 모래를 적시네.  
인간 세상이 모두 나그네와 같아 미답지 못하니.  
새벽 꿈속에서 옛 고향집을 서성였네.

遙攜竹杖踐茶花 愛此蓮菴靜不譁  
莫把清泉爲濁水 須知苦帶是甘瓜  
風侵敝帳過寒樹 雨滴斜檐濕細沙  
未信人間都似客 曉天夢繞故山家

[해설] 전체 3수 중 그 첫 번째 시이다. 아마도 이 시를 쓴 철선 스님은 평소 차밭을 오가며 많은 차꽃을 보고 또 땅에 떨어진 차꽃을 밟기도 했을 것이다. 이 시의 '차꽃을 밟으며 노닐다가' 라는 구절이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준다.

백련사의 운을 따서 양수재에게 주다 (次白蓮社韻呈梁秀才)

옛 절의 문 앞에는 돌다리가 만들어져 놓여 있고  
짧은 지팡이와 해진 옷으로 마음대로 거니네.  
비는 넓고 넓은 곳을 지나 새 물을 더하며,  
바람은 외로운 돛배에 붙어 만조의 바다에 띄우네.  
함부로 다경茶經을 보완한 것은 육우를 따른 것이니  
누가 장차 소나무로 만든 불자佛子를 가지고서 참선을 배울 것인가.  
송죽과 바리때 하나가 내 분수임을 아나니  
어떤 고생이 닥쳐도 쫓아 보내리라.

古寺門前石作橋 短筇破衲任逍遙  
雨過古澗添新水 風送孤帆泛晚潮  
漫補茶經追陸羽 誰將松拂學參寥  
松麈一鉢知吾分 何苦駸駸送莫朝

[해설] 시제에 나온 양수재梁秀才는 양씨 성을 가진 선비라는 뜻이다. 철선 스님은 해진 승복 차림으로 지팡이를 끌며 한가하게 산책을 즐기곤 하였다. 스님은 산책길의 정경을 묘사하는 한편 가난한 수행자의 분수에 대해 언급하며 참선에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출전: 『鐵船小艸』(『한국불교전서』, 제10책,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9)

## II. 범해각안

대둔사 13대강사 중 마지막 열세 번째 대강사인 범해각안梵海覺岸(1820~1896) 스님의 자는 환여幻如이며, 아명은 어언魚堰 또는 초언超堰이고, 속성은 최崔씨이다. 범해 스님은 1820년 전남 완도군 범진梵津 구계九階에서 태어났는데, 범진은 지금의 완도군 군내면이다. 범해 스님은 14세에 대둔사 한산전寒山殿에서 출가했고, 16세에 호의시오縞衣始悟 스님에게 사미계를 받았다. 또한 범해 스님은 호의, 하의정지荷衣正持, 초의, 문암聞庵, 운거雲居, 응화應化 등 6법사에게 참학했다. 유가 경전은 이병원李炳元에게 배웠고, 재의齋儀는 태호성관太湖性寬과 자행책활慈行策活 스님에게 전수받았다.

범해 스님은 27세에 호의 스님의 법을 이었고 이후 22년간 경전을 강론했다. 범해 스님에 관한 기록 가운데 '1894년(고종 31) 75세로 대둔사 일로향실—爐香室에 상주하고 있다'<sup>56)</sup>고 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2년 후인 1896년 세수 77세, 법랍 65년으로 입적할 때도 대둔사 일로향실에서 임종을 맞이한 것으로 추측된다. 범해 스님이 남긴 저술은 아주 방대하다. 아도阿度로부터 회광사선晦光師璿에 이르는 189명의 고승에 대한 전기인 『동사열전』을 비롯하여 『경훈기警訓記』, 『유교경기』, 『사십이장경기』, 『사략기』, 『통갈기』, 『진보기』, 『박의기博儀記』, 『사비기四碑記』, 『명수집名數集』, 『동시선東詩選』, 『은적사사적기』 등이 있으며, 시문집으로는 『범해선사시집梵海禪師詩集』, 『범해시집보유』, 『범해선사문집梵海禪師文集』이 있다. 이 가운데 『범해선사시집』에 다시 29편과 차와 관련된 산문 1편이 있다.

56) 梵海覺岸, 「자서전」, 『東師列傳』, 20쪽.

범해 스님이 차와 인연을 맺게 된 사정은 스님이 쓴 「다약설」이란 글에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범해 스님은 33세 때 이질로 인해 사경을 헤매다가 사형과 사제가 준 차를 마시고 생명을 건졌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범해 스님은 차를 상용하게 되었고, 초의 선사에게 비구계와 보살계를 받은 후 대둔사에서 생애의 대부분을 보내면서 우리나라 차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갔다. 범해 스님은 초의 선사와 더불어 조선 후기 한말의 우리나라 다사茶史와 차문화를 융성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 태연의 시운을 따서 (次泰演)

불문에 들어와 시비를 끊으니  
 차 마시고 강하는 자리엔 비웃음이 없구나.  
 견해가 분명하니 은해銀海가 고요하고  
 가슴속 시원하니 보광葆光이 빛나네.  
 참됨을 좋아하여 배움의 자리에 참여하고  
 속세의 인연을 싫어하여 사립을 단았네.  
 월출산 앞에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서니  
 동풍 천리가 모두 귀의하네.

一入空門斷是非 茶坊講肆了無譏  
 見解分明銀海靜 襟懷爽朗葆光暉  
 暴好眞常參匠席 翻厭世諦掩柴扉  
 月出山前豎拂坐 同風千里盡歸依

[해설] 원문에 나오는 ‘공문空門’은 불가佛家를 뜻한다. 범해 스님은 불교에 입문하여 세속의 옳고 그름(是非)을 떠나게 되었음을 기뻐하였다. 위 시에서는 차 마시고 강講하는 자리의 진지한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다. 세상을 떠난 범해 스님의 고결한 삶이 한 폭의 수채화처럼 펼쳐진 다시이다.

### 칠성암의 운을 따서 (次七星庵韻)

골짜기 올라가니 명승지 있어  
 새도 울고 물도 절로 흐르네.  
 차 마시는 이야기 속에 자기紫氣<sup>1)</sup>는 떠 있고  
 땅에는 보리 익어 누런 구름 가득하네.  
 석 잔 차로 누운 베개 단 잠이 오고  
 10년 만에 그대 보니 흰머리 부끄럽구나.  
 앉아서 창과의 바다 저 멀리를 보노라니  
 동남동녀<sup>2)</sup>가 약 캐러 가는 외로운 배 있다네.

登臨峽岫有名區 鳥自喃喃水自流  
 紫氣浮軒茶話午 黃雲滿地麥光秋  
 三盃就枕濃恬睡 十載遇君愧白頭  
 坐得滄波萬里外 秦童採藥一孤舟

1) 자기紫氣: 자색의 구름. 신선이나 성인이 올 때 이러한 서색瑞色の 구름이 생긴다고 한다. 2) 동남동녀童男童女: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한 후 죽지 않고 향락을 누리고자 망사方士 서불徐市의 주청에 따라 삼신산에 가서 불사약不死藥을 구해 오도록 젊은 남녀 삼천 명을 바다에 띄워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여기서는 바다가 멀고 풍치가 좋아 그들이 있을 듯하다는 말이다.

[해설] 명승지의 암자에 ‘새도 울고 물도 절로 흐르는데’ 스님은 차를 마시며

10년 만에 본 지기知己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서기瑞氣로운 구름이 떠 있고 밭에는 보리가 누렇게 익어 가고 있다. 스님은 석 잔 차를 마시고 자신의 머리가 희어졌음을 부끄러워한다. 이윽고 스님은 멀리 바다를 바라보며 진시황이 삼신산에 불사약을 구하러 보낸 고사故事를 떠올린다.

### 북암을 방문함 (訪北庵)

풀은 푸르고 숲은 깊은데 해도 기울어  
 가로지른 외나무다리 위험함이 많네.  
 바위 위의 새소리는 옛날처럼 다정하고  
 시내로 떨어지는 꽃잎 비단처럼 나폴나폴.  
 외딴 암자 홀로 찾으니 기쁜 마음뿐이고  
 여러 승방 그리워함에 괴로움만 더하구나.  
 세월 감에 인정이 증함을 알고  
 땀 흘리며 찾아와 함께 차를 마시네.

草綠林深日影斜 橫安略徇險危多  
 岩頭鳥語親如舊 溪下花飛薄似紗  
 獨訪孤居歡喜在 潛思衆院苦勞加  
 堪嗟年邁人情重 掩汗尋來共喫茶

[해설] 『대둔사지』에는 1975년 은곡영탁溫谷永鐸 스님이 북미륵암北彌勒庵을 중수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에 의하면 북미륵암이 북암北庵으로도 불려졌음을 알 수 있다. 이 북암에서 연담유일, 벽담행인, 아암혜장 같은 고승들이 배출되었다. ‘풀은 푸르고 숲은 깊어 해 기울어’ 무렵 땀을 흘리며 북암을 방문하여 차를 마시면서, 그 외딴 암자를 찾는 길이 무척 정겹게 느껴졌나보다. ‘바위 위의 새소리도 옛날처럼 다정하고 시내로 떨어지는 꽃잎은 비단처럼 나폴나폴 떨어진다’ 고 표현한 데서 그 마음을 짐작해 본다.

## 다가 茶歌

책을 편 지 오래이니 정신이 혼미하여  
차 생각 간절하여 참기 어렵구나.  
꽃 핀 우물은 물맛도 달고  
두레박으로 떠 화로에 차 끓이는 소리 기다리네.  
한 번, 두 번, 세 번 끓이니 맑은 향기 떠오르고  
넷, 다섯, 여섯 주발 마시니 땀이 솟아나는 듯.  
상저桑苧<sup>1)</sup>의 다경茶經도 이제야 옳은 줄 알겠고  
옥천玉泉<sup>2)</sup>의 다가茶歌 대체를 알겠도다.  
보림사寶林寺 작설은 감영에 실어가고  
화개동花開洞 좋은 차 대궐에 바치네.  
함양·무안의 토산차는 남방의 진품이요  
강진·해남의 법제 방법은 북경에서 배웠다네.  
잡된 생각은 일시에 없어지고  
맑고 밝은 정신 한나절도 더 가네.  
줄음은 물러가고 밝은 빛이 생기면서  
식곤증 내려가니 가슴속 시원하네.  
괴로움과 욕심 없애는 것 경험했고  
감기도 나아 통명通明해졌다네.  
공자님 사당 배알에는 술을 올리고  
부처님 법당 공양에는 정성을 바친다네.  
서석瑞石의 좋은 차, 그 맛 시험하고  
백양사의 작설차, 마음을 홀리누나.  
덕룡德龍의 용단龍團을 사절하고  
월출月出에서 오는 차 막아 버렸다네.

중부中孚<sup>3</sup>의 옛 집, 이미 언덕으로 변하고  
 이봉離峯<sup>4</sup>이 살던 산에 물병이 있다네.  
 조화調和하기 무위실無爲室의 법과 같이하고  
 잘 간수하기 옛 예암禮庵<sup>5</sup>의 법을 따랐네.  
 좋고 나쁨 따지지 않음은 남파南坡<sup>6</sup>의 깎다벽이고  
 많고 적음 사양치 않음은 영호靈湖<sup>7</sup>의 뜻일세.  
 풍속을 살펴보고 차 즐기는 이 많은데  
 당唐·송宋의 성현에 뒤지지 않는다.  
 선가禪家 유포는 조주趙州의 화두  
 진미眞味는 제산霽山<sup>8</sup>이 먼저 얻었구나.  
 만일암挽日庵의 일 마치고 달 구경하는 밤에  
 차 공양하고 피리 불며 서로 이끌어 차를 끓이네.  
 정사正筥와 언질彦鉦은 선달에 차를 얻고  
 성학聖學<sup>9</sup>은 물을 길고 태련太蓮<sup>10</sup>을 부르네.  
 만병과 온갖 걱정 모두 훌어지고  
 임의로 노니나니 신선과 같도다.  
 차 끓는 동안 차 문헌 살펴보니  
 별 하나가 무변천에 떨어지네.  
 어찌하여  
 귀하고 좋은 책 나에게 전해졌는가.

攤書久坐精神小	茶情暴發勢難禁
花發井面溫且甘	刺罐擁爐取湯音
一二三沸清香浮	四五六椀微汗泚
桑苧茶經覺今是	玉泉茶歌知大體
寶林禽舌輸營府	花開珍品貢殿陞
咸務土產南方奇	康海製作北京啓
心累消磨一時盡	神光淨明半日增

睡魔戰退起眼花 食氣放不開心膺  
 吉利停除會經驗 寒感解毒又通明  
 孔夫子廟參神酌 釋迦氏堂供養精  
 瑞石槍旗因仁試 白羊舌觜從神傾  
 德龍團絕交關 月出出來阻信輕  
 中孚舊居已成丘 离峯棲山方安餅  
 調和如法無爲室 穩藏依古禮庵楸  
 無論好否南坡癖 不讓多寡靈湖情  
 細看流俗嗜者多 不下唐宋諸聖賢  
 禪家遺風趙老話 見得真味霽山先  
 挽日工了玩月夜 茗吹吹簫煎相牽  
 正筍彥銓臘日取 聖學汲泉呼太蓮  
 萬病千愁都消遣 任性逍遙如金仙  
 經湯譜記及論頌 一星燒送無邊天  
 如何 奇正力書與我傳

1) 상저桑屠: 『다경茶經』을 저술한 육우陸羽(?~804)의 호로 자字는 홍점鴻漸이다. 육우는 처음으로 차의 이론과 실재를 정립하여 동양 삼국의 다인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2) 옥천玉泉: 『다가茶歌』를 쓴 노동盧同의 호. 3)~10) 중부中孚·이봉离峯·예암禮庵·남파南坡·영호靈湖·제산霽山·성학聖學·대련太蓮은 모두 범해스님이 살던 당시 대흥사(대둔사) 주변에 살던 다승茶僧들이다.

[해설] 이 시는 7언 4구 전 308자로 된 시이다. 이는 중국 당唐나라의 노동盧同(775~835)이 쓴 『다가茶歌』가 7언 또는 5언으로 모두 262자인 것에 비해 36자나 많다. 노동이 쓴 『다가』는 원제原題가 「햇차를 보낸 맹간의에게 글로 감사하며(走筆謝孟謙議寄新茶)」인데 흔히 「칠완다가七椀茶歌」로 알려져 있다. 이 시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의 많은 시인과 다인茶인이 널리 인용할 정도로 아주 유명하다. 노동의 「칠완다가」가 중국의 햇차를 찬탄한 시라면 범해스님의 「다가」는 우리나라 차를 읊은 시이다. 위의 시에서 범해스님은 전남 장흥군長興郡 유치면有治面 봉덕리鳳德里 가지산迦智山에 있는 보림사寶林寺의 작설차雀舌茶, 경남 하동군 화개동花開洞의 차, 함양·무안의 토산차, 강진·해남의 차를 열거하면서 이 차들을 마시면 '잡된 생각은 일시에 없어지고 맑고 밝은 정신이 한나절도 더 가네'라며 우리나라 차의 우수성에 대해 찬탄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 차는 사람의 줄음을 쫓고 식곤증이 내려가며 괴로움과 욕심을 없애고 감기도 잘 낫게 한다'며 차의 효능을 구

체적으로 서술하였다. 덧붙여 대둔사에 주석했던 초의 선사를 비롯한 대둔사의 다승들과 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 범해 스님은 이들 옛 다승들이 차를 마시는 모습을 '임의로 노니나니 신선과 같도다' 라고 묘사하였다. 이 시에서 범해 스님은 자신의 모습도 묘사하고 있는데, 찻물이 끓는 동안 차 문헌을 살펴며 귀하고 좋은 다서茶書가 자신에게 전해진 것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지금껏 살펴보았듯이 범해 스님의 「다가」는 당나라 노동의 「칠완다가」에 필적할 만한 시라 할 수 있다. 범해 스님의 이 「다가」를 통해 우리나라 보림사의 작설차, 화개동의 차, 함양·무안·강진·해남의 차를 접할 수 있음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 만일암 挽日庵

스스로 마음을 고요히 하려고  
 오래도록 만일암에 머물렀지.  
 배운 늙은 몸을 가려주고  
 차와 약은 담痰을 씻어 주네.  
 거울 같은 바다는 고금에 한 가지요  
 이웃은 남북에 서너 집뿐일세.  
 좋은 친구 와서 여름 안거를 보내니  
 살아가는 일 처음으로 달콤하다네.

爲靜自心地 遲留挽日菴  
 布衫遮老骨 茶藥洗殘痰  
 海鏡古今一 居隣南北三  
 高朋來結夏 活計最初甘

[해설] 이 시를 보면 범해 스님은 오랫동안 만일암挽日庵에 주석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암은 두륜산頭輪山 대둔사大屯寺의 산내 암자인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둔사지大屯寺誌』에 따르면 만일암 터는 가련봉 아래에 있

었다' (在迦蓮峯下)고 한다. 범해 스님이 「만일암」 시를 쓴 병술년丙戌年은 서기 1886년으로 스님의 나이 67세 때이다. 이 시에 쓰여져 있듯이 범해 스님은 배옷으로 몸을 가리고 좌선을 하며 오랫동안 만일암에서 수행하였다. 차는 스님의 노쇠한 몸의 담뱃을 씻어 주는 약 구실을 하였다. 암자 주위는 서너 집이 있는 것이 고작이었는데, 도반이 와서 여름 안거를 함께하며 차를 달여 마시고 두륜산의 정취를 즐기는 것이 범해 스님의 기쁨이었다.

### 진도 김용은을 보내면서 (送瑠島金龍殷)

배움의 바다에 고기 놀듯 영호남을 지나

옛 절을 찾아움이 사랑스럽구나.

강의를 마친 자리에서 좋은 시구를 외우고

삼 시에 차를 끝내고 현묘한 이야기 나누네.

입춘에 와서 입추가 되도록

미륵암과 만일암에서 놀았구나.

구목龜木 마을은 정은 깊으나 다시 찾기 어려우니

새벽에 지는 별 저녁에 삼삼하듯.

魚遊學海嶺湖南 可愛來尋古佛龕

一榻講終吟傑句 三時茶罷做玄談

立春節至立秋節 彌勒菴從挽日菴

龜木情懷難再得 星辰曉散更昏森

[해설] 범해 스님이 이 시를 쓴 시기는 스님의 나이 35세 때이다. 진도 사람 김용은金龍殷이 입춘(양력 3월 21일경)에 와서 입추(양력 8월 7일경)가 되도록 대둔사의 산내 암자인 미륵암과 만일암에 머물렀다. 범해 스님과 김용은은 하루 세 번 차를 마시며 현묘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시에 나오는 미륵암은 대둔사 산내 암자인데 북미륵암과 남미륵암이 있었다. 이 시에서 말하는 미륵암이 남북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는데, 두 곳 모두를 가리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초의차 草衣茶

곡우절 맑은 날

노란 싹은 아직 잎이 피지 않았는데

술에서 데쳐 내어

밀실에서 말리네.

모나거나 둥근 차 찌어 내고

죽순 껍질로 안을 말아서 싸네.

단단히 봉하여 바깥바람 막으니

찾잔에 향기 가득하다네.

穀雨初晴日 黃芽葉未開  
空鑪精炒世 密室好乾來  
栢斗方圓印 竹皮苞裏裁  
嚴藏防外氣 一椀滿香回

[해설] 범해 스님은 초의 선사보다 34세 아래이다. 범해 스님은 호의시오 縞衣始悟 스님의 법을 이었으나 초의 선사에게 비구계와 보살계를 받은 수계 제자이기도 하다. 범해 스님은 어려서(14세) 대둔사에서 출가하여 생애의 대부분을 그곳에서 보냈으므로 초의 선사로부터 계戒만 받은 것이 아니라 차를 만들고 마시는 음다풍 飲茶風 또한 배웠을 것이다. 범해 스님이 위의 시를 쓴 것은 1878년인데 초의 선사가 입적한 지 12년 후이다. 범해 스님은 생전의 초의 선사가 차를 만들던 것을 회상하며 이 시를 쓴 것이 분명하다. 초의 선사가 『동다송』에서 읊었던 것이 당시 우리 나라 절후인 곡우穀雨(양력 4월 20일경) 무렵에는 찾잎이 피지 않았다. 우리 나라에는 입하立夏(양력 5월 5일경) 무렵이 찾잎 따기에 적기였다. 그러므로 범해 스님이 묘사한 차 만들기는 입차가 아니라 '모나거나 둥근' 떡차였던 것으로 보인다. 범해 스님은 그 떡차를 죽순 껍질로 포장했으며, 그렇게 만든 차를 달이자 찾잔에 향기가 가득했다고 읊고 있다.

## 강매오의 시운을 따서 (次姜梅塢韻)

젊은 손님이 찾아와서  
자기 뜻은 노승老僧에게 있다 하네.  
시를 읊는 길 위에서 삼추三秋의 소리요  
방안에서 하룻밤의 잠도 물리쳤다네.  
다례茶禮는 중부中孚의 방을 생각나게 하고  
종소리는 고소성姑蘇城의 배<sup>1)</sup>인 줄 알았네.  
등불 켜고 함께 앉아 이야기하는데  
푸른 산엔 구름이 떠 있고 하늘에는 달이 있네.

有客相尋是妙年 爲言志在老僧邊  
沈吟路上三秋韻 除却房中一夜眼  
茶禮尙懷中孚室 鍾聲始覺姑蘇船  
懸燈對坐閒談處 雲在青山月在天

1) 고소성姑蘇城의 배: 고소성은 중국의 강소성江蘇省 오현吳縣 서쪽에 있다. 당唐나라 문장 장계張繼의 '풍교야박楓橋夜泊' 시에 "달 지고 까마귀 울며 서리는 하늘에 가득한데, 강가 단풍과 고기잡이불이 근심어린 잠을 대하였네. 고소성 밖 한산사의 밤중 종소리만 객선에 이르누나"(月落烏啼霜滿天, 江楓漁火對愁眠, 姑蘇城外寒山寺, 夜半鐘聲到客船)라고 하였다.

[해설] 시제에 언급된 강매오姜梅塢가 누구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범해 스님이 잘 알던 사람인 것 같다. '방안에서 하룻밤의 잠도 물리쳤다'는 것은 차를 마심으로써 잠을 물리쳤음을 의미한다. 즉 범해 스님과 강매오는 시를 읊으며 차를 마셨던 것이 확실하다. 다례茶禮를 하면서 이들은 초의 선사와 그가 거처하던 곳을 회상하였다. 위의 시에서 언급된 '중부中孚'는 초의 선사의 자字이다. 이들은 시를 읊고 차를 마시고 종소리를 들으며 당나라의 시인 장계張繼가 지은 「풍교야박楓橋夜泊」이란 시구를 떠올렸다. '산엔 구름이 떠 있고 하늘에는 달이 있다'는 결구結句는 산사 찾자리의 그윽함을 느끼게 한다.

## 다구명 茶具銘

생활이 맑고 한가하기에  
몇 말 찻잎 만들었네.  
투박한 질화로 가져다가  
약하고 강한 불 함께 담았네.  
다관은 오른쪽에  
다완은 왼쪽에 있다네.  
오직 차 마시는 일을 즐기니  
무엇이 나를 유혹하리오.

生涯清閑 數斗茶芽  
設苦竈爐 載文武火  
瓦罐列右 瓷盃在左  
惟茶是務 何物誘我

[해설] 이 시의 제목인 '다구명茶具銘'에서 명銘은 한문 문체 형식의 하나를 말한다. 대개 운韻을 넣어 넉 자가 한 짝으로 구句를 이루게 서술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주로 자신을 경계하거나 남의 업적 또는 사물의 내력을 찬양하는 것이다. 한편 금석金石·기물器物·비석碑石 등에 새기는 글을 뜻하기도 한다. 이 시는 제목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범해 스님이 자신이 사용하는 다구茶具에 대해 읊은 명銘이다. 범해 스님의 승려로서의 삶은 맑고 한가(淸閑)하였다. 범해 스님은 대둔사 주위에 야생하는 찻잎을 따서 차 몇 말을 만들었다. 스님에게 있어 낙樂이란 오직 차 마시는 일뿐이므로 일체 잡다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 그리하여 범해 스님은 자신은 차 마시기를 즐길 뿐이며 세사世事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곧 자기 자신을 경계하는 뜻이기도 하다.

(산문)

## 다약설茶藥說

백 가지 약이 좋기는 하지만 알지 못하면 사용할 수 없고, 백 가지 병으로 괴로워할 때 구제하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구제하지 않아 살 수 없을 때 구제하여 살려내는 법술이 있으며, 알지 못하여 사용할 수 없을 때 이를 알고 사용하는 묘법이 있나니, 사람이 느끼고 하늘이 응하지 않으면 약과 병은 어찌할 수 없게 된다.

나는 임자년壬子年(1852) 가을에 남암南庵에 머무르다가 이질痢疾 때문에 사지가 늘어지고 세 끼 식사도 잇은 채 어느덧 열흘, 한 달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꼭 죽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어느 날 함께 입실入室한 무위無爲라는 형이 부모님을 모시고 오고, 그와 함께 선참禪讖하던 부인富仁이란 아우는 스승을 모시고 왔다. 이들이 내 좌우에 머리를 들고 앉아 삼태성三台星처럼 자리를 잡으니 나는 내가 반드시 살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금 있다가 형이 말하였다.

“내가 차가운 차茶를 가지고 어머니를 구하였으니 위급할 때 급히 다려서 사용하게.”

아우가 말했다.

“나는 차의 새싹(芽茶)을 간직하여 불시不時에 필요할 때를 기다렸으니 복용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들의 말대로 차를 다려 복용하였더니 한 주발에 배가 조금 편안해지고 두 주발에 정신이 상쾌해지며 서너 주발에 온 몸에 땀이 흐르고 시원한 바람이 뺨속에 불어 상쾌해지면서 처음부터 병이 없었던 듯하였다. 이 때문에 음식 맛도 점점 나아지고 움직이는 것도 날로

좋아져 6월에 이르러서는 70리나 되는 본가에 가서 어머니의 기제례  
祭에 참여하니 때는 청나라 함풍咸豐 2년 임자년 7월 26일이었다.  
이 말을 들은 이는 놀라고, 나를 본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아, 차는 땅에서 난 것이고 사람의 명은 하늘에 있는 것인데 하늘  
과 땅이 감응한 것인가? 약은 형에게 있고 병은 아우에게 있었는데  
형제가 감응한 것인가? 어찌 신호함이 이와 같은가? 차로써 어머니  
를 구하고 차로써 아우를 살렸으니 효제孝悌의 도가 모두 이루어진  
것이다.”

마음이 아픈 일이다. 병도 그리 위중하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꼭  
죽을 것이라고 알았으며 정情이 그렇게 두텁지 않았는데 어떻게 꼭  
살릴 줄을 알았을까? 이로써 그 평생에 정분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훗날 구제하는 방법이 있어도 구제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이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다.

[해설] 범해 스님이 33세 때 대둔사 산내 암자인 남암에 있었는데, 이때 이질  
에 걸려 거의 죽게 되었다. 스님은 차를 달여 복용함으로써 목숨을 건질 수 있  
었는데 이 글은 이에 관해 쓴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스님은 차에 각별한 관  
심을 가지게 되었고, 차와의 이러한 깊은 인연으로 비구계와 보살계를 준 수  
계 스승인 초의 선사보다도 더 많은 다시를 남겼다. 그러므로 이 글은 범해 스  
님의 다연茶緣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자료라고 하겠다. 사실 1500년의  
한국불교사에서 이처럼 차와 깊은 숙연宿緣을 드러낸 글은 범해 스님이 쓴  
이 「다약설」이 유일하다.

출전: 『梵海詩集』(『한국불교전서』 제10책,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9)

『梵海詩集』(『한글대장경』 제225권, 동국역경원, 1997)

## 12. 보제심여

보제심여普濟心如(1828~1875) 스님의 속성은 마馬씨이며 전남 강진 출신이다. 보제 스님은 16세에 대둔사 회문禧文에게 출가하여 문암영유聞庵永愈 스님에게 구족계를 받았으며 초의 선사에게 보살계를 받았다. 보제 스님은 철선 스님의 법을 이었으며, 경經과 선禪을 배운 다음에는 강석을 열어 20여 년 동안 삼남三南의 학인들을 지도했다. 후일 보제 스님은 금강산·태백산·지리산 등을 순례하면서 수많은 시와 개송을 남겼다. 1875년(고종 12) 보제 스님이 입적하니 세수 48세, 법랍 32년이었다. 저술로는 『금강산유산록金剛山遊山錄』과 문집 『산지록山志錄』이 있으며, 『산지록』에 2편의 다시를 남겼다. 법을 이은 제자로는 부정富定과 원준圓俊이 있다<sup>57)</sup>

57) 李政, 『한국불교인명사전』, 170쪽.



## 석옥 화상 거잡시 12율을 삼가 따라

(謹次石屋和尚居雜詩十二律)

밝은 빛 소박한 이력은 따르기가 힘들어  
 한가로이 청산과 더불어 늙어가네.  
 계곡의 새는 추위를 몰고 조용히 비석으로 날아들고  
 들샘의 깨끗한 향기는 부엌에까지 이르네.  
 바위 사이의 나뭇잎은 서리가 오기도 전에 떨어지고  
 계단 위의 국화는 눈이 오자 시들어 가네.  
 만 가지를 생각하며 지금에 이르렀으나 여태도 미진하니  
 차나 손 가는 대로 붉은 화로에 달이네.

清光素履不能模 閑與青山共老圖  
 溪鳥帶寒來靜榻 石泉瀉淨到香廚  
 巖間木葉霜前脫 階上菊花雪後枯  
 萬慮至今猶未盡 茗茶信手煮紅爐

[해설] 전체 12수 중 그 열두번째 시이다. 시제에 나오는 '석옥石屋'은 원대元代之 오도승悟道僧 석옥청공石屋淸琇을 말한다. 보계 스님은 평소 석옥 스님을 존경하여 그의 행적을 따르고자 노력하였다. 위의 시에는 석옥 스님에 미

치지 못함을 한탄하며 한가로이 청산과 더불어 늙어감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보제 스님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보제 스님은 敎敎와 선禪에 밝아 20여 년이 넘게 후학을 지도한 조선 말기의 덕 있는 스님이다.

## 경오년 8월 해남의 김, 허 등의 여러 유생과 더불어 임자 운에 화답하여 읊음

(和林字韻庚午年八月與海南金許諸儒吟)

한가로이 흰 불자拂子를 가지고 방림芳林에 앉아 있는데

허許 노인은 청산에서 세월만 보내고 있네.

세속을 따르면 점점 건문이 넓어지나

몸을 보호하는 것도 잊으니 뜨겁고 찬 기운이 침범하네.

차를 나눠 마시며 돕듯이 시를 힘있게 읊고

경쇠 소리 들으니 홀연히 일어나고 싶은 마음 드는구려.

가을 숲, 붉은 단풍에 새벽빛 비추니

나뭇가지에 자던 새 놀라 돌아가는구나.

閑持白拂坐芳林 許老青山歲月深

隨俗稍爲聞見博 護身却忘熱寒侵

分茶如助吟詩力 聽磬忽生作別心

曉色秋林紅葉裏 應驚歸路宿枝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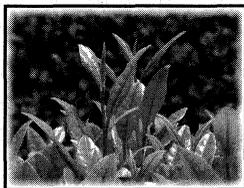
[해설] 이 시는 보제 스님이 해남에서 여러 유생들과 임林 자 운으로 시를 지은 일을 소재로 쓴 작품이다. 이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제 스님은 자신이 일찍 세상을 떠날 것을 짐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스님은 이 시를 읊은 1870년 8월로부터 5년 후인 48세에 입적했으니 승려로서는 장수한 편이 못 된다.

출전: 『산지록』(『한국불교전서』 제12책, 동국대학교 출판부, 1996)

### 13. 금명보정

풍운의 한말에서 일제 강점기 중반까지 활동한 금명보정錦溟寶鼎(1861~1930) 스님은 1861년 1월 19일 전남 곡성군谷城郡 운룡리雲龍里에서 부친 김상종金相宗과 모친 완산完山 이씨씨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15세 때 송광사 금련金蓮 화상에게 출가하였다. 득도 후 금명 스님은 경봉景鵬·구련九蓮·혼해混海·원화圓華·원해圓海·범해梵海·함명菡溟 등 여러 큰스님 밑에서 공부했으며, 금련 화상이 입적하자 그 법을 이었다. 1894년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나자 금명 스님은 출가 본사인 송광사를 보호하는 데 진력하였다. 1896년에는 화엄사에서 학인들을 가르쳤고, 1899년에는 해인사 대장경 인출 불사에 참여해 교정과 편집 소임을 맡아 완수하였다. 1901년에는 서울 원흥사에서 현오玄要를 설교했고, 1903년 5월에는 내하금內下金 1만 관을 받아 수레에 실어 송광사로 돌아왔다. 이어 같은 해 연말에 금명 스님은 송광사의 섭리攝理(지금의 주지직)를 맡아 1904년 신학新學이 풍미하면서 학교가 세워지자 한문 및 불교 담당 교사로 수년간 가르쳤다. 1916년 금명 스님은 해남 대둔사로 가 그곳에서 머물렀으며<sup>58)</sup> 이후 송광사의 주지를 맡으라는 세 번의 청도 고사하고 강원에서 7년 동안 후학을 가르치고 정토업淨土業을 닦으며 만년을 보냈다 1930년 송광사에서 입적했으니 세수 70세, 법랍 53년이었다. 금명 스님은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다송시고茶松詩稿』, 『다송문고茶松文稿』, 『불조찬영佛祖讚詠』, 『정토백영淨土百詠』, 『조계고승전』, 『저역총보著譯叢報』, 『대동영선大東咏選』, 『석보약록釋譜略錄』, 『염불요해念佛要解』, 『삼장법수三藏法數』, 『십지경과十地經科』 등이 있다.

58) 대둔사에 머물게 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다. 학인 시절 금명 스님은 대둔사에서 梵海講伯 스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고, 1901년에는 대둔사의 화제 후 불사 중 명단에 참석하여 40족의 服裝을 장애 없이 성취한 바 있다.



### 옛 친구와 헤어지면서 (惜別故人)

일찍 구름 속 사립문 열고 단을 떠나 출발하며  
높은 정情 석별하니 그 향취가 난초와 같네.  
귀로에 오수吳水와 사이를 두고 초산楚山이 있으며  
변방의 달은 회한을 맺히게 하는데 눈은 얼음같이 차구나.  
차 벗이 없다 하여 어찌 후에 만날 약속도 잊겠는가.  
석군石君은 길이 험하니 편안히 다녀오소서.  
청산은 말이 없고 물은 성난 듯 흐르는데,  
거듭 잡고 싶은 마음 한 조각 단심丹心일 뿐이네.

早關雲扉出送壇 高情惜別臭如蘭  
歸路楚山吳水隔 結懷塞月雪冰寒  
茶友雖無忘後約 石君難道往平安  
青山如默水如怒 把寄茲心一寸丹

[해설] 금명 스님이 옛 벗과 헤어지는 광경을 읊은 이 시는 둘째 구절에서와 같이 그 정취가 난초와 같다. 달을 보면 회한에 젖는데 눈은 얼음같이 차기만 하다. 차를 함께 마시던 벗과 헤어지지만 행운유수行雲流水하는 수행자라 만 날 약속도 여의치 못하다. 이 시는 경허성우鏡虛惺牛(1846~1912) 스님이 경북 김천군 증산면 평촌리에 있는 청암사靑岩寺 수도암修道庵에서 자신의 법을 잇게 될 한암중원漢岩重遠(1876~1951) 스님을 만나 법을 인가하고 동행을 바라는 전별 계송을 주자 한암 스님이 '만고에 빛나는 마음달이 있는데 덧없는 세상 어찌 뒷날을 기약하리오' (萬古光明心月在, 更何浮世讓留期)라고 화답한 경우와 흡사하다.

### 차를 달이다 (煎茶)

한 스님이 와서 조주의 빗장문을 두드리니  
 조주차의 선풍에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뒤뜰로 나갔네.  
 일찍 해외의 다서를 살핀 초의 선사의 송頌을 보고  
 다시 당나라 육우의 다경을 참고했네.  
 정을 기르려면 응당 경뢰소를 달여야지.  
 손님을 맞이해 찾잔 기울이니 자용 향기 서리네.  
 흙 화덕, 구리 병을 갖추어 놓은 중에 빗소리 멈추었네.  
 한 잔의 작설차는 제호<sup>1)</sup>보다 좋구나.

有僧來叩趙州局 自愧茶名就後庭  
 曾觀海外草翁頌 更老唐中陸子經  
 養精宜點驚雷笑 待客須傾紫茸馨  
 土竈銅瓶松雨寂 一鍾禽舌勝醍靈

1) 제호醍醐: 우락牛酪 위에 영긴 기름 모양의 맛이 씩 좋은 액체. 전하여 불성佛性 또는 불법의 묘리. 또 우수한 인물의 비유.

[해설] 한 스님이 조주趙州의 빗장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선禪 수행 중의 화두話頭에 대한 점검을 뜻한다. 위의 시구에 나오는 '조주차의 선풍'을 이해하려면 선가禪家에 익히 알려진 다음의 선화禪話를 알아야 한다.

어느 날 두 스님이 조주 선사를 방문했을 때 조주 선사가 한 스님에게 물었다. "일찍이 여기에 왔던 일이 있는가?" 그 스님이 왔었다고 답하자, 조주 선사는 "차나 마시고 가보게(喫茶去)"라고 말했다. 조주 선사가 이번에는 다른 스님에게 같은 질문을 하자 그 스님은 온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그러자 조주 선사는 "차나 마시고 가보게"라고 말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원주院主가 어찌서 온 적이 있는 이도 온 적이 없는 이도 똑같이 차를 마시고 가라고 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조주 선사가 "원주야" 하고 불렀고 이에 원주가 대답하자 역시 "차나 마시고 가보게"라고 말했다.

이는 선가禪家の 유명한 화두이다. 위의 시를 쓴 금명 스님은 차를 달이며 조주의 '꼭다거喫茶去' 화두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오도悟道하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 대지전 大智殿

고요함 속에 세월은 흐르고

집안에서는 세월을 재촉하네.

술 따니 향기가 바리때(鉢盂)에 가득하고

차 달이니 달(月)에 찻잔이 생기네.

靜裡光陰逝 家中歲月催

摘松香滿鉢 煮茗月生盃

[해설] 시제의 '대지전大智殿'은 순천 송광사松廣寺의 7요사寮舍 가운데 하나인 지금의 문수전文殊殿을 가리킨다. 문수보살文殊菩薩은 대지보살大智菩薩이라고도 불리는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이다. 금명 스님은 동학 혁명 때(1894) 송광사를 보전하는 데 온갖 힘을 기울였고, 1903년에는 송광사 주지직(당시에는 攝理)을 맡아 이듬해 가을까지 소임을 살았다. 훗날(1910년) 송광사

에 학교가 설비되자 금명 스님은 학생들을 가르쳤다. 금명 스님은 이처럼 인연이 깊은 송광사 대지전의 일실一室에서 조용하게 살며 때로는 술잎을 따고 때로는 차를 달였다. '차를 달이니 달(月)에 찻잔이 생기네' 라는 결구結句를 통해 금명 스님이 달을 벗삼아 차를 마시며 그윽한 차향을 음미하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 경운 화상께 올리다 - 1912년 3월

(上擎雲和尚 - 壬子三月)

세정世情의 향함은 의심스럽고 종성鐘聲은 끊어지니  
진실한 인연으로 인정하고 따르나 물길은 길어라.  
차 이야기와 향의 인연은 말을 넘어서 돌아오나니  
겹"이전 하나의 선에서 맑은 빛을 말하기 부탁하나이다.

世情疑向鐘聲斷 眞契認從水道長  
茶話香緣還說罷 劫前一線付清光

1) 겹(劫): 하늘과 땅이 한번 개벽한 때부터 다음 개벽할 때까지의 동안이란 뜻으로 지극히 길고 오랜 시간을 이르는 말.

[해설] 시제의 경운擎雲은 경운원기擎雲元寄(1852~1936) 스님을 말하는데, 경운 스님은 선암사를 당대 강학의 중심지로 만든 인물이다. 이 시를 쓸 당시는 일본이 조선을 무력으로 강제 합병한 지 2년째 되는 해였다. 일본은 사찰령寺刹令을 반포하여 조선 불교계를 구조적으로 장악, 지배하기 시작했는데 그와 같은 사정을 금명 스님은 위의 시에서 '세정世情은 향함이 의심스럽고 종성鐘聲은 끊어졌다'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종성'이란 조선 불교계의 자주적인 존립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종성이 끊어졌다는 것은 한국 불교의 자주성이 말살되었음을 뜻한다. 이런 상황에서 금명 스님은 경운 스님을 믿고 따르니 조선 불교의 '물길은 길다'고 자위했던 것이다. 이 시를 통해 금명 스님은 경운 스님에게 나라를 빼앗기기 전의 그 맑은 빛을 계속 유지해 주기를 부탁

하고 있다. 이 시에 특별히 지은 때를 표시한 것은 이러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고 읽어 달라는 지은이의 깊은 심정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어려운 시절, 차를 마시며 진실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선 그 무엇이었다.

## 월곡, 국은과 더불어 등불 아래에서 읊조리다

(與月谷菊隱燈下口占)

늦은 국화가 방해됨이 없이 석실에 머물고  
밝은 차 주머니받거나 상대를 긍정하며 노네.  
백천 가지 세상일은 구름 속 공중으로 날려보내고  
40년의 세월이 물처럼 스스로 흘러갔네.

晚菊無妨石室留 清茶亂酌肯相遊  
百千世事雲空去 四十年光水自流

[해설] 전체 5수 중 두 번째 시이다. 시제에 나오는 월곡月谷과 국은菊隱은 금명 스님의 오래된 도반道伴으로 보인다. 늦가을 국화꽃이 만발한 석실石室에서 세 스님은 연거푸 차를 나누며 즐겁게 놀고 있다. 그들은 어지러운 세상일을 구름 속 공중으로 날려보내고 밝은 차향에 젖어 세사世事를 잊어버리고 40년간 계속된 도반의 정을 떠올리고 있다. 세 스님이 등불 아래에서 시를 지으며 수행자의 우정을 돈독하게 교류交流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듯하다.

## 비 온 뒤 햇차를 따다 (雨後採新茶)

잠깐 맑더니 아침에 비 내려 사립문 닫았고

물어서 차밭 찾아 죽원竹園으로 향했네.  
 새소리는 사람을 놀라게 하고 한낮에도 울어대는데  
 아이를 친구 삼아 황혼까지 차를 땀네.  
 깊은 숲 골짜기, 섬세한 가지에 찻잎은 뻑뻑하고  
 작은 돌밭에는 연약한 차눈과 잎이 아주 많았지.  
 불에 말려 방식대로 법제法製해 만들어  
 동병銅瓶의 산물(活水)로 달여 마시니 혼魂조차 맑아지네.

乍晴朝雨掩柴扉 借問茶田向竹園  
 禽舌驚人啼白日 童稚喚友點黃昏  
 纖枝應密深林壑 嫩葉偏多小石邨  
 煎造如令依法製 銅瓶活水飲清魂

[해설] 일제 강점기에 전라남도 입업 시험장에서 일하던 이에이리 가즈오(家入一雄, 1900~1982)는 전라남도의 차 산지를 현장 조사하여 모로오카 다모쓰(諸岡存, 1879~1946)와 함께 1940년에 『조선의 차茶와 선禪』이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이 책 161쪽에 '현재 (송광사에) 차나무가 있으며 자가용自家用에 제공된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로 볼 때 금명 스님이 출가한 1870년대 중반부터 1930년 입적할 때까지 송광사 인근에 차나무가 야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시에서 '물어서 차밭 찾아 죽원竹園으로 향하였네'라는 구절로 보아 송광사에서 다소 먼 곳에 차밭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금명 스님은 이보다 더 먼 거리인 깊은 숲 골짜기에서 밤늦도록 찻잎을 땀다. 이렇게 따온 찻잎을 법제法製하여 달여 마시며 금명 스님은 비로소 마음의 평온을 얻었던 것이다.

### 여흥으로 즉석에서 읊다 (餘興謔吟)

평상시처럼 맑게 노니는데  
 하늘의 뜨거운 해 지려면 아직 멀었네.

매미 소리 다 하자 청산은 저물고  
 종소리 들으며 불자拂子를 흔드네.  
 달 지자 등축 밝히고  
 차 끓이려 땀나무 쪼개네.  
 새들 돌아가자 사람 역시 흩어지고  
 만물이 모두 쓸쓸하고 고요하네.

籤日清遊地 炎鳥尺九霄  
 蟬歇青山暮 鐘鳴白拂搖  
 月沒須明燭 茶烹更析樵  
 鳥歸人赤散 萬物俱寥寥

[해설] 해가 뜨겁고 매미 소리가 들린다는 시의 내용으로 보아 이 작품이 더위가 한창인 여름에 씌어졌음을 알 수 있다. 종소리를 들으며 불자拂子로 모기를 쫓으려 했다는 구절을 통해 수행자들이 모기, 파리와 같은 해충조차도 불상생 계율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스님은 달이 지자 등축을 밝히고 차를 끓이려 땀나무를 쪼갰다. 새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진 쓸쓸하고 고요한 여름 밤, 스님은 차를 달여 마시며 산사의 고즈넉한 밤의 정취를 즐기고 있다.

### 장춘동 長春洞

잎 푸른 봄이 오니 채전菜田에는 냉이와 명아주 돋고  
 물가의 옥매화 붉은 꽃에 눈이 내려 덮이네.  
 유다油茶와 목밀木密, 소나무와 잣나무.  
 울울하게 푸른 그늘 드리우니 사계절이 새롭네.

綠葉偷春萸莢圃 紅花濯雪玉梅濱  
 油茶木密松兼栢 鬱鬱青陰四節新

[해설] 시제 '장춘동長春洞'은 두륜산頭輪山 대둔사가 있는 곳이다. 대둔사가 소재한 곳의 정확한 주소는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이며, 대둔사가 있는 동네를 흔히 장춘동이라 한다. 금명 스님은 문헌에 나타난 것만으로도 대둔사에 세 번 정도 머물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시는 그 내용으로 보아 스님이 1916년에 대둔사에 머물 때 쓴 것으로 추정된다. 대둔사에 봄이 돌아오니 채전에는 냉이와 명아주가 돋아난다면서 장춘동의 옥매화, 유다油茶, 목밀木密, 소나무, 잣나무를 언급하고 있는데, 봄을 시각적으로 매우 잘 표현한 시라 할 수 있다.

### 다옥茶屋을 만들면서 (修造茶藏有占)

네 기둥과 창이 있는 방 하나를 꾸몄지.

벽에 잇달아 6개의 문이 있는 집을 잠깐 사이에 완성했네.

오늘 아침 방에서 차 달이며 웃었지.

이 방이 먼 훗날 법당이 될지 누가 알리오 하면서.

四柱併窓構一房 六門聯壁纔成藏

可笑今朝煎茗室 誰知幾劫拈香堂

[해설] 차를 좋아하여 60편 66수에 이르는 '다시'를 남긴 금명 스님은 찾집인 다옥茶屋까지 지었다. 조계산 송광사에 주석하고 있던 금명 스님이 다옥을 지은 곳은 송광사 경내였을 것이다. 다른 여러 시에도 다양한 찾집이 등장하는데 안축安軸과 원천석元天錫이 읊은 다시에는 '다헌茶軒'이 보이고, 서거정徐正이 읊은 '숲의 정자에서 저녁 때 잠상인의 운을 이어서 읊다(林亭晚唵次峯上人韻)'란 제목의 시에는 '다정茶亭'이 보이며, 신위申緯의 '지는 매화(落梅)'라는 제목의 시에는 '다옥茶屋'이 보인다. 위의 시에서 금명 스님은 다옥을 지은 후 그 다실茶室에서 차를 달이며 '이 방이 먼 훗날 법당이 될지 누가 알리오'하면서 빙그레 웃고 있다. 찾집을 스스로의 힘으로 마련한 다승茶僧 금명 스님의 흐뭇해하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초의의 진신을 찬탄함 (草衣眞身贊)

터를 잡아 집을 짓고  
띠로 지붕을 이었네.  
옷은 풀로 엮은 것이고  
마시는 것은 시냇물이네.  
국화를 심는 것은 도잠을 닦고  
연꽃을 사랑함은 주돈이와 같네.  
삼의三衣”는 기러기처럼 가지런하고  
두 그루의 계수나무 빼어들었네.  
깨달음을 성취한 자취 있고  
뗏목 타고 건넌 사람이지.  
명성이 아울러 따르고  
불교와 세속 이치 함께 닦았네.  
업적을 돌탑에 감추고  
형체는 찻잔에 비추네.  
적막한 숲속 동산에는 남은 향기 배어 있네.

相地卜居 把茅蓋頭  
衣及編屮 飲則枕流  
種菊似陶 愛蓮侔周  
三衣鷹行 二株桂抽  
了元之跡 浮山之儔  
聲名并隨 眞俗雙修  
蹟藏石塔 形照茶甌  
林苑寂寞餘香疑

1) 삼의三衣: 스님이 입는 세 가지 옷을 가리키는데, 이는 일상적인 의복이 아

나라 의식이나 행사를 위해 갖추어 입는 '가사'를 가리킨다. 가사에는 대의大衣, 칠조의七條衣, 오조의五條衣가 있는데 이를 삼의라 지칭한 것이다.

[해설] 처음 두 구절을 보면 이 시가 40세 무렵의 초의 선사와 일지암에 관해 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시에 따르면 초의 선사는 도잠陶潛처럼 국화를 심는 취미가 있었고 주돈이처럼 연꽃을 사랑했다고 한다. 이 시에서 보정 스님은 초의 선사는 깨달음을 성취했고 명성이 뒤따랐으며 그의 모습은 차잔(茶甌)에 비친다고 찬탄하고 있다. 초의 선사의 담백한 성품과 뛰어난 업적을 간결하면서도 품격 있게 읊은 작품이다.

## 3장

# 광복 후 대둔사의 다매



## 1. 일제 강점기의 대둔사

일제 강점기의 대둔사 음다풍은 그곳에 살고 있는 스님들에 의해 연면히 이어져 내려왔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일본에 의해 강제로 합병되고 신학문의 열풍이 휘몰아치면서 대둔사(당시는 대홍사)에도 신식학교가 세워졌으며, 재적 승려들은 경성(일제 강점기 서울의 명칭)의 중앙학림에 유학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대의 격랑 속에서 한문을 기반으로 한 학문 풍토가 붕괴되면서 한자로 글을 쓰는 일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일제 강점기에는 한문 시문집을 남긴 대둔사 출신의 승려를 찾아볼 수 없다. 예외적인 인물로 응송應松 박영희朴暎熙(1892~1990) 스님을 들 수 있는데, 스님은 『동다정통고東茶正統考』란 저술을 남겨 미흡하나마 후세 사람들이 일제 강점기 대둔사의 음다풍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동다정통고』는 ‘한국 차문화茶文化의 발달’, ‘차의 제조법과 종류’, ‘다수茶樹의 재배법’, ‘제다용기製茶用器와 다완茶碗’, ‘다신전·동다송’, ‘초의대종사’ 등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한국 차문화의 발달’에는 ‘대홍사 작설차雀舌茶와 다풍茶風’이라는 제목 아래 응송 스님이 사미승 시절 대둔사에서 차에 관해 보고 듣고 체험한 바를 비교적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초의 선사가 손수 차를 만든

- 1) 응송 스님의 사미승 시절이란 출가하여 3·1 운동 때까지의 10년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짐작된다. 사미승이란 행자를 거쳐 사미계를 받은 승려로서 비구계를 받기 이전을 뜻한다. 응송 스님은 3·1 운동에 참가한 직후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하였다. 1921년 귀국하여 결혼했으며, 완도의 소학교와 대홍사의 장춘학교에서 교직에 종사하다 1928년 중앙불교전문학교(중앙학림의 후신)에 입학하여 만당卍黨에 가입하였다. 1937년 1월, 대홍사 주지직에 취임한 응송 스님은 1954년 정화 운동 때까지 그 소임을 다하였다. 응송 스님의 이러한 경력에 비추어 볼 때 『동다정통고』에서 말하는 스님의 사미승 시절이란, 출가하여 3·1 운동 때까지이거나 아니면 결혼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로는 대둔사에서 정제된 차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단지 초의 선사의 제다법을 따른 엽차葉茶 계열의 작설차雀舌茶가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작설차 이전에 대둔사에서 어떤 종류의 차를 제조해 사용했는지는 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알 수가 없다. 당시 대둔사 인근의 만덕사萬德寺·무위사無爲寺·도감사 등지의 사찰 주변에는 야생 차밭이 산재해 있었고, 화엄사·불회사佛會寺·보림사寶林寺·통도사 등에서는 고려 때부터 단차團茶 계통의 차를 만들었으므로 그 영향으로 대둔사에서 단차나 전차錢茶 등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길은 없다.<sup>2)</sup> 다만 전후 사정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응송 스님이 사미승 때인 1910년 대의 대둔사에는 엽차인 작설차만 있었을 뿐 단차나 전차는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응송 스님의 사미승 시절 대둔사의 차밭(茶田)이라고는 초의 선사가 조성했다는 나한전 동편 산기슭에 있는 약간의 다수茶樹가 전부였으므로, 차의 구입은 초파일의 지난 후 인근 마을 아낙네들이 근처 산야에 자생하는 야생차를 채취해 가지고 오는 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응송 스님은 당시의 사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내가 대홍사에서 차를 만들 당시인 약 60여 년 전에는 대홍사에 문중이 서로 다른 소요파와 편양파가 있었다. 독특한 것은 대웅전을 중심으로 백설당·대광명전·천불전 등에 각각의 문중 살림이 독립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어느 문중인지를 묻는 말을 “어느 찻독이냐?” 고 하였다. 차 철이 되면 각 문중마다 제다製茶하곤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제精製된 차를 제조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sup>3)</sup>

2) 박영희, 『東茶正統考』(호영출판사, 1985), 27쪽.

3) 박영희, 같은 책, 29~30쪽.

응송 스님은 당시 대둔사에서 정제된 차를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 채다採茶 때 “일창이기一槍二旗를 지난 지금의 3번다三番茶 정도로 생생한 葉을 가지고 제다했으니 그 색·향·맛이 떨어지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라고 하였다. 응송 스님이 당시 대둔사의 차 제조법에 대하여 언급한 바를 살펴보자.

그 제조법은 대강 이렇다. 다엽茶葉이 마르면 커다란 가마솥을 정갈히 닦고 솥에 온도가 높아지면 다엽을 넣고 섞는다. 섞을 때는 대나무로 만든 비로 다엽을 여러 번 돌려가며 섞어 낸다. 섞은 다엽은 손으로 비빈 후 대강 다엽을 떨어 다시 말린다. 그런데 섞는 과정에서 다엽의 양과 물의 온도를 알맞게 조절하지 못하여 혹은 타고 혹은 덜 뒤어져 그 맛이 짹고 좋지 않았다. 이 방법은 초의 선사 당시의 공정工程과 같지만 그 색과 맛은 거리가 있을 것 같다.<sup>4)</sup>

위의 글에서 응송 스님은 대둔사에서 제다할 당시 차를 뒤는 공정은 초의 선사 당시의 방법과 같지만 그 뒤는 과정에서 찻잎이 타거나 덜 뒤어져 차맛이 짹고 좋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는 차를 뒤는 사람의 기술이 숙련되지 못하고 제대로 법제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보인다. 즉 당시 대둔사에서 차를 만든 사람들은 초의 선사에 비해 제다 기술이 뒤떨어졌을 것이다. 이어서 응송 스님은 당시 대둔사에서 차를 달여 마시던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만든 차는 좌선 시 또는 손님이 왔을 때 대중의 공양 후 사용했는데 그 침출 방법은 이렇다. 먼저 무쇠로 만든 다관에 물을 끓인 후 물이 끓으면 다관에 직접 차를 넣고 조금 있다가 찻잔에 따른다. 지금

---

4) 박영희, 같은 책, 30쪽.

시중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물식힘 그릇을 사용한 적은 없다. 그 그릇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조차 알지 못했다. 본래 우리나라 차의 침출 때에는 물식힘 그릇이 사용되지 않았다. 생각하건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식힘 그릇이란 말차末茶(가루차)를 할 때 물의 온도를 조정하기 위해 사용한 것의 변형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므로 엽차葉茶에서 물식힘 그릇을 사용하는 것은 좀 부자유하고 와전된 것 같다.<sup>5)</sup>

옹송 스님의 이 말에서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차를 마시는 방법에 있어서 무쇠로 된 다관을 사용한 것 이외에는 오늘날과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으나, 다구茶具 가운데 물식힘 그릇에 관한 언급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위에서 옹송 스님은 물식힘 그릇을 사용한 적이 없었으며 그 그릇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다서茶書에는 이 물식힘 그릇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예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물식힘 그릇(熟盃) 또는 유발乳鉢: 찻잔, 다관, 찻사발을 예열할 때 또는 잎차용 탕수를 식히는 사발.<sup>6)</sup>
- ② 숙우熟盃: 잎차용 탕수를 식히는 사발이다. 말차에서는 쓰지 않지만 잎차에서는 필요한 그릇이다. 이것은 도자기로 된 것이 좋으며 탕수를 다관에 따르기 편리하도록 한쪽 귀가 달린 것이어야 한다. 재래의 귀대접과 모양이 비슷하며 크기는 다관과 어울리는 크기면 된다. 옛날에는 숙우를 사용하지 않고 계절에 따라 투다법投茶法을 써서 알맞게 맞추었다.<sup>7)</sup>

5) 박영희, 같은 책, 30쪽.

6) 박필금, 『생활 속의 다도』(삶과 꿈, 1988), 51쪽.

7) 석용운, 『한국다예』(도서출판 초의, 1988), 161쪽.

③ 유발乳鉢: 끓인 차를 담아 각 잔에 따르는 컷대그릇을 말한다. 고급 녹차의 감칠맛을 내기 위해 탕수를 식히는 그릇으로도 쓰였다. 귀탕기·차귀탕이·컷대차사발이라고도 불리는 유발은 본래 차를 갈아서 바로 탕수를 부어 다유茶乳를 만들어 각 잔에 따르던 그릇으로, 한술밥을 증시하는 우리의 풍속에 매우 알맞은 다구였다(숙용운 말은, 陸羽가 『茶經』에서 끓인 물을 담아두는 그릇으로 쓴 말로 오늘날 중국에서도 쓰지 않는 말이다).<sup>8)</sup>

위의 내용과 응송 스님의 기록에 따른 물식힘 그릇에 관한 설명을 살펴보면 견해의 같고 다름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첫째, 그릇의 명칭이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물식힘 그릇’(응송 스님, 박필금), ‘숙우’(석용운 스님, 박필금), ‘유발’(정영선, 박필금)로 다르게 불리고 있으며, 이 외에도 ‘컷대그릇·귀탕기·차귀탕이·컷대차사발’(정영선) 등으로 불리고 있다.

둘째, 그릇의 용도에 있어서는 대체로 일치한다. 즉 탕수를 식히거나 끓인 차를 담아 각 잔에 따른다는 면에서는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다. 물론 엄격하게 보면 탕수를 식히는 용도(응송과 석용운 스님, 박필금)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러한 기능과 더불어 끓인 차를 담아 각 잔에 따르는 용도(정영선)로도 쓰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셋째, 그릇의 역사적 유래에 관해서는 응송과 석용운 스님의 견해가 거의 유사한데, 정영선은 ‘숙우’란 말은 육우가 『다경』에서 끓인 물을 담아 두는 그릇을 가리킬 때에 쓴 말로서 오늘날 중국에서도 쓰지 않는 말이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넷째, 이 그릇을 사용하는 차의 종류에 대해서는 응송 스님과 정

8) 정영선, 『한국茶文化』(도서출판 너럭바위, 1990), 261쪽.



▲ 물식힘 그릇

영선은 가루차에 사용된다고 하고, 석용운 스님은 말차에는 쓰지 않지만 잎차에는 필요한 그릇이라고 하여 그 주장이 엇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물식힘 그릇에 관한 견해에 있어 같고 다른 점을 살펴본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차 연구자들이 더욱 자세하게 고찰하기를 기대하며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응송 스님은 찻잔과 찻잔받침에 대해서도 거론했는데, 찻잔은 차를 부어 마시기 알맞은 것이 있으면 아무것이나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찻잔받침은 별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였다.<sup>9)</sup> 이어 응송 스님은 당시의 대둔사 진다법進茶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절에는 다각茶角(사찰에서 차를 달이는 사람)이 있어 차를 내는데 소반에 찻잔을 놓고 손님에게 다가가 합장한 후 찻잔을 오른쪽 무릎 쪽에 놓는다. 이때 찻잔과 무릎 사이의 거리는 주먹이 자유롭게 통과할 정도가 적당하다. 다각이 다시 합장하면서 “차 드십시오” 하고 물러

9) 박영희, 『東茶正統考』, 31쪽.

나면 손님도 함께 합장한 후 차를 받는다. 평소에는 그다지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자유로운 가운데에서 차를 마시는 것이 좋을 듯하다.<sup>10)</sup>

차를 주는 다각과 찻잔을 받는 사람이 서로 합장해 예를 표시하는 것은 대둔사만이 아니라 사찰 진다법의 통상적인 상례였다. 응송 스님이 전하는 대둔사의 진다법은 예의를 갖추면서도 간소한 것이었다. 또한 차를 마시는 장소도 특별히 다실茶室을 정하지 않고 선방이나 객방 또는 공부하던 곳에서 차를 마셨다고 한다. 이는 오늘날의 사찰에서도 마찬가지다. 응송 스님은 대둔사의 다풍을 기록하면서 그 말미에 이렇게 적고 있다.

요즘 찻물의 온도에 대하여 그 의견이 분분한 것 같다. 그러나 내가 강조하는 것은 찻물은 뜨겁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옛말에도 “차는 그 발음은 차지만(冷) 뜨겁다”라는 말이 있다.<sup>11)</sup>

응송 스님은 근래 찻물의 온도에 대한 여러 의견에 대해 옛말을 곁들여 가며 본래 찻물은 뜨겁게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응송 스님의 『동다정통고』에 수록되어 대둔사에 전해져 오던 작설차와 그 제다법을 비롯하여 차 달이는 법, 물식힘 그릇, 진다법, 찻잔과 찻잔받침, 다실, 찻물의 온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로써 일제 강점기 때의 대둔사의 음다풍을 그 전모는 아니지만 부분적이거나 알 수 있었다.

---

10) 박영희, 같은 책, 같은 곳.

11) 박영희, 같은 책, 같은 곳.

## 2. 초의 선사의 차 정신 계승과 일지암 복원

광복 후 우리 나라는 미군정 3년과 정부 수립, 한국 전쟁과 그 복구, 그리고 뒤이은 4·19 의거와 5·16 군사 쿠데타 등을 겪게 되었다. 그러다 70년대의 경제 부흥으로 국가와 국민의 삶에 여유가 생기면서 사회 일각에서는 문화적 취향이 활성화되는 징후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시대적 상황과 더불어 차 문화를 부흥시키려는 움직임이 불교계가 아닌 일부 문화인들을 중심으로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광복 후 전국 최초의 다회茶會가 경남 진주에서 개최되었다. 야생 차나무가 많은 지리산을 위시한 진주는 경남 문화의 중심지로, 그곳에는 오래 전부터 차를 마시는 풍습이 있었고 그래서인지 차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또한 진주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사천 다솔사多率寺에는 근대 차 문화의 대표적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효당曉堂 최범술崔凡述 스님이 주석하고 있어 차 교육의 장이 자연스레 만들어졌다. 진주 사람들은 효당 스님을 중심으로 1969년 10월 1일 진주다례회(초대 회장 김창문)를 결성했는데, 1977년에 진주다도회로, 1979년에 진주차인회로 개칭되었다.<sup>12)</sup>

한편 초의 선사가 오래 주석한 대둔사가 있는 해남 역시 절에서는 물론이고 여염집에서도 차를 마시고 약처럼 떡차를 달여 마시고 있었다. 1960년대 초 해남의 극작가 김봉호(해남신문사 대표), 김제현(해남병원 원장), 강창기, 조주원, 임기원 등은 화훼 클럽을 결성하여 꽃을 사랑하는 운동을 벌였다. 수년 후 이 클럽은 차를 부흥시키는 일

12) 「지리산 정기가 배인 한국 차 문화의 뿌리 진주차인회」, 『茶人』 1999년 3월호, 12~13쪽.

에 앞장서게 되는데, 1970년대 중반 이후 김봉호, 김제현, 석용운 스님 등을 주축으로 해남다인회(회장 김제현)를 발족하여 차 문화 운동의 일선에 나서게 된다.<sup>13)</sup>

## 1. 일지암 복원

현대에 들어와 우리 나라 차 문화가 부흥의 깃발을 올리게 된 첫 번째 계기로 일지암의 복원을 손꼽는 것은 한국다계韓國茶界의 공통된 인식이다. 일지암 복원이 공식적으로 추진된 것은 1979년 1월 20일 서울 무역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차인회韓國茶人會 창립 총회 때였다. 하지만 일지암 복원은 이보다 3년 전인 1976년 8월 하순에 이미 추진되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2001년 3월 2일, 필자는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학동 662번지에 소재한 김봉호 씨 자택을 방문하였다. 일찍이 일지암 복원 사업에 앞장섰던 김봉호 씨는 노환의 불편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다.<sup>14)</sup> 그는 자세한 전후사前後事에 대해 이미 글로 썼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필자는 김봉호 씨가 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지암 복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sup>15)</sup>

13) 「한국차문화의 맥·해남다인회」, 『茶人』 1999년 1월호, 23쪽.

14) 일지암복원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일지암 재건에 앞장서 온갖 갖은 일을 한 김봉호 씨는 해남읍 해남읍 학동 출신이다. 그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197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희곡 「타령」이 당선, 이어 같은 해에 『월간문학』 신인상에 희곡 「찌」가 당선되어 극작가로 데뷔하였다. 그는 일지암복원추진위원회가 결성된 1976년 당시 해남신문사의 발행인이었다. 그는 『문학사상』 1975년 3월호에 「조선조 유일의 차茶 연구서 동다송」을 발표하여 이 땅에 초의 선사의 차에 관한 업적을 처음 소개했고 이어 3년간 노력하여 『초의집』(문성당, 1977)을 간행하였다. 또한 예총에서 발행하는 『예술계』에 실명소설 『초의 선사와 완간 김정희』를 연재하였고 이를 1990년에 단행본으로 출간하였다.(우리출판사, 1990)

15) 이어지는 일지암 복원에 관한 내용은 김봉호, 『茶의 中興處一枝庵復元記』, 『茶園』 제4호(1983년 5월)를 전적으로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1976년 8월 하순, 진주의 대아중고교大亞中高校 교장 박종한朴鍾漢, 박동선朴東宣(미륵그림 회장), 손상봉孫相鳳, 박태영朴兌泳, 조창도趙昌道, 서일성徐一聲, 석도범釋道梵 스님 등이 해남의 김봉호 씨의 집에 모였다. 이들은 차를 마시면서 다례茶禮와 차 문화 보급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의논하였다. 이들이 합의를 본 사항은 다음의 두 가지였다. 첫째는 차 문화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다인茶인들이 한데 모여 모임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나라 차의 증흥조中興祖인 초의 선사의 일지암을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뜻을 모은 이들은 가까운 날 다시 모이기로 하고 일단 헤어졌다. 이들이 다시 모인 것은 1976년 9월, 서울 오류동의 박동선 씨 자택이었다. 이때 참석자는 대략 박동선, 효당曉堂 최범술崔凡述, 청사淸斯 안광석安光碩, 박태영朴兌泳, 김미희金美熙, 정승연鄭承娟, 박종한朴鍾漢, 손상봉, 임경빈任慶彬, 이영노李永魯, 황태섭黃泰涉, 조창도趙昌道, 김종희金鍾禧, 차재석車載錫, 장명식張明植, 그리고 김봉호였다. 이날의 모임은 매우 우호적이었으며 안건은 이의 없이 처리되었으며, 그날 결성의 합의를 본 것이 한국차인회와 일지암복원추진위원회였다. 그리고 일지암복원추진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된 것은 1976년 10월 5일이었다(한국차인회는 1979년 1월 20일 발족되었다). 당시 일지암복원추진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았다. 위원장에 김봉호, 부위원장에 박종한·김미희, 이사에 김종희·임경빈·이영노·고범준高範俊·정영복鄭泳福·장명식·이정애李貞愛·박태영·황태섭·임광현林洸賢·유종선柳宗善·도범道梵 스님·정승연·차재석, 상무이사에 조창도, 사무국장에 이광종李光鍾, 고문에 최범술·신형식申炯植·박동선, 지도위원에 안광석

安光碩 · 정명수鄭命壽 · 이을호李乙浩 · 허건許楛 · 김종해金鍾海 · 김운학金雲學 · 이덕봉李德鳳이었다.<sup>16)</sup> 일지암복원추진위원회에서는 전국의 다인들과 각계의 요로要路에 다음과 같은 취지문을 발송하였다.

#### 일지암복원취지문

일지암一枝庵이라 함은 전남 해남군海南郡 삼산면三山面 구림리九林里 소재 대흥사(대둔사) 사찰 내에 있었던 한 암자입니다. 지금은 주춧돌과 깨진 기와가 남아 있을 뿐 옛 모습은 간데 없지만 문헌 또는 구전口傳에 의하면 이 암자는 7자 네 칸의 그 셋째 칸을 다실茶室로 꾸민 조그만 가람伽藍을 중심으로 유천乳泉과 연지蓮池와 자죽紫竹으로 둘러싸인 유현한 구조였다고 합니다. 이 일지암은 보제존자普濟尊者 초의 대종사가 1826년(순조 26)에 결암結庵하였습니다. 초의 스님(俗名 張意恂)은 전남 무안務安 삼향三鄉에서 출생, 15세 때 나주 남평南平의 운흥사雲興寺에서 축발祝髮하고 19세 때 대흥사로 옮겨 대교大教 수학 후 잠시 화순和順 쌍봉사雙峯寺, 경주 불국사에 머문 적이 있으며 일지암 결암 후에도 금강산 등 명산과 경향 각처를 자주 주유周遊하였으나 81세에 입적할 때까지 줄곧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초의 스님은 여기에서 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즉 경經과 선禪에 통달했으며 시詩 · 서書 · 화畵 삼절三絶이었으며 특히 사라져 가는 다례茶禮를 바로세운 다인茶人이었습니다. 한국의 육자우陸子羽, 한국의 소광蘇廣, 한국의 다선茶仙이라 일컫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리고 다례의 진수眞髓를 밝힌 『다신전』과 『동다송』을 저술했으며 몇

16) 이와 달리 1979년 1월 20일 한국차인회의 창립발기문에 기록된 일지암복원추진위원회의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명예위원장에 안동성(대흥사 주지), 위원장에 김봉호, 부위원장에 박태영(화가) · 박종한(대이종고 교장) · 김미희(쌍용그룹), 총무 겸 재무에 조창도(미룡그룹 이사), 섭외에 정승연(해강박물관), 고문에 최범술 · 안광석(전국가) · 이방자(樂善齋) · 박동선(미룡그룹 회장), 위원에 김종희(계명대학 교수) · 임경빈(서울대 교수) 등이다.



▲ 일지암 초당

과 맛을 깊고 넓게 터득한 선비와도 상통相通했던 초의 스님의 일지암을 복원하는 일은 우리 나라 다례를 바로세우는 첨경捷經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우리의 전통 차를 되찾고 이를 널리 진작할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례의 뿌리를 되살리는 일과도 같은 일지암 복원불사復元佛事에 강호제현江湖諸賢의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1976년 9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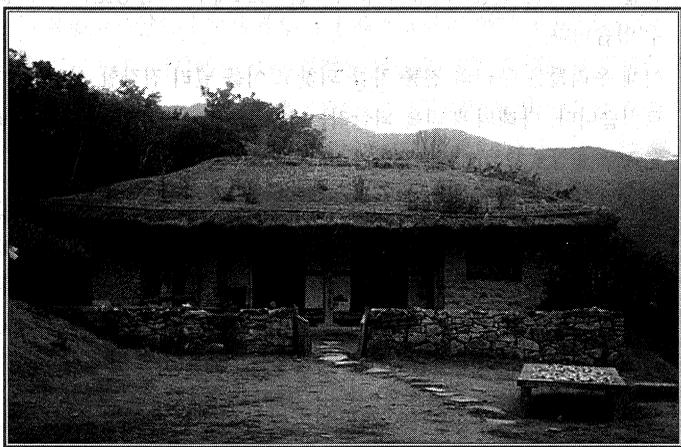
일지암복원추진위원회

현장 연락 장소: 전남 해남읍 학동 811 대둔학회 내

전화: 해남 3400

「일지암복원취지문」을 발송한 일지암복원추진위원회에서는 회의의 거듭한 끝에 첫째 현장(일지암 터)을 확인할 것, 둘째 원형을 추

정하여 설계를 끝낼 것 등의 2개 항을 결의하였다. 암자 터를 찾기 위해 위원회에서는 전후 10여 차례에 걸쳐 현장 답사를 했으나 터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대홍사의 사찰림이 무려 900헥타르에 이를 정도로 광대한데다가 또한 그 안에는 옛 절터가 100여 곳에 달하여 일지암 터와 구분하는 것이 힘들었고 또 대홍사의 스님들과 인근 주민들 중 암자 터를 알고 있는 분들이 모두 작고作故했기 때문이다. 한번은 일지암 자리를 찾았다고 자축회까지 하였으나 그곳이 일지암 터가 아니라 신월암新月菴 터로 확인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런 시행착오 끝에 위원회에서는 『남다병서南茶並序』, 『몽하편병서夢霞篇並序』, 『대둔사지大菴寺志』 등의 문헌을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대홍사 사정에 밝은 고고 스님과 대둔사의 주지였던 응송應松 박영희朴映熙 스님(당시 90세)에게 고증을 부탁하였



▲ 일지암 요사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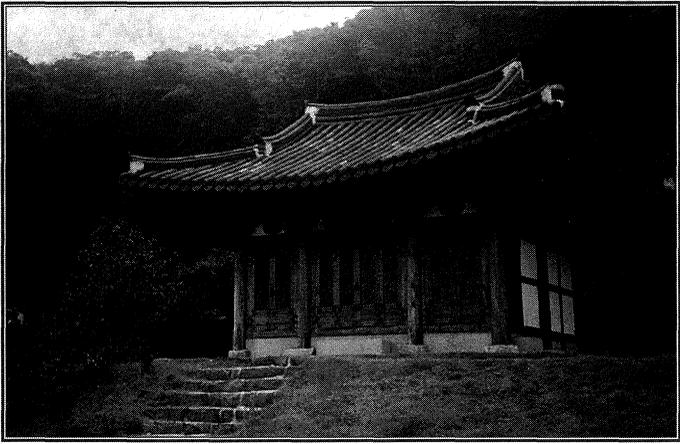
다. 마침내 지금의 일지  
 암 터를 확정 지은  
 것은 1977년 2  
 월 하순으로,  
 응송 스님을  
 업고 다니며  
 현장을 확인한  
 끝에 이루어진 일이  
 였다.



▲ 일지암의 유천

일지암 터는 대홍사의 대광명전大光明  
 殿으로부터 동남쪽으로 1700미터 거리에 있는 두류산 중턱에 위치  
 하고 있었다. 암자 터로 추정되는 현장은 낙엽과 토사土沙로 뒤덮여  
 있었고 잡목까지 우거져 그곳이 정말 일지암 터인지 의심스러운 정  
 도였다. 그러나 응송 스님과 고고 스님이 말한 백일홍과 두 층으로 된  
 연못을 확인한 끝에 일지암 터란 확증을 얻게 되었다. 터를 확정하는  
 자리에는 응송 스님, 고고 스님, 박종한, 김제현, 김두반, 조자룡, 김봉  
 호가 입회하였다.

일지암 터를 확정된 위원회의 다음 문제는 일지암의 건축 설계였  
 다. 회의를 거듭한 끝에 에밀레 박물관장이자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구조학構造學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조자룡趙子龍 씨가 건축 설계  
 를 맡게 되었다. 이에 조자룡 씨는 한국의 전형적인 다실茶室이 어떤  
 것인가를 고심하면서 서울을 위시한 전국 각처를 살살이 뒤지는 수  
 고를 아끼지 않았다. 각고의 노력 끝에 조자룡 씨를 중심으로 한 위  
 원회는 일지암의 형태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을 잡게 되었다. 즉 일지



▲ 일지암 법당

암은 5.5평의 정사각형 초가(茅屋)의 형태로, 법당 겸 요사채는 15.5평의 기와집으로 내정하였다. 곧바로 가설계도를 만들어 서울 진관사에서 열린 총회에 회부하였다. 총회에서는 별다른 이의 없이 설계 내용과 공사비 추정액 1500만 원을 통과시켰고, 공사비 염출은 전액 회원의 회사금으로 충당기로 하였다.

## 2. 한국차인회 출범과 복원 공사의 진전

1976년 10월 5일 발족한 일지암복원추진위원회가 일지암 복원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1979년 1월 20일 서울 무역회관에서는 뜻 있는 다인들이 모임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민족 정신을 고양시키

고 예의 범절을 살려 한국인다운 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차 생활 부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 공식적으로 한국차인회를 출범하기로 결의하였다. 당시 한국차인회 창립 발기문에 기록된 발기인 대표는 최범술, 박태영, 박종한, 김미희였다.<sup>17)</sup> 스님, 학자, 예술가 등 다인 50명과 그 외 참가객 26명이 모인 이 모임이 바로 (사단법인) 한국차인연합회의 첫 출발이었다. 이 날 총회에서는 '일지암 복원 사업'을 가결했는데 기왕의 일지암복원추진위원회를 그대로 추진하면서 위원장은 김봉호가 그대로 맡고 다른 임원들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 뿐이었다. 한국차인회의 창립으로 일지암 복원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아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일지암복원추진위원회는 조자룡 씨에 위촉한 일지암 건축설계를 끝내고 해남군청에 건축허가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형질변경원形質變更願 등의 구비 서류를 갖추는 데에만 무려 2개월이 걸렸고 그 허가를 받는 데 또다시 3개월이 소요되었다. 마침내 이 일이 마무리되자 위원회는 설계에 맞는 고건물古建物の 목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일지암을 지을 목재는 해남군 옥천玉泉에서, 법당 겸 요사채를 지을 목재는 해남군 여천麗川 공업단지에서 구할 수 있었다. 한편 공사 현장까지 길이 나 있지 않았으므로 위원회는 새로 길을 만들고 택지 정리를 해야 했다. 복원 공사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므로 위원회는 전후 십여 차례에 걸쳐 복원 기금을 모

17) 창립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문에 신형식(국회의원)·박동선(미술품 회장), 회장에 이덕봉(자연보호협회장), 부회장에 김미희(쌍용그룹)·박종한(진주 대이중고등학교장), 이사에 고범준(한국란협회장)·임경빈(서울대 교수)·조창도(한남제인 전무)·윤병상(연세대 교수)·장명식(금성제분 사장), 감사에 황태섭(전 헌병사령부 차감) 등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차인연합회 창립 총회와 일지암 복원」, 『茶人』 1999년 1월호를 참조할 것.

았다.<sup>18)</sup>

이렇듯 일지암의 복원 공사는 어렵게 진행되어 갔다. 그런데 또다시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재목은 고건물을 뜯어오는 일이기  
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정작 이 목재를 트럭에 싣고 대문사 대광  
명전 앞까지 옮기는 과정에서 교량이 필요했고, 결국 가교를 설치해  
야만 했다. 대광명전에서 1700미터에 이르는 암자 터까지 건축 자재  
들을 지게로 하나하나 운반하는 일 또한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건축  
자재를 운반하기 시작한 때는 1979년 7월로 인부들은 더위와 싸우며  
험한 경사진 산길로 자재를 옮겨야 했다. 이러한 상황이었으므로 인  
부 한 사람당 서까래 2개와 기와 7장을 지고 하루 4차례 오르내리는  
것이 고작이었다. 더욱이 일이 고되다며 건축 자재 운반에 빠지는 인  
부들이 속출하였다. 이렇듯 건축 자재 운반에 예상 외의 많은 비용이  
들게 되어 전체 예산의 약 500~600만 원이 초과될 수밖에 없었다.

위원회에서는 고민 끝에 모연미술전募緣美術展을 기획하게 되었  
다. 모연출품 권고는 의외로 좋은 반응을 얻어 남농南農 허견許健을  
비롯한 많은 작가들이 1점 혹은 3점씩의 작품을 회사해 주었다.<sup>19)</sup> 위  
원회에서는 기증받은 작품들로 1979년 6월 27일부터 1주일간 서울

18) 김봉호 씨는 당시 위원회의 상무 이사였던 조창도 씨의 증언이라는 부인과 함께 당시 기금 회사자의 명단과 금액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김미희 600만 원, 박동선 500만 원, 유광열 100만 원, 박종환 70만 원, 장명식 50만 원, 부산차인회 50만 원, 서양원 50만 원, 강영모·고순영 50만 원, 대구차인회 30만 원, 조창도·이광중 13만 원, 이덕봉 10만 원, 조소수 10만 원, 조자룡 10만 원, 황태섭 10만 원, 김명지 10만 원, 정승연 5만 원, 고법준 5만 원, 차재석 3만 원, 여규현 3만 원, 최법술 5천 원으로 합계 1579만 5천 원에 달한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김미희 620만 원, 박동선 500만 원, 박종환, 박태영 고문이 각각 130만 원을 내놓았다는 기록도 있다.)

19) 참여해 준 작가들은 허견, 김한영, 신영복, 김승희, 문장호, 조방원, 김현장, 김옥진, 박항환, 박종희, 이인배, 성인호, 박화준, 이성재, 이왕재, 서영수, 오우선, 전선철, 서희환, 천병근, 추순자, 하남호, 정서진, 우희춘, 박비오, 천병욱, 박태영, 서정묵, 정명수, 김명제 등이다.

시 중구 예장동의 송의음악당에서 '일지암 재건을 위한 미술전'을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약 1천만 원의 수입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표구비 등 제반 경비를 제외하니 실질적인 수입은 대략 500만 원 정도였다.

마침내 복원 공사가 끝난 것은 1980년 2월 중순이었다. 공사를 완공하고 나서도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일지암에 주석할 스님을 물색하지 못한 것이었다.<sup>20)</sup> 대둔사에서는 해남군 문내면 출신으로 당시 송광사 불일암에 주석하고 있던 범정法頂 스님을 모시려 하였으나 본인의 고사로 난항을 겪어야 했다. 결국 일지암의 관리자로 당시 산내 암자인 대둔사 복암에 있던 석용운 스님이 상주하기로 결정되었다. 원래 산내 암자일 경우 관리 책임자의 소임을 감원監院이라 호칭한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러한 절집 풍속을 잘 모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산내 암자일 경우에도 그 책임자를 주지라 부른다.

어쨌든 일지암의 낙성식과 헌납식을 연 것은 공사가 끝나고 난 뒤 2개월이 지난 1980년 4월 15일이었다. 하지만 행사 당일 비가 장대같이 쏟아져 현장에서 식을 열지 못하고 대둔사 대웅보전大雄寶殿에서 간소하게 행사를 치렀다. 이날 일지암 복원 낙성식과 헌납식에는 한국차인회(회장 이덕봉)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sup>21)</sup> 많은 다인들의 정성어린 헌신으로 복원된 일지암은 대둔사에 헌정하였다.

20) 이에 대해 「창림총회와 일지암 복원」, 『茶人』 1999년 1월호 24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일지암이 1백여 년만에 복원되었지만 과연 누가 살 것인가 문제였다. 여러 스님이 거론되고 이야기가 오고갔으나 3개월 남짓 주인을 찾지 못했다. 맨 처음 범정 스님이 거론되었으나 본인의 거절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21) 같은 책, 같은 곳.

“일지암 복원은 우리 나라 차 문화 발전에 한 획을 그었고 그것이  
오롯하게 보존되는 한 그 가치는 인정될 것”이라는 말로 김봉호 씨  
는 그의 글을 마무리지었다.<sup>22)</sup>

초의 선사가 40여 년 주석한 일지암이 복원되면서 초의 선사에 관  
한 자료집이 출간되었다. 김봉호가 『초의 선사와 완당 김정희』를, 해  
남의 한학자 김두만金斗萬이 초의 선사의 『동다송』과 『다신전』을 번  
역하여 출간한 것이다.<sup>23)</sup> 또한 일지암과 해남 그리고 그곳의 다인들이  
전국적인 주목을 끌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일지암은 한국차  
의 성지聖地로 부상하였고 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지암  
을 순례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일지암이 한국차의 새로운 중흥의 구심점으로 부상한 것은,  
조선 후기에 이 나라의 척박한 차 문화를 위해 바른 제다법을 보급하  
고 『동다송』을 저술하는 한편 『다신전』을 초록하면서 일생 동안 주위  
사람들과 당대의 석학들에게 차를 나눠주며 차 문화를 보급시킨 초의  
선사의 공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초의 선사 이래 철선혜죽, 서암선  
기, 범해각안, 보제심여, 금명보정, 응송 박영희 스님 등이 대둔사의  
다맥을 잘 이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둔사는 두 차례에 걸  
쳐—조선 후기와 일지암 복원 이후—한국차의 중흥지로서의 결정적  
인 역할을 한 셈이다. 초의 선사의 차 정신을 계승함에 있어 그 상징  
적인 표상으로 일지암이 복원되어 현대 한국차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었으니 이 땅의 차 문화 발전을 위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22) 김봉호, 「茶의 中興處一枝庵復元記」, 『茶園』 제4호(1983년 5월).

23) 김봉호, 『초의 선사와 완당 김정희』(우리 출판사, 1990); 김두만 역, 『동다송·다  
신전』(『다예총서』 제1권, 1983, 태평양박물관).

### 3. 복원 이후 일지암의 주지 스님

#### (1) 초대 주지 석용운 스님

일지암이 114년만에 다시 지어진 후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석용운 스님이 우여곡절 끝에 일지암의 초대 주지가 되었다. 일지암에 살게 된 석용운 스님은 초의 선사와 차에 관해 집중적으로 공부했고 이후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과 한국언론연구원의 다도 강사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sup>24)</sup>

일지암의 초대 주지가 된 석용운 스님은 다방면에 걸쳐 일지암과 전통 다매를 지키려 노력했는데, 스님을 직접 만나 본 기자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들어 보자.

……필자가 석용운 스님을 만난 곳은 일지암이 아닌 서울에서였다. 우리 나라 차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수많은 강연을 하는 석용운 스님 이고 보니 한 번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그러나 석용운 스님이 그처럼 바쁜 것은 강의보다는 내년 봄까지 끝내야 할 일지암의 2차 복원 중수를 위한 재원 염출인지 모른다. 연못의 완전 보수, 축대와 하수구 정리, 새로운 요사채와 일지암 아래에서 구름다리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세울 정자의 건립, 법당의 내부 수리, 무색 단청 작업 등의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사가 마무리되면 명실공히 일지

24) 이 시기 석용운 스님은 차에 관한 글을 많이 발표하였다. 「우리 다도의 흐름」이란 글을 『盆栽壽石』 1981년 9·10월호에 발표했으며 「동다송의 새로운 고찰: 한국의 茶經 동다송의 訂本을 발굴하고서」를 같은 잡지 1981년 11·12월호에 발표하였다. 이어 『自由』지에 「(국풍)한국다문화사」를 1982년 9월호부터 11월호까지 3회에 걸쳐 게재하였다. 1983년에는 차 전문 월간지 『茶苑』이 창간되자 「茶人列傳」을 11회에 걸쳐 연재하였다. 이 「다인열전」에 소개된 인물은 충담선사(『다원』 1, 1983), 고운 최치원(『다원』 2, 1983), 원효대사(『다원』 3, 1983), 이규보(『다원』 4·5, 1983), 원감국사(『다원』 6, 1983), 익제 이제현(『다원』 7, 1983), 나옹 화상(『다원』 8, 1983), 도은 이송인(『다원』 9, 1983), 함허 화상(『다원』 10, 1984), 초의 선사(『다원』 11, 1984) 등이다.

암은 우리 나라 차 문화의 구심점이 되는 성지聖地가 될 것이다. 이미 현판과 주련柱聯은 여초如初 김응헌金膺顯, 강암剛菴 송성용宋成鏞, 소암素庵 현중화玄中和 등 서예가들이 쓴 글씨를 이동李東 씨가 각철을 해 걸어 두었다. 12월 초순까지는 『초의선사전집』이 영인 문집으로 출간될 예정인데, 이 또한 석용운 스님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다. 『초의선사전집』은 초의 선사가 남긴 모든 종류의 문헌을 정리해 해제를 달고 연보도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러한 여러 계획들이 현재까지 별 어려움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 외에 석용운 스님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복원 불사 공덕비와 일지암 사지寺誌에 올리게 될 사람들의 명단이다. 이에 대해 석용운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적은 액수이건 큰 액수이건 또는 돈으로 시주는 못했지만 일지암 복원에 협조를 한 사람이면 모두 연락을 주십시오. 모두의 이름을 공덕비에 새기고 사지에 올려 그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습니다.”<sup>25)</sup>

이후 석용운 스님은 초의 선사가 생전에 쓴 여러 글들을 모아 『초의선사전집』(1985, 아세아문화사)을 펴냈다. 이 책은 『일지암시고一枝庵詩稿』, 『일지암문집』, 『초의선과艸衣禪課』, 『선문사변만어禪門四辨漫語』, 『동다송』, 『다신전』, 『진묵대사유적고震默大師遺蹟攷』, 『문자반야집文字般若集』의 원문을 영인하여 출간한 것이다. 또한 석용운 스님은 저서 『한국다예韓國茶藝』를 출간하였다. 1989년 석용운 스님은 월간 『다담茶談』지의 발행인이 되었고 또 같은 해에 국제차문화교류협회 회장이 되었다. 1990년 석용운 스님은 초의문화재단의 이사장이 되었으며,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에 초의선원과 도서출판 초의라는 출판사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1992년 중반 석용운

25) 金大成, 『차문화유적답사기』(불교영상학회보사, 1994), 236~239쪽.

스님은 일지암의 주지직을 사임했고, 2000년 여름에는 서울의 초의 선원을 정리하고 경남 하동군 악양면으로 내려가 차밭을 가꾸며 살고 있다.

## (2) 2대 주지 여연 스님

1992년 가을, 현재(2001년 6월)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인 해암성관 慧庵性觀(1920~) 선사(의 상좌인 여연如然 스님이 일지암의 2대 주지로 취임하였다. 여연 스님은 해인사에서 출가하여 1975년 11월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였다. 여연 스님은 보성 대원사의 주지로 주석하다 일지암 주지로 취임하였는데, 차를 즐기고 아끼던 다인茶人으로 알려져 있다.<sup>26)</sup>

일지암의 제2대 주지인 여연 스님은 현재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이며 전국 각지의 다회茶會를 지도하며 차 문화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

26) 여연 스님은 해인승가대학 다경원에서 발간하는 『茶爐經卷』지에 '권두언' 과 '차 이야기' 를 쓴 적이 있다. 또한 (사)한국차인연합회에서 발행하는 『다인』지에 「다시 쓰는 다신전」을 연재한 바 있다.

### 3. 응송 박영희 스님의 생애와 다맥

응송 박영희 스님은 1893년<sup>27)</sup> 1월 1일 부친 박치준朴致俊과 모친 박수업朴受業의 둘째 아들로 전라남도 완도군莞島郡 내면內面 죽청리竹靑里<sup>28)</sup>에서 출생하였다.

응송 스님은 어린 시절 완도의 향교 명륜당에서 한학漢學을 배웠다. 이후 일제의 한국군 해산령에 반대하다 완도로 유배 와 있던 황준성黃俊聖(1867~1910)을 만났다. 황준성의 영향으로 응송 스님은 1909년 황준성이 지도하는 의병부대에 참가하여 활동했으며 황준성이 체포되자 강진 외가덕에서 피신 생활을 하였다. 1911년 대둔사로 출가하여 행자 생활을 하다가 1913년 1월 15일 서호恕虎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응송 스님은 대둔사의 행자와 사미승 시절, 박학규朴鶴珪라는 이름으로 대둔사(당시 대홍사)에서 세운 대홍학교에 다녔다.<sup>29)</sup>

한편 응송 스님의 재가 제자인 박동춘이 소장하고 있는, 출판되지 않은 응송 스님의 자서전에 따르면 스님은 대홍사 강원에서 사교과四教科를 수료했다고 한다. 또한 박동춘이 갖고 있는 유품 중에는 응

27) 『한국불교인명사전』(불교시대사, 1993)의 ‘응송 스님’ 조에는 출생 연도를 1892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한말에 작성된 民籍簿와 응송 스님의 저서 『東茶正統考』(호영출판사, 1985)의 약력에는 1893년 1월 1일 출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28) 응송 스님의 저서 『東茶正統考』의 약력에는 출생지가 ‘완도군 완도읍 서망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29) 이는 응송 스님이 남긴 유품 중 대홍학교 4학년 때 받은 優等証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우등증에 의하면 응송 스님은 1914년 6월 29일 대홍학교장 林瑞龍으로부터 우등상장(우등증)과 함께 부상으로 공책·연필·백로지(종이)를 받았다고 한다. 따라서 응송 스님은 대둔사에 출가하던 1911년부터 대홍학교에 다녔음이 분명하다. 응송 스님은 대홍학교에 재학하면서 행자 노릇을 하였고 대홍학교 3학년 때인 1913년에 사미계를 받았던 것이다.

송 스님이 강원에서 『기신론起信論』을 수료한 증서가 있다. 이 증서에 따르면 수여한 날은 1915년 8월 5일이며 『기신론』의 강사는 허원응許圓應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말미에는 ‘해남군海南郡 대흥사大興寺 강숙원講塾院’이라 써어 있었다. 이로 볼 때 응송 스님은 대흥학교를 졸업하자 곧바로 사교과에 편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응송 스님은 서울에 설립된 불교중앙학림의 사찰 공비公費 유학생으로 선발되었다. 응송 스님은 당시 대둔사 주지 백취운白翠雲 스님에게 “공부 잘해서 장래 불교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겠습니까”라고 서약을 한 후 경성으로 출발했다고 한다.<sup>30)</sup>

불교중앙학림에서 학업에 매진하던 응송 스님은 이 학교 재학중 1919년 3·1 독립운동을 맞이하여 만해 한용운의 밀명을 전달하는 연락책을 맡았으며 3월 1일의 파고다공원 만세 시위에도 참여하였다. 응송 스님은 만세 시위 중 약간의 부상을 입었으나 곧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해남 대둔사로 출발하였다. 가는 도중에 광주에 들러 최한영崔漢泳을 만나 광주에서도 독립운동을 일으킬 것을 권유하였다. 대둔사에 도착한 응송 스님은 승려 정재성鄭在成·정흥창鄭興昌 김재선金在善 등에게 해남 지역의 거사를 준비하도록 하고 고향인 완도로 향했다. 완도에서 응송 스님은 왜경의 눈을 피해 지방 유지 오석균에게 독립선언문과 태극기를 전달하고 독립만세 시위를 일으킬 것을 촉구한 뒤 구례 화엄사로 갔다. 그곳에서 같은 중앙학림

30) 응송 스님이 중앙학림을 다닌 증빙 문건으로는 사립불교중앙학림(학장 金九河)이 발급한 1917년 3월 31일자의 褒證書가 있다. 그 내용은 응송 스님이 중앙학림 제2회 예과 전부의 수업이 우등이기에 포상한다는 것이다. 이 문건 역시 박동춘이 소장하고 있다. 또한 『조선불교총보』 제3호(1917. 5. 30)에 1917년 3월 26일에 거행한 수업식 본과 제2회 진급생의 명단이 기재되었는데 그곳에 박학규라는 이름이 있었다.

학생이자 화업사 재적승인 정병헌鄭秉憲(1937년경 화업사 주지 역임) 스님을 만난 응송 스님은 역시 거사를 권유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하지만 서울은 이미 안전한 곳이 되지 못했다. 3·1 운동을 수사 중인 왜경들이 응송 스님을 혐의자로 지목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응송 스님은 중앙학림의 스승이자 개운사開運寺 장원의 강주인 한영漢永 스님을 찾아가 잠시 피신해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까지 왜경들의 검거 손길이 미치지 않자 응송 스님은 백초월白初月 스님의 주선으로 1919년 7월, 해인사의 승려 박달준朴達俊·김봉률金奉律·강재호姜在鎬 등과 함께 만주로 건너가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에 입학하였다.<sup>31)</sup> 이곳에서 응송 스님은 특수반에 입학해 1개월의 훈련을 마치고 장교로 임명되었다. 임관된 후 응송 스님은 일본군의 사주를 받은 마적단과 전투를 치렀으며 이 전투에서 큰 부상을 당했다.

결국 응송 스님은 1920년 4월 귀국했다. 귀국 후 완도로 돌아간 응송 스님은 이부송李富崇과 결혼하였고 이후 스님은 섬 동쪽에 있는 완도군 금일면의 소학교로, 부인은 섬 서쪽에 있는 정돌학원의 교사로 부임하였다. 그러자 대둔사의 취운翠雲 스님은 “기껏 공부를 가르쳐 놓으니 왜 밖에서 딴 일만 하고 다니느냐?” 면서 응송 스님에게 대둔사로 돌아올 것을 명하였다. 이에 응송 스님과 그의 부인은 대둔사에서 설립한 장춘보통학교로 옮겨 교직에 종사하였다.<sup>32)</sup>

31) 이철교 「한국불교사연표」, 『한국불교총람』(대한불교진흥원, 1993), 1357쪽 참조.  
3·1운동 직후 기존의 신흥 학교에서 개편된 신흥무관학교는 특수훈련반 1개월, 하사관반 3개월, 장교반 6개월의 과정을 만들어 독립군 장교와 기관요원을 양성하였다. 당시 무관학교의 교장은 이시영, 교성대장은 이청천, 교관은 오광선·이범석·윤경천 등이었다.

1928년 응송 스님은 경성의 불교전수학교에 입학하였다. 불교전수학교는 1925년 11월 10일 전문학교급의 학교로 개교하여 실제 강의는 1928년 5월 1일부터 이루어졌으며, 1930년 4월 총독부로부터 정식 전문학교로 인가되었다. 1930년 5월 불교전문학교에 재학중이던 응송 스님은 청년 승려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비밀결사 만당(卍黨)에 가입하였다. 만해 한용운을 상징적인 당수로 한 만당은 1930년 1차로 이용조(李龍祚)·조학유·김상호·김법린 네 명의 청년 승려들이 결사를 했고, 2차로 조은택(趙殷澤)·박창두(朴昌斗) 등이 포섭되었으며, 3차로 응송 스님과 함께 박윤진(朴允進)·강유문(姜裕文) 등이 입당하였다.<sup>33)</sup>

1938년 만당이 일제에 노출되어 그 조직원들에 대한 검거령이 떨어졌다. 그때 응송 스님은 해남 대둔사의 주지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전라남도 경찰부 고등과로 소환되어 심문을 받았으나 무사히 풀려났다.

소년 시절 의병 활동, 3·1 운동 참여, 만주 신흥무관학교 입학, 만당 입당 등의 행적만을 본다면 응송 스님은 항일 투쟁에 앞장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37년 이래 응송 스님은 일제 하 31본사의 하나

32) 박동춘이 보관하고 있는 응송 스님의 미발표 자서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920년 9월 30일자로 나는 대흥사 사립교인 장춘보통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으며, 1922년 10월 13일자로 완도군 금일면(金日面)에 소재한 한 사립학교에 부임했으며, 1925년 4월경에는 소안면 사립학교에서 1년여 간 아이들을 가르쳤다. 1926년 1월 4일 다시 대흥사로 돌아와 장춘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니 15년쯤 교편 생활을 한 것이다.” 여기서 응송 스님은 15년간 교직에 종사했다고 하나, 1928년 경성의 불교전수학교에 입학하였으므로 실제 교직에 종사한 것은 8년 남짓으로 보인다.

33) 이용조, ‘내가 아는 卍黨 사건’, 『대한불교』(1964. 8. 30) 참조. 한편 응송 스님은 1989년 3월 1일자 『불교신문』에서 자신이 한용운의 명을 받아 만당을 조직한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이는 과장된 표현일 뿐, 실제로 그는 만당에 제3차로 포섭된 인물이었다.

인 해남 대둔사의 주지직을 광복 때까지 유지하였으며 이를 통해 비록 자의는 아니지만 친일 행위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전국의 사찰에서는 일본군의 승리를 기원하는 '국위선양무운장구기원제'를 올리고 국방 헌금, 위문대 따위를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응송 스님이 주지가 된(1937년 8월 31일) 대둔사에서 1937년 7월 25일과 8월 1일, 2회에 걸쳐 '국위선양무운장구기원법요'를 거행하였고<sup>34)</sup> 또한 일본 군부에 국방 헌금과 위문대를 헌납하였다. 이처럼 우리 나라 사찰들은 그 존립을 위해 일본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대둔사 주지였던 응송 스님 역시 친일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례로 응송 스님은 1940년 아카다 겐유(赫田元雄)로 창씨 개명을 하였다.<sup>35)</sup>

만약 응송 스님이 소년 시절 의병에 참여한 이래의 민족적 항일 의지를 고수하고자 했으면 대둔사 주지직을 사퇴해야 했다. 그러나 스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응송 스님은 '선 항일 후 친일'의 전형적인 친일 승려였다는 오명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행적으로 인해 응송 스님은 광복 후 개최된 전국승려대회에서 중앙감찰원장에 선출되었으나 곧 사직할 수밖에 없었다.

응송 스님은 1954년 정화 운동이 일어난 후에도 한동안 대둔사 주지직을 고수하였으나 결국 대처승帶妻僧이라는 이유로 타의에 의해 주지직을 그만 둘 수밖에 없었다. 이후 응송 스님은 대둔사 아래에 있는 백화사白化寺에서 우리 나라의 전통 차 연구와 그 보급에 힘을

34) 『佛敎』 신 제7집, 1937년 10월호.

35) 『불교시보』 제65호(1940. 12. 15).

기울였다.<sup>36)</sup>

1985년부터 응송 스님은 광주시 서구 쌍촌동 극락암에서 만년을 보냈으며 1990년 2월 6일 세수 99세, 법랍 80년으로 입적했다.<sup>37)</sup> 사후, 응송 스님은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되었고 제자 청량백운淸涼白雲 스님이 완도 신흥사에 비석을 세웠다

한국 불교계에 비구·대처승 간의 분규가 시작된 것은 1954년이다. 이를 일러 흔히 정화 운동이라 하는데 당시 해남 대둔사의 주지로 있던 응송 스님도 비구측에 의해 정화 대상으로 지목됨으로써 대둔사는 갈등과 파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결국 응송 스님이 대둔사 주지직을 내놓고 백화사로 내려옴으로써 혼란은 겨우 일단락되었다. 응송 스님의 친일 행위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응송 스님이 대둔사의 다맥을 이어가는 데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사실까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초의 스님의 진가를 전혀 모르고 있을 때 이미 초의 스님의 높은 도를 알고 일제 때(1941년) 박한영 스님의 도움으로 초의 스님의 비를 세운 이가 바로 응송 스님이다. 지금 우리가 (한국의) 다경茶經으로 삼고 있는 초의 스님의 『동다송』과 『다신전』도 응송 스님이 아니었던들 이미 우리 수중에서 없어졌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은 알고 있다. 초의 스님이 남긴 많은 보물을 일본 사람들이 탐내지 않을 리 없었으니 갖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이를 빼앗기지 않고 지켜낸 이가 바로 응송 스님이다. 해방 이후의 혼란, 6·25전쟁, 그리고 자유당 때 대처승이란 딱지가 붙어 종단에서 밀려나는 와중에도 이러한 유물을 지킨 공로는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게 응송 스님을 아

36) 광복 후 응송 스님은 그 해 9월부터 해화전문학교(현 동국대학교 전신)에서 因明學을 강의하기도 하였다.

37) 李政, 『한국불교인명사전』, 222쪽.

끼는 사람들의 중론이다. 또한 응송 스님은 지난 1977년 2월, 우리나라 차의 성지聖地로 차츰 자리를 굳혀 가는 대홍사 위에 위치한, 폐허가 되어 그 흔적조차 없어진 일지암一枝庵의 자리를 찾아 준 유일한 증인이다. 말하자면, 응송 스님은 자칫 잊어버릴 뻔한 우리나라 차 문화의 맥을 당당하게 이어준 살아 있는 보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처승이었다는 딱지를 붙여 응송 스님을 경원시하는 오늘의 풍조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sup>38)</sup>

우리 나라 차 문화의 맥을 잇는 데 주요한 공적이 있는 응송 스님의 다맥茶脈을 승가僧伽에서는 청량백운淸涼白雲(혹은 白雲淸涼) 스님이 이었고 재가 제자로는 박동춘朴東春이 이었다. 응송 스님의 다맥에 대해 알고자 필자가 범어사 미륵암으로 백운 스님을 찾아갔는데, 이 때(2001년 1월 17일) 스님은 응송 스님의 다맥이 이어진 것을 직접 다음과 같이 써 주었다.

초의의순草衣意恂—서암선기恕庵善機—쌍수일한雙修—閑—응송영  
희應松暎熙—청량백운淸涼白雲

그런데 승단 일각에서는 응송 스님의 이 범맥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한다. 논란이 많은 이 문제에 관해 김대성金大成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 바 있다.

응송 스님은 열일곱 살에 대홍사에 들어가 서호恕虎 스님으로부터 수계를 받고 초의 스님의 범제자인 서암恕庵 스님 문중으로부터 사후범계死後法戒를 받아 초의 스님 문중에 들게 되어 초의의 종법손이 됐

38) 金大成, 「무안 新基 마을, 나주 雲興寺」, 『차문화 유적답사기』(불교영상회보사, 1994), 217쪽.

다. 종법손이란 직계가 아닌 방계의 손으로 초의 스님이 입적한 후 17년 후에 태어났지만 20여 년 다각茶角 생활로, 또 20년간 대홍사 주지를 지낸, 소위 대홍사 다법茶法을 그대로 계승한 산 증인이다. 혹자는 응송 스님이 초의 스님의 종법손이라는 데 대해 이의를 달기도 하나 이에 대한 응송 스님의 해명은 칼날같다. 종법손이면 어떻게 종법손이 아니면 어떠한가. 다승茶僧이기 이전에 도가 높은 어른을 추앙해서 그 분의 업적을 세상에 알린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고 반문한다. 부처님의 제자면 그만이요, 같이 회색 옷 입고 머리 깎고 공부하면 그만이지 종宗과 계열을 따지는 건 아직도 공부가 미진한 결과라고 못박아 버렸다.<sup>39)</sup>

여기서 말하는 '사후법계死後法戒'가 바로 논란의 초점이다. 이는 온건한 표현이고 어떤 스님은 '해골상좌'라는 어휘를 쓰기도 했는데 혹자는 '위패상좌'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는 응송 스님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초의선사의 법맥을 잇지 않았으므로 야기된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응송 스님은 다른 문중의 승려로서 자의적으로 초의 선사의 법제자인 서암선기恕庵善機 문중의 법맥을 이었다고 강변한 것이다.

그럼 이렇게 사후에 법맥을 잇는 것이 응송 스님만의 일인가? 그렇지 않다. 가까운 예로 3·1 독립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의 한 분이었던 용성진종龍城震鐘(1864~1940) 스님은 그의 법맥이 환성지안喚愜志安(1664~1729) 스님에게서 나왔다고 하였다. 이른바 원사遠嗣하여 법맥을 이은 것인데 용성과 응송 스님의 경우는 그 내용상 차이가 있다. 용성 스님은 깨달음을 성취한 선승으로서 환성의 법을 이어

39) 김대성, 같은 책, 216~217

선종 중에서도 임제종을 정통으로 계승한 법맥에 속한다. 또한 용성 스님은 조선 고유의 계맥(대은-금담-초의-범해-선곡-용성)을 이어 동산혜일東山慧日에게 전하였다. 하지만 용성 스님은 선승이 아니었고 또 깨달음을 성취하지도 못했으므로 초의 선사의 법맥을 이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용성 스님의 법맥이 초의 선사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견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그렇긴 하나 대둔사에서 출가하여 그곳의 음다풍을 익히고 17년간 주지를 역임하면서 초의 선사의 유품을 지키고 그 업적을 선양한 공적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백운 스님이 필자에게 써 준 '초의-서암-쌍수-용성-청량'으로 이어지는 맥을 대둔사의 다맥茶脈으로 보는 데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과연 이러한 다맥이 실제로 존재하기는 했을까? 성급한 결론을 내릴 상황은 아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더 깊이 있는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사실이 어떠한 간에 승가에서 용성 스님의 다맥을 이었다고 하는 백운 스님은 1934년 12월 10일 전남 장성에서 출생하였다. 속성은 여산礪山 송宋씨이다. 어릴 때(5세)부터 절에서 자랐으며, 소년 시절 용성 스님의 보살핌을 받았다. 출가는 백양사에서 석산石山 화상을 은사로 모시고 머리를 깎았다. 광복 후 종정宗正을 역임한 만암 중헌曼庵宗憲(1876~1957) 스님이 속가 백부伯父이다. 범어사의 동산혜일東山慧日(1870~1965) 스님은 백운 스님의 법사이다. 백운 스님의 처음 법명은 지흥知興이고 법호는 백운이었는데, 백운이 널리 알려져 법명처럼 되어 청량淸涼을 새 호로 쓰게 되었다.

백운 스님은 범어사 강원을 졸업했고 1962년 마산대학교 문학부

종교학과를 졸업하였다. 동국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지관知冠 스님과 봉선사 주지 그리고 동국역경원 원장을 역임한 월운月雲 스님이 백운 스님과 마산대학교 동기생이다. 1971년 이후 백운 스님은 화엄사(1971~77), 범어사(1977~80), 송광사(1980~82), 범어사(1982~87) 강원의 강주講主로 17년간 수많은 후학들을 지도하였다. 1987년 백운 스님은 범어사 산내 암자 미륵암의 주지로 주석하면서 『양치는 성자』, 『부설거사』, 『오세동자』 등을 저술·출간하였고, 대한불교신문에 『성월淸月 선사』를 장기간 연재하였다. 백운 스님은 소년 시절 응송 스님의 보살핌을 받는 한편 다법茶法을 전수받기도 했는데, 이런 인연으로 응송 스님의 비명을 쓰고 비석을 세웠다.

한편 응송 스님의 다맥을 이은 재가 제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박동춘朴東春이다. 불교 정화 운동 이후 응송 스님은 대둔사 아래 있는 백화사에 주석하면서 초의 선사의 『동다송』과 『다신전』을 번역하고 차에 관한 책을 저술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였다. 이에 이화여대 박물관 연구실장인 나선휘 씨가 당시 29세인 박동춘을 스님에게 소개해 주었다. 이렇게 해서 박동춘은 백화사에서 스님의 시봉도 하고 스님이 번역하신 『동다송』과 『다신전』 등의 율문을 보게 되었다. 또한 박동춘은 응송 스님과 함께 시도 짓고 차나무를 삽지해 키우며 차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런데 대둔사에는 차나무가 많지 않으므로 인근 아낙네들이 채취한 차 생잎을 매입해 차를 만들어야 했다. 그리하여 응송 스님은 초의 선사의 제다법과 차와 관련된 문헌 자료를 연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연구 끝에 『동다정통고東茶正統考』를 저술하게 되었다.<sup>40)</sup>

40) 이 책은 1985년 박동춘의 보시로 호영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박동춘이 응송 스님의 다맥을 이은 근거로는 다음 두 가지를 든다. 하나는 『동다정통고』의 서序에서 응송 스님이 언급한 내용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응송 스님이 박동춘에게 써 준 「다도전수계茶道傳授偈」 때문이다. 응송 스님이 박동춘에 관해 언급한 『동다정통고』의 서문을 보자.

……끝으로 이 책의 출판을 맡은 제자 박동춘朴東春에게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여 알고 있는 바를 전하며 더욱 많은 연구와 정진을 부탁하는 바이다.

여기서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여 알고 있는 바를 전하며' 라는 것은 응송 스님의 차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뜻하는 것으로, 응송 스님은 제자 박동춘이 이를 더욱 연구하여 정진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응송 스님이 박동춘에게 준 「다도전수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함이 없이 전하고 받음이 없이 받으며, 전함이 없는 고로 진정한 전함이며 받음이 없는 고로 진정한 받음이다”라고 써어 있다.<sup>41)</sup>

응송 스님으로부터 다도를 전수받은 박동춘은 1985년 결혼과 함께 백화사를 떠났지만 그렇다고 응송 스님과의 인연이 다한 것은 아니었다. 이후 응송 스님은 여름과 겨울 한 해에 두 차례씩, 결혼한 박동춘이 살고 있는 과천으로 가 그의 집에 보름 정도 머물곤 하였다. 박동춘 역시 결혼 후에도 매년 승주에 내려가 차를 만들었다. 7천여 평의 차나무가 있는 산주山主와 협의하여 매년 찻잎의 채취를 허락 받아 1년에 150통 정도의 차를 직접 제다하여 1년 치 차 양식을 삼고

41) 「茶道傳授偈」, “無傳而傳無受而受, 無傳故眞傳, 無受故眞受.” 또한 그 아래에는 “乙丑 仲春 三月五日, 傳授師 應松 受題者 朴東春”라고 기록되어 있다.

나머지는 아는 분들과 나누어 마셨다고 한다. 현재(2001년 3월) 경기도 과천시에서 살고 있는 박동춘은 1996년부터 '과천시당'을 열어 청소년과 일반인에게 한문을 지도하고 있는 한편,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에서 한국 사상을 전공하고 있는데 특히 선禪과 차茶에 있어 중국과 한국의 상관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박동춘은 백화사에서 1979년부터 1984년까지 5년 간 응송 스님을 모셨으며 지금도 스님으로부터 배운 다도 정신을 계승하고자 계속 정진·노력하고 있다. 박동춘은 응송 스님의 가르침을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다인들 중에는 응송 스님을 서너 번 친견하고서 스님의 다법을 이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응송 스님은 박동춘의 도움을 받아 『동다정통고』를 저술하고는 곧 전남 광주시 송정리(지금의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극락암極樂庵으로 옮겨 만년을 보내다가 그곳에서 1990년 세수 99세, 법랍 80년으로 입적하였다. 백운청량白雲淸涼(혹은 淸涼智興) 스님은 1995년 전남 완도군 완도읍 성내리 168번지에 위치한 신흥사 주지로 재직할 때 그곳에 응송 스님의 보도와 비를 세웠다. 그 비명음기碑銘陰記에는 문도질門徒秩이 새겨져 있는데 그 중 '다도제자茶道弟子' 항에는 금당錦堂 최규용崔圭用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박동춘은 심한 거부감을 표출하였다. 최규용이 응송 스님을 만난 것은 서너 번에 지나지 않는데 응송 스님의 다맥을 이었다고 기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박동춘은 그 자신이 최규용과 함께 기록된다면 차라리 비석에 등재되지 않겠다며 거부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자가 무어라 단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으므로 다만 전후 사정을 기록하는 것으로 그칠 뿐이다.

#### 4. 초의문화제

해남의 여러 다인들은 1991년 음력 8월 2일, 초의 선사의 제례일에 대둔사 일지암에 모여 초의 선사를 추모하는 다례茶禮를 지냈다. 그들은 소홀해지는 정신 문화를 바로잡는 데 차 문화 고취가 그 첩경임을 인식하고 다음 해(1992년)부터 초의 선사 제례일에 초의문화제를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때의 발기인은 해남다인회 회장 김제현, 다문화연구가이자 극작가인 김봉호, 대둔사 총무 김원학 스님, 해남군청 공보실장, 자우다회 회장 이순희 등이었다.<sup>4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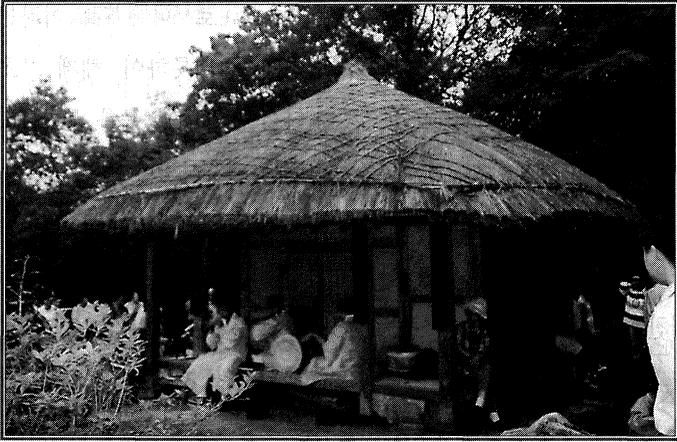
제1회 초의문화제는 초의문화제집행위원회의 주관으로 1992년 8월 28일과 29일 양일간 해남군민회관 및 대둔사와 일지암에서 거행되었다. 첫날인 8월 28일에는 초의상草衣賞을 시상했는데 김미희(명원다회 회장, 초대 한국차인회 부회장) 여사와 박동선(전 미륵그림 회장, 재미 실업가, 한국차인회 고문) 씨가 수상하였다. 시상식에 이어 해남 자우다회紫苧茶會와 다인연합회의 행다行茶 시범과 강평이 있었다. 오후에는 김지견金知見 박사가 '초의의 생애와 사상'이란 제목으로, 강영숙姜英淑 원장이 '초의의 차 정신과 현대인의 차 문화'란 제목으로, 전완길全完吉 관장이 '초의 시대의 다기다구茶器茶具'란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둘째 날인 8월 29일에는 대둔사 일지암에서 제126주기 초의제草衣祭를 봉행하였다. 제1회 초의문화제가 개최될 당시 행사 안내장에 '안내 말씀'을 쓴 대둔사(대홍사) 주지는 이도성 스님이었고, 초의문화제집행위원회 위원장은 김제현金濟炫 씨였다. 이때에 5년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초의전집』 제1집이 선보

42) 이에 대해서는 초의문화제 집행위원회에서 발간한 「초의문화제(제1회~제8회)」 보도 자료를 참고할 것.

었는데, 김명배金明培 교수의 책임 역주譯註로 『다른茶論』이라는 제목 하에 초의 선사의 『동다송』, 『다신전』을 비롯하여 「해제」, 「초의 다서茶書의 출전고出典攷」, 「초의 다서 관계 문헌 목록」을 제1회 초의문화제(1992. 8. 28~29)에 맞추어 출간, 배포하였다.<sup>43)</sup>

제2회 초의문화제는 초의문화제집행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전라남도와 해남군이 후원했으며, 한국차인연합회와 한국다문화협회에서 협찬하여 거행되었다. 행사는 1993년 9월 16일과 17일 양일간 해남읍 남향 빌딩과 대둔사 일지암에서 봉행되었다. 제2회는 제1회 때보다 행사가 약간 다양해져 9월 16일에는 초등·중등·일반부의 휘호揮毫 대회, 『초의전집』 제2집 배포, 초의상 시상이 있었고, 행다 시범으로 해남 자우다회의 명상다冥想茶·해남 규방다회閩房茶會의 사무실다事務室茶·서울 화정다회和靜茶會의 냉다冷茶 시범이 행해졌다. 제2회 초의상은 최규용(원로 다인, 육우다정 연구회장)과 이귀례(전 한국차인회 부회장, 한국다문화협회 부회장, 인천 길병원 행정원장) 여사가 수상하였다. 한편 학술 강연으로는 연세대학교의 윤병상尹炳相 교수가 '초의草衣에게 돌아가자!' 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이때에 또한 『초의전집』 제2집이 선보였는데, 『선론禪論』이라는 제목 하에 한기두韓基斗 박사가 「초의의 생애와 대홍사(대둔사)의 전통」, 「초의선草衣禪의 선과禪課—선문염송 사기私記」, 「사변만어四辯漫語에서 본 초의선草衣禪」을 집필하여 수록하고, 부록으로 제1회 초의문화제에서 행한 김지견金知見 박사의 「초의 장의순의 생애와 사상」이란 제목의 강연 요지를 게재하여 제2회 초의문화제(1993. 9. 16~17)에 맞추어 출간, 배포하였다. 제2회 초의문화제는 초의 선

43) 초의문화제집행위원회, 「제1회(1992) 초의문화제」 안내 팸플릿.



▲ 제2회 초의문화제 때 일지암에서 국악 연주를 하는 모습

사의 제127주기 제례齋禮를 겸하여 개최되었다. 당시 초의문화제집행위원회 위원장은 해남종합병원 원장이자 해남다인회 회장인 김제현金濟炫이었다.<sup>44)</sup>

제3회 초의문화제는 초의 선사의 기일忌日(음력 8월 2일)에 집행했던 1회, 2회와 달리 혹독한 무더위와 심한 가뭄, 태풍 등으로 인해 부득이 연기하여 1994년 10월 8일에 봉행하였다. 행사로는 휘호 대회, 『초의전집』 제3집인 『시론詩論』 상(上)(김봉호 역)의 배포, 초의상 시상과 수상 연설이 있었다. 또한 행다 시범으로는 해남다인회 이순희李順姬의 지도로 선비차가, 서울 가례원嘉禮院의 설옥자薛玉子の 지도로 신라규방차가 행해졌다. 초의상은 김명배金明培 교수가 수

44) 초의문화제집행위원회, 「제2회(1993) 초의문화제」 안내 팸플릿.

상했고 학술 강연은 한국교원대학의 김상현金相鉉 교수가 ‘대홍사의 음다풍飲茶風과 초의 선사의 교류, 특히 추사 김정희와의 친교’를 중점적으로 강연하였다. 10월 9일에는 일지암 순례가 있었다. 당시 행사 팸플릿에 의하면 1994년 초의문화제집행위원회기구표에 수록된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문: 박권흠朴權欽(한국차인연합회장), 이강재李康載(한국다문화협회장), 조규하曹圭河(전남도지사), 정병철丁炳轍(해남군수), 석천운釋天雲(대둔사 주지), 김광호金珖鎬(의장), 이형주李炯柱(교육장)

집행위원: 의원장 김제현, 부위원장 임창호林昌湖·이순희·여연如然스님·보선普善스님, 사무국장 윤두현尹斗鉉, 총무위원 임기수林琪洙·한상조韓相詔, 재무위원 박인구朴寅求·백룡기白龍基, 조직위원 정재홍鄭宰洪·남기우南淇祐, 관리위원 김정섭金正燮·오현진吳賢珍·임상영林相榮, 다원위원 임기수·조주원趙周元·양재평梁載坪, 학술위원 김봉호金鳳皓·조주원趙周元·전춘기全春基, 출판위원 이준호李準昊·조주원, 의전의원 김재행金在幸·노시강盧時康·윤형식尹亨植

초의상심사위원회: 위원장 김제현, 위원 김봉호·서양원徐洋元·이순희·여연스님·원학元學스님

취호대회심사위원회: 위원장 윤병진尹炳振, 위원 최용규崔瑤圭·윤재혁尹在赫, 성폭현成瀑鉉·김정진金丁鎭<sup>45)</sup>

제4회 초의문화제는 초의 선사의 기일忌日보다 훨씬 뒤인 1995년 10월 30일에 거행되었다. 행사는 예년과 비슷하게 취호 대회, 『초의전집』 제4집인 『시론詩論』 하(김봉호 역)의 배포, 초의상 시상, 학술 경연, 행다 시범, 일지암 순례 등으로 진행되었다. 초의상은 한국

45) 초의문화제집행위원회, 「제3회(1994) 초의문화제」 안내 팸플릿.

제다 사장이자 작설헌 주인이며 한국다문화협회 고문인 서양원徐洋元이 수상했고, 학술 강연은 다산학연구원 명예원장인 이을호李乙浩 박사가 '다산 선생과 초의 선사와의 만남'이란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행다 시범으로는 명진회의 김이언 회장과 회원들이 통일기원헌다를, 그 외 전국 각 지역 다인들이 들차회를 보였다. 휘호 대회는 10월 29일 해남 동국민학교에서, 본 행사는 10월 30일 대둔사 의중당義重堂에서, 헌다례獻茶禮는 31일 일지암에서 거행하였다. 제4회 초의문화제는 제22회 해남 군민의 날에 봉행되었으며,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역시 김제현이었다.<sup>46)</sup>

제5회 초의문화제는 1996년 11월 9일 해남군 군민회관 대강당에서 본행사를 거행하였다. 휘호 대회는 11월 8일 해남 서초등학교에서, 본행사는 11월 9일 군민회관에서 시행했는데 초의상 시상, 학술 강연, 행다, 투다鬪茶가 있었으며, 11월 10일에는 일지암 순례를 하였다. 제5회 초의상은 한국차인연합회 부회장이자 국제여성총연맹 한국본부부회장이며 종정다례원장宗貞茶禮院長인 이정애李貞愛 여사가 수상하였다. 학술 강연은 국민대학교 가정과 교수이자 민속관관장인 민길자閔吉子 교수가 '다도 교육의 어제와 오늘'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행다는 궁중다례원의 김복일金福一 외 17인이 무속다시연巫俗茶試演을 하였고, 초의문화제에서 처음으로 일본의 보천류전다도寶千流煎茶道の 시연試演을 종가宗家 아네자키 유희(姉崎有峰) 외 2인이 행하였다. 제5회 초의문화제 행사 안내 팸플릿에서 특별히 눈에겨보아야 할 것은 당시 발견된 초의 선사의 미술 작품 2점이 소개된 것이다. 그림 중 한 폭은 강진 굴동橋洞의 다산초당

46) 초의문화제집행위원회, 「제4회(1995) 초의문화제」 안내 팸플릿.



▲ 제6회 초의문화제 때의 행다시연

을 원경으로 그린 걸작인데 소장자는 서울의 정영선鄭英善 차인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다른 한 폭은 강진 굴동의 다산초당을 상세하게 묘사한 작품으로 소장자는 해남 미황사의 금강 스님이라 기록되어 있다. 제5회 초의문화제집행위원회의 임원은 고문에 석천운釋天雲·박권흠·이원홍, 지도위원에 김봉호, 위원장에 김제현, 부위원장에 보선普善 스님·임창호·이순희, 사무국장에 윤두현尹斗鉉 등이었다.<sup>47)</sup>

제6회 초의문화제는 1997년 11월 1일 해남 군민회관에서 거행되었다. 주요 행사로 서예대전(97. 9. 12~9. 13, 녹야원), 헌다례獻茶禮, 헌가례獻歌禮, 헌무례獻舞禮, 초의상 시상, 서예대전 시상, 행다 시

47) 초의문화제집행위원회, 「제5회(1996) 초의문화제」 안내 팸플릿.

범, 투다, 일지암 순례, 『초의전집』 제5집인 『여록餘錄』 배포 등이 행해졌다. 제6회 초의상은 사단법인 한국다문화협회 초대 이사장이자 전 광주다인협회 회장이었던 이강재李康載 선생과 사단법인 한국차인연합회 회장인 박권흠朴權欽 선생이 수상하였다. 학술 강연은 경기대학교 강사로 『한국다문화』와 『다도철학』을 저술한 정영선鄭英善 씨가 ‘한국다문화의 특성’이란 제목의 강연을 하였다. 행다는 청백다례원의 배근희 외 15명이 충담사 행다법을 시연하였다. 투다는 11월 1일 군민회관 앞 잔디광장에서 전국 다인회의 다수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제6회 초의문화제집행위원회임원은 제5회와 동일하므로 기록을 생략한다.<sup>48)</sup>

제7회 초의문화제는 1998년 10월 31일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대둔사 초의문화관에서 초의문화제집행위원회, 대둔사, 일지암의 공동 주최로 거행되었다. 주요 행사로는 초의상 시상, 헌다례, 헌가례獻歌禮, 헌무례獻舞禮, 행다 시연, 한국화 그리기, 들차 시연, 감사패 수여, 차음악제, 투다 대회, 일지암 순례 등이 있었다. 제7회 초의상은 일지암 복원과 한국차인회 창립에 공이 많은 사단법인 한국차인연합회 고문인 박태영朴兌泳 화백과 박종한朴鍾漢 선생이 수상하였다. 제7회 초의문화제집행위원회는 고문에 최규용崔圭用·박권흠·이원홍·김의정金宜正(茗園茶文化財團 이사장)·대둔사 주지 보선普善 스님·민화식閔化植, 지도위원에 김봉호, 위원장에 김제현, 부위원장에 임창호·여연 스님·이순희·김은수金銀洙, 사무국장에 박인영朴寅永, 사무차장에 박상대朴相大·월우 스님, 감사에 김재행金在幸·박준상朴準祥 등으로 구성되었다(각 부별 지도위원장과

48) 초의문화제집행위원회, 「제6회(1997) 초의문화제」 안내 팸플릿.

간사, 위원은 생략함).<sup>49)</sup>

제8회 초의문화제는 1999년 10월 29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해남 대둔사에서 행하였다. 10월 29일 대둔사 정보박물관 앞에서 초의 선사 동상제막식이 있었고 초의상 시상, 감사패 수여, 행다 시연, 학춤 공연, 투다 대회가 거행되었다. 10월 30일에는 학생들의 투다 대회, 학생 사생 대회, 차와 음악의 만남, 판소리와 풍물놀이 공연이 있었다. 제8회 초의상은 파계사 주지로 다도를 널리 보급하고 저서 『다도』와 『차와 선』 등을 저술한 석성우 스님과 명진회 회장이자 한국 차인연합회 부회장인 김이언金利彦 여사가 수상하였다. 초의 선사의 동상은 한국제다 서양원 사장의 시주로 이루어졌다. 행다 시연으로 강영숙, 임인숙, 김현자의 선차 시연이 있었고, 투다 대회는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학생 사생 대회는 교육청과 미협지부의 주관으로 해남군 관내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창작음악연구회는 ‘차와 음악의 만남’이란 주제의 음악 공연을 하였고, 전정민 일행과 지역 학교의 판소리 및 풍물놀이의 공연도 있었다. 그 외 아름다운 다시茶詩나 차 관련 민요를 붓글씨로 써서 전시한 다시 전시, 다기·다구 전시, 차 음식 전시, 차 관련 도서 전시, 녹차편 전시 등이 있었다.<sup>50)</sup>

제9회 초의문화제는 2000년 10월 28일과 29일 양일간 대둔사와 일지암에서 거행되었다. 주요 행사로는 초의 선사 동상 육법공양, 초의상 시상, 행다 시연, 두리차마당, 사생 대회, 서예 대회, 다시 전시, 차 사진 전시, 다기 다구 전시, 국악 공연, 일지암 육법공양, 들차회

49) 초의문화제집행위원회, 「제7회(1998) 초의문화제」 안내 팸플릿.

50) 초의문화제집행위원회, 「제8회(1999) 초의문화제」 안내 팸플릿.

등이 있었다. 제9회 초의상은 해남종합병원 원장으로 한국차인연합회 고문과 초의문화제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다 작고한 고故 김제현 씨와 사단법인인 한국차생활 문화원장 겸 이사장이자 전 한국차문화협회 이사였던 감승희甘承熹 여사가 수상하였다. 행다시범으로는 자우다회 회원의 백제차 시연과 초의보은다회 회원들의 일지암 차 시연이 있었다.<sup>51)</sup>

초의문화제는 1991년 음력 8월 2일, 초의 선사의 제례일 다음 해부터 차 문화를 통한 정신 문화의 고취라는 취지로 행해졌다. 제1회(1992)와 제2회(1993)는 기일忌日(음력 8월 2일)에 거행되었으나 제3회(1994)부터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초의 선사의 기일보다 연기하여 봉행되었다. 이런 사정으로 2000년 8월 30일(음력 8월 2일)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대둔사 일지암에서는 초의 선사를 기리는 제134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추모제는 불교계와 (사)한국다도협회 소속의 부산여자대학교와 해남 지역의 해남다회, 초의보은다회 등 여러 다회의 많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가 의식에 따라 『삼귀의』와 『반야심경』의 봉독, 조사 영반, 헌향, 헌다에 이어 내빈 축사와 대둔사 주지의 법문 순서로 행해졌다. 일지암 주지 여연 스님은 추모제를 통해 많은 다인들에게 초의 선사의 정신을 본받을 것과 우리나라 차 문화의 질적인 성장을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sup>52)</sup>

우리의 차 문화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왔으나 조선조 말에 초의 선사가 차 문화 진작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 이에 해남 지역의 다인들은 초의 선사의 기일에

51) 초의문화제집행위원회, 「제9회(2000) 초의문화제」 안내 팸플릿.

52) 「다담소식」, 『茶談』 기울호 통권 115호(다담사, 2000), 142쪽.

선사를 기리는 추모 행사를 개최하였고, 1992년부터는 초의문화제로 격상하여 거행하게 되었다. 이미 9회에 이른 초의문화제는 대둔사의 다맥을 잇는 중요한 행사가 되었다. 이제 초의문화제는 지역 문화 행사의 차원을 넘어서 이 땅의 차 문화를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4장

대둔사의 고승과 가람 기행



대둔사(大頓寺)는 충청남도 서산시 대둔산에 있는 불교 사찰이다. 신라 21대 눌해 이사금 10년(530)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둔산은 대둔사지(大頓寺址)라고도 불리며, 대둔산의 정상은 대둔사지(大頓寺址)라고도 불린다. 대둔산의 정상은 대둔사지(大頓寺址)라고도 불린다. 대둔산의 정상은 대둔사지(大頓寺址)라고도 불린다.

# 1. 다맥의 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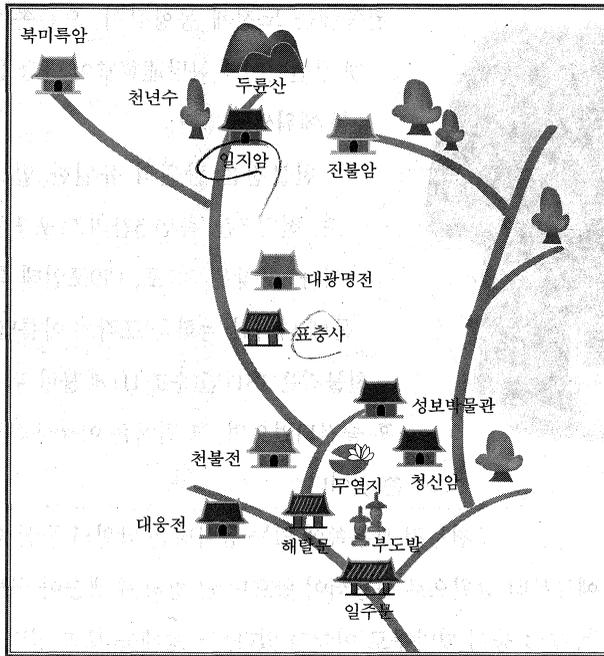
## 1. 대둔사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장춘동. 이 곳 대륜산에 바로 대둔사 大菴寺가 있다. 대륜산은 두륜산頭輪山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그곳에 있는 절 이름 또한 처음에는 대둔사라 불렀다가 일제 강점기에 대흥사大興寺로 바뀌었으며 최근에 다시 옛 이름을 되찾게 되었다.

대둔사는 언제 세워진 절인가? 「죽미기竹迷記」에는 서기 514년 (신라 법흥왕 1) 아도阿道 화상이 대둔사를 창건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대둔사지大屯寺誌』(1823년 간행)의 자료를 수집했던 아암혜장兒庵惠藏 스님은 일일이 논거를 들어 그 기록이 황당무계한 것이라고 일축하였다. 『동국여지승람』 '대둔사' 조에는 대둔사의 앞마당에 고려 때의 부도 3기가 있었다고 써어 있는데, 이로 볼 때 대둔사는 고려 이전, 빠르게는 신라말에 창건되었다고 하겠다.

대륜산 발치에 있는 사하촌에서 대둔사로 올라가는 숲길은 유명하다. 무려 10리 가까운 숲길을 좌이대수左而帶水하여 들어가면 벗나무, 떡갈나무 등이 무성하다. 대둔사 입구의 이 숲길은 쌍계사, 해인사 입구의 숲길과 더불어 승경勝景으로 이름난 곳이다. 이 숲길을 지나면 피안교彼岸橋에 다다르는데, 피안교라는 이름은 마치 사바와 정토의 경계선을 나타내는 것 같다. 이 피안교부터 본격적인 대둔사 경내가 시작된다.

처음에 금강문이 나타나고 그 오른쪽에 비림碑林이 보인다. 비림에는 사적비와 청허휴정 스님의 부도와 탑비, 그리고 13대종사와 13대강사를 비롯한 역대 대둔사 고승들의 묘탑과 비석들이 밀집해 있다. 조금 더 가면 대둔사의 전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대둔사 전



▲ 대운사 안내도

각들은 북쪽에서 흘러내리는 금당천金塘川의 냇물을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나뉜다. 그리하여 금당천 남쪽에 있는 건물을 남원南院이라 부르고 북쪽에 있는 건물을 북원北院이라 부른다.

남원에 들어서면 먼저 동다실이라는 전통 찻집을 볼 수 있고, 그 앞에 초의 선사가 조성했다는 무염지無染池가 있다. 동다실을 지나 단층 5칸 맞배집으로 지은 가허루駕虛樓의 중앙 문간을 거쳐 천불전 내정에 들어서면 정면의 높은 측단 위에 천불전이 나타난다. 천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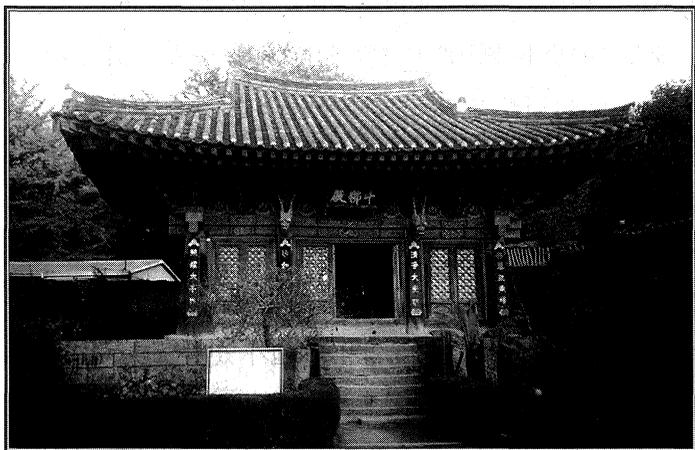
왼쪽에는 노전채 봉향각이, 오른쪽에는 옛 강원이던 용화당龍華堂이 마당 둘레를 에워싸고 있다.

천불전은 남원의 유일한 법당이다. 전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多包집이다. 포작은 외7포, 내9포인데 특히 문에 나타난 국화문 조각이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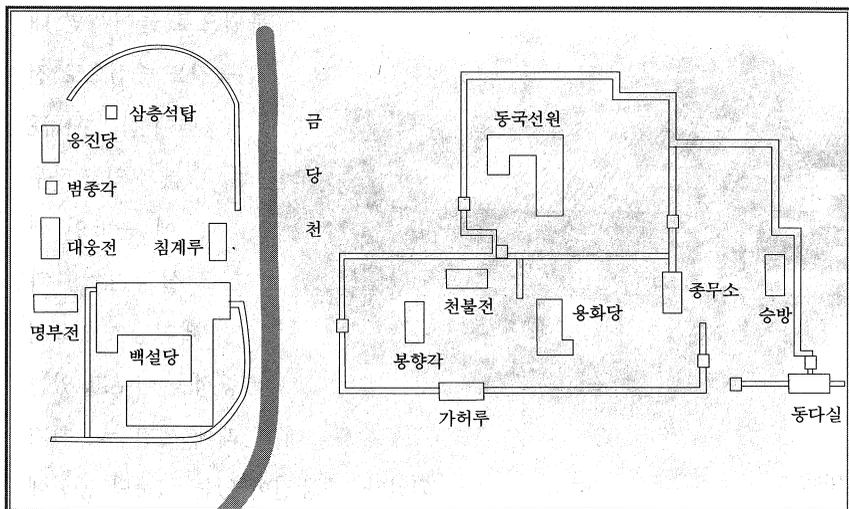
천불전은 1811년(순조 11)에 불탄 뒤 2년 후 중건되었으며, 그 편액은 이광사李匡師가 쓴 것이다.

▲ 가허루

천불전 오른쪽에 있는 용화당은 남원의 중심 요사이다. 예로부터 강원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큰 방과 수행승이 머물던 작은 방, 부엌 등이 뒷마루로 이어져 있다. 그 형태를 보면 정면 7칸



▲ 천불전



▲ 대둔사 배치도

과 측면 4칸의 높은 몸체에 2칸통의 낮은 날개 부분을 ‘ㄱ’자로 연결시키고 뒷마당 가에 별담을 둘렀다. 이 건물 역시 1811년의 화재로 소실되어 이듬해 중건되었다.

천불전 뒤쪽으로 ‘ㄷ’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는 ‘동국선원’이란 편액이 걸려 있다. 예전에는 선원이나 강사 스님들의 처소로 쓰였으며 지금은 주지 스님의 거처로 활용되고 있다.

천불전 앞의 영산홍과 자산홍은 초의 선사가 직접 심은 꽃나무로 수령이 백년이 훨씬 넘는 거목이다. 천불전 내부 복단 벽에 있는 신중탱(神衆幀)은 1819년에 조성되었는데 초의 선사가 증사證師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사천왕탱(四天王幀)은 1794년에 조성한 불화佛畵이다.



▲ 침계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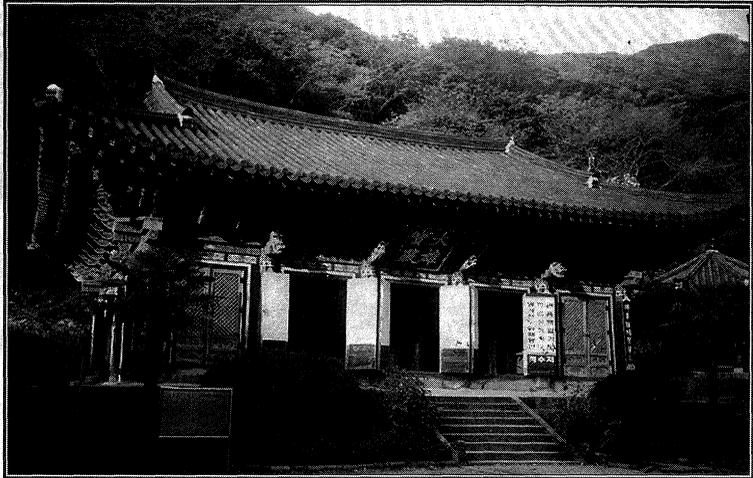
북원으로 들어서면 대  
 응전을 중심으로 전  
 면에 침계루枕溪  
 樓가 있고 좌우  
 에 승방인 백  
 설당白雪堂과  
 세진당洗塵堂이  
 중정을 이루고 있는  
 데, 근래에 세진당이 철거

되었다. 대웅전이 있는 석축단 동편에

는 범종각·응진당·산신각이 있으며, 산신각 전면 모퉁이에 3층 석  
 탑이 있다. 응진당과 산신각은 5칸의 긴 단일 건물로 왼쪽 3칸을 응  
 진당으로, 오른쪽 2칸을 산신각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웅전의 서편  
 에는 약간 뒤물림하여 배치된 3칸의 명부전이 대웅전 측면을 바라보  
 며 서 있다.

현 대웅전은 전면 5칸, 측면 3칸의 다포집 양식이다. 삼우三愚 선  
 사가 지은 「대둔사대웅전중전기」에 의하면 1667년에 건립되었다고  
 전해지는데, 1899년의 화재 뒤에 다시 중수된 것으로 보인다. 대웅전  
 정면에 '대웅보전大雄寶殿'이라 써어 있는 편액은 조선 후기 명필  
 이광사李匡師(1705~1777)의 글씨이다. 대웅전 내부에는 목조삼존불  
 과 후불탱(後佛幀)이 봉안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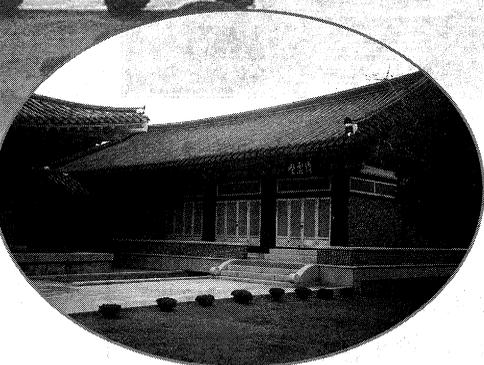
침계루는 대둔사의 남·북원을 구분 짓는 금당천에 면하여 우뚝  
 선 2층 누각이다. 북원의 정문과 같은 기능을 한다. 침계루의 1층은  
 북원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빼고는 돌담과 판벽으로 사방을 막은 광



▲ 대웅전

이고 2층은 하나의 홀로 이루어진 강당형 건물이다. 침계루의 2층은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30평 규모인데, 누다락엔 큰북·종·목어가 걸려 있고 양측 벽에는 사천과 탕화가 걸려 있다.

백설당은 대웅전과 침계루 사이의 앞마당 서편에 자리하고 있다. 이 건물은 복원 유일의 승방이며, 대둔사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요사채이다. 동편 처마 밑에는 제주도 유배 중에 김정희가 쓴 ‘무량수각無量壽閣’ 현판이 걸려 있다. 건물의 평면 형태는 트인 ‘口’ 자로 법당을 향한 동편 부분이 주사主舍인 듯 3칸 통의 고량내실高樑內室로 구성되어 있는데, 6칸의 큰 방과 큰 부엌이 있고 그 끝에서 서편으로 꺾여 작은 승방들과 헛간이 이어져 있다. 백설당의 현판은 김성근의 필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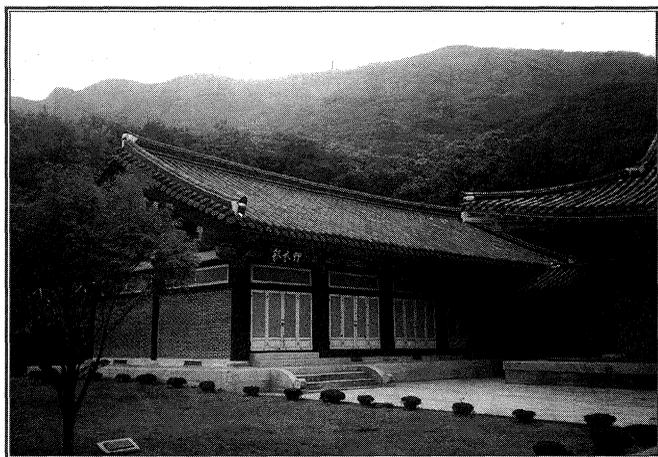
▲ 성보박물관

▲ 청허관

다시 남원 쪽으로 발길을 돌려 동다실 앞을 지나면 성보박물관에 다다르게 된다. 성보박물관은 세 채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른쪽이 청허관이고 왼쪽이 초의관이다. 중앙에 있는 건물 내부에는 대둔사 13대종사와 13대강사의 영정과 그에 관한 기록이 전시되어 있다.

청허관에는 청허 스님의 유물과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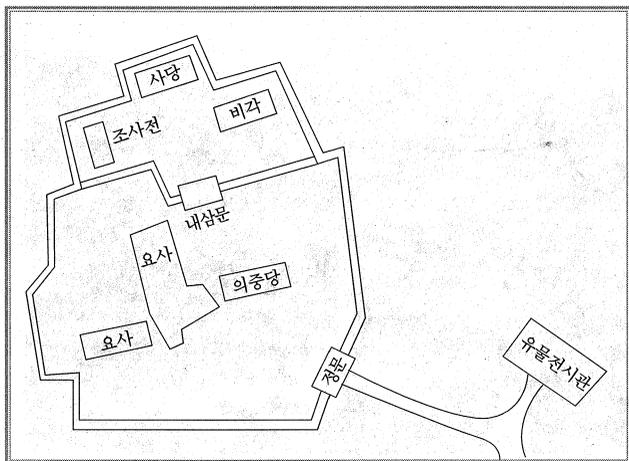
이 외에 신관호申觀浩(1811~1884)가 쓴 표충사보장록表忠祠寶藏錄에서 6쪽 병풍이 있다. 신관호는 김정희의 수제자로 그의 스승이 제주도로 귀양을 가게 되자 스승의 방면을 기원하고자 초의 선사와 상의하여 불사佛事를 일으켰으니, 대둔사 남원 위쪽에 대광명전大光明殿 한 구區를 지은 것이 그것이다. 당시 해남 우수영에 부임한 신관호는 스승이 풀려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내직으로 올라가게 되었으므로 정성을 다해 표충사보장록을 써서 대둔사에 기증함으로써



▲ 초의관

그 복덕으로라도 스승의 귀양이 풀리기를 기원했던 것이다.

초의관에 들어서서 처음 맞이하게 되는 것이 초의 선사 진영이다. 허유가 그렸다고 하는 이 진영에는 을축년 7월 25일이라 써어 있는데, 을축년이라면 초의 선사가 입적하기 1년 전이다. 진영 앞에는 청자 찻잔이 놓여 있고 초의 선사가 사용하던 찻잔이라는 설명이 있다. 초의관 안에는 1941년 박한영朴漢永 스님이 건립한 비석에 대한 '초의선사비탑탁본' 이 있고, 초의 선사가 직접 그린 '42수관세음보살도' 두 폭이 걸려 있다. 또한 한쪽에는 초의 선사 다실이 재현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다문화협회에서 기증한 것이다. 이 외에도 초의 선사의 연보와 생애에 관한 게시판이 게시되어 있으며, 18나한도 가운데 차공양도도 걸려 있다. 그리고 유명한 도예가들의 다기茶器들도 한쪽에 전시되어 있다.



▲ 표충사 배치도

## 2. 표충사

표충사(表忠寺)가 위치한 곳은 천불전의 남쪽, 북암과 남암의 산내 암자로 향하는 길목이다. 표충사는 1789년 이곳에 처음 지어졌으며, 1836년에 보수를 하면서 대웅전 뒤의 자리로 옮겨 짓게 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표충사가 대웅전을 내려다보는 압존(壓尊)의 흠이 있게 되자 1861년에 다시 처음의 터로 옮겼다. 초의 선사는 이 사실을 1861년 7월에 지은 「표충사중이구지기(表忠祠重移舊址記)」에 자세하게 밝혀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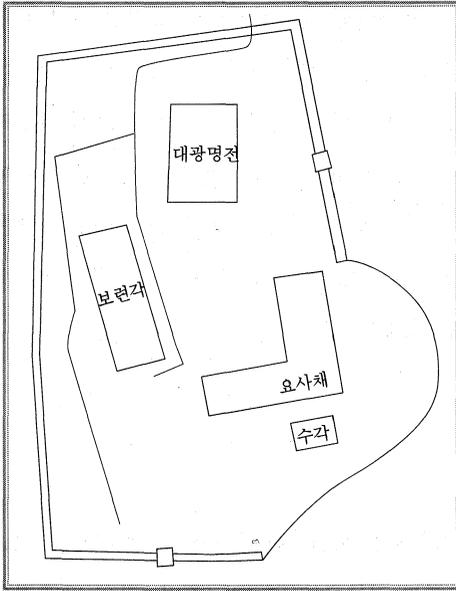
호국문(護國門)이란 현판이 걸린 외삼문을 들어서면 의중당(義重堂)이 있고 그 왼쪽에 노전채(노전)인 강례재(講禮齋)가 있다. 예재문(禮齋門)의 현판이 걸린 내삼문을 들어서면 표충사 현판과 어서각(御書閣)의 현

판이 걸린 사당이 나오는데, 3칸의 맞배집으로 전형적인 사당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 사당 안에는 청허·사명·뇌묵 스님의 진영이 봉안되어 있다. 사당의 '표충사'란 편액은 사액으로 내려진 정조의 친필이라고 전해지는데, 신운神韻이 비동飛動하는 장중한 필법이다. 사당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을 때 왼쪽에 있는 조사전祖師殿에는 대둔사 역대 고승들의 영정이 있으며, 오른쪽에 있는 비각에는 '서산대표충사기적비'와 '표충사건사사적비'가 세워져 있다.

### 3. 대광명전

표충사 동쪽 약 300미터 지점에 위치한 대광명전大光明殿은 1841년에 입주상량立柱上樑했고 건물은 전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집으로 그 형태가 무척 단아하다. 대광명전 안에 봉안된 부처는 법보화法報化 삼신불三身佛인데, 중앙에는 비로자나불이 모셔져 있고 좌우 협시불은 본존보다 작아 안정된 구도를 이루고 있다. 상부 천장天障은 정자井字 천장으로 연화문蓮華紋과 운학雲鶴이 그려져 있다. 전하는 말로는 초의 선사가 대광명전을 짓고 단청丹青을 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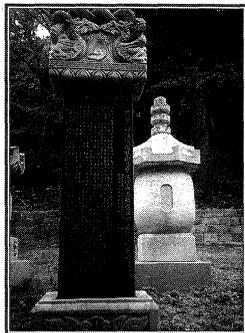
대광명전에는 여러 그림이 보존되어 있다. 후불탱화는 법신삼십칠존도法身三十七尊圖라는 새로운 양식의 탱화로 1845년에 그려진 것인데, 금어金魚는 원담내원圓潭乃圓·해운익찬海雲益贊 스님이며, 화주化主는 초의 선사, 대시주는 시임수군절도사時任水軍節度使 신관호라고 화기畫記에 써어 있다. 칠성탱화도 같은 솜씨로 그려져 있고, 지장시왕탱은 1854년에 초의 선사가 중사가 되어 익찬·봉화·경옥·봉은 스님 등의 금어가 그려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 대광명전 배치도

대광명전의 동편에 있는 8칸의 긴 보련각寶蓮閣은 고승들의 영정을 모셔 두고 선실로 사용하던 건물인데 지금도 선원의 중심 건물로서 여름과 겨울철 안거 기간 중에는 수십 명의 선승들이 참선에 몰입하고 있다.

보련각 전면에는 선승들이 거처하는 요사채 1동이 ‘ㄱ’ 자 꺾임 지붕으로 배치되어 있다. 안마당을 향한 긴 툃마루에 큰 부엌을 두었다. 오랑가구와 굴도리, 홀처마에 가지런한 외벌대 기단, 담백한 회벽 등이 단아한 주가住家와 같은 모습으로서 있다.



▲ 역대 고승들의 부도와 비(좌), 응송 스님의 비석과 부도(우)

#### 4. 부도와 비

피안교를 지나 본격적으로 대둔사 경내가 시작되는 곳에 천왕문 天王門이 있는데, 그 뒤편에는 대둔사 역대 고승들의 부도와 비석이 나지막한 돌담 안에 다양한 형태로 서 있다. 대략 50여 기의 부도와 14기의 탑비가 여러 줄로 도열해 있다. 청허 스님을 비롯해서 풍담, 취여, 월저, 설암, 환성, 호암, 설봉, 연담, 초의 등 대둔사 불법을 크게 일으킨 대종사 스님들과 만화, 연해, 영파, 운담, 벽담, 완호, 상월 등의 강사 스님, 그리고 그 외 여러 고승 대덕의 명호를 탐명에서 읽을 수 있다. 이 외에 응송 박영희 스님의 비석과 부도도 금년 봄에 이 전해와 지금 이곳에 있다.

## 2. 대둔사의 고승들

대둔사의 고승으로는 청허휴정 스님과 그 문도 가운데 배출된 13대종사大宗師와 13대강사大講師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 대둔사의 다맥과 다연을 갖고 있는 스님들을 소개하면서 청허 스님을 비롯한 몇 분의 고승들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미처 언급하지 못한 고승들만을 소개하고자 한다.<sup>1)</sup>

### 1. 13대종사

#### (1) 풍담의심楓潭義謙 대종사(1592~1667)

풍담 스님의 속성은 유柳씨이며 통진通津 출신으로 16세 때 출가하였다. 성순性淳 노사를 은사로 득도하였고, 원철圓徹 스님께 수계하였으며, 청허 스님의 직계 수좌首座이던 편양언기鞭羊彦機 스님에게 법을 배웠다. 풍담 스님은 일찍이 삼장三藏을 통효通曉했는데, 특히 화엄경의 교설에 심취하여 늘 화엄경을 독송하며 후학의 지도를 맡았다고 한다. 대둔사에서는 풍담 스님을 해동 화엄종의 중흥조로 일컫고 있다. 1667년(현종 6) 금강산 정양사正陽寺에서 입적하였으니, 세수 74세요 법랍 58년이였다. 대비하여 사리 5과를 얻었으며 부도浮屠와 비碑는 표훈사表訓寺에 건립되었는데, 문인 가운데 준기俊機와 도안道安 등이 스님이 주석하였던 해남 대둔사에 따로 부도와 비를 세웠다. 제자가 수백 명에 달하였으며, 그 중에서 특히 상봉정원霜峰淨願, 월담설계月潭雪霽, 월저도안月渚道安, 기영서운奇

1) 다음에 나오는 13대종사와 13대강사에 관련된 기록은 한국불교연구원, 『대홍사』(『한국의 사찰』 10, 일지사, 1977)를 참고하였다. 설명이 없는 경우는 2장에서 이미 언급한 인물들이므로, 2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影瑞雲 등이 상수<sup>上首</sup>로 손꼽히는 수제자들이다.

(2) 취여삼우<sup>醉如三愚</sup> 대종사(1622~1684)

취여 스님의 속성은 정씨<sup>鄭氏</sup>이며 강진현<sup>康津縣</sup> 보암방<sup>寶巖坊</sup> 구정리<sup>九亭里</sup> 출신이다. 어릴 때 출가하여 만덕산<sup>萬德山</sup> 백련사<sup>白蓮社</sup>에서 승려가 되었다. 취여 스님은 여러 곳에서 내외전<sup>內外典</sup>을 공부했으며, 해운경열<sup>海運敬悅</sup> 스님께 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해운 스님은 청허 스님의 문하 소요태능<sup>逍遙太能</sup> 스님의 상수였으므로 취여 스님은 청허 스님의 증손이 되는 셈이다. 취여 스님이 대둔사 상원루<sup>上院樓</sup>에서 화엄종지를 강의할 때면 인근 주민들이 구름처럼 모여 청강했다고 한다. 1684년(숙종 10) 6월 5일 입적하니 세수 63세이다. 취여 스님의 영정은 2본이 있는데 하나는 출가 사찰인 백련사<sup>白蓮社</sup>에, 다른 하나는 대둔사에 있다.

(3) 월저도안<sup>月渚道安</sup> 대종사(1638~1715)

(4) 화악문신<sup>華嶽文信</sup> 대종사(1629~1707)

화악 스님의 속성은 김씨이고, 해남 화산<sup>華山</sup> 출신이다. 어렸을 때 대둔사에서 고권<sup>顧權</sup> 화상에게 득도하여 승려가 되었다. 그러나 화악 스님은 어려서부터 학문을 제대로 접하지 못해 학문에는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스님도 아니고 속인도 아닌(非僧非俗) 상태로 농기 구상, 품팔이 등을 전전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대둔사 상원루에서 지계를 내려놓고 잠시 쉬고 있는데 우연히 대둔사 제2대 대종사인 취여<sup>醉如</sup> 스님의 화엄종지에 관한 강론을 듣게 되었다. 그때 홀연히 느낀 바가 있었던 화악 스님은 곧 누각 위에 올라가 취여 스님에게 묘지<sup>妙旨</sup>를 전수받고자 간청하였다. 이렇게 하여 취여 스님 밑에서

화엄을 공부하게 된 화악 스님은 마침내 큰뜻을 깨닫게 되었고, 이후 많은 학자들이 스님께 찾아와 질문하고 답론하여 스님의 방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한다. 어느 날 묘향산의 월저月渚 스님이 남유南遊하는 중에 대둔사를 방문하였다. 화악 스님은 월저 스님과 함께 선지禪旨를 답론하고 화엄의 묘의妙意를 서로 겨루었는데, 화악 스님은 월저 스님이 능히 종주宗主의 자질이 있음을 간파하였다. 곧 화악 스님은 여태까지 지도하던 문도門徒 및 학인 전부를 월저 스님께 위촉하고 뒷방에 홀로 앉아 오직 면벽할 뿐 두문불출하였다. 얼마 후 묘향산으로 돌아간 월저 스님은 문도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방에 가서 육신보살肉身菩薩을 친견하였다”고 하였다. 화악 스님은 1707년(숙종 33) 6월 26일에 입적하였으니 세수 79세였다. 다비하여 사리 2과를 얻어 대둔사에 부도와 비를 세웠다.

(5) 설암추봉雪巖秋鵬 대종사(1651~1707)

(6) 환성지안喚惺志安 대종사(1664~1729)

(7) 벽하대우碧霞大愚 대종사(1676~1763)

벽하 스님의 속성은 박차씨이다. 태어날 때부터 미간眉間에 백호白毫가 있어 보는 사람마다 기이하게 여겼다. 벽하 스님은 자라면서 모든 일을 영민하게 해결해 신동神童이란 소리를 들었다. 소년 시절에 이르러 창가에서 우는 새소리를 듣고 문득 발심하여 그 길로 조연照淵 장로를 찾아 출가하였다. 장성해서는 대둔사 제4대 대종사인 화악 스님에게 경론을 배웠고 환성 스님에게서는 선을 익혔으며 고

압孤鴨 스님에게서는 참법懺法을 익혔다. 벽하 스님이 인연을 맺고 은사로 모신 분들은 모두 청허 스님의 5대손이었다. 벽하 스님은 기개가 높고 장부의 기품이 있어 매사를 처리할 때 조금도 비굴함이 없었다. 불교의 여러 경전은 물론이거니와 역사를 비롯한 다른 학문까지도 섭렵하여 유학자儒學者들 사이에도 명망이 높았다. 만년에는 선시禪詩와 조사들의 오도개悟道偈를 좋아하여 늘 책을 잡고 놓지 않았다. 벽하 스님은 특히 『염송설화拈頌說話』를 좋아하여 늘 탐독했으며, 그 책에 오류가 많음을 지적하며 스스로 교정하였다. 환성 스님이 쓴 시 가운데 “우리 나라의 대종장大宗匠 벽하 장로, 한 입에 서강만리수西江萬里水를 모두 삼켰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바로 벽하 스님의 박학다식함을 나타낸 것이다. 벽하 스님은 1763년(영조 39) 6월에 입적하니 세수 88세였다. 문도들은 다비하여 정골頂骨 1편과 사리 1과를 얻어 탑과 비를 대둔사에 세웠다.

#### (8) 설봉회정雪峰懷淨 대종사(1678~1738)

설봉 스님의 속성은 조홉씨이며 낭주郎州(지금의 영암) 출신이다. 9세 때 달마산達摩山 조명照明 장로의 권유로 입상했다가 16세 때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다. 이후 화악 스님에게 경론을 배우고 법을 이어받았다. 종지를 밀수密受한 후 여러 경전을 참구하여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증명하는 것에 능하였으므로 남방의 모든 승려들은 설봉 스님을 ‘선림종주禪林宗主’라 불렀다. 설봉 스님은 일상 생활에서 일체의 허례 허식을 배제하였다. 그리하여 입고 있는 장삼이 남루하게 떨어져도 기워 입지 않았고, 머리도 깎지 않아 더벅머리인 채로 지냈다. 생활이 검소하고 청빈하기 이를 데 없어 누더기옷과 밥그릇

이 스님이 소지한 물건의 전부였다. 만년에 설봉 스님은 해도海島에 들어가 '야은野隱' 이라는 편액을 단 초암草庵을 짓고 홀로 살았다. 초방草房에서의 은둔 생활 끝에 설봉 스님은 1738년(영조 14) 6월 8일에 입적하였다. 다비하여 사리 1과와 영주靈珠 1매를 얻었으며 미황사美黃寺에 탑을 세웠다.

(9) 상월새봉霜月靈蔚대종사(1687~1767)

(10) 호암체정虎巖體淨 대종사(1687~1784)

호암 스님의 속성은 김씨이며, 어렸을 때 출가하여 환성 스님에게 법을 전수받았다. 오랫동안 영남의 명찰 통도사와 해인사에 머물면서 후학을 지도했는데 늘 법을 구하는 탁인들이 수백 명 가량 운집했다고 전한다. 『고기古記』에 따르면 호암 스님은 대둔사의 정진당精進堂에서 화엄법회를 열었다. 만년에 스님은 금강산 표훈사의 원통암에서 지냈으며 1784년(정조 8) 홀연히 입적하였다. 문인 중에서는 특히 설과상언雪坡常彦, 연담유일蓮潭有一, 해암신초海巖信初, 만화원오萬化圓悟, 연해광열燕海廣悅, 영곡영우靈谷永愚 등이 고덕한 제자이다.

(11) 함월해원涵月海源 대종사(1691~1770)

(12) 연담유일蓮潭有一 대종사(1720~1799)

(13) 초의의순草衣意恂 대종사(1786~1866)

## 2. 13대강사

대둔사의 13대강사로 꼽히는 스님들은 모두 제10대 대종사인 호암 스님의 문도들이다.

### (1) 만화원오萬花圓悟 대강사(1694~1758)

만화 스님의 속성은 이李子이며 해남 출신이다. 만화 스님은 원래 수군水軍 군영의 공생貢生이었으며, 대둔사에서 출가하였다. 만화 스님은 호암虎巖 스님을 뵈고 공부한 지 여러 해 만에 여러 대승경전의 오묘한 이치에 통달하였다. 이후 만화 스님은 금강산, 묘향산, 오대산 등을 두루 역방歷訪 하다가 인허해안印虛海岸 스님을 만났다. 오대산에서 만화 스님은 상원上院에 있으면서 39품품의 종지를 밝혔는데, 학인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고 한다. 만년에는 참선으로 후학을 지도하는 구경법究竟法을 행하며 잠시도 수행을 멈추지 않았다. 만화 스님은 1758년(영조 34) 8월 7일 입적했으며 세수 65세였다. 문도들 중에는 은봉두예隱峯斗藝가 가장 뛰어난 제자이다.

### (2) 연해광열燕海廣悅 대강사

연해 스님은 해남 출신으로 출생 시기와 행적이 분명하지 않는데, 『사중고기寺中古記』에 기록된 행적만이 유일하다. 호암 스님의 법사法嗣였던 연해 스님은 늘 대둔사의 약사전에서 강회講會를 개설했다. 또한 호암 스님은 성격이 호탕하고 담소하기를 좋아했으며, 일정한 형식에 얽매여 구속받는 것을 싫어하였다. 그리고 한번 정대에 들면 바위같이 움직이지 않고 신중하여 다른 사람이 감히 그 마음을 짐작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였다. 연해 스님은 선강禪講과 교강敎講

을 막론한 일세의 종주宗主로서 명성이 자자하였다.

### (3) 영곡영우靈谷永愚 대강사

호암 스님의 법사法嗣였던 영곡 스님의 행적에 대해 『사중고기寺中古記』의 기록을 보면 스님은 늘 지장전에서 범회를 주관했다고 한다. 12대 대종사인 연담 스님이 「자술연보自述年譜」에서 영곡 스님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39년(영조 15) 봄 벽하碧霞 노사가 대둔사에서 강설할 때 나(연담 스님)는 능엄경을 배웠고, 여름에 보림사에서는 용암龍巖 스님께 기신론을 배웠으며, 이듬해 취서사鷲栖寺에서는 영곡 화상에게 원각경을 배웠으니 그때 내 나이 31세였다.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영곡 스님은 연담 스님의 스승 또는 범행法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4) 나암승제懶庵勝濟 대강사

원래 쌍봉사雙峯寺의 승려로 소요태능逍遙太能 스님의 후예이다. 나암 스님은 설담雪潭 스님에게 사교를 배웠고, 설과상언雪坡常彦 스님에게 대교大敎를 익혔다. 나암 스님은 설과 스님에게 인가를 받고 우연히 대둔사에 들렀다가 설담 스님 밑에 입실하게 되었다. 그 인연으로 나암 스님은 대둔사의 정진당精進堂에서 강회講會를 조직하여 정기적인 범회를 개설했는데, 동참하는 학인들이 수백 명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만년에 이르러 나암 스님은 화엄경을 배웠던 설과 스님이 머물렀던 지리산으로 가 그곳에서 입적하였다. 문하로는 소위 삼담三潭이라 일컫

는 춘담春潭, 화담花潭, 운담雲潭이 있다.

(5) 영파성규影波聖奎 대강사

영파 스님은 함월涵月 스님의 법사法嗣였다고 하는데, 늘 대둔사의 약사전에서 강회를 열었다. 은봉두예隱峯斗藝 스님은 “연담 화상이 입적한 뒤로 다문多聞으로나 덕망으로나 영파 스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었다”고 회고하였다.

(6) 운담정일雲潭鼎駟 대강사

운담 스님은 추월산秋月山 승려로 소요태능 스님의 후예라 한다. 제4대 대강사인 나암 스님의 사제嗣弟이기도 하다. 운담 스님은 늘 대둔사의 정진당에서 강회를 개설하였다. 저술로는 『운담시문집雲潭詩文集』이 남아 있다.

(7) 퇴암태관退庵泰權 대강사

퇴암 스님은 설파 스님의 법사이며, 호암 스님의 법손法孫이다. 퇴암 스님은 청운당靑雲堂에서 강회를 개설했다고 전한다. 특히 화엄학의 대가로서 성품이 엄준하여 고요한 곳을 찾아 참선을 즐겼으며 번잡한 것을 싫어했다. 지리산에서 오래 은거하다 대중의 간청으로 대둔사에서 법회를 열었으나, 만년에는 다시 지리산으로 돌아갔다. 부도와 탑은 담양 용흥寺龍興寺에 세워졌다.

(8) 벽담행인碧潭幸仁 대강사

벽담 스님은 청허 스님의 법제法弟인 부휴浮休 스님의 후예이다. 또한

『고기古記』에 따르면 영해影海 스님의 법손이며 풍암 스님의 직계 제자라 한다. 청허 스님이 법회를 주관하던 곳은 대둔사의 승당이였다.

(9) 금주복혜錦洲福慧 대강사

금주 스님은 대둔사의 네번째 대종사인 화악 스님의 증손이며, 벽허碧虛 스님의 손孫, 월파月坡 스님의 사법嗣法 제자이다. 속성은 권權씨이며, 원래 성격이 호탕하고 대장부의 기개가 있었다. 대둔사에 서는 그 인품을 높이 평가하여 금주 스님에게 미약한 당시의 불문佛門을 다시 현양顯揚시켜 줄 것을 간청하여 스님은 대둔사에 머물면서 용화당龍華堂에서 법회를 열었다고 전한다.

(10) 완호윤우琬虎尹佑 대강사(1758~1826)

완호 스님은 전남 해남군 별진別津 출신이다. 13세에 출가하여 두륜산 서일瑞日 스님께 17세에 구족계를 받았다. 백련白蓮 스님에게 교학을 익히고 연담 스님으로부터 선참禪懺을 배웠다. 이후 완호 스님은 백련 스님의 법을 이어받았다. 의발을 전해 받은 완호 스님은 만행 길에 나서 불호사佛護寺 일봉암日封庵, 쌍계사 보현암(1796), 도감사 하동암下東庵(1997) 등지에서 주석하였다. 1798년 완호 스님은 본사인 대둔사에서 강경講經 대법회를 주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그 해 10월 대둔사 청풍요를 주석처로 삼아 백여 명의 학인들을 지도하였다. 1803년 완호 스님은 연담 스님의 비석을 건립하였다. 1811년 2월 24일 대둔사에 큰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불은 가허루駕虛樓 아래에서 일어나 가허루는 물론 천불전·대장전大藏殿·용화당·팔해당八解堂·적조당寂照堂·지장전·약사전·향로전

香爐殿 등 아홉 동의 건물을 하룻밤 사이에 잣더미로 만들었다. 다행히도 보현전·청풍료·정진당만은 불타지 않았다. 다음 해에 완호 스님이 법당 중건을 도모하니 은봉隱峯 스님과 도감都監 새순靈絢 스님이 협력하여 1813년 5월 극락전·용화당·지장전의 완성을 보았다. 1817년 완호 스님은 다시 불사를 일으켜 천불전을 지었으며 그 안에 봉안할 천불은 경주 옥돌로 조성하였다.

완호 스님이 일선에서 물러나 한산전寒山殿에 주석하고 있던 1826년(순조 26) 어느 날 스님의 꿈에 16명의 스님들이 나타나 “들으니, 스님께서 어디론가 떠나신다고 하기에 특별히 찾아와 작별 인사를 나누려 합니다” 라고 말했다. 꿈을 깬 완호 스님은 “16 나한들께서 작별 인사를 하니 내 삶의 인연이 다 하였구나” 라고 하였다. 과연 그 말대로 그 해 8월 23일 한산전에서 입적하니 세수 69세, 승랍 53년이 었다. 완호 스님의 부도탑은 두륜산 좌측에 세웠고 탑의 오른쪽에 비석을 세웠다. 비문은 상국相國 권돈인權敦仁이 지었다. 특히 완호 스님에게는 뛰어난 제자들이 많았는데 덕행에는 성묵聖默·호의縞衣·하의荷衣 스님이, 언변에는 환봉煥峰·중화中和·영서靈瑞 스님이, 정사政事에는 설암雪岩·치암痴庵 스님이, 문학에는 화담華潭·초의草衣 스님을 들 수 있다.

#### (11) 낭암시연郎巖示演 대강사

스님의 법명은 시연示演, 법호는 낭암郎巖이며 전남 영암靈岩 사람이다. 스님의 출생 및 출가·입적 연대는 전해지지 않고 다만 영암에서 태어나 인근 달마산으로 출가하였다는 사실만 알려져 있다.

스님은 설봉雪峰(대둔사 제8대 대종사, 1678~1738)·벽하碧霞(대둔

사 제7대 대종사, 1676~1763) 스님 문하에서 불교 전적과 외전을 공부하였고, 송암松庵 스님의 법을 이은 제자가 되었다. 스님이 대둔사 약사전에서 『화엄경』 법회를 열었더니 제방에서 학자 수백 명이 모여 대성황리에 회향했다. 스님은 본디 성품이 질박質朴 신실信實하여 조금도 꾸밈이 없었고, 계율을 철저히 지켜 몸가짐을 엄정히 하였으며 가르침의 바다(敎海)를 조용히 비추며 그 참뜻을 음미하였다. 스님의 명망이 날로 높아가자 찾는 이들이 문 안을 메우고 인근 마을의 길이 닳아버릴 지경이었다. 공부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얽히고 설킨 문제를 명석하게 풀어주자 모두들 돌아갈 때는 ‘왜 그것을 미처 몰랐을까’라며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는 것이었다. 스님의 비석은 달마산에 세워져 있는데 감역監役 정학연 丁學淵이 비문을 지었다.

(12) 아암혜장兒庵惠藏 대강사(1772~1811)

(13) 범해각안梵海覺岸 대강사(1820~1896)

### 3. 유물과 지정 문화재

#### 1. 표충사의 유물

표충사 내에 소장되어 있는 사중寺中 유물에 관해서는 한국불교연구원에서 펴낸 『대홍사』<sup>2)</sup>의 기록과 대원사에서 펴낸 『대홍사』<sup>3)</sup>의 '표충사 유물 목록'을 비교해 보겠다. 유물 목록에 있어 차이가 나는 것은 서술상의 편의나 추후의 변동 상황에 따른 것이겠으나, 여기서는 두 기록 모두 서술하겠다(현재 대부분의 주요 유물은 대둔사 경내에 새로 지은 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 (1) 한국불교연구원에서 펴낸 표충사 유물 목록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宣祖下賜 玉鉢	2	大: 口徑 21,5cm / 高 10cm 中: 口徑 16cm / 高 6,5cm 小: 口徑 12,5cm / 高 5cm	
翡翠玉鉢	1		
수저	1		
금란가사	1		
금자병풍	1	6폭(1폭 163×70cm)	
표충사총섭 司命牌	1		
청허휴정 친필	1권	31×21cm	
사명유정 친필	1권	31×21cm	
청허휴정 교지 1 法螺			
청허휴정 신발(실내화)	2족	26×8cm	
초의의순 작 관음도	2폭	155×78cm	
대광명전 상량문	1폭	58,5×52cm	草衣作
銀泥 부모은중경	1권	194×13cm	蝴蝶帖, 有卦, 子母線
金泥 범화경	1권	230×9cm	蝴蝶帖, 無卦
金泥 금강경 1권			

2) 한국불교연구원, 『대홍사』(『한국의 사찰』 10, 일지사, 1977), 97~98쪽.

3) 『대홍사(대둔사)』(빛갈 있는 책들 155, 대원사, 1994), 144쪽.

銀字 범화경			
銀泥 대보적경	2册	31×11cm	有卦無子母線
銀泥 무인동자경(권하)	1册	29×11cm	有卦無子母線
銀泥 화엄경	1册	29,5×11cm	有卦無子母線
受菩薩戒儀	1册		南岳沙門釋惠思撰
金泥 범화경	1册	25,5×9cm	無卦無子母線
오백 나한도	1册	500매	唐畫眞作
신라 금동여래입상	1구		
고려 금동여래입상	1구		
조선 청동탄생불	1구		
僧軍團 표지물	10		日傘, 창, 나무, 도끼 등
철제 방패	1		
표충사 보장록 병풍			
塔山寺 銅鐘		口徑 43cm / 高 79cm	고려 시대
표충사 賜額時祭文			

(2) 대원사에서 펴낸 표충사 유물 목록

명 칭	수 량	크 기
금란가사	1	黃絹金絲 90×240cm
玉鉢	3	대: 높이 9.6cm, 입지름 21.5cm 중: 높이 6.7cm, 입지름 16.0cm 소: 높이 5.0cm, 입지름 12.5cm
수저	1	銅製
신발	2	革製 26×8cm
염주	2	琥珀, 七寶
四家錄精選	1	紙本墨書 冊 35×20.3cm
教旨	2	紙本墨書 86.3×80cm, 1602년 69×105.6cm, 1788년
승군단 표지문	10	
방패	1	銅製 18kg(30근)
法螺	2	
표충사총섭사명패	1	象牙製
표충사사액시제문	1	紙本墨書 折帖 1789년, 宋翼孝撰
청허휴정 화상당명	1	絹本墨書 69.8×175.5cm 1794년, 正祖筆
표충사 寶藏錄	1	紙本墨書, 六曲屏風, 1846년, 申觀浩筆

## 2. 지정 문화재 현황

구 분	명 칭
보물 제48호	대둔사북미륵암마애여래좌상(1구)
보물 제88호	탑산사동종(1구)
보물 제301호	대둔사북미륵암3층석탑(1기)
보물 제320호	대둔사응진전3층석탑(1기)
유형문화재 제48호	대둔사천불전(1동)
유형문화재 제52호	대둔사천불상(1000구)
유형문화재 제57호	대둔사청허휴정부도(1기)
유형문화재 제93호	대둔사용화당(1동)
유형문화재 제94호	대둔사대광명전(1동)
유형문화재 제166호	대둔사청허휴정유물(일괄, 6종 3점)
유형문화재 제167호	대둔사정조친필청허휴정화상당명(1매)
유형문화재 제179호	대둔사관음보살도(2매)
기념물 제19호	표충사(일원)
문화재 자료 제78호	대둔사(일원)

#### 4. 결어

이상으로 청허휴정 스님 이후 대둔사에 주석했거나 관련 있는 고승들의 문집에 수록된 다시茶詩 그리고 차와 관련된 산문 형식의 글을 바탕으로 조선조와 일제 강점기 대둔사의 다맥을 살펴보고, 1945년 광복 이후로는 일지암 복원과 응송 스님의 다맥 및 해남의 초의문화제를 살펴보았다. 이제 대둔사 13대종사와 13대강사 및 초의 이후 다맥을 이은 「연원도淵源圖」를 정리하여 대둔사의 다맥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 「연원도」는 한국불교연구원에서 펴낸 『대홍사』<sup>4)</sup>에 수록된 「대홍사 13대종사·13대강사 연원도」에 차와 관련된 스님(초의 선사의 범맥과 아암 스님의 범맥인 철선, 보제 스님 등)을 보완하여 필자가 나름대로 재작성한 것이다. 『동다정통고』에 의하면 응송 스님이 사미승 생활을 하던 1910년대의 대둔사에는 소요파逍遙派와 편양파鞭羊派가 같은 절 안에 각각 독립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표1>에서 보듯이 소요파에서 대종사가 4명, 대강사가 2명 배출되었고, 편양파에서 대종사가 9명, 대강사가 10명 배출된 것으로 알 수 있다.

그 외 청허 스님과 사형제간인 부휴浮休 계열에서 벽담행인碧潭幸仁이 대강사를 역임하였다. 조선 후기 우리 나라 다풍茶風을 중흥시킨 초의 선사의 범맥은 편양—풍담—월담—환성—호암—연담—초의—서암선기恕庵善機—쌍수송원雙修松源(혹은 雙修—閑)—응송 박영희—청량백운(혹은 淸涼智興)으로 이어졌다.

<표1>에 이어 이들 스님들의 생몰 연대, 남긴 다시의 수, 대둔사와

4) 『대홍사(대둔사)』(빛깔 있는 책들 155, 대원사, 1994), 144쪽.



여유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월저 스님에서 설암—환성—상월—함월—연담—아암—초의—철선—범해—보제—금명—응송으로 이어지는 대둔사의 차맥은 중단됨이 없이 장강長江처럼 연면하게 이어져 왔다. 더군다나 이들 스님은 시문집에 다시茶詩를 남김으로써 대둔사의 차맥이 끊이지 않고 계승되어 왔음을 문헌상으로 입증한 것이다.

사실 대둔사에서 차를 만들고 음다풍을 실천, 유포, 확산시킨 스님은 <표2>의 일람표에 나타난 인물의 수십 배, 수백 배도 넘을 것이다. 차를 잘 만들고 마시면서 글을 남기지 않은 스님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2>에 정리된 대둔사의 차맥을 이은 스님들은 대둔사의 역대 다승茶僧들 중 ‘빙산의 일각’ 이라 할 수 있다. 이름과 행적을 남기지 않은 대둔사의 수많은 다인茶人들을 일일이 기록하지 못하고 시문집에 다시와 차와 관련된 글을 남긴 극소수의 다승만을 ‘대둔사의 차맥을 이은 스님’으로 서술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필자 역시 역사 기록의 한계성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기 바란다.

대둔사의 다맥과 인연 깊은 스님들 중, 특히 <표2>에 정리된 고승 가운데는 대둔사가 배출한 13대종사 7명과 13대강사 2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둔사를 빛낸 고승들 중 9명이 다시와 차 관련 문장을 남겼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대둔사의 다맥을 정리하면서 조선 중기 청허 스님에서 일제 강점기 하의 금명 스님에 이르기까지 모두 13명의 다시와 일제 강점기 및 해방 후 일지암 복원과 초의 문화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2) 대둔사 다맥을 이은 고승 일람표

법호·법명	생몰연대	다시수	대둔사와의 관련 사항
청허휴정	1520~1604	9편	대둔사에 의발·금란가사·교지 등 부촉. 표충사 건립되어 있음. 진영·부도 있음.
월저도안	1638~1715	1편	13대종사 중 제3대. 비·부도 있음.
설암추봉	1651~1706	10편	13대종사 중 제5대. 사리탑 있음.
환성지안	1664~1729	1편	13대종사 중 제6대.
상월새봉	1687~1767	1편	13대종사 중 제9대. 사리탑 있음.
함월혜원	1691~1770	4편	13대종사 중 제11대. 비·부도 있음.
연담유일	1720~1799	5편 6수	13대종사 중 제12대 부도 있음. 1760년 대둔사에서 강경법회 주관함.
아암혜장	1772~1811	5편 8수	13대강사 중 제12대. 대둔사에서 출가. 비 있음.
초의의순	1786~1866	24편 29수	13대종사 중 제13대. 대둔사에서 60여 년 주석. 대둔사 차 증홍조. 일지암 건립. 부도 있음.
철선혜급	1791~1858	3편	14세에 대둔사에서 출가.
범해각안	1820~1896	29편	14세에 대둔사에서 출가. 13대강사 중 제13대. 『동사열전』 저술. 초의 선사에게 비구계 받음.
보제심여	1828~1875	2편	16세에 대둔사에서 출가. 초의 선사에게 보살계 받음.
금명보정	1861~1930	60편 66수	범해 스님에게 배움. 전후 3차례 대둔사에 있었음.
응송 박영희	1892~1990		18세(1909)에 대둔사에 출가. 1937~1954년 대둔사 주지 역임. 『東茶正統考』 저술함.

첫째, 대둔사의 다맥은 청허 스님을 포함하여 청허—월저—설  
 암—환성—상월—함월—연담—아암—초의—철선—범해—보제—  
 금명—응송으로 중단없이 연면하게 이어져 왔다. 이로써 조선 후기  
 의 차가 대둔사를 중심으로 융성했다는 기존의 학설을 구체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다맥은 사  
 자상승師資相乘 하는 법맥이 이어지듯이 계승되어 온 것은 아니다.  
 단지 대둔사의 음다풍飲茶風 전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음을

뜻할 뿐이다. 따라서 대둔사의 다맥은 기왕의 선맥禪脈, 법맥法脈, 계맥戒脈 등이 전수된 것과는 엄격히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둘째, 초의 선사가 조선 후기 한국차의 중흥조가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평지 돌출하듯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청허 스님 이래 대둔사가 배출한 고승들에 의해 계속해서 다맥이 이어져 온 결과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초의 선사가 한국차의 중흥조로 불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이미 자세히 언급했으므로 여기에서는 다시 서술 하겠다.

셋째, 초의 선사 이후 범해 스님만이 초의 선사의 다맥을 이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범해 스님 이후에도 보제 스님과 응송 스님에 의해 다맥이 계승되어 왔음을 밝혀 낸 것은 적지 않은 성과라 할 수 있다.

넷째, 광복 후 대둔사의 다맥은 응송 스님의 다맥을 이은 청량백운 淸涼白雲(혹은 淸涼智興)과 재가 제자 박동춘에 의해 이어졌는데, 무엇보다 일지암의 복원은 대둔사 다맥의 계승을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초의문화제를 개최함으로써 차에 대한 관심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가고 있다.

청허 스님 이래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대둔사의 다맥을 살펴본 이 책이 우리 나라의 다맥을 밝히는 데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기를 기대 해 본다.

# 예문서원의 책들

## 원전총서

복계자의 陳淳 지음 · 김충열 감수 · 김영민 옮김 · 295쪽 · 값 12,000원 · 『北溪字義』  
역학개론 - 주희 도서역의 해설 朱熹 지음 · 김상섭 해설 · 288쪽 · 값 7,000원 · 『易學啓蒙』  
고형의 주역 高亨 지음 · 김상섭 옮김 · 504쪽 · 값 18,000원 · 『周易古經今注』  
열선전 劉向 지음 · 김장환 옮김 · 392쪽 · 값 15,000원 · 『列仙傳』  
열녀전 劉向 지음 · 이숙인 옮김 · 447쪽 · 값 16,000원 · 『列女傳』  
왕필의 노자 王弼 지음 · 임채우 옮김 · 336쪽 · 값 13,000원 · 『老子王弼注』  
서경잡기 劉歆 지음 · 葛洪 엮음 · 김장환 옮김 · 416쪽 · 값 18,000원 · 『西京雜記』  
박세당의 노자 박세당 지음 · 김학목 옮김 · 312쪽 · 값 13,000원 · 『新註道德經』  
주자가례 朱熹 지음 · 임민혁 옮김 · 496쪽 · 값 20,000원 · 『朱子家禮』  
신서 劉向 지음 · 임동석 옮김 · 728쪽 · 값 28,000원 · 『新序』  
한시외전 韓嬰 지음 · 임동석 역주 · 868쪽 · 값 33,000원 · 『韓詩外傳』  
고사전 皇甫謐 지음 · 김장환 옮김 · 368쪽 · 값 16,000원 · 『高士傳』  
올곡 이외의 노자 이이 지음 · 김학목 옮김 · 152쪽 · 값 8,000원 · 『醇言』  
홍석주의 노자 홍석주 지음 · 김학목 옮김 · 320쪽 · 값 14,000원 · 『訂老』

## 강좌총서

강좌중국철학 周桂鈿 지음 · 문재곤 외 옮김 · 420쪽 · 값 7,500원 · 『中國傳統哲學』  
강좌한국철학 - 사상 · 역사 · 논쟁의 세계로 초대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지음 · 472쪽 · 값 12,000원

## 한국철학총서

한국철학사상사 朱紅星, 李洪淳, 朱七星 지음 · 김문용, 이홍용 옮김 · 548쪽 · 값 10,000원 · 『朝鮮哲學思想史』  
실학파의 철학사상 주칠성 지음 · 288쪽 · 값 8,000원  
윤사순 교수의 신실학 사상론 - 한국사상의 새 지평 윤사순 지음 · 350쪽 · 값 10,000원  
실학의 철학 한국사상사연구회 편저 · 576쪽 · 값 17,000원  
조선 유학의 학파들 한국사상사연구회 편저 · 688쪽 · 값 24,000원  
윤사순 교수의 한국유학사상론 윤사순 지음 · 528쪽 · 값 15,000원  
실학사상과 근대성 계명대학교 철학연구소 홍인식의 지음 · 216쪽 · 값 7,500원  
조선 유학의 자연철학 한국사상사연구회 편저 · 420쪽 · 값 15,000원  
한국유학사 1 김충열 지음 · 372쪽 · 값 15,000원  
퇴계의 생애와 학문 이상은 지음 · 248쪽 · 값 7,800원  
올곡학파의 선구와 후예 황의동 지음 · 480쪽 · 값 16,000원  
退溪門下의 인물과 사상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지음 · 732쪽 · 값 28,000원  
한국유학과 리기철학 송영배 · 금장태 외 지음 · 304쪽 · 값 10,000원  
圖說로 보는 한국 유학 한국사상사연구회 지음 · 400쪽 · 값 14,000원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유학사 - 일제 황국사민의 빛과 그림자 다카하시 도루 지음 · 이형성 편역 · 416쪽 · 값 15,000원  
퇴계 이항 - 예 잇고 뒤를 열어 고금을 꿰뚫으셨소 신귀연 지음 · 328쪽 · 값 12,000원

## 노장총서

도가를 찾아가는 과학자들 - 현대신도가의 사상과 세계 董光璧 지음 · 이석명 옮김 · 184쪽 · 값 4,500원 · 『當代新道家』  
노자철학과 도교 許抗生 지음 · 노승현 옮김 · 232쪽 · 값 6,000원 · 『老子與道家』  
유학자들이 보는 노장 철학 조민환 지음 · 407쪽 · 값 12,000원  
노자에서 데리다까지 - 도가 철학과 서양 철학의 만남 한국도가철학회 엮음 · 440쪽 · 값 15,000원  
유학자들이 보는 노장 철학 조민환 지음 · 407쪽 · 값 12,000원  
유진현학 정세근 엮음 · 275쪽 · 값 10,000원

## 성리총서

양명학 - 왕양명에서 웅심력까지 楊國榮 지음 · 정인재 감수 · 김형찬, 박경환, 김영민 옮김 · 414쪽 · 값 9,000원 · 『王學通論』  
상산학과 양명학 김길락 지음 · 391쪽 · 값 9,000원  
동아시아의 양명학 최재복 지음 · 240쪽 · 값 6,800원  
범주로 보는 주자학 오하마 아키라 지음 · 이형성 옮김 · 546쪽 · 값 17,000원 · 『朱子의 哲學』  
송명성리학 陳來 지음 · 안재호 옮김 · 590쪽 · 값 17,000원 · 『宋明理學』  
주자학의 인간학적 이해 이강대 지음 · 200쪽 · 값 7,000원

## 카르마총서

불교와 인도 사상 V. P. Varma 지음 · 김형준 옮김 · 361쪽 · 값 10,000원  
파란노 스님의 한국 선 수행기 Robert E. Buswell Jr. 지음 · 김종명 옮김 · 376쪽 · 값 10,000원  
학파로 보는 인도 사상 S. C. Chatterjee · D. M. Datta 지음 · 김형준 옮김 · 424쪽 · 값 13,000원  
불교와 유교 - 성리학, 유교의 뜻을 입은 불교 아라키 겐고 지음 · 심경호 옮김 · 526쪽 · 값 18,000원  
유식무경, 유식 불교에서의 인식과 존재 한자경 지음 · 200쪽 · 값 7,000원

## 강의총서

김충열 교수의 유가윤리강의 김충열 지음 · 182쪽 · 값 5,000원  
김충열 교수의 노장철학강의 김충열 지음 · 336쪽 · 값 7,800원

## 일본사상총서

일본신도사 무라오카 츠네즈구 지음 · 박규태 옮김 · 312쪽 · 값 10,000원 · 『神道史』  
도쿠가와 시대의 철학사상 미나모토 료엔 지음 · 박규태, 이용수 옮김 · 260쪽 · 값 8,500원 · 『徳川思想小史』  
일본인은 왜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가 아마 도시마로 지음 · 정형 옮김 · 208쪽 · 값 6,500원 · 『日本人はなぜ 無宗教なのか』

## 동양문화산책

공자와 노자, 그들은 물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사라 알란 지음 · 오만중 옮김 · 248쪽 · 값 8,000원  
주역산책 朱伯崑 외 지음 · 김학권 옮김 · 260쪽 · 값 7,800원 · 『易學漫步』  
죽음 앞에서 곡한 공자와 노래한 장자 何顯明 지음 · 현채연, 리길산 옮김 · 290쪽 · 값 9,000원 · 『死亡心態』  
공자의 이름으로 죽은 여인들 田汝康 지음 · 이재정 옮김 · 248쪽 · 값 7,500원  
중국 예로 읽는 봉양의 역사 王琦珍 지음 · 김용엽 옮김 · 260쪽 · 값 8,000원 · 『禮與傳統文化』  
동양을 위하여, 동양을 넘어서 홍원식 외 지음 · 264쪽 · 값 8,000원  
서원, 한국사상의 숨결을 찾아서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지음 · 344쪽 · 값 10,000원  
중국의 지성 5인이 뽑은 고전 200 王燕均, 王一平 지음 · 최승세 옮김 · 408쪽 · 값 11,000원 · 『國學名著200種』  
안동 금계 마을 - 천년불패의 땅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지음 · 272쪽 · 값 8,500원  
녹차문화 홍차문화 초노야마 사가에 지음 · 서은미 옮김 · 232쪽 · 값 7,000원 · 『茶の世界史』  
이 땅에서 우리 철학 하기 윤천근 지음 · 280쪽 · 값 8,500원  
안동 풍수 기행, 와혈의 땅과 인물 이완규 지음 · 256쪽 · 값 7,500원  
안동 풍수 기행, 들혈의 땅과 인물 이완규 지음 · 328쪽 · 값 9,500원

## 예술철학총서

중국철학과 예술정신 조민환 지음 · 464쪽 · 값 17,000원  
종류정신으로 보는 중국문학사 최병규 지음 · 400쪽 · 값 15,000원

## 근현대총서

현대신유학 鄭家棟 지음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편전사분과 옮김 · 400쪽 · 값 7,800원 · 『現代新儒學概論』  
모택동 사상과 중국철학 畢劍樞 지음 · 이철승 옮김 · 312쪽 · 값 10,000원 · 『毛澤東與中國哲學傳統』

## 한의학총서

한의학과 유교 문화의 만남 林殷 지음 · 문계근 옮김 · 344쪽 · 값 10,000원 · 『儒家文化與中醫學』

## 연구총서

논쟁으로 보는 중국철학 중국철학연구회 지음 · 352쪽 · 값 8,000원  
논쟁으로 보는 한국철학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지음 · 326쪽 · 값 10,000원  
논쟁으로 보는 불교철학 이효걸, 김형준 외 지음 · 320쪽 · 값 10,000원  
김충열 교수의 중국철학사 1 - 중국철학의 원류 김충열 지음 · 360쪽 · 값 9,000원  
반논어 - 孔子的논어 孔丘의논어 趙紀彬 지음 · 조남호, 신정근 옮김 · 768쪽 · 값 25,000원 · 『論語新探』  
중국철학과 인식의 문제 方立天 지음 · 이기훈 옮김 · 208쪽 · 값 6,000원 · 『中國古代哲學問題發展史』  
문제로 보는 중국철학 - 우주·본체의 문제 方立天 지음 · 이기훈, 황지원 옮김 · 232쪽 · 값 6,800원 · 『中國古代哲學問題發展史』  
중국철학과 인식의 문제 方立天 지음 · 박경환 옮김 · 191쪽 · 값 6,800원 · 『中國古代哲學問題發展史』  
중국철학과 지형의 문제 方立天 지음 · 김학재 옮김 · 208쪽 · 값 7,200원 · 『中國古代哲學問題發展史』  
중국철학과 이상적 삶의 문제 方立天 지음 · 이홍용 옮김 · 212쪽 · 값 7,500원 · 『中國古代哲學問題發展史』  
현대의 위기 동안 철학의 모습 중국철학회 지음 · 340쪽 · 값 10,000원  
동아시아의 전통철학 주철성 외 지음 · 394쪽 · 값 13,000원  
역사 속의 중국철학 중국철학회 지음 · 448쪽 · 값 15,000원  
일곱 주제로 만나는 동서비교철학 陳衛平 편저 · 고재욱, 김철운, 유성선 옮김 · 320쪽 · 값 11,000원 · 『中西哲學比較面面觀』  
중국철학의 이해 김득만, 강윤수 지음 · 318쪽 · 값 10,000원  
중국철학의 이단자들 중국철학회 지음 · 240쪽 · 값 8,200원  
유교의 사상과 의례 금상태 지음 · 296쪽 · 값 10,000원  
공자의 철학 蔡仁厚 지음 · 240쪽 · 값 8,500원 · 『孔孟荀哲學』  
맹자의 철학 蔡仁厚 지음 · 224쪽 · 값 8,000원 · 『孔孟荀哲學』  
순자의 철학 蔡仁厚 지음 · 272쪽 · 값 10,000원 · 『孔孟荀哲學』  
서양문화에 비친 동양의 사상 한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엮음 · 360쪽 · 값 12,000원  
유학은 어떻게 현실과 만났는가 - 선진 유학과 현대 경학 박원재 지음 · 216쪽 · 값 7,500원

## 역학총서

주역철학사 廖名春, 康學偉, 梁華菴 지음 · 심경호 옮김 · 944쪽 · 값 30,000원 · 『周易研究史』  
주역의 주역의 사상인가 도가의 사상인가 陳鼓應 지음 · 최진석, 김갑수, 이석명 옮김 · 366쪽 · 값 10,000원 · 『易傳與道家思想』  
왕부지, 주역철학 - 기철학의 집대성 김진근 지음 · 430쪽 · 값 12,000원  
송재극 교수의 주역 풀이 송재극 지음 · 380쪽 · 값 10,000원